

QA시스템
聖經研究
시리즈

20

잠언

HB 기독교지혜사

성서연구원

BIBLE RESEARCH GROUP

지는 않는다.

- (2) 일시적으로는 과도히 아낄 때 부가 모아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후에 과도히 아낀 것 때문에 지출을 그 배로 하여야 할 경우가 생기게 된다.
- (3) 그리하여 결국은 부를 제대로 쓸 곳에 쓰지도 못하고 부의 손실만 입게 되니 이중의 낭패가 닥치고 만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부하기를 피하여서 고민하지 말고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分福) 안에서 쓸 것은 쓰고, 아낄 것은 아끼는 자가 되어야 한다.

18. ㉠ 어떤 사람이 풍족(豐足) 해지고, 윤택(潤澤) 해지는가? (25절)

- ㉠** (1) 구제를 좋아하는 자가 풍족(豐足)해지고, 남을 윤택(潤澤)케 하는 자가 윤택해진다.
- (2) 위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보편적인 원칙이 개인주의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즉 사회 속에서 어떤 개인 혼자만 풍족해지고 윤택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 풍족과 윤택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함께 풍족하고 윤택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 (4)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더 큰 자비를 받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였다(참조, 눅 6:36, 38).
- (5)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이기적(利己的)인 고집과는 반대되는 것이니 성도들은 자기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즐겨 순종함으로써 축복받는 자가 되자.

19. ㉠ 상거래에서 어떤 자가 백성에게 저주(詛呪)를 받으리라고 하였는가? (26절)

- ㉠** (1) 상거래에서 ‘곡식을 내지 않는 자’가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였다.
- (2) 그런데 본절에서 ‘곡식을 내지 않는 자’란 시(時)도 때도 없이 곡식을 내지 않는 자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다.
- (3) 이들은 곡식과 생활 필수품들을 매점 매석(買占賣惜)하였다가 그런 생필품(生必品)이 품귀(品貴)가 될 때 비싼 값에 내놓아 폭리를 취하는 자들이다.
- (4) 그러므로 이런 자들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게 된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이런 자들을 가만 두시지 않으신다(참조, 암 8:4-10).

20. ㉠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무엇을 얻게 되는가? (27절)

- ㉠** (1)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 즉 선한 것을 위해 열심 있는 자는 은총을 얻게 된다.
- (2) 이 말씀에서 선한 것, 즉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무 노력 없이 되어지는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3)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과는 거리가 있는 말씀이다.
- (4) 즉 이 말씀은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임을 대전제로 하고서 사람이 선을 행하는 일이다 자기의 힘과 마음과 온 정성을 다 바쳐야 함을 말한다(참조, 출 20:1-17; 마 22:37-40; 갈 6:9).
- (5) 이러한 노력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할 일인데 이런 일에 헤아릴 수 없는 은총을 얻게 하리라는 약속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은혜에 감격케 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게 한다(참조, 시 100:1-5).

21. ㉠ 푸른 잎사귀같이 번성(蕃盛) 할 자는 누구인가? (28절)

- ㉠** (1) 그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정도(正道)를 걷는 사람이다.
- (2) 이러한 자가 의인인데 그는 홀로 무슨 특별한 것을 행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정하신 법도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자기의 할 바를 행한다.
- (3) 그리하여 만유(萬有)의 주(主)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모든 것들을 풍부하게 해주시므로 그가 번성케 된다.

- (4) 그런데 이러한 복된 길을 버리고 사람이 의지할 것이 못 되는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스스로 패망케 될 수밖에 없다(참조, 마 6:24).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참조, 딤후 6:17).

22. **㉠**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 (29절)

- ㉠** (1) 그는 게으름과 악한 술수와 험뜯기 좋아하는 나쁜 습성으로 해서 자기 가족과 집안 식구들을 괴롭히고 근심시키는 자이다.
- (2) 그러나 가장 그 집을 해롭게 하는 자는 온 집안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려 하는 것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자이다.
- (3) 그런 자는 아무리 많은 재물을 벌어들인다 해도 가정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을 방해하고 가정을 황폐케 하고 만다.
- (4) 그렇지만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는 결국 실패해서 지혜로운 자에게 구제를 요청하게 되고 만다.

23. **㉠** 지혜로운 자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30절)

- ㉠** (1) 지혜로운 자는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고,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므로(참조, 단 12:3) 사람을 얻게 된다.
- (2) 이러한 진리를 안 바울은 고전 9:19에서 자기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 (3) 비단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함을 알고 무엇보다 사람 얻는 일에 힘써야 한다.

24. **㉠** 본절은 어떤 말로 시작하고 있는가? (31절)

- ㉠** (1) 본절은 '보라'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
- (2) 이 말은 사람들의 주의(注意)를 불러일으키면서 그 다음에 오는 훌륭한 교훈에 정신을 차려 귀를 기울이게 한다.

25. **㉠** 의인과 악인의 보응(報應) 문제에 대하여 본절은 어떤 진리를 말하고 있는가? (31절)

- ㉠** (1) 본절에서는 의인과 악인에 대한 보응이 세상에서도 있음을 분명하게 말한다.
- (2) 그러한 인간 보응은 우연이나 자연적인 순리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발생한다(참조, 시 58:11).
- (3)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이 세상에서의 이러한 보응을 보면서 장차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분명히 있음을 깨닫는다(참조, 히 9:27, 28).
- (4) 만약 의인이 극히 작은 상조차 받을 가치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 땅에서 저희 보상의 몫을 얻는다면, 최대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악인은 장차 올 극형에 대한 증거로 세상에서 저희 벌의 몫을 더 많이 받을 것이 아닌가!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두려워 떨며 악에서 떠나 여호와만 경외해야 한다.

<p><u>본장의 요절</u></p>	<p>'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케 하느니라' (3절).</p>
----------------------	---

연구자료

구제의 성경적 의미

본장에서는 구제를 좋아하는 자가 풍족하게 되며 부하게 된다고 강조하였다(24, 25절). 이처럼 구제는 부하게 되는 지름길이지만 그보다는 먼저 성도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인 것이다. 따라서 본고(本稿)는 구제의 의미와 대상, 범위와 축복 등에 관한 사항들을 살펴보면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행해야 할 구제 의무에 대하여 논하려 한다.

1. 구약에서의 구제

구약에서는 가난한 자와 과부, 고아를 돌보는 자선적인 성격의 구제가 요구되었다. 율법에서는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추수하지 말고 남겨 놓으며,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고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도 한 번 썬 후에 남은 열매를 줍지 말고 그대로 두어 가난한 자나 고아, 과부, 나그네들이 취할 수 있게 하라고 명하였다(레 19:9, 10; 23:22; 신 24:19-22). 또한 가난한 사람이나 배고픈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밭이나 포도원에서 배를 채우는 것도 허락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마다 소득의 10분의 1을 바쳐 레위인이나 나그네, 고아와 과부를 돕는 일에 사용하였다(신 14:28, 29). 그리고 밭은 7년마다 갈지 않고 남겨 두어 백성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소산물을 먹을 수 있게 하였다(출 23:11). 이와 같이 가난한 자와 배고픈 자, 또 사회적으로 나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자비를 상기하는 의미가 있었다(신 24:22).

2. 신약에서의 구제

신약 시대에 와서도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는 여전히 강조되었다(요 13:29). 그러나 그 의미는 보다 확장되고 영적인 것이 되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구제의 행위 자체보다는 그 동기의 순수성과 영적인 의미를 강조하셨던 것이다(눅 11:41). 그리스도의 구제관은 '구제 행위는 그리스도 자신을 돕는 것이며(마 25:42-46), 하늘에 각자의 보물을 쌓는 것(눅 12:33)'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당연히 구제는 은밀하게 또 자진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마 6:3). 또한 초대 교회에서도 자발적인 구제는 강조되었으며(행 4:32-35; 롬 12:13) 사도 바울도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엡 4:28)고 말하여 구제와 그리스도인의 선한 노동 사이의 관계를 밝혔다. 교회의 첫 직분자가 임명된 것도 구제 사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었다(행 6:1-6). 이와 같은 구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히 13:16)이었으며 자신의 신앙이 살아 있음을 나타내는 믿음의 표현이

있다(약 2:14-17; 요일 3:16-18).

3. 구제와 전도

구제는 영적인 동기에 의해서 행해져야 한다(눅 11:41; 12:33).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제에 힘쓸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결국 구제와 전도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들은 '사랑'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고전 13:4). 복음의 전파가 주의 명령이듯이 구제도 주께서 명하신 일이므로 성도들은 구제를 통한 은혜의 실천에 힘써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구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의 의(義)가 되기도 하며(행 10:4, 31) 보상이 약속된(참조. 사 58:7, 8) 행위이기도 하다. 결국 구제는 전도와 병행되거나 혹은 선행되어야 할 성도의 귀중한 덕목 가운데 한 가지이다.

4. 구제의 내용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은혜의 실천적 행위라면 구제의 내용은 당연히 삶의 전영역을 포함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 사업이나 의료 사업 등도 모두 구제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또한 부당하게 억압받거나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자들을 위하여 변호하는 일도(31:8, 9) 구제에 포함된다. 결국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외치는 모든 것이 구제가 될 수 있으며 이때에 성도들의 자기 희생적인 봉사는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이(마 5:13-16) 된다.

5. 결론

구제는 사랑에 근거한 행위이다. 따라서 사랑이 없이는 참된 구제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논리에서 볼 때 현대 교회에 구제가 차츰 무시되는 것은 사랑과 신앙의 적극성이 메말라 가는 현상을 반증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교회는 각성해야 한다. 교회의 헌금은 보다 사회적인 자선 사업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 물론 예배당을 훌륭하게 짓고 교인들 사이의 사랑을 나누는 일도 중요하다. 하지만 병든 자들을 돌보고 자라나는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며 고아원과 양로원을 세우고 재난을 당한 자들에게 신속하고도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 일도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이 아니겠는가. 교회는 세상을 선과 사랑으로 정복할 의무가 있다(롬 12:21). 교회와 세상은 결코 이원적(二元的)인 것이 아니다. 세상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으며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선포하고 증거할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은 선교와 구제라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참조. 딤후 4:7; 벰전 3:13).

제12장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다

단락구분 : 1-8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받는다 / 9-12 의인은 그 뿌리 때문에 결실한다 / 13-23 진실하게 입술을 사용하라 / 24-28 부지런해야 사람을 다스린다

1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정체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2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피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3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나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4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옥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썩을 같게 하느니라

5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궤홀이니라

6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어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7 악인은 엷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8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패려한 자는 멸시됨 받으리라

9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중용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체 하고도 음식이 찻질한 자보다 나으니라

10 의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나

11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12 악인은 불의의 이를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13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14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욕에 족하며 그 손의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15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됨 듣느니라

16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17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궤함을 말하느니라

18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19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20 악을 피하는 자의 마음에는 궤함이 있고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회락이 있느니라

21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양화가 가득하리라

22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히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23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 두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24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25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26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하게 하느니라

27 게으른 자는 그 잠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28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1. ㉠ 의인과 악인은 본장에서 서로 어떤 식으로 대조되고 있는가?

- ㉠ (1) 본장에서는 의인과 악인이 훈계를 좋아하고 싫어하며, 뿌리로부터 결실하는 것과 소멸되는 것으로 비교되고 있다. 또 거짓 입술과 진실한 입술이 여호와께 각기 미움과 기뻐하심을 받는 점에서 대조되고 있다.
- (2) 그리고 본장은 의인의 길에 생명과 회락이 있는 반면에 악인의 길에는 정죄와 잔인(殘忍)과 양화(殃禍)가 있음을 말한다.
- (3) 성도들은 각기 대조되는 교훈들에 주의하여 지혜자의 교훈을 따라 생명 있는 의인의 길로 가도록 해야 한다.

2. **㉠** '훈계' (訓戒)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1절)

- ㉠** (1) 훈계(訓戒)는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고 사람을 겸손케 하며, 의무에 대한 지식을 받도록 마음을 열어 주는 가르침을 말한다.
 (2) 그러므로 이런 훈계를 듣는 것이 즐겁지는 않지만 사람에게 큰 유익을 준다.
 (3)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성경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가르치고 있다(참조, 딤후 3:16).
 (4) 따라서 성도들은 성경을 통하여 훈계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나가야 하겠다.

3. **㉠** 지혜자는 징계(懲戒)를 싫어하는 자를 무엇과 같다고 하는가? (1절)

- ㉠** (1) 지혜자는 징계(懲戒)를 싫어하는 자를 짐승과 같다고 한다.
 (2) 징계는 과거의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고치게 하므로 미래에 그릇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한다.
 (3) 그런데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과거를 반성하지도 못하고 미래에 대하여 생각지도 않기 때문에 짐승과 다름없다.
 (4) 그러나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잘못이 있을 때 마땅히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날을 위해서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도록 징계를 순순히 받아야 한다(참조, 히 12:5, 6).

4. **㉠** 여호와께 은총(恩寵)을 받는 자와 징죄함을 받는 자는 각각 어떤 사람인가? (2절)

- ㉠** (1)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는 선인(善人)이고, 징죄함을 받는 자는 악을 피하는 자이다.
 (2) 여기서의 선인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가리키며, 악을 피하는 자는 그 생각이 악하여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를 가리킨다.
 (3) 그러므로 성도들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은총받는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참조, 요일 1:8).

5. **㉠** 지혜자가 대조시키고 있는 여인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4절)

- ㉠** (1) 지혜자가 대조시키고 있는 여인은 어진 여인과 지아비에게 욕(辱)을 끼치는 여인이다.
 (2) 이 두 여인은 아내로서의 동일한 역할을 하면서도 각기 그 남편에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이렇게 하여서 지혜자는 성실하게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며 남편을 내조하는 어진 아내를 칭찬하면서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진 아내를 택하도록 교훈하고 있다.
 (4) 그러므로 성도들은 각기 어진 아내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어진 아내를 택하는 지혜자들이 되어야 한다.

6. **㉠** 의인의 생각과 악인의 도모는 각기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가? (5, 6절)

- ㉠** (1) 의인의 생각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고, 악인의 도모는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2) 여기서 의인과 악인은 그 생각에서부터 서로 다름을 말하며 각각의 행위는 그 생각이 표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3)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살피는 일에 더욱 마음을 쏟을 때 바른 행위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7. **㉠** 사람이 칭찬받는 것과 멸시받는 것은 어디에 기인(起因)하게 되는가? (8절)

- ㉠** (1) 그것은 그 사람이 지혜로우냐 아니면 마음이 패려하나에 기인하게 된다.
 (2) 즉 칭찬이나 멸시나 모두 동일하게 각자가 어떠한 사람으로 행하느냐에 달려 있다.
 (3) 그러므로 성도들은 칭찬받는 일이나 멸시받는 그 자체에 신경을 쓰기 보다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떻게 행하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8. **㉠** 지혜자는 허영을 부리는 자에 대하여 어떤 훈계를 하는가? (9절)

- ㉠** (1) 지혜자는 생활이 궁핍하면서도 주재 파악을 못하고 체면만 차리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 체면이 발먹여 주지 못한다고 훈계하고 있다.
- (2) 또한 체면만 내세우고 실제로 가진 것이 없는 자로 살지 말고 비록 세상의 헛된 영광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실제 생활에서 알차게 살기를 권면하고 있다.
- (3) 이러한 교훈은 우리 나라 속담 중에 ‘냉수 마시고 이빨 쏘신다’는 것과는 정반대의 정신을 가르쳐 준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헛된 세상의 영광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겸손하고 내용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9. **㉠** 의인은 어느 정도까지 마음에 동정심을 품고 있는가? (10절)

- ㉠** (1)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은 육축의 생명을 돌아볼 만큼 그 마음에 동정심을 품고 있다.
- (2) 즉 동물의 생명에 대하여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그 이웃의 생명이나 자기의 생명에 대하여 심각한 동정심을 품고 있을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 (3) 이러한 의인의 긍휼은 하나님의 긍휼을 반사하고 있는 것이다(참조, 출20:10; 23:4, 5, 19; 신22:6, 10; 25:4).

10. **㉠** 의인의 긍휼이 피조계에까지 미치는 것에 반하여 악인의 긍휼은 어떤 것에 불과한 것인가? (10절)

- ㉠** (1) 의인의 긍휼과 달리 악인의 긍휼은 잔인, 즉 남을 해치는 것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악인이 비록 사람들을 긍휼히 여긴다 해도 그러한 행동의 배후에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간교함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11. **㉠** 어떠한 사람에게 먹을 것이 많이 되는가? (11절)

- ㉠** (1)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에게 먹을 것이 많이 된다.
- (2) 즉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은 궁핍함이 없이 충분하게 생활을 꾸려 나가게 된다.
- (3) 여기서 지혜자는 자기의 분복과 기업에 충실히 행하는 것이 지혜임을 말해 주고 있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방탕함이 없이 자기의 분복과 기업에 충실히 행하도록 해야 한다.

12. **㉠** 악인이 노리는 이득(利得)은 어떤 것인가? (12절)

- ㉠** (1) 악인이 노리는 이득(利得)은 불의의 이(利)이다.
- (2) 여기서 ‘불의의 이(利)’는 악인들이 정당한 투자나 노력을 하지 않고 매점 매석이나 투기 등의 악한 방법으로 얻는 이(利)를 말한다.
- (3) 이러한 악한 이(利)는 세상에서도 정부가 바르면 존속할 수 없게 되며 더구나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아래서는 어느 것 하나도 인정될 수 없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불의의 이를 얻을 기회와 방법이 있더라도 과감히 물리쳐야 한다.

13. **㉠** 의인이 결실하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는가? (12절)

- ㉠** (1)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게 된다. 뿌리는 나무에게 수분과 영양을 계속해서 공급하여 결실하게 하는데, 마찬가지로 의인은 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게 된다.
- (2)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게을리 하지 말고 항상 힘을 써서 마침내 그 뿌리로 말미암아 인생의 결실을 아름답게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렘17:7, 8).

14. **㉠** 지혜자는 누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린다고 하였는가? (13절)

- ㉠** (1) 지혜자는 악인이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린다고 하였다.
- (2) 즉 아무런 생각 없이, 주의 없이 한 말이 사람으로 하여금 미처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당하게 한다는 것이다.

- (3) 또 이러한 말을 하는 자는 대부분 고의적으로 남을 증상하고 험담하므로 스스로 화를 부르는 격이 되고 만다.
- (4) 그러므로 말을 조심하는 것은 악인의 길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15. **Q** 미련한 자가 미련한 이유는 무엇인가? (15절)

- A** (1) 그 이유는 자기 행위의 부족한 점과 잘못된 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 행위를 옳다고 합리화하기 때문이다.
- (2) 이런 자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모르고 또 무시하는 자이다.
- (3) 그러므로 이러한 자는 스스로는 지혜롭다고 하나 그 결국은 비참하게 되고 만다.

16. **Q** 지혜자는 진실한 입술과 거짓된 혀를 어떻게 대조시키고 있는가? (17-19절)

- A** (1) 지혜자는 진실한 입술이 의(義)를 나타내고(17a절), 때에 적절한 말로서 양약(良藥)과 같은 역할을 하며(18b절), 영원히 보존될 것(19a절)이라고 말한다. 반면에 거짓된 혀는 꾀를 말하며(17b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고(18a절) 영원히 서지 못하며, 잠시 동안만 그 힘을 발휘하고 말 것(19b절)이라고 말하였다.

17. **Q**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어떤 뜻인가? (21절)

- A** (1) 이 말은 의인에게는 환난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고 범죄에 따라오는 악한 결과들인 재앙(히, 아퀼)이 없다는 뜻이다(참조, 22:8).
- (2) 의인에게 이러한 재앙이 없게 되는 이유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친히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다.
- (3) 따라서 비록 의인들이 시험을 받더라도 시험에 정복되지 않고, 또 많은 환난에 직면하게 되더라도 그 환난이 의인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환난이 의인에게는 유익이 된다(참조, 롬 8:28).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인생 노정에서 무슨 일을 만날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義)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참조, 마 6:33, 34).

18. **Q**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어떻게 행하는 자인가? (22절)

- A** (1) 진실히 행하는 자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자이다.
- (2) 이런 사람은 말로만 무슨 일을 다할 수 있는 듯이 떠벌이지 않고 비록 말은 많이 하지 않더라도 해야 할 일들을 반드시 하는 자이다.
- (3) 또한 그는 자기 분수에 넘치는 일에 대해서는 자기의 부족을 솔직히 인정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자이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말을 많이 하기 보다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19. **Q** 슬기로운 자가 지식을 감추는 이유는 무엇인가? (23절)

- A** (1) 그 이유는 경솔하게 경우에 맞지 않는 지식을 퍼지 않고 시기 적절하게 그 지식을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 (2) 또한 아무리 지식이 많더라도 겸손하게 그것을 사용치 않으면 자기 자랑이 되기 쉬우므로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그러하기도 한다.
- (3) 그러나 때론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진리의 지식을 말해야 됴를 생각한다면 슬기로운 자가 진리를 감추는 것은 간사한 자가 진리를 부인하는 것과는 다름을 알 수 있다(참조, 마 10:32, 33).

20. **Q** 마음에 있는 번뇌를 없애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25절)

- A** (1) 그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여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자리에서 떠나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선한 말이다(참조, 왕상 8:56).

- (2) 이런 선한 말은 죄인을 불러서 그 죄를 회개하고 사죄함을 받아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에서 가장 명확하게 나타난다.
- (3) 그러므로 마음에 번뇌가 있는 자마다 복음의 샘가로 와서 그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자(참조, 벰전1:8, 9).

21. **㉠** 사람이 부한 것은 일반적으로 무엇에 기인(起因) 하는가? (24, 27절)

- ㉠** (1) 사람이 부한 것은 대체로 그 사람의 부지런함에 기인한다.
- (2)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생이 수고하여서 소득을 얻도록 정하셨기 때문이다(참조, 창3:19).
- (3)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인 법칙을 어기고 그릇된 방법으로 부(富)를 축적하거나 게을러서 부림을 당하고 빈궁한 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마땅히 정당한 방법을 따라 수고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를 소유하고 그것을 선한 일에 사용하여야 한다.

22. **㉠** 사망이 없고 생명이 있는 길은 어떠한 길인가? (28절)

- ㉠** (1)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의로운 길이다.
- (2) 이러한 의로운 길에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으로 지속되는 육체적인 생명만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갖는 온전한 생명이다.
- (3) 그러므로 온전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마다 이 의로운 길을 가야 한다(참조, 요5:39).

연구자료

잠언에 나타난 미련한 자의 실상(實狀)

성 귀	내 용
1:7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함
22	미련한 자는 지식을 미워함
32	미련한 자의 안일(安逸)은 자기를 멸망시킴
3:35	미련한 자의 현달(顯達)함은 욕이 됨
10:1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임
8	미련한 자는 패망함
14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움
21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음
11:29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됨
12:15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김
16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냄
23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함
13:19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함
20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害)를 받음
14:1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집을 헐
3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함
7	미련한 자의 입술에는 지식이 없음

8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임
24	미련한 자의 소유는 미련한 것임
33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겉으로 드러남
15: 2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음
5	미련한 자는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김
14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음
16:22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됨
17:12	미련한 자는 미련한 일을 행함
16	미련한 자는 무지함
21	미련한 자의 아버지는 낙(樂)이 없음
24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둠
25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됨
18: 2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함
6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름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함
7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됨
19: 3	미련한 자는 자기 길을 굽게 하고 여호와를 원망함
13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임
20: 3	미련한 자는 다름을 일으킴
21:20	미련한 자는 집에 있는 귀한 보배와 기름을 다 삼켜 버림
23: 9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김
24: 9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임
26: 1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치 아니함
6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리는 것임
8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음
9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음
10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자를 고용함과 같음
11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함
27: 3	미련한 자의 분노는 모래와 돌보다 무거움
22	미련한 자를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찜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함
28:26	미련한 자는 자기의 마음을 믿음

제13 장 악에서 떠나 정직하게 하라

단락구분 1-11 입을 지키고 정직히 행하라 / 12-19 바른 소원을 가지고 악에서 떠나라 / 20-25 선한 사람은 후손에게 큰 복을 끼친다

- 1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 2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쾌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 3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전하나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 4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 5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데 이르느니라
- 6 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하느니라
- 7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 8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속할 수는 있으나 가난한 자는 험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 9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 10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 11 망령되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 12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 나무니라
- 13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

- 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 14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 15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쾌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 16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여도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 17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 18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 19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 20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 21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 22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 23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하므로 양식이 많아 지거늘 혹 불의로 인하여 가산을 탕패하는 자가 있느니라
- 24 초달을 차마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 25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주리느니라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입을 지킬 것과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행할 것, 그리고 바른 소원을 가지고 슬기롭게 행하여 악에서 떠나기를 권하는 교훈과 선한 사람은 그 산업을 후손에게 물려주며 선한 보응을 받으나 죄인에게는 죄양이 따를 뿐임을 상기시키는 교훈을 말하고 있다.
- (2)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한 사람이 바르게 가느냐 그르게 가느냐에 따라서 그 후손과 그 주변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 (3) 그러므로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먼저 자신부터 악에서 떠나 바른 소원을 가지고 정직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2. ㉠ 지혜로운 아들과 거만한 자는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는가? (1절)

- ㉠ (1) 양자(兩者)는 아버지의 선하고 애정어린 꾸지람을 듣는 태도에서 차이가 있다.

- (2) 즉 지혜로운 아들은 그 훈계를 듣고 마음에 간직하나 거만한 아들은 그 꾸지람 듣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 (3) 이러한 태도의 차이는 사소한 것 같지만 마침내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게 한다.
- (4) 성도들은 이러한 점을 하나님 말씀 듣는 태도에 적용시켜서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일지라도 더욱 즐겨 듣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히12:5, 6).

3. **㉠** 사람이 복록(福祿)을 누리는 것과 강포(強暴)를 당하는 것은 무엇에 기인(起困)하는가? (2절)

- ㉠** (1) 사람이 복록을 누리는 것과 강포를 당하는 것은 자기 입의 열매와 마음의 꾀사(詭詐)함에 달려 있다.
- (2) 즉 사람이 마음에 어떠한 것을 품으면 바로 입으로 표출되기 마련이고 그 말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말하는 사람의 진실성을 평가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진실의 여부에 따라 복록과 강포(強暴)가 따라온다.
- (3) 그러므로 사람이 복록을 누리거나 강포를 당하는 것은 마음에 선한 것을 품느냐 악한 것을 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짐을 알 수 있다.
- (4) 따라서 성도들은 무엇보다 먼저 마음 중심이 선한 것,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도록 살피야 한다(참조, 4:23; 마12:34-37).

4. **㉠** '입을 지키는 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 (3절)

- ㉠** (1) '입을 지키는 자'는 아무 말이나 거침없이 나오는 대로 내뱉지 않고, 자기의 마음속에 지혜를 따라서 말을 꼭 해야 할 때만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 (2) 그러나 그 지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데에서 오는 것이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군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시 141:3)라고 기술하였다.
- (3) 인간의 힘만으로는 인간이 자기 입술을 지키기가 불가능하다(참조, 약3:8-10).
- (4)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항상 마음에 품고 그분이 원하시는 데에서만 입을 벌려 말을 함으로 '입을 지키는 자'가 된다.

5. **㉠** 마음으로 원하여도 충족함을 얻지 못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4절)

- ㉠** (1) 그는 게을러서 실행(實行)이 없고 단순히 소원만 가지고 있는 게으른 자이다.
- (2) 그는 무엇인가 원하면서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노력은 행하지 않는다.
- (3) 여기서 지혜자는 결과는 좋아하나 그 결과를 가져오는 과정을 싫어하고 무시하는 자들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마땅히 마음에 소원을 품은 대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가 되자(참조, 시126:5, 6).

6. **㉠** 의인이 거짓말을 미워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5절)

- ㉠** (1) 의인은 하나님의 정직한 법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즐겨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미워한다.
- (2) 그 예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도(道) 행하기를 즐겨한 다윗은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한다'(시 119:163)고 노래하였다.
- (3)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하나님의 정직한 법도를 따라 거짓말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참조, 롬12:9).

7. **㉠**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른다 고 했는데 '흉악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5절)

- ㉠** (1) 본절에서 '흉악하다'는 말은 '악취를 풍긴다'는 뜻이다.
- (2) 그런데 악인에게서 악취가 나는 이유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의(義)와 신

(信)과 인(仁)을 버리고 악을 행하므로 더럽고 추하며 냄새나는 것들만이 그에게서 나타나기 때문이다(참조, 마 23:23-26).

(3) 이와 같은 인간은 그의 행위로 인해서 악취를 풍길 수 있으니 썩는 냄새의 고약한 것을 아는 자라면 마땅히 악행을 끊어야 한다.

8. **Q** 죄인은 무엇으로 인하여 패망케 되는가? (6절)

- A** (1) 죄인은 자기가 좋아하고 기꺼이 행한 악 때문에 패망케 된다.
 (2) 죄인은 눈이 어두워져서 그저 눈앞에 있는 이익과 쾌락을 좇아서 악을 행하다가 결국 그 악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죄인이 멸망치 않으려면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광야의 소리에 마땅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참조, 마 9:13).

9. **Q** 지혜자는 7, 8절에서 어떤 종류의 사람 둘을 취급하고 있는가?

- A** (1) 지혜자는 이 부분에서 가난하면서 부자인 듯이 행사하는 위선자와 부자이면서 가난한 듯이 처신하는 위선자 두 사람을 취급하고 있다.
 (2)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모두 자기 처지를 속이므로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있는 자들이다.
 (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자이든지, 가난한 자든지 자기가 수고한 대로 받은 것을 가지고 꾸밈이 없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
 (4) 그리고 이렇게 정직하게 살 때 부자는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또 가난한 자는 비굴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이와 같이 신앙으로 살면 누구나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다(참조, 살전 5:16-18).

10. **Q** '의인의 빛'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 (9절)

- A** (1) '의인의 빛'은 의인이 걸어온 아름다운 발자취를 가리킨다(참조, 마 5:6).
 (2) 그런데 그 아름다운 발자취가 빛이 되는 이유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사랑의 풍성하심을 비취 주기 때문이다.
 (3)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 빛을 보고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살아 계심을 인정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된다.
 (4) 이와 같이 성도들의 착한 행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알고 성도들은 감사함으로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써야 한다(참조, 살후 3:13).

11. **Q** '악인의 등불'은 어떻게 되는가? (9절)

- A** (1) 악인의 등불은 인간이 고안해서 만든 지혜나 경건의 모양을 말한다.
 (2) 그런데 이러한 것은 일시적으로 환히 번쩍일지 모르나 곧 사라져 흔적도 없게 된다.
 (3)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의 유행과 일시적인 허장 성세(虛張聲勢)를 좇지 말고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빛을 따라가야 한다.

12. **Q**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무엇을 상하게 되는가? (12절)

- A** (1) 세상에서 비록 기대한 일 자체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지는 않더라도, 그 성취 시기가 지연되면 사람은 자연히 불안하고 초조하며 역정이 나게 되므로 마음을 상하게 된다.
 (2) 그러나 성도들은 항상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먼저 인내하여야 할 것이다(참조, 약 1:6, 7).

13. **Q** 성도가 품어야 할 소망은 어떤 것인가? (12절)

- A** (1) 성도는 정당한 소망을 품어야 한다. 이러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것들이다.
 (2) 그것은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더디 오는 것 같으나 마침내 소망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생명 나무인 것이다.

- (3) 예를 들면 죽은 자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도가 마땅히 사모하고 바라야 할 소망인데 교회는 이런 소망을 거의 2천년간이나 변치 않고 품어 오고 있다.
- (4) 그러므로 이러한 소망을 품은 자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마침내 생명의 날을 볼 것이고 또 그 생명의 날이 영원할 것이다(참조, 딤후 2:13; 벧후 1:4, 11).

14. **㉠**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13절)

- ㉠** (1)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계명에 순종하는 자를 말한다.
- (2)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순종한다 할 때 그것은 맹목적인 율법 준수를 말하지 않고 그 계명을 내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를 생각하여 경외심으로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에서 하는 순종을 의미한다.
- (3) 그리하여 예수께서도 만일 어떤 사람이 당신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당신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다(요 14:23).
- (4) 그리고 이러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계명 준수가 아니면 참다운 두려움이나 경건에 이를 수 없다(참조, 시 2:11).

15. **㉠**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가? (14절; 14:27)

- ㉠** (1) 지혜자의 교훈이 사람으로 하여금 사망의 율무와 함정에서 벗어나게 한다.
- (2) 지혜자의 교훈은 생명의 원천이신(참조, 시 36:9) 여호와를 알게 하는 말씀(참조, 1:7; 욥 28:28)이므로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하는 샘과 같다.
- (3) 이러한 생수를 그 샘에서 공급받는 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의지하여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된다(참조, 시 23:4).
- (4) 그런데 성도들에게 생수를 주는 지혜자는 예수님이시다.
- (5)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 4:14)고 말씀하셨다.

16. **㉠** 악한 사자(使者)는 어디에 빠지게 되는가? (17절)

- ㉠** (1) 악한 사자(使者)는 그를 보내는 주인의 뜻과 다른 것을 행하기에 재앙에 빠지게 된다.
- (2) 사실 '사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말아크>는 누구 대신으로 파견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 즉 그는 자신의 의사보다는 자기를 보낸 자의 의사를 더 존중해야 하는 존재이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왜곡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버려 두시지 않고 반드시 징벌하신다(참조, 벧후 1:20, 21; 3:16, 17).

17. **㉠** '충성된 사신은 양약(良藥)이 된다'는 말은 어떤 뜻인가? (17절)

- ㉠** (1) 이 말은 충성된 종이 주인의 뜻을 따라 그의 사명을 신실하게 이행하여 그 주인을 만족시켜 주고 시원케 해준다는 뜻이다.
- (2) 본서 25:13에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여름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같은 뜻을 기술하였다.
- (3) 이렇게 그 주인을 만족케 하며 시원케 해주는 훌륭한 종들을 하나님께서도 요구하시며 찾고 계신다(참조, 마 24:45).

18. **㉠** 훈계를 받을 때에 존영(尊榮)을 얻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 (18절)

- ㉠** (1) 훈계를 듣고서 매우 겸손히 그것에 유념하여 잘못을 고치며 바른길로 행하는 자가 존영을 얻는다.
- (2) 그러므로 성도들은 마음속에서 큰 다름이 있더라도 훈계의 말씀에 유념(留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자(참조, 딤후 3:15-17).

19. **㉠** 소원을 성취하려면 먼저 어디에서 떠나야 하는가? (19절)

- ㉠** (1) 소원을 성취하려면 먼저 악에서 떠나야 한다.
- (2) 그런데 미련한 자는 소원 성취하는 데에만 급급하지 자기의 소원이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를 분간하지 못한다.

(3) 그러나 악한 소원은 그것에 연연(戀戀)한다 해도 성취되지 못하며(참조, 약 4:3), 만약 그 악한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그 소원을 품은 자에게 큰 해가 될 뿐이다.

20. ㉠ ‘지혜로운 자와 동행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20절)

- ㉠ (1) 이 말은 함께 길을 가듯이 지혜로운 자와 친밀하게 교제하며 사귀는 뜻이다.
 (2) 이렇게 지혜로운 자와 교제를 갖게 되면 지혜를 얻게 되는데 이것은 사람이 그 주변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됨을 말해 준다.
 (3) 그러므로 성도들은 지혜로운 자들과 사귀는 것을 해야 할 것이고, 더우기 성도들의 위대한 모범이신 예수님과 항상 사귀는 일에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참조, 빌 2:5).

21. ㉠ 선인(善人)이 그 자자 손손(子子孫孫)에게 끼치는 것은 무엇인가? (22절)

- ㉠ (1) 선인(善人)이 그 자자 손손에게 끼치는 것은 그의 산업이다.
 (2) 선한 사람은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의 분복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 산업을 잘 보존한다(참조, 민 26:52-55).
 (3) 또한 선한 사람은 그 자녀들 역시 선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기 때문에 그 후손에게서도 그 산업이 잘 보존된다.
 (4) 이러한 것을 본절에서는 선인이 그 산업을 자자 손손에게 끼친다고 간략히 기술하였다.

22. ㉠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하므로 양식이 많아지거늘 혹 불의로 인하여 가산을 탕패(蕩敗)하는 자가 있다’는 말은 결국 무엇을 교훈하는 것인가? (23절)

- ㉠ (1) 본절은 결국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서 자족(自足)하며 정직하게 노력하여 수입을 얻을 것을 교훈하는 것이다.
 (2) 그런데 자족(自足)치 못하고 헛된 생각으로 노력 없이 수입을 크게 하려는 자는 그 재산까지도 헛되어 사용하므로 다 없애 버리게 된다.
 (3) 그러므로 성도들은 노력 없이 수입을 크게 하려는 생각에 투기나 허황된 곳에 돈을 투자하지 말고 자족(自足)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수고하여 생활을 영위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

23. ㉠ 지혜자는 사랑하는 자식을 바르게 교훈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하는가? (24절)

- ㉠ (1) 지혜자는 자식 교육에 근실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한다.
 (2) 이런 근실한 징계는 자식에게 악한 습성이 형성되기 전에 부지런히 행해져야만 한다.
 (3)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자녀는 아담의 후손이므로 그 마음에는 아담과 같은 어리석음이 뭉쳐 있어서 그것을 버려 두면 그 어리석음이 습성으로 커지기 때문이다.

24. ㉠ ‘의인이 포식(飽食)한다’는 말은 어떤 뜻인가? (25절)

- ㉠ (1) ‘의인이 포식한다’는 말은 어리석은 돼지같이 배가 터지도록 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의인이 그 식생활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
 (2) 또한 의인은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 만족할 줄 안다. 이것은 그를 배부르게 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3) 예를 들면 다니엘은 신앙을 따라 절제하여 물과 채소로 만족하게 되었으므로 그의 얼굴이 고기를 먹고 지낸 것보다 더 아름다웠고 그 살이 더욱 생기가 있게 되었다(참조, 단 1:8, 15).
 (4)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 자기의 생명을 삼는 의인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의 소원대로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케 된다(참조, 시 23:1).

제 14 장 가정과 나라도 지혜로 크게 선다

단락구분 1-26 악인의 집은 망하나 정직한 자의 집은 흥한다 / 27-35 의(義)가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

- 1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 2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 3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전하느니라
- 4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 5 진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 6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 7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 8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 9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 10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 11 악한 자의 집은 망하되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 12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 13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 14 마음이 패려한 자는 자기 행위로 보상이 만족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 15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 16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 17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 18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 19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 20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거나 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 21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 22 악을 도모하는 자는 그릇 가는 것이 아니나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 23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 24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 미련한 것이니라
- 25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 26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 27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 28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 29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 30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 31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 32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 33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 34 의는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 35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의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1. ㉠ 본장이 뜻하고 있는 주된 의미는 무엇인가?

㉠ (1) 본장은 한 사람의 마음의 고통 문제에서부터 가정의 흥하고 망함 또 한 나라를 영화롭게

게 하는 의(義)에 대한 언급 등 폭 넓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 (2) 그런데 그 중요 내용은 악을 행하며 지식 없이 여호와를 경멸(輕蔑)하는 길에는 미움과 고통과 패망이 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에는 칭찬과 평안과 생명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 (3) 이러한 것은 한 개인 뿐만 아니라 각 가정과 한 나라에까지 다 적용되어진다. 그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홀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이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길에 굳게 서서 자신과 자신의 가정, 자기가 속한 나라를 바르게 세워야 한다.

2. **㉠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은 자기의 가정을 각각 어떻게 하는가? (1절)**

- ㉠** (1)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가정(집)을 세우지만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자기 가정을 한다.
- (2) 그런데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지혜로운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희생하며 가정의 여러 일들을 충실하게 행하지만 미련한 여인은 자기 중심으로 행하므로 가정을 잘 꾸리지 못하고 불화만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 (3) 사실 요즈음 여자 교인들 중에는 교회 일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가정을 소홀히 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모두 잘못된 행동이다(31:13-30).

3. **㉠ 인간이 패역(悖逆)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절)**

- ㉠** (1) 그 이유는 인간이 피조물로서 행하여야 할 마땅한 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조주를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므로 마땅한 도리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행하기 때문이다.
- (2) 이러한 인간의 패역한 행로(行路)는 아담이 범죄한 이래 모든 인간이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아담의 후에는 누구도 이 길에서 떠난 자가 없이 다 범죄하는 자가 되었다.
- (3)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들의 위치에서 인간을 평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멸하는 근본적인 죄악을 보지 못하고 자기를 의롭게 여긴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기를 중심하여 선·악을 평가하는 어리석은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봄으로 패역한 행위를 버리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4. **㉠ 지혜자가 소와 그 구유와의 관계를 들어서 교훈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4절)**

- ㉠** (1) 지혜자가 교훈하고자 하는 바는 큰 유익에는 작은 장애가 따를 수 있으므로 그 장애를 극복하여 큰 유익을 얻으라는 것이다.
- (2) 즉 소는 사람이 할 수 없는 큰 일들을 묵묵히 행하는 반면에 그 소를 부리기 위해서는 먹이를 주고 뒤치다꺼리를 해주어야 하므로 약간의 힘이 든다.
- (3) 그러나 사람이 소를 통해 얻는 유익은 자기의 수고한 것의 몇 배가 되는 것이다.
- (4) 이와 같이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되지만 이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하면 그야말로 거저 얻는 것과 같다(참조, 롬 8:18).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 안에서 수고하기를 게을리 말아야 한다(참조, 고전 15:58).

5. **㉠ 거만한 자가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6절)**

- ㉠** (1) 그 이유는 거만한 자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 (2)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1:7) 인간이 겸손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기 전에는 참지혜를 얻을 수 없다.
- (3) 그러나 이렇게 거만한 자에게는 지혜 얻는 것이 어렵고, 전연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하게 행하는 성도는 지혜를 얻는 것이 결코 어렵지가 않다(참조, 마 11:25).

6. **㉠ 그 입술에 지식이 없는 자는 누구인가? (7절)**

Ⓐ (1) '지식이 없는 자'는 지적인 수준이 저급한 자가 아니라 그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를 가리킨다.

(2) 그래서 솔로몬은 이런 자들과 교제를 끊으라고 권면하였다. 성도는 삶의 가치관과 신앙관이 다른 자들과 진정한 의미에서 원수 사이이다.

7. Ⓢ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무엇을 아는 것인가? (8절)

Ⓐ (1)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다.

(2) 그런데 유한한 사람이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안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3)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인생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분이 인생을 주관하실 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이 자기의 길을 주장하시기를 바란다.

(4) 바로 이러한 의지와 믿음이 슬기로운 자의 지혜이고 또한 슬기로운 자는 그 지혜로 자기가 갈 길을 아는 것이다(참조, 딤후 1:12).

8. Ⓢ 미련한 자는 죄를 어떻게 취급하는가? (9절)

Ⓐ (1)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尋常)히, 즉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가볍게 여긴다.

(2) 그리고 미련한 자들은 경솔하게 또 즐겁게 죄를 지으며 죄를 하찮게 여김으로 해서 타인들도 죄를 짓게 만든다(참조, 롬 1:32).

(3) 이와 같이 죄를 가볍게 취급하는 자들은 십자가에서 죄 지은 인간들을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알잡아 보는 자들이다.

9. Ⓢ 정직한 자 중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9절)

Ⓐ (1)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다.

(2) 왜냐하면 정직한 자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함으로 그분의 사유(赦宥)의 은혜를 받기 때문이다.

(3) 시편 기자는 이러한 은혜를 알고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시 130:3, 4)라고 노래하였다.

(4) 예수께서도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죄인들을 부르셔서 회개시키며(눅 5:32) 그들의 친구가 되시기 위함(눅 7:34) 이라고 말씀하셨다.

(5) 그러므로 인생들은 마땅히 하나님이 베푸신 사유의 은혜를 소망하며 정직하게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여야 한다(요일 1:9).

10. Ⓢ 인생 길의 최종 판단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12절)

Ⓐ (1) 인생 길의 최종 판단은 인생을 내시고 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

(2) 그러므로 아무리 어떤 길이 사람이 보기에 바를지라도 하나님의 의(義)의 표준에 맞지 않으면 사망에 빠지고 만다.

(3) 따라서 이러한 심판주가 살아 계심을 믿는 자들은 인생 길을 자행 자지(自行自止)하지 않으며 또 사람의 눈만 만족시키는 그런 길을 가지 않고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로 행한다(참조, 행 4:19).

11. Ⓢ 지혜자는 인간이 웃고 즐거워하는 가운데서도 무엇을 생각하도록 하는가? (13절)

Ⓐ (1) 지혜자는 인간이 겉으로 웃을 때에도 그 마음에는 슬픔이 있으며 즐거움의 끝에는 근심이 있음을 지적하여 인생의 실상을 생각토록 한다.

(2) 즉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인간은 모든 슬픔과 근심의 근원인 사망을 회피할 수 없다.

(3) 그런데도 인간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함 없이 현세의 환락에 빠져 있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있을 수 없다(참조, 눅 12:16-20).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러한 인생의 실상을 보고서 세상의 일시적인 쾌락에서 나와 하나

남만 섬기는 의의 길을 가야 한다.

12. **㉠** 지혜자는 어리석은 자의 어떤 면을 꼬집어서 말하고 있는가? (15절)

- ㉠** (1) 지혜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무 말이나 들리는 대로 믿는 면을 꼬집어 말하고 있다.
 (2) 즉 이런 어리석은 자는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가장 확실한 사실들은 믿지 않으려 하면서도 온갖 지저분한 말들에는 귀가 솔깃하여 듣고 확인도 없이 믿는다.
 (3) 여기서 성도들은 무엇이든 믿기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설교자들과 세상 사람들의 말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과감히 버릴 줄 아는 지혜자가 되어야 한다.
 (4)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오지만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이다 (참조, 롬 10:17).

13. **㉠**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므로 어디에서 떠나는가? (15, 16절)

- ㉠** (1) 슬기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두려워하여 그 행동을 삼가므로 악에서 떠나게 된다.
 (2) 이렇게 악에서 떠나는 자는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고 영원히 보호하신다(참조, 시 37:37, 38).
 (3)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기주의에 빠지기 쉬운 자기를 신뢰하지 말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여 악에서 떠나도록 해야 한다.

14. **㉠** '악인이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자가 의인의 문에 엎드린다'는 말은 무엇에 대해 말하는 것인가? (19절)

- ㉠** (1) 이 말은 악에 대해서 선이 승리할 것을 말하는 것이다.
 (2) 즉 불의한 자가 제아무리 승리하고 번영한다 해도 그들의 성공은 오래가지 못하고 마침내는 의인 앞에 굴복하고 만다.
 (3) 뿐만 아니라 악인들은 버려짐을 당해 연명(延命)을 하려고 의인의 호의를 구걸하며 의인의 문 앞에 엎드리게 된다(참조, 삼상 2:36).
 (4) 이러한 대조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거지 나사르가 위로를 받는 반면 부자는 고통을 당하며 나사로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으로도 잘 나타나 있다(참조, 눅 16:20-24).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선의 승리를 믿고 담대하게 선의 편에 서서 악과 끝까지 싸워야 한다(참조, 히 12:1-4).

15. **㉠** 가난한 사람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마땅한가? (20, 21절)

- ㉠** (1) 세상 사람들은 보통 가난한 자를 미워하고 업신여기는 반면 부요한 자를 우대한다.
 (2)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다.
 (3)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지으셨으므로 그를 구제하고 윤택케 하는 일은 곧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31; 사 58:10).
 (4) 또한 예수님은 '궁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핍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마 5:7)라고 말씀하셨다.
 (5)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

16. **㉠** 정당한 수고와 노력 없이 말만 하고 다니는 자에게 따르는 것은 무엇인가? (23절)

- ㉠** (1) 그런 자에게 따르는 것은 궁핍뿐인데 이런 궁핍은 영육간에 다 적용된다.
 (2) 먼저 말만 앞세우고 행함이 없는 자는 생활에 대해 책임감이 없어지고 게을러지므로 육신의 생활도 궁핍해진다.
 (3) 설령 그들이 타인들을 교훈하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철학과 사상을 전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들은 자타(自他)에게 영적인 궁핍을 야기시키게 한다(참조, 암 8:11-13).

(4) 여기서 성도들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 7:21)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한다.

17. Q 지혜자는 재물에 대하여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 (24절)

- A** (1) 지혜자는 재물 그 자체에 대하여 좋고 나쁜가를 평가하지 않고 그것을 누가 소유하고 사용하였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말한다.
- (2) 즉 같은 재물이라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바로 사용함으로 자신에게 영광이 되게 하는 반면 미련한 자는 그 소유를 미련하게 간수함으로 유익보다는 해를 입으며 자기의 미련함을 나타낸다.
- (3) 그러므로 성도들은 단순히 부하기만을 피해서는 안 되며 자족(自足)하는 심정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들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일에 마음을 써야 한다(참조, 빌 4:11, 12).

18. Q 26절 하반절에 나오는 ‘그 자녀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 A** (1) 본절의 구성상 ‘그 자녀들’은 상반절에 묘사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자녀들을 가리킨다.
- (2)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출 20:6)는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되 그 자손에게까지도 견고한 은혜의 약속을 주신다(참조, 시 103:17).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계명을 지킴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자.

19. Q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는 어떤 것이 그의 영광이 되는가? (28절)

- A** (1) 백성이 많은 것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 영광이 된다.
- (2) 그런데 이 말은 무죄한 피를 흘리며 대제국을 이룬 정복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다.
- (3) 왜냐하면 전쟁의 승리로 얻어지는 백성은 그 왕의 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4) 그러므로 이 말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이 주시는 의(義)의 법도대로 백성들을 잘 다스림으로 그들이 평안히 살며 수적으로 번성할 때 이것이 그 왕의 영광이 된다는 뜻이다(참조, 34절).

20. Q 마음의 상태는 육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30절)

- A** (1) 마음의 상태는 육신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 (2) 그리하여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소유한 자는 전신(全身)이 건강하여 활달하게 그 생명력(生命力)을 발휘하게 된다.
- (3)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자의 마음에는 이기심(利己心)이 가득하여 만족을 모르고 헛된 욕심에 빠져서 자기 육신을 상하게 하고 만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도록 해야 한다(참조, 롬 14:17-19).

21. Q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란 어떤 자를 가리키는가? (31절)

- A** (1)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란 가난한 자들을 중상과 사기와 부질없는 모함으로써 압제하는 자를 의미한다.
- (2) 이들은 빈부가 다 하나님께로 났다는 사실을(22:2) 깨닫지 못하는 우매한 자들이며 가난한 자에 대한 학대와 멸시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임을 인식치 못하는 불의한 자들이다(17:5).
- (3) 그런 까닭에 이런 자들이 취하는 사람 평가의 기준은 내적인 상태보다는 외형적인 모

습, 즉 재물이 많고 적음, 세상적인 지위와 학벌의 정도 등이 될 수밖에 없다.

(4)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므로 성도들은 삼가 조심하여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참조, 약2:1-9).

22. **㉠** 의인이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32절)

- ㉠** (1) 그 이유는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이므로 영생의 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 (2) 그리고 의인에게 있어서는 죽음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참조, 고전 15:55-57).
- (3) 하나님께서는 의인이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심으로 이처럼 놀라운 진리를 역사상에 뚜렷하게 남기셨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죽음 때문에 죄에 종노릇하지 말고 참생명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가야 한다(참조, 마 10:28; 벧후 1:1, 4, 11).

23. **㉠** 한 국가의 진정한 위대함은 어디에 있는가? (34절)

- ㉠** (1) 한 국가의 진정한 위대함은 그 나라가 가진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문화적 우수함에 있지 않고 온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하는 공의(公義)가 실행되어짐에 있다.
- (2) 그런데 한 나라에서 이러한 의(義)가 실행되어지려면 그 구성원 각자가 의에 바로 서 있어야 하고 또한 제도와 조직이 의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
- (3)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기가 속한 국가를 영화롭게 하려면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가르치고 모든 사회 영역에서 공의(公義)가 실행되도록 힘써야만 한다.

본장의 요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31절).



제 15 장 여호와와 악인과

선인을 살피신다

단락구분 1-7 지혜자는 지식을 배풀고 미련한 자는 미련을 씀니다 / 8-15 여호와와 마음을 살피신다 / 16-27 부하지 못해도 여호와 경외함이 복되다 / 28-33 겸손히 견책을 듣는 자는 지식을 얻는다

- 1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 2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배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 3 여호와와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 4 온량한 혀는 곧 생명 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 5 아버지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견책을 받는 자는 슬기롭을 얻을 자니라
- 6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 7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 8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며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 9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며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 하시느니라
- 10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 11 음부와 유명도 여호와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인생의 마음이라도
- 12 거만한 자는 견책 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 13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 14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 15 고난 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 16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 17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 18 분노를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 19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올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 20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 21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 22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 23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 24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 25 여호와와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계를 정하시느니라
- 26 악한 피는 여호와와 미워하시는 것이라도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 27 이를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너물을 싫어하는 자는 사느니라
- 28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 29 여호와와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 30 눈의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쁨은 때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 31 생명의 견책을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 32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 33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1. ㉠ 본장에서 지혜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 ㉠ (1) 지혜자는 본장에서 악인은 미련한 말을 하고 훈계를 싫어하며 교만히 이(利)를 탐하지만, 의인은 지식을 배풀며 겸손히 훈계를 듣고 가난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사

실을 말하고 있다.

- (2) 그리고 지혜자는 여호와께서 이러한 악인과 의인의 마음을 자세히 살피심으로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을 사랑하신다는 진리를 말하고 있다.
- (3) 그리하여 지혜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훈계를 따라서 악인의 길을 버리고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의 길로 가도록 권고한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오늘날 비록 가치 기준이 매우 혼란하게 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악인의 길을 과감히 버리고 다만 의인의 길로 행하여야 한다.

2. **㉠ 어떠한 대답이 분노를 가라앉게 하는가? (1절)**

㉡ (1) 부드럽고 선한 대답이 분노를 가라앉게 한다.

- (2) 사람의 노(怒)는 대부분 오해에 의해서 야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에 대해서 정중하고 부드럽게 답변해야지만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다.
- (3) 그러나 미련한 자는 자기 입장만 내세우고 격(激)한 말을 함부로 내뱉기 때문에 오히려 노를 격동케 한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미련한 자같이 노를 격동케 하지 말고 오히려 부드럽고 선한 대답으로 노한 상대의 분노를 가라앉힘으로 화평을 유지해야 한다(참조, 롬 12:18).

3. **㉠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는 것은 무엇인가? (3절)**

㉡ (1)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는 것은 여호와와의 눈이다.

- (2) 여기서 여호와와의 눈이란 여호와께서 전지(全知)하심으로 인간이 어느 곳에 있는지 인간의 행위를 다 살피시고 계심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 (3)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피하여 숨을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
- (4) 그러므로 인생들은 그가 선인이든지 악인이든지 전지(全知)하신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아야 하며 또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4. **㉠ '온량(溫良)한 혀'는 듣는 자에게 무엇이 되는가? (4절)**

㉡ (1) '온량한 혀'는 듣는 자에게 생명 나무가 된다.

- (2) 즉 희망이 사라지고 낙심에 빠져 있는 형제에게 온유한 위로의 말은 그에게 새 힘과 환희를 공급하게 된다.
- (3) 이런 '온량한 혀'의 대표적 예는 예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은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죄의 용서와 구원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주는 생명 나무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 (4) 성도들은 이 같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웃을 향해 진실하고 화평케 하는 온량한 혀를 가진 자가 되어야겠다(참조, 마 5:9).

5. **㉠ 의인의 집에 많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 (6절)**

㉡ (1) 의인의 집에 많이 있는 것은 보물이다.

- (2) 즉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생활을 하는 자이므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집에 많이 있게 된다.
- (3) 그런데 의인의 집에 있는 보물은 물질적인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참조, 마 6:19, 20) 신령한 보물도 된다.
- (4) 이러한 보물이 성도들의 집에도 많이 있어야겠다.

6. **㉠ 악인의 소득은 그 자신에게 무엇이 되고 마는가? (6절)**

㉡ (1) 악인의 소득은 그 자신에게 고통 거리가 되고 만다.

- (2) 악인이 벌여 들이는 재물은 결코 선한 것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가 소유한 것은 자신의 양심을 팔아서 얻은 것이기 때문이다.
- (3) 그러므로 성도들은 잠시 동안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악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여 자신을 스스로 망케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제사는 누가 드리는 제사인가? (8절)**

- ㉠** (1)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제사는 악인이 드리는 제사이다.
 (2) 악인은 아름다운 것을 드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기에게 어떤 유익한 도움을 얻고자 하나 하나님께선 그 중심을 보시므로 오히려 악인의 제사를 미워하신다.
 (3) 그러므로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삼상 15:22) 라고 했었다.
 (4) 이것은 하나님께서 외형적인 의식의 화려함에 따라 그 제사를 받으시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진리를 가르쳐 준다.
 (5) 오늘날 기독교의 이름으로 거대한 집회와 행사가 치뤄지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지 않는 행사와 집회가 되겠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8. **㉠ 여호와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가? (8절)**

- ㉠** (1) 여호와께서는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2) 정직한 자란 세상의 도덕적 기준에 따라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法道)에 따라 자기가 죄인 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자를 가리킨다.
 (3) 이런 자의 기도는 자기의 사리 사욕(私利私慾)을 채우기 보다는 하나님의 의(義)와 영광을 먼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
 (4) 또한 예수님은 정직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마 6:9, 10).
 (5) 그러므로 오늘날의 성도들도 정직한 자로서 개인의 사리 사욕을 구하기 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도록 해야 한다.

9. **㉠ 여호와께서는 어떤 길을 미워하시고 어떤 자를 사랑하시는가? (9절)**

- ㉠** (1) 여호와께서는 악한 자의 길을 미워하시고 의(義)를 따라가는 자를 사랑하신다.
 (2) 그런데 본질에서 '길'과 '따라감' 등의 표현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와 방법을 가리킨다.
 (3)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실 때 어떤 한 국면만을 가지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반(全般)을 살펴서 의인과 악인으로 평가함을 알 수 있다.
 (4)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전 10:12)고 경고하였다.
 (5)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공정하시고 세밀하신 판단에 대해 두려워하면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악인의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의인의 길로 가야 할 것이다.

10. **㉠ 어떤 자가 엄한 징계를 받게 되는가? (10절)**

- ㉠** (1) 도(道)를 배반하는 자가 엄한 징계를 받게 된다.
 (2) 여기서 '도'란 선함과 의로움의 길(2:9), 즉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말한다.
 (3)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이 도(道)를 따라 살아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이 길을 버리면 그에겐 엄한 징계가 따르게 된다(참조, 신 11:26-32).
 (4)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배반하는 자를 엄하게 징계하시는 분이심을 명심해야 한다.

11. **㉠ 견책(譴責)을 싫어하는 자는 마침내 어떻게 되는가? (10절)**

- ㉠** (1)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마침내 죽게 된다.
 (2) 이 말씀은 10절의 상반절에 연결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릇 가는 자를 계속 꾸짖으시며 징계하시는 데도 계속 그릇 가는 자는 결국 망할 것임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성도들은 아픈 매를 맞더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견책(譴責)을 싫어하는 자처럼 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참조, 호 6:1-3).

12. **㉠** 사람의 얼굴에 생기가 돌며 빛나게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13절)

- ㉠** (1) 사람의 얼굴에 생기가 돌며 빛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즐겁기 때문이다.
 (2)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즐겁기 위해서는 그 안에 지식이 있어야 한다(14절).
 (3) 물론 이 지식은 창조주 되신 여호와를 경외함에서 얻어지는 지식을 말하는데 그 지식은 인생으로 하여금 마땅히 행하여야 할 것을 가르쳐 주며 그 길을 실패 없이 인도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참된 즐거움이 생기게 하는 것이다.
 (4) 이런 즐거움을 소유한 자는 그 얼굴이 잠시 동안만 생기가 돌며 빛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빛나게 된다.
 (5) 그러므로 성도들은 무엇보다 먼저 마음에 즐거움이 끊어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도록 해야 한다(참조, 시 1:1-3).

13. **㉠**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어떤 형편보다 더 좋은 것인가? (16절)

- ㉠** (1)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면서 번뇌하는 형편보다 더 좋다.
 (2) 왜냐하면 전자에게는 적은 소유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사는 참된 즐거움이 있지만(13절) 후자는 심령이 상하므로 소유한 부가 오히려 걱정거리가 되기 때문이다.
 (3)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후자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고 전자보다는 후자를 더 부러워하고 자기도 그렇게 되려고 인생을 허비한다.
 (4) 여기서 성도들은 인생이 소유한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그 복됨이 결정되는 듯이 생각하는 배금주의(拜金主義)의 풍조를 경계하여야 한다.
 (5) 다만 성도들은 비록 가난하더라도 살아 계신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분을 경외함에서 오는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해야 한다(참조, 마 6:33).

14. **㉠** 게으른 자의 길은 무엇과 같게 되는가? (19절)

- ㉠** (1)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와 같게 된다.
 (2) 그 이유는 그가 가야 할 길이 험하지 않은 데도 마음이 약해지므로 그 길을 뚫고 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이며 또한 해야 할 일들을 미루어 두므로 할 일이 쌓여져서 그 일을 시작하더라도 마음에 압박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3) 이렇게 해서 게으른 자는 결국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하게 되고 만다. 그러므로 성도 가운데 게으른 자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별떡 일어나서 어려움을 자초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참조, 롬 12:11).

15. **㉠** 무지한 자가 즐겨하는 것은 무엇인가? (21절)

- ㉠** (1) 무지한 자가 즐겨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다.
 (2) 그런데 이 미련한 것은 사람이 행하여야 할 의무의 길에서 벗어난 것을 말한다.
 (3) 그리하여 무지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좋아하므로 자기의 할 일을 신실치 못하게 행하며 시간과 힘을 낭비하게 된다.
 (4) 지혜자는 이 무지한 자의 잘못을 그 길을 바르게 하는 명철한 자와 대조시키면서 암시해 주고 있다.

16. **㉠** 사람이 하는 일들이 잘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22절)

- ㉠** (1) 사람이 하는 일들이 잘되기 위해서는 그 일에 지혜 있는 여러 사람이 모여 그 일에 대해 의논하고 머리를 짜내는 일이 필요하다.
 (2) 이렇게 할 때 잘못된 개인의 생각이 고쳐지고, 훌륭한 의견이 제시됨으로써 모든 사람이 공감하며 함께 힘을 쓸 수 있게 된다.
 (3) 그런데 이런 과정을 신중하게 거치지 못하면, 즉 의논이 없으면 개인이 가지는 한계성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일이 실패로 돌아가기가 쉽다.

- (4) 그러므로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자기를 내세우려 하지 말고 그 일에 조예가 깊은 사람들과 함께 의논을 하여서 가장 선하고 바른길로 가도록 애를 써야 한다.

17. **㉠** 지혜자는 어떤 말이 아름답다고 칭찬하고 있는가? (23절)

- ㉠** (1) 지혜자는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답다고 칭찬하였다.
 (2) 여기서 때에 맞는 말이란 급박한 경우와 사건이 그것을 요구할 때 가장 적절한 순간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하는 충고를 가리킨다(참조, 25:11).
 (3) 이러한 말의 실례를 들면, 지혜로운 권고로 그 남편 나발의 목숨을 살린 아비가일의 말(참조, 삼상 25:23-33)과 나아만의 종들이 나아만에게 충고하던 말(참조, 왕하 5:13, 14)을 들 수 있다.
 (4) 그러므로 성도들은 말을 많이 하기 보다는 잘 생각하여 때에 맞는 아름다운 말을 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18. **㉠** 생명길은 어디로 향해 있는가? (24절)

- ㉠** (1) 생명길은 위로 향해 있다. 그런데 본절에서 '위'라는 말의 표현은 공간의 위치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도덕적, 영적으로 하나님에게 가까운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2) 그런데 이러한 위로 향한 생명길은 세상의 철학, 과학, 예술이 제공할 수 없다. 오직 그 생명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제시할 수 있다(참조 요 5:39).
 (3)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살아가는 모습은 비록 몸은 땅에 있지만 위를 향해서 한걸음 한걸음 전진하는 것이 된다(참조, 마 5:48).

19. **㉠** 지혜로운 자는 생명길로 말미암아 어디를 떠나게 되는가? (24절)

- ㉠** (1) 지혜로운 자는 생명길로 말미암아 음부를 떠나게 된다.
 (2)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음부의 어두움으로 끝나는 내리막길을 피한다는 뜻이다.
 (3) 그러나 반면 그 지혜로운 자에게는 행복스런 삶이 약속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므로 죽음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

20. **㉠** 여호와께서는 교만한 자의 집을 어떻게 하시는가? (25절)

- ㉠** (1) 여호와께서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
 (2) 여기서 교만한 자란 사람 뿐만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무시하고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자를 가리킨다.
 (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되 가족과 집안과 재산을 모두 멸절시키심으로써 그 집을 허신다.

21. **㉠** 여호와께서는 누구의 지계(地界)를 정하시는가? (25절)

- ㉠** (1) 여호와께서는 과부의 지계를 정하신다.
 (2) 이 말은 여호와께서는 가난하여 압제당하기 쉬운 자들의 재산을 돌보심을 나타낸다.
 (3) 즉 가산(家産)이 지계표(地界標)로 정해지는 이스라엘에서는 이러한 지계표들을 아주 치워 버리거나 그 위치를 바꾸기가 쉬웠다.
 (4) 이렇게 될 경우 가난한 자를 속이고 압제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엄한 법령으로 그런 행위를 금지하셨다(참조, 신 19:14; 27:17).
 (5)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큰 사랑과 지극한 관심을 쏟으신다.
 (6) 그러므로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을 본받아서 가난한 자들과 압제받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22. ㉠ 이(利)를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지만(11:29) 뇌물(賂物)을 싫어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27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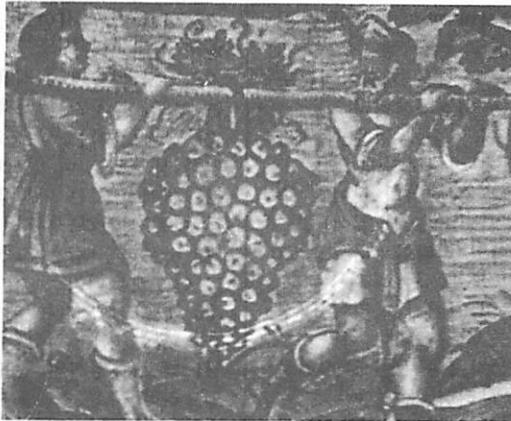
- ㉠ (1)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된다.
 (2) 이 말은 부패하지 않고 정당한 판결을 내리며 편견 없이 선정(善政)을 베푸는 판관(判官)이나 관리의 자리가 길게 유지됨을 말한다.
 (3) 또한 이 말은 탐욕이 없이 부정한 소득을 멀리하는 자가 아무 염려 없이 길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을 말해 준다.
 (4) 그러므로 성도들은 부정한 소득의 결과를 명심하여 뇌물을 멀리하고 참으로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자.

23. ㉠ 무엇이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는가? (28절)

- ㉠ (1) 의인의 마음이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
 (2) 즉 의인은 말을 꺼내기 전에 그 말이 담고 있는 내용 중에 신앙과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 있는지 확인한다.
 (3) 이러한 태도로 말미암아 의인은 함부로 말을 내뱉지 않고 신중하며 때에 맞는 말을 하게 된다.
 (4) 이와 같이 성도들도 아무 때나 함부로 말을 내뱉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여 항상 선한 말을 내도록 해야 한다.

화보자료

임의 열매. 아래의 사진은 루브르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16세기경의 도자기화로써 민 13:23의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는다(마 7:17). 이와 마찬가지로 악인의 입은 악을 쏟아 내나(28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낸다(10:31).

제 16 장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답략구분 1-9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 **10-15** 왕의 보좌는 공의로 굳게 선다 / **16-19** 악을 떠나는 것이 정직한 자가 행할 바이다 / **20-32** 여호와를 의지하라 / **33**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

1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2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모두 깨끗하되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3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리라

4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씨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5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잠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6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7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8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오니라

9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10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을즉 재판할 때에 그 입이 그릇하지 아니하리라

11 공평한 간청과 명칭은 여호와와 것이요 주머니 속의 추들들도 다 그의 지으신 것이니라

12 악을 행하는 것은 왕의 미워할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13 의로운 입술은 왕들의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히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14 왕의 진노는 살륙의 사자와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15 왕의 회색에 생명이 있나니 그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16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오니라

17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니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18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19 겸손한 자와 함께 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오니라

20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21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가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22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23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24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25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26 노력하는 자는 식욕을 인하여 애쓰나니 이는 그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27 불량한 자는 악을 피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같은 것이 있느니라

28 패려한 자는 다름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29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피어 붙손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30 눈을 감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31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32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오니라

33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1. **㉠**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마땅한 도리는 무엇인가?

- ㉠** (1) 본장은 인간이 행하는 모든 행사가 여호와와 주권 아래 있음을 가르쳐 주며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고 공의를 행하며 악에서 떠나도록 교훈하고 있다.
- (2) 이러한 교훈은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에 대해서 사람이 행할 바를 생각하게 하고 있다.
- (3) 즉 하나님께서는 대체로 인간이 생각하고 욕망하는 것보다 더욱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주신다.
- (4)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께 대하여 인간이 겸손하고 신중하게 신뢰하는 것이 마땅하다.

2. **㉠**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서 나오는가? (1절)

- ㉠** (1)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에게서 나온다.
- (2) 이것은 사람이 마음속에 계획을 세우고, 말을 정리하고, 의논들을 모으나 이를 적당하게 감동적인 말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다.
- (3) 즉 항상 여호와를 의지하여 마음의 모든 경영을 이루어야 할 것을 교훈한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말로만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하지 말고 항상 마음의 경영을 여호와께 맡기어 드림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받도록 해야 한다.

3. **㉠**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어디를 살피시는가? (2절)

- ㉠** (1)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실 때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의 심령을 살피신다.
- (2) 즉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겉으로 나타나는 모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를 하는 자의 동기(動機), 의향, 성품 등을 보신다.
- (3) 그런데 이런 세밀한 하나님의 판단을 무시하고 자기의 행위를 내세우려 하는 자는 참으로 가증한 자이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렘 17:9)이란 사실을 인정하고 자기의 행위를 내세우지 말며 마음을 살피시는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여야 한다.

4. **㉠** 인간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3절)

- ㉠** (1) 인간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인간은 자기의 행사를 여호와께 다 맡겨야 한다.
- (2) 이것은 인간이 자기 행복을 위하여 모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성취할 힘이 없으니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여호와께 맡기라는 뜻이 아니다.
- (3) 이것은 어떤 일을 경영하는 그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 뜻대로 일을 경영하면서 그 과정과 결과까지도 다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일을 이루라는 뜻이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인생의 만사(萬事)를 자기가 주인이 되어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살아감으로써 그 행사가 형통하는 복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참조, 시 1:3).

5. **㉠** 여호와께서는 온갖 것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4절)

- ㉠** (1) 여호와께서는 온갖 것을 그 씩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 (2)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한 사실에서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다.
- (3) 그러나 사람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창조주이신 여호와를 생각하고 그분의 지혜가 깊고 크심을 인정하여 그분을 경외함이 마땅하다.

6. **㉠** 여호와께서는 누구를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는가? (4절)

- ㉠** (1) 여호와께서는 악인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
- (2) 이것은 하나님이 악인을 멸망할 자로 만드셨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모든 피조물들 처럼 그에게도 선하게 쓸 수 있는 능력과 재능들을 주셨지만 그가 자유 의지로 그것을 악하게 사용했음을 뜻한다.

(3)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인들조차도 당신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악인도 하나님의 목적에 이바지하는 것이 된다.

7. **㉠** '악한 날'은 어떤 때를 가리키는가? (4절)

- ㉠** (1) 여기서 '악한 날'은 심판의 때를 가리킨다(참조, 욥 21:30; 사 10:3).
- (2) 이 날은 하나님의 도덕적 법칙에 의하여 악인들에게 불가피하게 역사하는 날이다.
- (3) 하나님께서 악을 이용하시는 예로 우리는 애굽의 '바로'를 들 수 있다(참조, 출 9:16).

8. **㉠** 서로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자는 어떠한 자인가? (5절)

- ㉠** (1) 서로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자는 마음이 교만한 자이다.
- (2) 왜냐하면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께서 그런 자를 미워하시기 때문이다.
- (3) 그 예로 인간들의 흠여짐을 방지하고 인간들의 권위를 확인해 보자는 의미로 건축되었던 바벨탑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무너지게 되었다(창 11:1-4).
- (4) 이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에게 불가능이 없는 것처럼 높아지려는 자들은 세계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 왔다.
- (5) 그러나 성도들은 인간을 의지하는 길에서 벗어나 여호와만을 의지하도록 해야 한다.

9. **㉠**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속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6절)

- ㉠** (1)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속하게 되는 것은 죄악이다.
- (2) 여기서 '인자와 진리'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 (3) 이러한 하나님의 품성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감격과 은혜를 경험한 자는 반드시 다른 이들에게도 이 품성을 소개해야 한다(참조, 고 후 1:4).

10. **㉠** 사람의 행위가 어떠한 때 원수(怨讐)까지도 화목(和睦)케 되는가? (7절)

- ㉠** (1)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때 그 사람의 원수(怨讐)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和睦)케 된다.
- (2) 즉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뜻대로 행하여 살 때 반대자들을 꺾을 뿐 아니라 도리어 존경심과 사랑을 일으키고, 또 평화의 분위기를 사방에 퍼지게 한다.
- (3) 여기서 성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경외할 때 영혼의 대적들, 즉 마귀와 세상과 육신의 공격을 정복할 수 있다는 진리를 배워야 한다.

11. **㉠** 왕이 무엇으로 재판할 때에 비로소 그 재판이 바르게 되는가? (10절)

- ㉠** (1) 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할 때 그 재판이 바르게 된다.
- (2) 본질은 한 나라가 공의로 다스려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할 것을 가르쳐 준다.

12. **㉠** 왕이 미워해야 할 바는 무엇인가? (12절)

- ㉠** (1) 왕이 미워해야 할 바는 악을 행하는 것이다.
- (2) 본질에서 악을 행한다 하는 것은 왕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
- (3) 즉 왕 자신이 악을 행하는 것을 먼저 미워해야 함을 내포하고 있다.
- (4) 이렇게 자신의 악행을 미워하는 왕만이 나라 안에서 행행하는 악을 제거할 수 있다.

13. **㉠** 왕의 보좌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굳게 서는가? (12절)

- ㉠** (1) 왕의 보좌는 공의(公義)로 말미암아 굳게 선다.
- (2) 즉 어떤 통치자가 자기 스스로 공평하고 슬기롭게 행하며, 범법자를 가차없이 처단하며 선한 자를 포상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대리자로 신실하게 행할 때 먼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므로 그 자리가 견고하게 된다.
- (3) 또한 그는 백성들에게도 신망(信望)을 얻게 되어 백성들의 성원과 지지로 말미암아 그 보좌가 견고하게 된다.

(4) 따라서 오늘을 사는 성도들은 결코 폭력이나 권도 술수(權謀術數)에 의해서는 어떤 정권도 오래가지 못함을 인식하고 공의가 실행되도록 나라의 주인으로서 나라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권리를 바르게 행사해야 한다.

14. **㉠ 왕들이 기뻐하는 입술은 어떤 입술인가? (13절)**

- ㉠** (1) 왕들이 기뻐하는 입술은 의로운 입술이다.
 (2) 즉 이상적(理想的)인 왕은 아침과 위선을 싫어하고 정직한 충언(忠言)을 좋아한다.
 (3) 물론 세상에는 충언보다 아침을 좋아하는 왕들이 많지만 그런 자는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이다.

15. **㉠ 어떤 사람이 죽음의 사자(使者)와도 같은 왕의 진노를 쉬게 만드는가? (14절)**

- ㉠** (1) 지혜로운 사람이 죽음의 사자와도 같은 왕의 진노를 쉬게 만든다.
 (2) 즉 지혜로운 사람은 정직하고 의롭게 행하며 사람의 생사(生死)를 좌우하는 왕의 노(怒)를 건드리지 않고, 또한 그는 왕이 노를 발할 때 지혜롭게 그 노를 진정시킴으로 왕의 노를 쉬게 만든다.
 (3) 이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하여 경솔하게 대응하지 않고 정직과 의를 행함으로 화평을 유지하게 한다.
 (4)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하여 정당하게 존경을 보이고 정직과 의를 행함으로 화평을 유지하며 살아야 한다 (참조, 롬 13:1-7).

16. **㉠ 왕의 은택(恩澤)은 무엇에 비유되는가? (15절)**

- ㉠** (1) 왕의 은택은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에 비유되었다.
 (2) 즉 팔레스틴에서는 3월이나 4월에 늦은 비가 와서 추수기의 곡식을 결실케 하는데 이 비들을 몰고 오는 구름에다 왕의 은택을 비유하였다.
 (3) 이것은 왕이 선한 정치를 하게 되면 그 나라 백성이 모두 혜택을 누리게 됨을 묘사한 것이다.
 (4) 이와 같이 권세 잡은 자들의 처사는 많은 대중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됨을 생각 하고, 그런 자리에 있는 성도들은 정직하고 선하게 자기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17. **㉠ 정직한 사람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대로(大路)는 어떤 것인가? (17절)**

- ㉠** (1) 정직한 사람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대로는 악을 떠나는 것이다.
 (2) 여기서 '대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참된 길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이 길은 절대 안전과 평안이 보장된 길이다.
 (3) 또한 이 '대로'가 바로 악을 떠나는 방편이 되는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지혜자의 생활을 보면 알 수 있다.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직한 자로서 악이 인도하는 위험한 결길을 피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의 대로를 걸어가자.

18. **㉠ 겸손한 자와 함께 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은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는가? (19절)**

- ㉠** (1) 겸손한 자와 함께 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은 교만한 자와 함께 하여 탈취물(奪取物)을 나누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
 (2) 왜냐하면 교만한 자의 계획과 활동의 소득물을 나눠 가지고 그들의 기쁨을 함께 즐기 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들의 범행에 동참해야 되기 때문이다.
 (3) 일찌기 시편 기자는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 (시 84:10)라고 노래하였다.
 (4) 이와 같이 성도가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악을 범하는 길이다. 다만 성도들은 악을 범하

여 풍족하게 살기 보다는 가난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의를 행하며 사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을 알아야 한다.

19. ㉠ 어떠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학식을 더하게 하는가? (21절)

- ㉠ (1) 입이 선한 자가 다른 사람의 학식을 더하게 한다.
- (2) 이처럼 입이 선한 자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언어를 구사하기 보다는 이웃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에 담긴 말을 끄집어 낸다. 즉 그는 말쟁이가 아니다.
- (3) 그러므로 성도들은 비록 달변(達辯)은 토하지 못하더라도 진정한 사랑의 마음에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여 삶의 용기를 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말을 해야 한다.

20. ㉠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24절)

- ㉠ (1) 꿀송이 같이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는 것은 선한 말이다.
- (2) 이 선한 말은 부패한 인간에게서 유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을 가리킨다.
- (3) 이런 말씀만이 최악의 고통에서 해매이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해방시키며, 인간으로 하여금 인생을 의미 있게 살도록 생기(生氣)를 제공해 준다(참조, 시 19:7-10).
- (4) 그런 까닭에 그 말씀을 예레미야는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 (렘 15:16) 이라고 하였으며 베드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신령한 젖' (벧전 2:2) 이라고 하였다.
- (5) 이처럼 성도들은 선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어 먹도록 노력해야 한다.

21. ㉠ 불량한 자의 입술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27절)

- ㉠ (1) 불량한 자의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다.
- (2) 여기서 '불량한 자'란 이웃에게 전혀 보탬이 되지 못하는 존재를 가리킨다. 더우기 그는 이웃에게 많은 피해를 고의적으로 안긴다.
- (3) 그의 또 한 가지 특징은 그의 입에는 항상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어서 혀를 놀려 파괴를 일삼는다(참조, 약 3:6-8).

22. ㉠ 다툼을 일으키는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28절)

- ㉠ (1) 다툼을 일으키는 자는 패려(悻戾)한 사람이다.
- (2) 여기서 '패려(悻戾)한 자'는 거짓만을 말하는 자를 가리킨다.
- (3) 이런 자들은 항상 남에게 마음의 상처를 안겨 주며 사회 전체에 불안을 조성시킨다.
- (4) 이런 자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말을 너무 과신하고 또한 너무 무분별한 많은 말들을 한다는 사실이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말에 특히 조심하여 선한 말이 아니면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23. ㉠ 그 이웃을 피어 불선한 길로 인도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29절)

- ㉠ (1) 그 이웃을 피어 선하지 못한 길로 인도하는 자는 강포(強暴)한 사람이다.
- (2) 여기서 '강포(強暴)한 사람'은 해로운 행동과 기만과 압제로써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이다(참조, 1:10-19).
- (3) 이런 사람은 그 이웃을 피어 불선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속아 넘어가기 쉽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런 사람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한다(참조, 벧전 5:8).

24. ㉠ 본질은 어떤 뜻으로 이해해야 되는가? (30절)

- ㉠ (1) 본질은 '패려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 눈을 감은 자, 그 입술을 닫는 자는 이미 악한 일을 이루었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 (2) 즉 패려한 일을 도모하는 자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 해도 벌써 실질적인 악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 (3) 예수님도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마 5:28)고 말씀하셨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외모를 정결하게 장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마음속의 죄악을 버리는 청결한 삶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25. **㉠ 의로운 길에서 얻게 되는 면류관은 어떤 것인가? (31절)**

- ㉠** (1) 의로운 길에서 얻게 되는 면류관은 백발의 면류관이다.
- (2) 이것은 의로운 자에게 영화로운 장수(長壽)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참조, 3:1, 2, 16; 4:10; 9:11; 10:27).
- (3)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결하게 그 인생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장수(長壽)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인가를 알아야 하고 또 사모해야 한다.

26. **㉠ 용사보다도, 또 성을 빼앗는 자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32절)**

- ㉠** (1) 용사보다도, 또 성을 빼앗는 자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이다.
- (2) 왜냐하면 힘을 쓰는 일이나 성을 빼앗는 일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한결같아야 하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이 그곳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 (3) 여기서 성도들은 인생의 성공 여부도 무슨 업적을 많이 쌓는 데 있지 않고 마음을 다스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음을 알아야 한다.

27. **㉠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일을 걱정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33절)**

- ㉠** (1)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일의 걱정은 여호와께 있다.
- (2)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한 방법으로 제비 뽑는 제도가 있었다(참조, 삼상 14:41; 은 1:7).
- (3) 그러나 비록 사람이 제비를 뽑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대로 되어졌었다.
- (4)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직접 다스리시고 계시는 큰 징표였고, 그리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었다.

본장의 요절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을 걱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33절).



연구자료

성도의 언어 생활

성도의 언어는 그 사람의 신앙 성숙도를 반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언어란 사람의 지적, 영적인 수준과 인격의 폭과 깊이, 자라나고 생활해 온 환경 등을 골고루 일시에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장에서는 정직한 말을 하는 의로운 입술과 분쟁을 일으키는 말장이 등을 등장시켜 지혜로운 자의 언어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13, 24, 28절). 그래서 본고는 보다 바람직한 성도의 언어 생활 형태를 성경 가운데서 추적, 제시하여 오늘날 다원화되고 복잡한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신앙적으로 아름다우며 대인 관계에서도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언어 생활에 도움을 주려고 한다.

1. 소극적인 언어 생활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주의해야 할 말에 관한 교훈은 하나님의 심판날에 인간이 자신의 말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거나 정죄함을 받는다는 사실이다(마 12:36, 37). 그러므로 성도의 언어는 항상 정결하고 선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소극적인 면에서의 언어 생활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성도의 말은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된다. 즉 겉으로는 칭찬을 하고 좋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 앙심이나 분노를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사 29:13; 36:5; 마 15:8; 롬 3:13). 성도들은 항상 바른말을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상황에서는 최소한 침묵을 지키는 것이 좋다(암 5:13).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남에게 아첨하거나(시 12:2-4) 남을 비방하는 험담을 해서는 안 된다(26:22). 이러한 말들은 결국 분쟁을 일으키거나 다툼을 만드는 요인들이 된다(참조, 갈 5:20). 그리고 자신에 대한 허탄한 자랑(벧후 2:18)이나 남을 속이는 간사한 거짓말(시 34:13; 58:3)도 성도의 신분으로서 지녀야 할 언어 습관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에는 아무런 악의 없이 농담으로 하는 거짓말도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행동이 뒤따르지 못하고 단지 사변적(思辨的)이기 만한 신앙적 언어도 실은 무가치한 것이다(마 23:3; 약 2:15-17). 이상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급한 마음으로 말해서는 안 되며(속 2:13) 심사숙고(深思熟考)한 후에 성도의 신분에 합당한 말만을 하기에 힘써야 할 것이다(약 1:19).

2. 적극적인 언어 생활

이제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성도들의 바람직한 언어 생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진리를 전하며(8:7; 시 119:13) 정의로운 말을 하기에 힘써야 한다(시 15:2). 왜냐하면 불신자들에게 진리와 정의를 전하고

외치는 것이 성도들의 본분이기 때문이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바른말을 하는 것은 의로운 일이기 때문에(12:17) 성도들은 진리를 전하는 일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한다(행 18:9).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정직한 말만을 해야 하며(8:6; 엡 4:25) 이와 더불어 말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입지 않게끔 조심스럽고 선한 표현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참조, 엡 4:29; 벧전 4:11). 또한 성도들은 남을 헐뜯기 보다는 칭찬하는 말과 위로하는 말을(살전 4:18) 많이 해야 하며 같은 말이라도 바르고(딤후 2:1, 8) 지혜롭고(시 37:30)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도록 힘써야 한다(시 45:2). 이처럼 바르고 아름다운 성도의 말은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루게 함'(골 4:6) 같이 세상의 불순과 부패를 방지하여 정결케 하는 능력을 지닌다. 또한 불의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성도들의 바른 주장이 비록 세상에서 미움을 받거나 목살된다 할지라도 그 진실한 입술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12:19).

3. 결론

우리의 입은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실족케 하는 독이 들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이 될 수도 있다(약 3:8-12). 성경에서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약 3:2)고 했을 정도로 정결한 언어 생활은 어려운 것이지만 성도들은 구원받은 천국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언행을 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전하며 정의를 외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살전 2:4, 5).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시 119:171-175) 데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연약하여 말에 실수가 많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옳고 선한 말만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시 141:3).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 뿐만 아니라 행실과 사랑, 믿음과 정결이 타인들에게는 본이 되고(딤후 4:12)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 있어야(시 19:14) 한다는 점이다. 결국 성도의 언행은 '하나님 앞에서'(라, 코람 데오) 행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고 단정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때의 지혜로운 말을 성경에서는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라고 칭찬하였다(25:11).

제 17 장 미련함을 버려라

단락구분 1-9 화평(和平)이 다름보다 낫다 / 10-25 미련한 자는 근심거리가 된다 / 26-28 미련한 자는 잠잠하라

- 1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 2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겠다고 또 그 아들들 중에서 유업을 나눠 얻으리라
- 3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 4 악을 행하는 자는 케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 5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 6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버지는 자식의 영화니라
- 7 분노의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치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 8 뇌물은 임자의 보기에 보석 같은 즉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하느니라
- 9 허물을 덮어 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 10 한 마디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이 백 개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이느니라
- 11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입으리라
- 12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 13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갠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 14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 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 15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와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 16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쩔인고
- 17 친구는 사람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났느니라
- 18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 19 다름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 20 마음이 사투한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 21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버지는 낯이 없느니라
- 22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때로 마르게 하느니라
- 23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 24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 25 미련한 아들은 그 아버지의 근심이 되고 그 어머니의 고통이 되느니라
- 26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이 선치 못하니라
- 27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존한 자는 명철하니라
- 28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1. ㉠ 본장의 중심 되는 교훈은 무엇인가?

- ㉠ (1) 본장의 중심 되는 교훈은 가난하더라도 화목을 좇으며 악행과 거짓을 버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과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미련한 자의 완고함과 그 폐해를 지적하면서 미련함을 버리라는 것이다.
- (2) 그런데 지혜를 추구하는 지혜자를 이렇게 미련한 자와 대조시켜 말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 지혜로운 자의 실체를 더욱 선명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3) 그러므로 성도들은 여기서 미련한 자의 모습을 잘 파악하며 그 길을 경계하고 버림으로 지혜자의 길로 가야 한다.

2. **㉠**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은 무엇보다 더 가치 있는가? (1절)

㉠ (1) 그것은 육선(肉膳)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더 낫다.

(2) 그런데 이스라엘 가정에서는 감사제나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 제물의 일부만 제단에서 불사르고 그 나머지는 성소물로 가져나와 가족끼리 나누어 먹는 것이 통례(通列)였다(참조, 레 7:16; 19:5, 6).

(3) 그러나 이렇게 신성한 제사를 드린 후에 즐겁게 먹어야 할 그 자리가 다툼의 자리가 될 수도 있었다(참조, 삼상 1:4, 7):

(4) 이처럼 다툼의 자리가 되는 것은 그들 안에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순종과 감사가 없기 때문이었다.

(5) 그러므로 이처럼 외식(外飾)하는 삶보다는 가난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다.

(6) 오늘날 성도들도 이같이 종교적인 외식(外飾)에 빠지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가정의 평화를 이루어 가도록 해야 한다.

3. **㉠** 누가 주인에게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게 되는가? (2절)

㉠ (1) 슬기로운 종이 주인에게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게 된다.

(2) 이 말은 슬기로운 종이 높은 명예를 얻을 수 있고 그 주인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 사실과 더불어 그 종이 오히려 주인의 아들보다 지혜로움을 나타내 준다.

(3)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의 지위나 부귀에 눈이 어두워져 정욕이 이끄는 대로 악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그에 따른 충성으로 행해야 할 것이다.

4. **㉠**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 여호와는 무엇을 연단시키시는가? (3절)

㉠ (1) 여호와께서는 도가니가 은을, 풀무가 금을 연단하듯이 사람의 마음을 연단시키신다.

(2) 즉 도가니와 풀무가 광석(鑛石)에서 순수한 광물질을 뽑기 위해 광석들을 용해시키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서 숨은 죄악들을 제거하시며 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사람의 마음을 단련시키신다.

(3)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연단의 방법은 슬픔, 질병, 고난, 시험 등이며 사람의 마음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 순금처럼 깨끗게 되어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참조, 욥 23:10; 사 1:25; 말 3:3; 뱀전 1:7).

(4) 그러므로 성도들은 환난과 고통과 곤고 속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5. **㉠** 손자는 누구의 면류관인가? (6절)

㉠ (1)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다. 여기에서 '손자'란 문자적으로 '아들들의 아들들'이란 뜻으로 결국 여러 대를 포함한 많은 후손들을 가리킨다. 그리고 '노인'은 단순히 늙은이가 아니라 '조상들'을 가리킨다.

(2) 그러므로 '손자가 노인의 면류관'이란 말은 자손들의 훌륭한 행위로 그 조상들에게 큰 영광을 끼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3) 이와 같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자신의 조상들에게 큰 영광을 돌리는 훌륭한 자손들이 되어야겠다.

6. **㉠** 존귀한 자에게 합당치 않은 것은 무엇인가? (7절)

㉠ (1) 존귀한 자에게 합당치 않은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2) 여기서 '존귀한 자'는 백성들에게 신망(信望)의 대상이 되는 지도자를 뜻한다.

(3) 그런데 그런 존귀한 자가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

들이 그릇된 길로 가게 된다.

(4) 그러므로 지도자들은 특히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여야만 한다.

7. **㉠ 무엇이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아서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하는가? (8절)**

㉠ (1) 뇌물(賂物)은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아서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한다.

(2) 여기서 '임자'는 타인으로부터 뇌물을 전달받은 자를 가리킨다. 이들은 그 뇌물로 인하여 정의롭게 행해야 할 일(판결 등)을 그릇되게 만든다.

(3) 만일 이런 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이 속한 공동체는 질서가 무너지고 끝내 멸망하게 될 것이다.

(4) 그러므로 성도들은 뇌물을 주는 것도 또 받는 것도 모두 자신과 자신의 나라를 망치게 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이 악행을 근절(根絶)시켜야 한다.

8. **㉠ 허물을 덮어 주는 자는 무엇을 구하는 자인가? (9절)**

㉠ (1) 허물을 덮어 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이다.

(2) 즉 자기에 대해 해로운 행동을 했거나 욕하는 말을 한 사람에게 대해 인내로써 고요히 참으며, 그 죄를 갚지 않고 덮어 두려 하는 자는 사랑을 추구하는 자요 사랑의 큰 계명을 이루는 자이다.

(3) 더우기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마 6:12) 라고 우리들이 해야 할 기도를 가르쳐 주심으로 사죄(赦罪)의 은혜를 받은 선지자들이 그 사랑을 스스로 나타내도록 하셨다.

(4)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참조, 요일 4:9-11) 그 사랑을 본받아 이웃의 허물을 덮어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

9. **㉠ 한 마디 말로 총명한 자를 경계하는 것은 어떤 것보다 더욱 효과가 있는가? (10절)**

㉠ (1) 한 마디 말로 총명한 자를 경계(警戒)하는 것이 때 백 개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효과 있다.

(2) 이 말은 결국 합당한 책망이 많은 형벌보다 더 깊은 인상을 남긴다는 뜻이다.

(3) 이와 같이 사람은 인격적인 말로써 교훈을 받을 때 그것을 받아드려 바른길로 나아가야 한다.

10. **㉠ 악한 자에게 잔인(殘忍)한 사자가 보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11절)**

㉠ (1) 잔인(殘忍)한 사자가 보내지는 이유는 악한 자가 계속해서 반역만을 피하기 때문이다.

(2) 본질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처럼 완악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보복을 말해 준다(참조, 출 9:34).

(3) 그런데 모든 죄는 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이런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해와 비를 내리시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므로 계속해서 반역을 행한다(참조, 롬 1:18-21).

(4) 그러므로 이런 회개치 않는 악한 자들에게는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참조, 벧후 1:3).

11. **㉠ 새끼 삯갓긴 암퇘지보다 더 무서운 자는 누구인가? (12절)**

㉠ (1) 새끼 삯갓긴 암퇘지보다 더 무서운 자는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이다.

(2) 이러한 자들은 요나단에 대한 사울의 무분별한 말(참조, 삼상 20:30)과 헤롯의 베들레헴 유아 학살 사건(참조, 마 1:16), 예수님께 대해 분기가 가득했던 자들(참조, 눅 6:11)의 경우가 해당된다.

(3) 즉 이들의 잔악과 강포는 누구도 말할 수 없는 미련함으로 가득 찬 자들의 행위였다.

(4) 이와 같이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여 미련하게 되면 동물의 잔악함 보다 더 잔악하며 강포를 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12. **㉠** 사람이 악으로 선을 갚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가? (13절)

- ㉠** (1) 사람이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자기 집에서 떠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2) 그 예로 유대인들은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들리라’ (마 27:25) 라는 배은 망덕(背恩忘德)의 악을 행하므로 그 후 참혹한 벌을 받아서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3) 그러므로 성도들은 악으로 선을 갚는 미련함을 철저히 버려야 한다(참조, 벰전 3:9).

13. **㉠** 여호와와 미워하심을 입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15절)

- ㉠** (1) 악인은 의롭다 하며 의인은 악하다 하는 자들이 여호와와 미워하심을 입는 자들이다.
 (2) 왜냐하면 이 둘은 모두 의(義)를 왜곡되게 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참조, 사 5:23).
 (3)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의(義)를 왜곡시키고 하나님에게서 독립해서 스스로 서려 해도 하나님의 의(義)는 변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는 중단되지 않는다.
 (4) 그러므로 이런 사악한 자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받게 되며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입게 된다.

14. **㉠** 미련한 자가 무지한 것은 어떤 모습에서도 드러나는가? (16절)

- ㉠** (1) 미련한 자가 무지한 것은 지혜를 마음으로가 아니라 손에 든 돈으로 얻으려 하는 모습에서도 드러난다.
 (2) 즉 미련한 자들은 지혜 역시 다른 물건들처럼 돈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그러나 지혜는 마음이 열려 있지 않고는 누구도 얻을 수 없다.
 (4)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눅 24:25) 라고 하였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눅 24:45) 하셨다.

15. **㉠** 진정한 친구는 어떤 때 드러나게 되는가? (17절)

- ㉠** (1) 진정한 친구는 그 사랑이 한결같으므로 역경을 당할 때 뚜렷하게 드러난다.
 (2) 즉 이러한 참된 친구는 형제와 같아서 위급한 때에도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큰 도움이 된다.
 (3) 성도들에게는 이런 참된 친구가 있는데 그분은 곧 예수님이시다(참조, 요 15:13, 14).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과 교제를 끊임없이 유지하며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그분의 친구 됨을 나타내야 한다.

16. **㉠**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무엇을 구하는 자인가? (19절)

- ㉠** (1)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破壞)를 구하는 자이다.
 (2) 즉 지탱할 능력도 없으면서, 악한 행동으로 호화로운 저택 속에서 분수에 넘치는 생활을 하는 자는 결국 자신의 패망을 구하는 자임을 말한다.
 (3) 그러므로 성도들은 분수를 모르고 악을 피하며 사치스런 생활을 하여 스스로를 패망케 하는 미련함을 버려야 한다.

17. **㉠** 어떤 사람이 복을 얻지 못하고 재앙에 빠지게 되는가? (20절)

- ㉠** (1) 마음이 사투한 자가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가 재앙에 빠지게 된다.
 (2) 이것은 마음에 진실성이 없어 거짓을 좋아하는 자가 영적인 면에서는 물론이고 물질적인 면에서도 복을 얻지 못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성도들은 사투함과 패역을 버리고 진실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

18. **㉠** 악인이 재판관을 굽게 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23절)

- ㉠** (1) 악인이 재판관을 굽게 하는 원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았기 때문이다.
 (2) 여기서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은밀하게 건네지는 뇌물을 말한다.
 (3) 그리하여 이런 은밀한 뇌물을 받은 재판관은 악한 사람이 되어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재판관을 굽게 판결하므로 의인을 괴롭히고 만다.

- (4) 오늘날 이러한 불의는 한 개인의 결정에서부터 한 국가의 법 집행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찾아 볼 수 있다.
- (5) 이러한 데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답게 공의를 행하고 바른 판단을 하여 악에게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19. **㉠** 지혜는 어떤 사람의 앞에 있는가? (24절)

- ㉠** (1) 지혜는 명철한 사람의 앞에 있다.
- (2) 여기서 ‘앞에 있다’는 말은 명철한 자가 그 눈을 ‘지혜’로 향하니 ‘지혜’는 그 빛을 그에게 비추리라는 뜻이다.
- (3) 이와 같이 지혜는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한 분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그 분만을 경외할 때 얻게 된다(참조, 시 62:1-8).

20. **㉠** 미련한 자는 지혜를 찾는다면서 그 눈을 어디에 두는가? (24절)

- ㉠** (1) 미련한 자는 지혜를 찾는다 고 하면서 그 눈을 땅 끝에 둔다.
- (2) 여기서 ‘그 눈을 땅 끝에 둔다’는 말은 눈의 초점이 없이 수백 가지 사물에 마음을 두는 미련한 자의 허영심과 탐욕에 이끌린 비참한 실상을 말한다.
- (3) 그리하여 미련한 자는 결국 지혜를 얻지 못하고 헛된 고생만 하게 된다.
- (4) 그러므로 지혜를 얻고자 하는 자는 탐심과 허영에 들뜬 미련한 자의 길을 버려야 한다.

21. **㉠** 아버지의 근심이 되고 어미의 고통이 되는 자식은 어떤 자식인가? (25절)

- ㉠** (1) 미련한 자식이 아버지의 근심과 어미의 고통이 된다.
- (2) 이런 미련한 자식은 지능이 모자란 저능아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뻔뻔스럽고, 자기를 과신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의 선한 훈계를 무시하는 자이다.
- (3) 그러나 이런 자는 자기가 미련한 줄 모르고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고 똑똑하게 살아간다고 오해한다.
- (4) 그러므로 그의 미련은 고침 받기가 심히 어렵고 자나 깨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22. **㉠** 어떤 자들이 의인을 벌하고, 귀인(貴人)을 정직하다고 때리는가? (26절)

- ㉠** (1) 선치 못한 자들이 의인을 벌하고 귀인(貴人)을 정직하다고 때린다.
- (2) 본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으로 공의를 실행해야 한다(롬 13:1).
- (3) 그러나 악한 자들이 악한 방법으로 정권을 잡게 되면 올바르게 살아가는 의인들을 붙잡아 들여서 옥살이를 시키며 정직하게 행하려 하는 자들을 꺾박한다.
- (4) 그러므로 이런 자들은 선치 못한 자들이므로 오래 가지 못하고 그 행위대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23. **㉠** 왜 성품이 안존(安存)한 자가 명철하다고 하는가? (27절)

- ㉠** (1) 성품이 안존(安存)한 자는 먼저 생각하고 나서 말하며 성급하게 대답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말은 무게가 있고 가치가 있어 값비싼 보석처럼 빛난다.
- (2) 그러므로 우리는 감정에 이끌리지 말고 오히려 감정을 지배해야 한다.

24. **㉠** 사람이 지혜로운 자와 슬기로운 자로 여김 받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28절)

- ㉠** (1) 그것은 잠잠히 입을 닫고 침묵하는 데 있다.
- (2) 이것은 미련한 자에게도 적용되어서 그가 비록 미련하여 바른 지식이 없더라도 자기 입을 슬을 닫고 지혜자의 말은 듣게 될 때 그도 지혜로운 자로 여김 받게 되는 것이다.
- (3) 그러므로 이 말은 성도들이 말을 지극히 조심스럽게 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다. 사도 야고보는 ‘누구든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하였다(약 1:19).

연구자료

어리석은 자와 교만

본서에서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그리고 겸손과 교만에 대하여 서로 비교하면서 여러 번 언급하고 있다. 특히 본서에서 말하는 이러한 단어들의 개념은 신약을 이해할 때에 많은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단어들이 여기서 단순히 윤리적이거나 철학적인 용어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용어로도 사용되었으며 신약에서도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고는 어리석은 자와 교만의 의미 및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들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어리석은 자

성경에서 사용되는 '어리석음'이란 말은 지적 저능(低能)이나 정신 이상과 같은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단어는 성경이 말하는 도덕률과 영적인 가치를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으로 더 많이 언급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어리석은 자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① 도덕적으로 나쁜 상태에 있는 어리석은 자: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태에 빠진 자는 미련한 자, 지혜 없는 자, 게으른 자, 거만한 자, 또는 교만한 자 등으로 불리어진다. 이러한 사람의 특성은 경솔하며(24절;10:33), 다른 사람의 충고를 받지 아니하며(12:15), 교만하며(14:3), 다무기를 좋아하고(18:6), 혼계를 업신여기며(15:5),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고(18:2),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며(26:11), 자기의 마음만을 믿으면서(27:26), 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계속 발한다(22:16;29:11).

② 종교적으로 어리석음에 빠진 자: 이 경우에 어리석은 자와 유사하게 사용된 용어로는 '악인'이란 말이 있다.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하여 '미련한 자', '거만한 자', '교만한 자'로도 불리어졌다. 이러한 자는 지혜와 혼계를 멸시하며(1:7),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며(1:11), 자기를 죽이며(1:32), 죽음이 자기와 함께 있음을 알지 못하며(9:18),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며(11:29),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14, 8),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으며(14:18), 악한 자로서(전 7:25),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다(19:29). 어리석은 자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근본 원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며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참조, 시 14:1). 그렇기 때문에 본서는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라고 교훈하고 있다(24:9).

2. 교만

본서의 지혜자는 교만을 모든 죄의 기원으로 생각하였다(참조,

16:18;18:12).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된 동기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었던 것이었음을 고려할 때, 교만한 마음을 품는 자는 악인이며, 그 특징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무시하는 것이다(참조, 시 10:4).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망령된 자와 동일하다(21:24). B. C. 4세기 말엽에 헬라에서는 교만을 하나의 덕으로 보고 겸손을 비열한 것으로 간주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세상의 지혜를 가장 귀중한 것으로 여기던 헬라 철학자들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다고 선포했다(고전 1:20). 이처럼 겸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일치되듯이(참조, 22:4) 교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믿는 것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며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약 4:6; 벰전 5:5). 또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므로 그들과 손을 잡고 협동하면 벌을 내리신다고 하였다(16:5). 이러한 것을 고려해 볼 때 성경이 겸손을 최고의 덕으로 삼았던 반면에 교만을 가장 큰 죄악으로 취급한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

3. 어리석은 자와 교만의 관계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본서의 지혜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인간의 어리석음과 관련지를 뿐 아니라 교만한 마음과도 일치시켰다. 그리고 그들의 운명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멸망으로 끝난다는 면에서도 일치한다(비교, 16:18;19:29). 그러나 어리석은 행위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덕률과 영적 가치를 무시하는 악한 행위 전체를 포함하는 반면 교만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나타난 인간의 반역 행위임을 감안할 때, 이들의 관계는 동일시될 수 없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교만도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어리석은 행위에 포함되는 죄악의 요소 중 하나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4. 결론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는 자는(3:7;26:5;사 5:21;롬 12:16;갈 6:3) 미련한 자보다 더 미련하다(참조, 16:12).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 뿐 아니라 그분 말씀이 우리 속에 없는 것이다(요일 1:10).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으며(3:34;약 4:6;벰전 5:5),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된다(22:4).

제18장 우리 가운데서 덕을 세우라

단락구분 1-9 미련한 자는 멸망을 자초(自招)한다 / 10-15 교만을 버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 16-24 다름을 피하고 화목하라

- 1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 2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지만 기뻐하느니라
- 3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 4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 5 악인을 두호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느니라
- 6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름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 7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 8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 9 자기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 10 여호와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 11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 12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 13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 14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 15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 16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 17 송사에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 18 제비 뽑는 것은 다름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케 하느니라
- 19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우며 이러한 다름은 산성 문지방 같으니라
- 20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 21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 22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 23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 24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1. ㉠ 본장의 주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장은 주로 사교, 우정, 친철 등 사회 생활에서의 덕을 내용으로 하여 다루고 있다.
 (2) 그리하여 처음과 끝에 염세적 이기주의와 무분별한 친구 사귀음을 경계하면서 그 중간에 여러 가지로 다루고 싸우고 파당짓는 것을 비난하였다.
 (3) 성도들은 이러한 교훈에 주의하여 염세적 이기주의를 배격하고 교만과 다름이 많은 우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의지하여 화목을 이루도록 힘을 써야 한다.

2. ㉡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무엇을 따르는 자인가? (1절)

- ㉡ (1)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所慾)을 따르는 자이다.
 (2) 이 말씀은 오만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타인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자가 자기의 이익과 목적만을 추구한다는 말이다.
 (3) 그렇지만 성도들은 참지혜를 배척하는 이러한 염세적(厭世的) 이기주의를 배척하고 시대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진리만 좇아가야 한다.

3. **㉠ 미련한 자가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가? (2절)**

- ㉠** (1) 미련한 자가 기뻐하는 것은 명철을 무시하고 자기 의사만을 드러내는 것이다.
 (2) 즉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좋아하지 않고 유한(有限)한 인생의 짧은 지식만을 자랑하며 그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행동한다.
 (3) 그러나 이같이 미련한 자는 그가 기뻐하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자초하고 만다.
 (4) 여기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중심한 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자기의 욕심과 고집을 여전히 내세우는 미련한 자의 뒤를 따르거나 않는지 자기를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4. **㉠ 악한 자가 이를 때에 따라 오는 것은 무엇인가? (3절)**

- ㉠** (1) 악한 자가 이를 때에 따라 오는 것은 멸시이다.
 (2) 여기서의 멸시는 그가 악하기 때문에 받는 멸시가 아니라 악한 자가 순결하고 선한 진리의 세계에 대해 가지는 태도를 가리킨다(참조, 시 31:18).
 (3) 이러한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취했던 태도들이었다.

5. **㉠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무엇과 같은가? (4절)**

- ㉠** (1)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불과 같다(참조, 20:5).
 (2) 왜냐하면 명철한 사람이 함부로 말을 하지 않고 신중히 생각하여 긴요한 말만을 하기 때문이다.
 (3) 이처럼 참된 지혜는 깊은 묵상(默想)과 신중함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므로 성도들은 이 같이 명철한 자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

6. **㉠ 지혜의 샘은 무엇에 비유되고 있는가? (4절)**

- ㉠** (1) 지혜의 샘은 솟쳐 흐르는 내에 비유되고 있다.
 (2) 여기서 '솟쳐 흐르는 내'는 계속해서 새롭고 신선한 물이 솟아 흐르도록 하는 내를 가리킨다.
 (3) 그리고 '지혜의 샘'은 명철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의 말들을 가리킨다.
 (4) 그러므로 본질은 명철한 자의 말이 그 주변에 새롭고도 신선한 생명력을 공급해 줌을 가르쳐 준다.
 (5) 이와 같이 오늘날 성도들의 말도 자신들의 주변에서 새롭고 신선한 생명력을 공급하는 샘이 되어야 한다.

7. **㉠ '악인을 두호(斗護)하는 것'은 어떤 태도를 말하는가? (5절)**

- ㉠** (1) '악인을 두호(斗護)하는 것'은 사실대로, 또는 의(義)의 바른 원칙에 따라 재판치 않고 사람의 외모, 태도, 재산, 가문과 같은 외적인 것들을 기준하여 편파적으로 판단하는 태도를 말한다(참조, 레 19:15).
 (2) 이러한 편파적 태도는 공의(公義)로우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선하지 못한 행위이다(참조, 시 82:2).
 (3) 하지만 성도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절대로 이같이 편파적인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

8. **㉠ 미련한 자의 입과 입술은 그 자신에게 무엇이 되는가? (7절)**

- ㉠** (1) 미련한 자의 입은 그 자신에게 멸망 거리가 되고 그의 입술은 그 자신에게 영혼의 그물이 된다.
 (2) 즉 미련한 자는 자기가 한 말로 스스로 올라미에 빠지며 또 자기의 생명을 위협에 빠뜨린다.
 (3) 이와 같이 미련한 자는 스스로 함정에 빠지므로 이같이 미련한 자를 거꾸러뜨리려고 일

부러 올라가미와 함정과 덫을 놓을 필요는 없다.

9. **㉠** 누구의 말이 별식(別食)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는가? (8절)

- ㉠** (1)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別食)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2) 이 말은 '남을 험담하는 말이 듣기가 좋아서 잘 받아들여진다'는 뜻이다.
 (3) 그러나 성도들은 남을 험담하는 말이 가져오는 해를 알고 이러한 악행을 버려야 한다.

10. **㉠** 어떤 사람이 패가(敗家)하는 자의 형제인가? (9절)

- ㉠** (1) 자기의 일을 게을리 하는 사람이 패가(敗家)하는 자의 형제이다.
 (2) 그런데 '패가(敗家)하는 자'는 단순히 무모한 지출로써 재산을 탕진하는 자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런 패가를 기뻐하며, 거기에서 어떤 병적인 희열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3) 또한 본질은 의무를 게을리 함이 실제적인 멸망 만큼이나 악한 것임을 보여 준다.
 (4) 그러므로 성도들은 큰 일을 못 하더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만은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게 행함으로 악을 방지토록 해야 한다.

11. **㉠** 의인은 어디로 달려가 안전함을 얻는가? (10절)

- ㉠** (1) 의인이 달려가 안전함을 얻는 곳은 견고한 망대와 같은 여호와와 이름이다.
 (2) 여기서 '여호와와 이름'은 여호와와 성품과 권위를 가르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 자비, 능력, 지식이 크고 풍성함을 나타낸다.
 (3) 그리고 여호와와 그런 성품과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천지가 요동해도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위급시에 보호처가 되는 견고한 망대에 비유되었다.
 (4)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의인은 자기를 에워싼 고난과 위협 속에서도 여호와께 피하여 안전함을 유지하며 산다.
 (5) 오늘날 격변하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견고한 망대 같으신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안전한 인생 항해를 할 수 있다.

12. **㉠** 부자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11절)

- ㉠** (1) 부자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는 것은 그의 재물이다.
 (2) 즉 부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의인과는 달리 그의 재물을 인생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를 지켜 줄 무너지지 않는 요새로 생각한다.
 (3) 그러나 부자가 의지하는 재물은 불확실하고 신기루 같은 것이어서 의인의 견고한 망대가 되는 하나님과 비교할 때 초라하기가 그지없다.
 (4)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화려함과 사치스러움 때문에 재물을 의지하고 있다.

13. **㉠** 사람이 귀하게 여김을 받는 지름길은 무엇인가? (12절)

- ㉠** (1) 사람이 귀하게 여김을 받는 지름길은 겸손이다.
 (2) 이 겸손은 사람이 창조주를 기억하고 자신이 피조물임과 죄인 됨을 아는 데서 출발한다.
 (3) 또한 이렇게 출발된 겸손은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긴다(참조, 빌 2:3).
 (4) 그러나 겸손은 공연히 자기를 스스로 나쁘게 하고 해치며 깎아 내리는 것은 아니다.
 (5) 진정한 겸손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인식하는 가운데 자기를 다 드러서 봉사하기를 힘쓰되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분께 모든 것을 돌리는 것이다.
 (6)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러한 겸손을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드러내어 하나님과 사람에게 귀하게 여김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14. **㉠**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어떤 과오를 범하게 되는가? (13절)

- ㉠** (1) 그는 상대방의 진의(眞意)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단지 일부의 말로만 상대방을 판단하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와 쓸데없는 혈기를 부리게 만든다. 결국 이러한 혈기와 분쟁은 육에 속한 요소로서 서로에게 덕이 되지 못한다(갈 5:17-61).

- (2) 위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그의 말을 끝까지 들어야만 한다.
- (3) 그러므로 성도들은 매사에 성급하게 뛰어드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침착하고 차분하게 상대를 이해하도록 노력해야겠다.

15. **㉠** 사람에게서 회복하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가? (14절)

- ㉠** (1) 사람에게서 회복하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은 사람의 심령(心靈)이다.
- (2) 즉 인간의 육신은 상하고 연약해져도 심령이 강건하면 사람은 지탱할 수 있다.
- (3) 그러나 심령 자체가 상하게 되고 쇠약해지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그리하여 영이 상해지면 고칠 길이 없어진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특별히 형제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참조, 눅 17:2).

16. **㉠** 무엇이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고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는가? (16절)

- ㉠** (1) 선물은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고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
- (2) 그런데 여기서 ‘선물’이란 불의한 뇌물이 아니라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거나 바라지 않고 다만 상대방에 대한 순수한 존경과 사랑으로 주는 선물을 말한다(삼상 25:18-27).

17. **㉠** 송사(訟事)에 있어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는 것은 무엇인가? (17절)

- ㉠** (1) 송사에 있어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는 것은 바른 것 같았지만 그릇된 원고의 말이다.
- (2) 즉 사람은 항상 자기를 중심해서 말하기 때문에 말하는 당시에는 그것이 옳은 것 같으나 진실이 공개되면 자기의 잘못된 것이 드러나게 된다.
- (3)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기 중심으로 일을 해석하고 처리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고 객관성 있게 일을 처리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18. **㉠** 제비뽑는 것은 강한 자 사이의 다툼에 어떤 효과를 가지는가? (18절)

- ㉠** (1) 제비뽑는 것은 강한 자 사이의 다툼을 쉬게 하며 그 둘 사이의 문제를 선하게 해결케 하는 효과를 가진다.
- (2) 그런데 만약 강한 자들이 이러한 선한 방법을 저버리고 서로의 힘에만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자타(自他)에게 다 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

19. **㉠** 인간 관계에서 견고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21절)

- ㉠** (1) 견고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인간 관계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다.
- (2) 이것은 형제나 사랑하던 친구가 노를 발할 때 그가 돌이킬 수 없는 적이 되어 버림을 말하는 것이다.
- (3) 이렇게 하여서 18절의 화목을 더욱 대조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러한 엄청난 결과가 생기기 전에 형제나 사랑하는 사람을 노엽게 하는 일이 없도록 화목하기에 힘써야 한다.

20. **㉠** 지혜자는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 하였는가? (21절)

- ㉠** (1) 지혜자는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 (2) 이 말은 사람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으로 혀의 영향력이 극히 중대함을 지적한다.
- (3)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를 받으리라’고 하신 말씀과도 통하는 교훈이다.
- (4) 이렇게 혀로부터 나오는 말이 중요한 것은 그 말이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올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매사에 살리는 말을 내도록 혀를 잘 사용하자.

21. **㉠** 지혜자는 아내를 얻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기술하였는가? (22절)

- ㉠** (1) 지혜자는 아내를 얻는 자가 복을 입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라고 기술하였다.
 (2) 그런데 본절에서 '아내' 라고 한 것은 이상적인 아내란 의미에서 사용한 것이다.
 (3) 왜냐하면 이상적인 아내만이 참된 의미에서의 아내일 수 있고, '아내' 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참조, 31:10-31).
 (4)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복과 은총으로 주시는 '아내'를 얻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 그 일을 전적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5) 이 예를 이삭에게서 볼 수 있다. 그는 리브가를 처음 만날 때에도 들에 나가 묵상(默想)하고 있다가 그녀를 맞아들였다(창 24:63-66).

22. **㉠** 23절에서는 가난한 자와 부자의 어떤 모습이 풍자적으로 대조되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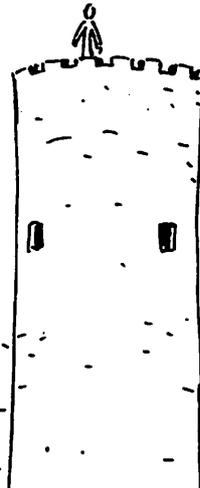
- ㉠** (1) 가난한 자의 비참함과 부자의 냉혹함이 풍자적으로 대조되었다.
 (2) 이러한 광경은 오늘날도 흔하게 목격되는 장면이며 특별히 배금주의(拜金主義) 사회에서는 너무도 당연시되고 있다.
 (3)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면 이러한 몰인정과 냉혹함은 당연히 배격되어야만 한다.

23. **㉠** 지혜자는 친구 사귄데 대하여 어떤 교훈을 하였는가? (24절)

- ㉠** (1)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나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고 교훈했다.
 (2) 이 말은 실로 필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란 친구의 수가 아니라 참된 친구, 즉 친구의 질임을 교훈한다.
 (3) 그런데 참된 친구는 이기적인 목적의 대상자가 아니라 순수한 사랑을 목적으로 사귄데를 가질 때 생겨진다.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친구를 사귀려 해서는 안 되고 다만 사랑 안에서 순수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본장의 요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10절).



제 19 장 온유(溫柔)한 자가 복되다

단락구분 1-17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 18-29 인자(仁慈)한 마음으로 징계(懲戒)하라

- 1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입술이 패려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오니라
- 2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 3 사람이 미련하므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 4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 5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 6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 7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 8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 9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 10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치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라
- 11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 12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 13 미련한 아들은 그 아버지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 14 길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나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 15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주될 것이니라

- 16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 17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 18 네가 네 아들에게 소망이 있을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 19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 주면 다시 건져 주게 되리라
- 20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 21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 뜻이 완전히 서리라
- 22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오니라
- 23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이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 24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율기를 피로와하느니라
- 25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경성하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 26 아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 27 내 아들이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 28 망령된 증인은 공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 29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1. ㉠ 본장의 개요를 말하라.

- ㉠ (1) 본장에는 모든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유(溫柔)하며 겸손하게 행하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2) 그리하여 본장에서는 가난한 자가 성실히 행함,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김, 자녀 훈계에서의 인자한 징계 등을 칭찬하고 있다.
- (3) 이러한 온유와 겸손을 권하는 교훈은 신약의 온유한 자에 대한 배경적 설명이 된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모든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유하고 겸손히 행하도록 해야 한다.

2. **㉠ 어떠한 소원이 선(善)치 못하고 악한가? (2절)**
㉡ (1) 지식 없는 소원이 선치 못하고 악하다. 여기서 '지식 없는 소원'이란 '지식 없는 생(生)'을 말한다.
 (2) 즉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행하여야 할 지를 모를 때 그 삶은 악한 삶이 되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존재인가를 알아서 선한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
3. **㉠ '발이 급하다'는 것은 어떻게 행함을 가리키는가? (2절)**
㉡ (1) '발이 급하다'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의 성급한 행동을 뜻한다.
 (2) 즉 이것은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기 보다는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대로 행함을 뜻한다.
 (3)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자기의 마음 중심을 살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함으로써 어떤 일에서든지 성급하고 경솔하게 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 사람이 자기의 길을 급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절)**
㉡ (1) 사람이 자기의 길을 급게 하는 이유는 사람이 미련하기 때문이다.
 (2) 즉 인간은 지각이 있으므로 스스로 생각하고 올바른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데도 그 지각을 바르게 사용치 못하고 악한 데에 사용하므로 길을 급게 한다.
 (3) 이처럼 인간의 미련함은 스스로 자기 길을 급게 하는 자신의 악한 성향을 정당시하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데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난다.
 (4) 그러므로 인간이 이러한 미련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의 모습을 냉철하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만 한다.
5. **㉠ 일반적으로 세상에서의 친구 사귀는 무엇에 좌우되는가? (4절)**
㉡ (1) 대개 세상에서의 친구 사귀는 상대방에게서 어떤 유익한 것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2) 이러한 것을 지혜자는 '재물이 많은 것'과 '가난함'을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다.
 (3) 그러나 이런 사귀는 자기를 중심으로 한 이기적(利己的)인 친구 사귀으로써 진정한 사랑이나 우정(友情)을 맛볼 수 없다.
6. **㉠ 어떠한 증인이 벌을 면치 못하게 되는가? (5절)**
㉡ (1) 거짓 증인이 벌을 면치 못하게 된다.
 (2) 증인은 본래 진실을 증언하기 위하여 있는 자인데 이런 자가 거짓을 말하게 되면 그 피해는 2중, 3중으로 겹치게 된다.
 (3) 더우기 거짓 증인은 인간의 폐부를 자세히 살피시며 그 세세한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이므로 이런 자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
 (4) 이와 같이 거짓 증인이 당할 벌을 생각할 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들로서 진실만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7. **㉠ 가난한 자는 형제들과 친구에게 어떤 대우를 받게 되는가? (7절)**
㉡ (1)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으며 또한 그 친구에게서는 따돌림을 받게 된다.
 (2) 이것은 인간과 인간 서로간의 관계에서 지극한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세상 사람들의 실상이다.
 (3) 그러나 가난한 자는 이런 세상의 따돌림을 당할 때 그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께 그 시선을 돌려서 그분의 도와 주심을 간구해야 한다.
 (4) 그럴 때 그의 가난은 세상에서는 따돌림 당해도 오히려 큰 복이 된다(참조, 마 5:3).
8. **㉠ 어떠한 자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인가? (8절)**

- Ⓐ (1) 지혜를 얻는 자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이다.
- (2)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곳에서 참된 만족을 얻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만족하게 하므로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 (3) 그러므로 성도들은 지혜를 얻어서 영혼을 만족케 하여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9. **㉠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보다 더 적당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10절)**

- Ⓐ (1) 그것은 종이 방백(方伯)을 다스리는 것이다.
- (2) 즉 미련한 자는 물질을 그 적절한 곳에 사용치 못하여 악용하므로 그 물질이 미련한 자를 더욱더 어리석게 죄 된 길로 행하게 한다.
- (3) 그러나 미련한 자의 부가 저지르는 해악보다 임금의 지혜롭지 못한 편애(偏愛)에 의하여 미친한 종이 방백 위에 올라가 방백들을 다스릴 때 그 해악은 더 막중한 것이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정당하게 자기 분수를 알아 분수에 맞도록 행하여 잘못된 해악을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0. **㉠ 화가 날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슬기 있는 것인가? (11절)**

- Ⓐ (1) 화가 날 때에 그 노(怒)를 더디게 하는 것이 슬기 있는 행동이다.
- (2) 왜냐하면 대부분의 화는 자기 중심적인 판단에서 생기기 때문이다.
- (3)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나 현실에 대해 화가 날 때 신중히 그 원인들을 생각하여 노를 더디게 해야 한다.

11. **㉠ 남의 허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 되는가? (11절)**

- Ⓐ (1) 남의 허물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 된다.
- (2) 왜냐하면 자기를 해친 자를 용서해 주고 자기가 받은 해를 기억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닮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참조, 미 7:18).
- (3) 사람이 하나님을 닮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남의 허물을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12. **㉠ 왕의 노함이 무엇에 비유되었는가? (12절)**

- Ⓐ (1) 왕의 노함이 사자의 부르짖음에 비유되었다.
- (2) 본래 사자의 부르짖음은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위협과 죽음을 예시하는 것이다.
- (3) 여기에서 사자의 부르짖음에다 왕의 노함을 비유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을 가진다.
- (4) 즉 한편으로는 왕들에게 그들의 노를 억제할 것을 교훈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백성들에게 왕의 명령에 복종할 것을 경고하는 것이다.
- (5) 이러한 사자의 부르짖음 같은 통치자의 노(怒)에 대해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선(善)을 행하여야 한다(참조, 롬 13:1-4).

13. **㉠ 팔레스틴 땅에서의 이슬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12절)**

- Ⓐ (1) 팔레스틴 땅에서의 이슬은 가뭄에 생수(生水)와 같은 역할을 한다.
- (2) 즉 5-10월 사이는 가뭄이 들 정도로 비가 오지 않고 더위가 극심한데 이때 지중해 연안에서 불어오는 서풍이 습기를 싣고 와서 밤 사이에 엄청난 양의 이슬을 내려 주므로 가뭄이 해갈되고 식물들이 잘 자라게 된다.
- (3) 이러한 이슬이 가져다 주는 혜택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한 현상이었다. 그리하여 지혜자는 백성들에게 끌고루 베풀어지는 왕의 선정(善政)을 이 이슬에 비유하였던 것이다(참조, 신 32:2).

14. **㉠ '이어 떨어지는 돌방울'은 어떤 상황을 묘사하는 말인가? (13절)**

- Ⓐ (1) 팔레스틴 땅에 있는 집의 지붕들은 편편하고, 진흙이나 회를 반죽하여 덮은 것이었으므로

로 비가 많이 올 때면 지붕에서 물이 새는 일이 흔하였다.

(2) 그리하여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은 비가 계속하여 많이 내림으로 지붕에서 빗물이 새는 상황을 묘사하는 말이다.

15. ㉠ 지혜자가 가정 생활을 불행하게 만드는 대표적 요인(要因)으로 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13절)

㉠ (1) 그 대표적 요인은 미련한 아들과, 남편과 다투기를 좋아하는 아내이다.

(2) 우선 한 가정이 행복하려면 온 가정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족들 서로간에 어떤 어려움에도 요동치 않는 깊은 사랑이 있어야만 한다.

(3) 그러나 미련한 아들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떠나므로 가정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한다.

(4) 또한 다투는 아내는 가정을 화목케 못 하고 항상 불안감을 조성하여 가족들 서로간의 깊은 사랑을 부서지게 하고 만다.

(5) 그러므로 미련한 아들과, 다투는 아내가 있는 가정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16. ㉠ 집과 재물을 상속받는 것과 슬기로운 아내를 얻는 것에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가? (14절)

㉠ (1)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받고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주어지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즉 집과 재물은 본인이 지혜롭든지 미련하든지 자식이면 누구나 상속받을 수 있다.

(3) 그러나 슬기로운 아내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지혜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다(참조, 18:22).

(4) 왜냐하면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가정을 내신 목적(참조, 창 2:24)을 잘 알고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상대자를 원하며 기도하였기 때문이다.

(5) 그러므로 젊은이들은 하나님께서 내신 가정의 목적은 둘이 합하여 하나님을 보다 잘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란 사실을 깨닫고, 그 목적을 잘 이룰 수 있는 배우자를 위해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한다.

17. ㉠ 지혜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어디에다 연결시키고 있는가? (17절)

㉠ (1) 지혜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여호와께 꾸이는 것에다 연결시키고 있다.

(2) 여기서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란 말은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 대한 성도의 자비로운 행위를 높이 평가하셔서 그것이 비록 사람에게 대한 행위이지만 하나님께 대한 대접으로 간주하신다는 뜻이다.

(3) 예수님께서도 ‘이 소자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40)고 하셨다.

(4)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뿐 아니라 그들을 돕는 데 늘 최선을 다해야 한다.

18. ㉠ ‘아들을 징계할 때 죽일 마음은 두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18절)

㉠ (1) 이 말은 자식을 징계하긴 하지만 죽도록 하지 말란 뜻이다. 왜냐하면 자식의 생사권(生死權)은 하나님께 있지 부모에게 있지 않기 때문이다.

(2) 즉 자식을 징계하는 것은 그 자식이 바르게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에서 나와야지 그 잘못 때문에 자식을 미워하면(참조, 요일 3:15) 징계가 바르게 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식을 망치게 되기 때문이다.

(3)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런 잘못될 수 있는 징계를 경계하면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엡 6:4)고 권고하였다.

19. ㉠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를 건져 주면 다시 건져 주게 될 것이라는 말은 어떤 상태

를 묘사하는 말인가? (19절)

- Ⓐ (1) 이 말은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므로 그 자신이 자기의 무절제한 성향을 고치지 않는 한 그를 위한 모든 노력이 헛됨을 묘사하는 말이다.
- (2) 그러므로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는 상대를 하지 않고 피하는 것이 그의 노를 멈추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다.

20. Ⓒ 지혜자의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 (20절)

- Ⓐ (1) 지혜자의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면 마침내 지혜롭게 된다.
- (2) 이것은 청년 시기에 모아 두고 소화해서 자기 것으로 삼은 지혜가 성년기(成年期)와 노년기(老年期)에 원숙한 인격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다.
- (3) 이와 같이 지혜자가 원하는 지혜는 인생 전반(人生全般)에 걸쳐서 드러나고 그 가치를 발휘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이러한 지혜에 관심을 쏟고 그 지혜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21. Ⓒ 사람이 남에게 사모함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의 무엇 때문인가? (22절)

- Ⓐ (1) 사람이 남에게 사모함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이 인자하기 때문이다.
- (2) 그리하여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는 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 비록 그가 물건이 없어 구제를 못 할지라도 약속만 하고 실천이 없거나, 도울 수 있으면서도 도울 힘이 없다고 거짓말하는 부자보다 더 사모함을 받는다.
- (3) 이것은 사람에게 중심의 진실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평가이기도 하다(참조, 시 51:6).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겉치레 동정이 아니라 중심에서 나오는 인자함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야 한다(참조, 요일 3:18).

22. Ⓒ 여호와의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에 이르게 하는가? (23절)

- Ⓐ (1) 여호와의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生命)에 이르게 한다.
- (2) 즉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생활은 현세에서도 장수와 행복된 생활을 누리게 하며 또한 오는 세상에서의 영생에 참여케 한다.
- (3) 지혜자는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기를 '여호와의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다.
- (4) 이와 같이 사람은 여호와의 경외함으로 그 생명을 생명답게 살 수 있으며 그러한 삶의 결국에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

23. Ⓒ 거만한 자를 때리면 어떤 효과를 얻게 되는가? (25절)

- Ⓐ (1) 거만한 자를 때리면 어리석은 자가 정신을 차리는 효과를 얻게 된다.
- (2) 즉 거만한 자는 자기의 어리석음을 오히려 입을 벌려 자랑함으로 이런 자를 때릴 때, 즉 벌을 줄 때 아직 몰들지 않았지만 몰들 가능성이 있는 어리석은 자가 그것을 보고 어리석은 길에서 돌이키게 된다.
- (3) 그리하여 바울 사도도 디모데에게,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딤후 5:20)고 말하였다.

24. Ⓒ 명철한 자를 견책(譴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5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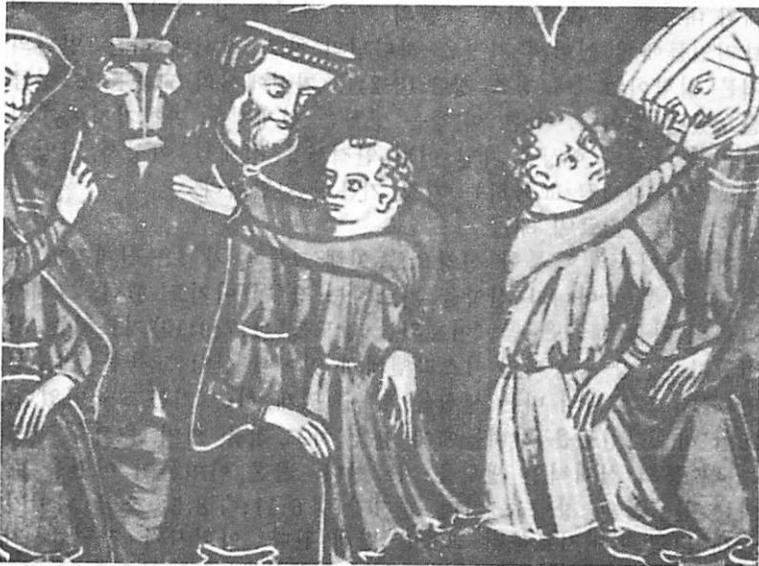
- Ⓐ (1) 그 이유는 명철한 자로 하여금 지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 (2) 즉 명철한 자도 때로 실수할 수 있으며 잘못을 범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정신을 차려서 옳은 것을 행하고자 하므로 어떤 사람이 그런 잘못된 것을 꾸짖고 훈계할 때 즉시 고침으로 지식을 얻는다.
- (3) 그러므로 성도들은 견책을 받을 때 자기의 부족을 인정하고 그 견책을 받아들여서 지식을 얻도록 해야 한다.

25. Ⓒ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은 28절에서 무엇과 무엇으로 나타났는가?

- A (1) 그것은 공의를 업신여기는 망령된 증인과 죄악을 삼키는 악인의 입으로 나타났다.
 - (2) 즉 지식의 말씀은 공의를 세우며 죄악을 버리게 하는데 반해 망령된 증인은 그 반대의 일을 하게 한다.
 - (3) 그러므로 성도들은 홍수같이 쏟아지는 세상의 많은 말들을 조심스럽게 분별하여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들을 버리도록 해야 한다.
26. C 공의를 업신여기는 자를 위해 예비된 것은 무엇인가? (29절)
- A (1) 공의를 업신여기는 거만한 자를 위해 예비된 것은 심판이다.
 - (2) 물론 거만한 자들은 이러한 심판을 우습게 여길 것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이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다.
 - (3) 그러므로 인간은 이러한 심판을 두려워하며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공의행하기를 힘써야 한다.

화보자료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 아래는 부모를 존경하는 지혜로운 아들과(왼쪽) 어머니를 때리는 어리석은 아들의(오른쪽) 모습을 묘사한 그림이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면류관이며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10:1) 은혜를 모르는 자녀는 아버지를 구박하고 어머니를 쫓아낸다 (26절). 이외에도 패역한 자녀는 (신 21:18-21)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28:24) 부모를 저주하며 (레 20:9) 심지어는 부모를 조롱하고(30:17) 구타한다(출 21:15).

연구자료

히브리인들의 가정 교육

히브리인들의 교육의 기본 단위는 가정이었다. 종교 교육과 도덕 교육은 거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가정은 곧 학교였다. 본서에도 이러한 가정 내에서의 교훈을 반영한 부분이 많아(1:8; 2:1; 4:1-4; 7:1; 31:1) 그들의 가정 교육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본고(本稿)는 히브리인들의 가정 교육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교육에 대하여 언급하려고 한다.

1. 가정 교육의 특징

히브리인들의 가정 교육은 하나님 중심적이며 실제적인 교육이라는 특징이 있다. 그들은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앙에 실제 생활을 연결시킨 독특한 교육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그들의 교육은 '들으라'(히, 세마)로 시작하는 문장에 잘 반영되었다(1:5; 8:33; 12:15). 신명기에 언급된 <세마>는 민족 전체를 상대로 한 교훈이었지만(신 6:4-9) 본서의 <세마>는 자녀 교육의 형태와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들의 교육 관념을 잘 나타내 준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른 인간의 기본 집합이었기에(참조, 창 2:18-24), 가정에서의 교육은 그만큼 중요했던 것이다. 물론 이 같은 상황은 현재에도 마찬가지여서 가정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어린 인격체를 신체적, 이성적, 신앙적으로 성숙하게끔 교육하는 가장 기본된 기관이다.

2. 가정 교육의 내용

히브리인들의 독특한 신앙으로 인해 그들의 가정은 실제적인 삶의 교육 뿐만 아니라 신앙을 가르치는 장(場)이기도 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 교육은 곧 '여호와를 알도록'(1:7; 9:10) 가르치는 일이었다.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신앙 교육은 곧 선민(選民)으로서의 바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기본 교육이었다. 또한 히브리인들은 자녀들에게 양을 치고, 천을 짜며, 음식을 만드는 일 등의 실제적인 생활을 가르쳤다. 물론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는 친구들과 장난을 치며 놀지만(렘 6:11; 숙 8:5) 조금 나이가 들게 되면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게 된다. 아버지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은 중요한 의무 가운데 하나였다(출 13:8; 신 6:7, 20-25). 결국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신앙을 배우고 율법적인 여러 교훈들을 배우며 또한 선민으로서의 삶의 지혜도 익히는 것이다.

3. 가정 교육의 방법

히브리인들의 교육 방법은 상당히 많았다. 탈무드(Talmud)에 보면 다양한 교육 이론이 나타나 있지만 여기에서는 몇 가지로 요약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① 훈계 : 이는 가장 보편적인 교육 방법이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자신들의 가치관이나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했다. 이러한 말씀의 교육은 언약에 근거한 것으로서(창 17:7; 시 74:20; 105:8, 9) 권위를 지녔기 때문에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께 순종해야만 했다(레 20:9; 신 21:18). 자녀들은 가정에서 듣는 부모의 훈계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신앙인의 면모를 갖추어 가는 것이다.

② 징계 : 성경에서도 체벌은 긍정적으로 보았다(13:24; 22:15). 이는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었지만 반드시 사랑 안에서 행해야지 격한 감정으로 징계하는 것은 도리어 역효과를 초래한다(13:14; 23:13, 14). 잘못에 대한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비교, 히 12:5-8).

③ 암기와 대화 : 오늘날에도 많이 사용되는 교육 방법으로서 그 효과가 크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것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제동 작용을 한다(참조, 신 6:6; 11:18; 119:11). 그리고 자녀와의 대화를 통한 말씀의 교육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다(신 6:20-25).

④ 의식의 참여 :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 의식은 자라나는 세대에게 생생한 신앙적 체험을 주었을 것이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와 어른들이 드리는 제사와 각종 절기 의식들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하나님 중심의 생활, 속죄, 안식, 성별 등의 개념을 체득할 수 있었다.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의 의식은 가장 직접적이고도 실천적인 신앙 교육이었던 것이다.

4.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히브리인들의 가정 교육은 현대에서도 적용될 부분이 많다. 오늘날 성 윤리의 붕괴와 가정의 해체는 어린 인격체에게 큰 상처를 주기 쉬우며 이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성장한 사람은 사람과 사회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와 극대화된 이기주의, 잔인성, 배타성 등의 비뚤어진 성향을 갖기 쉽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우선 가정에서부터 실천하여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키우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바른 신앙을 교육받으면서 자란 사람은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역시 올바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교회나 국가보다 먼저 가정을 만드신 것은 가정의 중요함을 잘 설명해 준다. 따라서 가정에서의 교육은 그만큼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는 신앙에 입각한 가정 교육은 어린아이의 평생을 좌우하는 귀중한 일이므로 부모들은 사랑과 모범을 통하여 그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제 20 장 인자와 진리로 행하라

단락구분 1-5 신중하고 결백하라 / 6-11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 12-19 지혜로운 입술이 귀한 보배이다 / 20-25 여호와를 기다리라 / 26-30 왕은 진리로 자신을 보호한다

1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2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3 다름을 멀리 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 어늘 미련한 자마다 다름을 일으키느니라

4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5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 내느니라

6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7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8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훑어지게 하느니라

9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뇨

10 한결갈지 않은 저울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11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의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12 듣는 귀여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니라

13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에 족하리라

14 사는 자가 물건이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15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

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16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이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잡힐지니라

17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18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거니 모략을 배풀고 전쟁할지니라

19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20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21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22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23 한결갈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와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24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25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되느니라

26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로 그 위에 굴리느니라

27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28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 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리라

29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

30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때리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 가느니라

1. ㉠ 본장의 요지는 무엇인가?

- ㉠ (1) 본장은 여러 가지 교훈이 함께 섞여 있으면서도 그 중심 되는 내용은 신중함과 인자함으로 진리를 행하며 근본적인 의뢰를 여호와께 두라는 것으로 일치되었다.
 (2) 즉 다름을 멀리하고, 나태와 속임을 금할 것, 지혜롭고 의롭게 행할 것 등을 말하였다. 또한 원수값은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였다.

2. ㉠ 지혜자는 포도주와 독주의 어떤 면을 경계하고 있는가? (1절)

- Ⓐ (1) 지혜자는 포도주와 독주가 사람을 거만케 하고 떠들게 하는 면을 경계하고 있다.
 (2) 즉 술취한 자는 거룩한 것을 비웃고 책망듣기를 거절하며 자기 욕심 채우기에만 급급한다. 또한 어리석은 말들을 지껄이며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주저 없이 내뱉는다.
 (3) 그러므로 술취함을 가져오는 포도주와 독주는 지혜의 길로 가려는 자들이 경계해야만 하는 것이다(참조, 엡 5:18).
3. ⓐ 왕이 노를 발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2절)
 Ⓐ (1) 왕이 노를 발하게 되면 자기의 생명을 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2) 왜냐하면 왕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권(權)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를 화나게 하는 것은 죽음을 불러들이는 것과 같다.
 (3)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왕을 두려워하고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그 왕에게 거짓으로 아첨하기를 마지 않는다.
 (4) 그러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진노를 무서워하는 자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의 통치자들의 노(怒)를 통해 왕 중 왕이신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떨어뜨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마 10:28).
4. ⓐ 지혜자는 다툼에 대해 어떻게 말하였는가? (3절)
 Ⓐ (1) 지혜자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인데, 미련한 자는 도리어 다툼을 일으킨다고 말하였다.
 (2) 지혜자가 이렇게 다툼에 대해 말한 것은 화평을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3) 이러한 교훈은 사도 바울의 권고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롬 12:14-17).
5. ⓐ ‘가을에 밭 갈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형편을 묘사하는 말인가? (4절)
 Ⓐ (1) 이스라엘에서는 10, 11월에 내리는 비를 기다렸다가 겨울 작물을 심는 일이 있는데 이 때에 파종을 못 하면 추수를 하지 못한다.
 (2) 그러므로 ‘가을에 밭 갈지 않는다’는 것은 겨울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 수고하지 않는 형편을 묘사하는 말이다.
6. ⓐ ‘게으른 자가 거둘 때에는 구질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4절)
 Ⓐ (1) 이 말은 게으른 자가 일해야 할 때에 밭을 갈지 않고 수고하지 않음으로 추수 때에 열매를 구하여도 얻을 것이 없다는 뜻이다.
 (2) 이와 같이 게으른 자는 커다란 풍요가 펼쳐지는 추수기에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또한 이것은 자기의 게으름 때문에 초래된 것임으로 누구에게도 핑계치 못하고 도리어 자기의 수치가 될 뿐이다.
 (3) 그러므로 성도들은 밭을 갈아야 할 때 밭을 갈아 수고하는 정직한 자가 되어야지 게으른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7. ⓐ 사람의 마음에 깊이 숨겨져 있는 모략(謀略)은 무엇과 같은가? (5절)
 Ⓐ (1) 그것은 땅 속 깊은 곳에 있는 물과 같다.
 (2) 이런 깊은 물을 올리려면 비대한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도 비대한 통찰력이 필요하다.
 (3) 그러나 명철한 사람은 깊이 숨겨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비대한 노력과 통찰력으로 알아낸다.
 (4) 그것은 주로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대화에서 말 한 마디 한 마디는 극히 숙고한 노력의 산물인 것이다.
 (5) 그러므로 성도들은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 극히 신중하게 대처하여, 상대방의 깊은 생각

을 잘 파악하도록 지혜롭게 말을 해야 한다.

8. **㉠ ‘충성된 자’란 어떠한 사람을 가리키는가? (6절)**
㉠ (1) 여기서 ‘충성된 자’란 약속을 지키며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자를 가리킨다.
 (2) 이런 사람은 결코 자기를 과장되게 말하지 않고, 또한 자기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다.
9. **㉠ 6절은 결국 어떤 교훈을 하고 있는가?**
㉠ (1) 본질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내세우기를 좋아하지만 결국 언행(言行)이 일치(一致)되는 사람은 매우 적음을 교훈하고 있다.
 (2) 그러므로 본질은 되지도 않고서 된 척하여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분수에 맞게 살 것을 가르친다(참조, 갈 6:3).
10. **㉠ 7절은 문장 구성상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은가?**
㉠ (1) 본질은 구성상 상반절과 하반절을 별개의 문장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함께 연결시켜서 이해하는 것이 더 좋다.
 (2) 그렇게 볼 때 본질은 ‘의인처럼 완전히 행하는 자는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로 이해된다(참조, 16:24).
 (3) 즉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자기의 의무를 다하는 순결한 생활을 한 사람은 살아 있을 때나 죽어서도 좋은 본을 보여 줌으로 그의 후손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참조, 출 20:6; 신 4:40; 시 112:2).
11. **㉠ 누가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흠어지게 하는가? (8절)**
㉠ (1)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이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흠어지게 한다.
 (2) 즉 왕은 보좌에 앉아서 그의 재판권을 행사하면서 악을 변명하는 모든 계교와 의식을 꿰뚫어 보고 악을 부서뜨리고 공의를 집행한다.
 (3) 이러한 왕의 모습은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한다.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시 11:4).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함 1:13; 참조, 사 11:4).
 (4) 성도들은 이러한 엄위와 공의로 판단하시는 왕이신 주님을 믿는 자들로서 의식과 계교를 버리고 진실하게 의를 행하여야 한다.
12. **㉠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뇨’란 무엇을 말하는가? (9절)**
㉠ (1) 본질은 아무도 자기의 마음을 정하게 하였고, 자기의 죄를 깨끗하게 했다고 할 자가 없음을 말한다.
 (2) 사람은 자기 반성과 회개를 통하여 깨끗해지지만 때로는 자신을 속이기가 쉽다.
 (3) 그러므로 아무도 자신의 의(義)를 뽐낼 수 없으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자랑할 수 없다.
 (4) 더우기 ‘자기 죄’란 실제적인 죄 이상의 근원적인 것을 가리키므로 이런 죄에서 자가 깨끗하다고 할 자는 아무도 없다(참조, 롬 3:23).
 (5) 따라서 본질은 스스로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자의 의식과 무감각한 죄의식을 깨우치는 엄격한 교훈이 된다.
13. **㉠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바는 무엇인가? (10절)**
㉠ (1) 그것은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斗]이다.
 (2) 당시에는 금전의 상거래가 저울로 행해졌는데 악한 사람들이 돈을 지불할 때는 표준 중량에 차지 못하는 추를 사용하고 돈을 받을 때에는 중량 초과 추를 사용하였다.
 (3) 또한 말[斗]을 사용할 때도 팔 때는 부족한 말[斗]로, 사들일 때는 보다 큰 말[斗]을 사용하였다.
 (4) 이것은 정당하게 행하는 듯이 위장한 가운데서 음모와 술책을 써서 행악하는 일임으로

이중(二重)의 범죄가 된다.

(5)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려야 할 성도들은 오로지 정직과 신의로써 그 삶을 살아야 한다.

14. ㉠ 아이의 행동은 자기의 어떤 것을 나타내게 되는가? (11절)

- ㉠ (1) 아이의 행동은 자기의 품행(생활의 습관)이 청결한지 또한 정직한지를 나타내게 된다.
 (2) 아이들은 개방적이고 단순하며 어른들처럼 숨기거나 걸치레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배운 그것을 그대로 나타내게 된다(참조, 마 7:16).
 (3) 그러므로 여기서는 아이를 바로 가르치면 그 아이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음을 교훈한다(참조, 22:6).

15. ㉠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와의 지으신 것’이란 어떤 뜻인가? (12절)

- ㉠ (1) 이 교훈은 먼저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시 94:9).
 (2)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눈과 귀는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하나님을 위해 써야 한다는 뜻을 가진다(참조, 마 13:16).
 (3) 또한 하나님께서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지으셨으므로 사물을 깨닫는 지각(知覺)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한다는 뜻을 가진다.

16. ㉠ 지혜자는 사람들의 이중적인 심리를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14절)

- ㉠ (1) 지혜자는 사람들의 이중적인 심리를 상거래(商去來)를 할 때 물건에 대해 평가하는 모습으로 묘사하였다.
 (2) 즉 구매자가 심중에는 그 물건이 꼭 필요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알면서도 싸게 구입하려고 그 물건이 좋지 못하다고 말하여 그 물건의 가치를 깎아 내린다.
 (3) 그러나 일단 그 물건이 자기 손에 들어오면 그것을 자랑한다.
 (4) 이런 이중적인 심리는 비단 상거래에서만이 아니라 인간 누구에게서나 찾아 볼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다.
 (5) 그러나 성도들은 잠시의 유익을 얻기 위해 보다 크고 영원한 가치인 진실과 공의를 잃지 않도록 이런 이중적인 심리를 과감히 버리고 사회 속에서도 이런 부조리를 추방토록 힘써야 한다.

17. ㉠ 세상에 있는 금과 진주보다 더 귀한 보배는 무엇인가? (15절)

- ㉠ (1) 금과 진주보다 더 귀한 보배는 지혜로운 입술이다.
 (2) 왜냐하면 지혜로운 입술은 이들 보석보다 더 희귀하며 진기하고, 또 그 입술을 소유하는 일이 금은 보화를 얻는 것보다 더 힘이 들기 때문이다(참조, 욕 28:18).
 (3) 그리고 지혜로운 입술, 즉 지혜를 소유하고 그것으로 사는 자는 금은 보화에 의지하여 사는 자보다 더 풍요하고 아름다우며 확실히 보장된 삶을 살게 된다(참조, 3:14, 15).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런 지혜를 얻기 위해 마땅한 수고를 해야 한다(참조, 마 13:45, 46).

18. ㉠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16절)

- ㉠ (1) 이 말은 타인의 보증을 설 만한 실력이 없는 자가 악하고 어리석게 보증을 섰을 때 채권자가 취하게 될 옷을 미리 취해서 혼이 나도록 해주라는 것이다.
 (2) 이러한 무분별한 행동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

19. ㉠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에 있어서 처음과 나중에 어떻게 다른가? (17절)

- ㉠ (1) 속이고 취한 식물은 처음에 먹을 때는 맛이 좋은 듯하나 나중에는 모래를 씹는 것같이 맛이 다르게 된다.
 (2) 이것은 죄의 이중적(二重的)인 성격을 말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파악하지 못함으로 죄를 범하게 된다.
 (3) 그러나 성도들은 지혜자가 가르쳐 주는 것에서 지혜를 얻어 죄의 실상을 파악하고 죄

를 버리도록 해야 한다.

20. ㉠ 계획을 세우는 일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18절)

- ㉠ (1) 계획을 세우는 일은 신중하게 의논을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즉 어떤 일을 하려면 스스로 많이 생각해야 하며,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의 현명한 조언(助言)을 듣는 것이 좋다.
 (3) 더우기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4) 이것은 계획을 든든히 세우는 길이며 그 일을 성공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다.

21. ㉠ 모세 율법에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에게 어떤 형벌이 부과되어 있었는가? (20절)

- ㉠ (1) 모세 율법에는 이러한 못된 자를 반드시 죽이라는 형벌이 부과되어 있었다(참조, 출 21:17; 레 20:9).
 (2) 즉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자기의 근본을 무시하는 것이므로 살아 있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22. ㉠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幽暗) 중에 깨짐을 당하리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20절)

- ㉠ (1) 여기서 '등불'은 육체적, 영적인 면에서 행복한 상태를 말한다. 즉 본질은 부모를 저주하는 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또 인격과 재산에 있어서 해를 받을 것이라는 뜻이다.
 (2) 이렇게 볼 때 율법이 규정하는 형벌과 지혜자가 말하는 실제적인 결과는 다른 것 같으나 지혜자의 말은 부모를 저주하는 자가 사람의 손에 형벌을 받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시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다.
 (3) 그러므로 성도들은 사람의 눈을 무서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참조, 엡 6:2).

23. ㉠ 지혜자가 보복하는 일에 대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22절)

- ㉠ (1) 교훈은 보복하는 일에 대해 여호와께서 행하시기를 기다리고 스스로는 악을 갚지 말라는 것이다.
 (2) 이것은 여호와의 절대 주권을 믿는 지혜자가 지혜롭고, 고상한 생각을 통해 얻은, 악을 보복하는 일에 대한 결론이다(참조, 신 32:35).
 (3)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부당한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 스스로 그것을 보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참조, 롬 12:19).

24. ㉠ 본절에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 (24절)

- ㉠ (1) 첫번째 '사람'은 히브리어로 <게베르>인데 '힘있는 사람', '훌륭한 인물'을 가리킨다.
 (2) 그리고 두번째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담>이며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을 가리킨다.

25. ㉠ '사람의 걸음이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뜻인가? (24절)

- ㉠ (1) 이것은 아무리 훌륭한 인간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좌우하지 못하고 다만 그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뜻한다.
 (2) 인생 중 누구도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살 자가 없고 하나님이 그를 선하게 만드시는 것 이상으로 훌륭해질 수 없다.

26. ㉠ 사람은 자기의 길을 알 수 없다고 말한 지혜자의 말은 결국 어떻게 하라는 의미인가? (24절)

- ㉠ (1) 사람의 걸음이 여호와의 주권 아래 있으므로 사람 스스로는 무엇이 자기 인생을 위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말은 결국 자기의 길을 자진해서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이다.
 (2)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어서 주님의 뜻을 찾고 그분의 지혜를 자기

것으로 삼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도록 해야 한다.

27. ㉠ '그 후에 살된다'는 것은 어떤 행동을 묘사하는 말인가? (25절)
 ㉠ (1) 이것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보지도 않고서 일단 서약을 한 후, 그 서약이 양심을 억누르고 죄를 짓게 하는 울가미가 되면 그로 인해 후회하게 됨을 묘사하는 말이다.
 (2) 그러므로 서약을 할 때는 냉철하게 자기 분수를 살피서 일시적이고 거짓된 서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8. ㉠ 악인을 키질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26절)
 ㉠ (1) 악인을 키질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왕이다.
 (2) 즉 지혜로운 왕은 키가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듯, 악인과 선인을 갈라 놓는다.
 (3) 이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마3:12)고 한 말씀을 생각하게 한다.
29. ㉠ 당시 이스라엘에서 '타작하는 바퀴'는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26절)
 ㉠ (1) 당시 이스라엘에서 '타작하는 바퀴'는 나무로 만든 세, 네개의 바퀴에 톱날을 박아만 들었는데 이것을 두 마리의 황소 뒤에 달아서 사용하였다.
 (2) 그리고 사람이 그 위에 올라 앉아서 소를 부리면 자연스럽게 타작이 되었다.
30. ㉠ 지혜로운 왕의 통치에 대해 타작의 개념을 빗대는 이유는 무엇인가? (26절)
 ㉠ (1) 그 이유는 타작의 개념이 분리와 형벌의 양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 즉 지혜로운 왕은 악인과 선인을 구별할 뿐 아니라 악인을 벌하고 의인에게 상주는 일도 행한다.
 (3) 이렇게 하여 왕은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 안에서 악을 제거하고 공의를 세운다.
31. ㉠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와 등불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7절)
 ㉠ (1) 영혼은 히브리어 <네쉬마>로서 '영', '호흡'이란 뜻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친히 불어 넣으신 것으로서(창2:7), 일반 동물에게는 없는 것이다.
 (2)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양심적인 기능을 가리키며 하나님으로부터 조명을 받는 일과 선악을 판단하는 일을 한다.
 (3) 그리하여 이것은 사람으로 그의 참모습을 알게 하고 도덕적인 감각을 주기 때문에 '여호와와 등불'이라고 하는 것이다.
32. ㉠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자기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28절)
 ㉠ (1) 그 방법은 나라를 통치할 때 인자와 진리로 다스리는 것이다.
 (2) 즉 백성을 공휟히 여기며 백성을 위해서 통치하되 공의를 성실히 행할 때 그 왕의 정권이 튼튼하게 된다.
 (3)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잔학과 폭력, 부패와 불의로 다스리는 통치자는 스스로의 정권을 파괴시키는 자일 뿐이다.
33. ㉠ 무엇이 젊은 자의 영화인가? (29절)
 ㉠ (1) 손상받지 않는 힘과 정력이 젊은이를 아름답게 해주는 장식물, 즉 젊은 자의 영화이다.
 (2) 그러나 이러한 힘은 엄격한 자기 절제와 적당한 훈련을 통해서 얻어진다.
34. ㉠ 백발은 누구에게 아름다운 것인가? (29절)
 ㉠ (1) 백발은 노인에게 아름다운 것이다.
 (2) 이 백발은 단순히 외모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 이것은 그 노인의 고매한 인격을 뜻한다.
35. ㉠ 지혜자가 젊은이와 노인에게 있는 각각의 장점을 대조적으로 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29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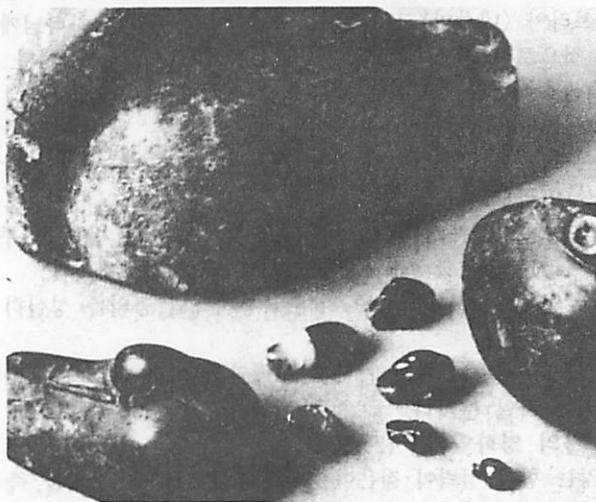
- Ⓐ (1)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신 인생이 각 시기마다 각기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해서이다.
- (2) 또 여러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에서 서로의 장점을 존중하고 협력함으로 더욱 아름다운 사회를 이룰 수 있음을 말하기 위해서이다.
- (3) 그러므로 청년은 노인의 지혜와 노련한 경험을 존중하고, 또 노인은 청년의 패기에 찬 힘을 인정하여 모든 사람이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건전한 사회를 이루며, 인생을 내신 하나님을 찬양토록 해야 한다.

36. ⓐ 상하게 때리는 것이 무엇을 없이 하는가? (30절)

- Ⓐ (1)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한다. 여기서 상하게 때리는 것은 채찍으로 심하게 때리는 것을 말한다.
- (2) 그런데 심하게 때리는 때는 악을 범할 때 큰 고통이 따라 옴을 가슴에 깊이 새기게 하여, 거듭해서 악을 범하지 않게 하므로 악을 없이 하는 것이다.
- (3) 그러므로 성도들은 단순한 연민의 정 때문에 악을 가볍게 여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참조, 마 18:8, 9).

화보자료

주머니 속의 주돌. 아래의 사진은 루브르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진귀한 추돌로서 수사(Susa)에서 발굴된 B. C. 1000년경의 것이다.



히브리인들은 일정한 양의 무게를 비교할 때 돌로 만든 저울추로 무게를 측정하였다. 그런데 정직하지 못한 자들은 무게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추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속여 부당 이득을 취하곤 하였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신25:13)에는 '주머니 속에 크고 작은 두 개의 저울추를 넣고 다니지 말라'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기도 하다.

연구자료

가난한 자와 가난(poverty)에 대한 성경적 고찰

1. 용어 해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주요 술어로서 가난한 자를 가리키는 히브리어에는 서너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빈번하게 쓰이고 있는 단어는 <아니>이다. 이 단어는 주로 가난하고 궁핍하여 다른 사람의 밭이나 포도원에 가서 이삭을 주우며 포도를 따먹는 자들을 의미한다(레 19:9, 10). 또 다른 단어로는 <에브른>이 있는데 재물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자를 가리킨다(참조, 신 15:11). <딸>과 <딸라>라는 말은 '고달픈 생활을 하다'는 뜻인 <따랄>에서 파생된 단어이다. 이 중 <딸>은 학대를 받아 찢절케 된 자(22:16; 욥 20:19)를 가리키며 <딸라>는 바벨론 포로 시대 동안에 팔레스틴에 남아 있던 가장 가난한 계층의 이스라엘인들을 가리킨다(왕하 25:12). 그리고 <미스켄>이라는 단어는 전도서에만 나오는데 '거지'를 의미한다. 그러나 전도서의 거지는 거지와 같이 가난한 자가 못 사람들보다 더 지체로울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전 9:15, 16). 이외에도 <로오스>는 궁핍하여 가난한 자들의 부류에 속하는 자(시 34:10)를, <헤셀>과 <마흐술>은 생활 필수품조차 부족한 자(삼하 3:29; 욥 30:3)를 가리킨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헬리어로서 '가난'이나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단어는 몇 개 안 되는데 그중 <프로코스>는 가장 일반적으로 쓰인 단어이다. 이 단어는 거지를 뜻하기도 하였고(눅 16:20) 물질적으로 부유치 못한 자들을 가리키기도 하였다(마 19:21; 요 13:29). 그러나 때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있는 자라'(마 5:3)고 하여 비유적인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이 밖에도 <페네스>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자(고후 9:9)를 의미하며 <엔데에스>는 초대 교회 안의 가난한 자들, 즉 다른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 나누어 준 덕택에 생활해 나가는 자들을 의미한다(행 4:34).

2. 가난의 이유

사람들이 가난하게 되는 몇 가지 이유를 성경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행동에 따른 결과이다. 게으름(6:6-11), 향락 추구(21:17), 술 취하고 탐식하는 것(23:21), 다른 사람의 혼계를 저버리는 것(13:18) 등은 사람을 가난하게 만든다고 성경은 기록하였다. 둘째, 타인의 부당 행위 때문이기도 하다. 압제(출 1:13), 사기(암 5:11), 고리 대금(28:8), 탐욕(삼하 12:1, 2), 부정 부패(사 10:2; 렘 5:28; 22:13) 등의 행위는 이웃을 가난하게 만드는 한 요인이었다. 세째, 가뭄, 홍수, 질병과 같은 천재 지변(출 10:5; 렘 50:38)과 전쟁은 수입 요인을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에 가난의 원인이 되었다. 네째, 특별한 경우로서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하신

때도 있다(삼상 2:7; 욥 1:21; 학 2:6-19).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난을 허용하시는 것은 성도들의 신앙을 연단시키는 한 방편이기도 하다. 다섯째, 스스로가 자원하여 가난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고후 8:9; 빌 2:5-7). 초대 교회의 사도들도 이런 점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였다(고후 6:10).

3. 가난한 자에 대한 성경적 견해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느 사회든 간에 땅에는 항상 가난한 자가 있게 마련이라고 말씀하셨다(신 15:11; 마 26:11).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만 한다는 의무를 강조하셨다. 물론 부(富)는 덕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며 가난은 그 반대의 형벌일 수도 있다(10:15, 16; 15:6; 시 1:1-3; 112:1-3). 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욥의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다(욥 1:6-22).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니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도 더 우월할 수는 없다(22:2). 성경은 언제나 사람들이 자기 이웃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 주라고 명한다. 심지어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 가운데서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보냐'(요일 3:17)라고 반문하였다. 한편 모세의 율법에는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한 규제가 제도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즉 가난한 자에게는 이식(利息)을 취하지 못하였으며(출 22:25; 레 25:36) 안식년에는 가난한 자들에게 빚 독촉을 할 수도 없었다(신 15:1, 4). 뿐만 아니라 노예로 팔려 간 자는 6년 후에는 자유로운 몸이 되도록 규정되었다(신 15:12-18).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규정들은 법적 강제성을 지니지 못했으므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가난한 자들과 경제적으로 나약한 자들을 곤경에 빠뜨린 사회적 악덕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하였던 것이다(사 10:1, 2; 암 5:12). 신약 시대에 와서도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은 끊이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돈궤를 항상 가지고 다녔다(요 13:29). 사도 바울도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여 염려하였고(갈 2:10)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헌금을 권장하였다(롬 15:26). 결론적으로 우리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는 고로'라는 말을 잊지 말고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신 15:11)는 권고의 말씀을 직접 실천해야 할 것이다.

제 21 장 여호와 보시기에 옳아야 한다

단락구분 1-3 의와 공평을 행하라 / 4-10 남을 해치려 하면 도리어 자신이 죽는다 / 11-19 하나님은 악인을 환난에 던지신다 / 20-23 지혜로운 자는 복되다 / 24-29 제 절난 체 하는 자는 아무것도 못 이룬다 / 30-31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 1 왕의 마음이 여호와와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 2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 3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 4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 5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금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 6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러 다니는 안개니라
- 7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공의 행하기를 싫어함이니라
- 8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 9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오니라
- 10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 11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는 경성하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 12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 13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 14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 15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 16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 거하리라
- 17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 18 악인은 의인의 대속이 되고 쾌사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 19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오니라
 - 20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 21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 22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성의 견고히 의뢰하는 것을 파하느니라
 - 23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 24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 25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 26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시제하느니라
 - 27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라
 - 28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 29 악인은 그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그 행위를 삼가느니라
 - 30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 31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1. ㉠ 본장에서 말하는 성도의 의무는 무엇인가?

㉠ (1) 의와 공평과 정직을 실행하는 일이다. 즉 본장은 세상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이 하나님께 순종할 사람의 의무, 즉 의와 공평과 정직에 대하여 교훈

하고 있다.

(2) 그리고 하나님의 의롭고 공평한 통치 아래서 악인의 거짓과 강포를 행하며 잡되려 함이 헛되고, 거짓된 종교 행사(제사)도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3)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외시적인 종교 행위를 행하며 자기의 유익을 좇고 있음에 주의하여, 성도들은 인간의 눈을 만족시키려 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의와 공평 행하기를 즐겨해야 한다.

2. **㉠** ‘보(洑)의 물’은 어떤 것을 가리키는가? (1절)

㉠ (1) ‘보(洑)의 물’은 배수(排水)를 위해 만들어 놓은 작은 수로(水路)에서 흐르는 물을 가리킨다.

(2) 이것은 사람이 필요에 따라서 그 수로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또 물의 양을 조절할 수도 있다.

3. **㉠** ‘왕의 마음’이 보(洑)의 물에 비교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1절)

㉠ (1) 그 이유는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대로 움직여지기 때문이다.

(2)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 통치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말해 준다.

(3)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하심을 의뢰하며 어떠한 환경과 사건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

4. **㉠** 여호와께서 제사드리는 것보다 더 기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인가? (3절)

㉠ (1) 여호와께서 제사드리는 것보다 더 기쁘게 여기시는 것은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이다.

(2)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중심에서 우러나는 경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3) 그러므로 성도들은 제사(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정의를 행하지 않아도 괜찮고, 불의를 저질러도 면제가 된다는 망상(妄想)을 버려야 한다(참조, 사 1:10-17).

5. **㉠** 왜 악인의 형통한 것이 죄인가? (4절)

㉠ (1) 그 이유는 악인의 형통한 것이 정당한 방법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순전히 불의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얻어낸 결과이기 때문이다.

(2) 여기서 성도들은 아무렇게나 해서라도 잘살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사고 방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3) 무조건 잘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

6. **㉠** 지혜자는 어떤 자가 각각 풍부함과 궁핍함에 이른다고 하였는가? (5절)

㉠ (1) 지혜자는 부지런한 자가 경영을 충실히 하기 때문에 풍부함에 이르고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른다고 하였다.

(2) 이처럼 지혜자는 근면과 성실함을 칭찬하고 성급함을 경고한다.

(3) 인생이 비록 안개와 같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 같을지라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믿음으로,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지런하며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 그럴 때 쇠하지 않는 풍부함에 이르게 될 것이다(참조, 롬 8:18; 히 12:28).

7. **㉠** ‘악인의 강포가 자기를 소멸한다’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7절)

㉠ (1) 이 말의 뜻은 악인이 남에게 행하는 악한 행위의 결과가 자신에게 다시 돌아와서 그들을 멸망케 한다는 것이다.

(2) 시편 기자는 이런 진리를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시 101:15)라고 노래하였다.

- (3) 이러한 진리가 노래될 수 있는 것은 왕까지도 섭리하시되 의와 공평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악한 자들의 위협과 강포가 밀어닥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위같이 요동치 말아야 한다.

8. **㉠**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은 어떤 생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인가? (9절)

- ㉠** (1) 흠정역(KJV)은 이 부분을 ‘지붕 한 모퉁이에 사는 것’이라고 번역하였다.
- (2)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 지붕은 취침과 회합을 위해(삼상 9:25, 26), 운동을 위해(시 102:7; 행 10:9) 사용토록 평평하게 만들어졌다.
- (3) 그래서 이 지붕은 날씨가 추운 때를 제외하고는 일년 중 대부분 아주 거하기 좋은 곳이었다.
- (4) 그러므로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은 지붕 위에서 사는 것을 가리키기 보다는 지붕 밑 내실에 거하면서 홀로 편치 못하게 사는 생활 상태를 가리킨다.

9. **㉠** 지혜자는 무엇 때문에 다루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하는가? (9절)

- ㉠** (1) 그것은 가정에 화평함이 없이 사는 것보다는 혼자서 좀 불편하더라도 평안을 유지하며 사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 (2) 즉 가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화평임을 지혜자는 강조하고 있다.
- (3) 이러한 화평은 부부 서로간에 깊은 이해와 사랑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가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화평임을 명심하고 가족들이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함으로 가정의 평안을 위해 애를 써야 한다.

10. **㉠** 누구 앞에서 그 이웃도 은혜를 입지 못하는가? (10절)

- ㉠** (1) 남의 재앙을 원하는 악인 앞에서는 그 이웃도 은혜를 입지 못한다.
- (2) 왜냐하면 악인은 친구나 이웃도 생각지 않고 다만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이기적으로 이용하기를 주저하지 않기 때문이다.
- (3) 그러나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자기도 긍휼을 얻지 못한다(참조, 약 2:13).

11. **㉠**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는 분은 누구인가? (11절)

- ㉠** (1)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는 분은 의로우신 자, 즉 하나님이다.
- (2) 하나님의 눈이 언제나 죄인 위에 있으며, 적당한 때에 징벌하신다는 하나님의 도덕적 지배 개념은 본서에서 매우 강조되는 사상이다.
- (3) 이러한 하나님의 도덕적 지배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은 악인의 번영을 숙고해 보고, 그 최후를 목격함으로써 악인들의 번영이 얼마나 천박하며,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그들을 기다리는가를 경고한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악인의 밖으로 드러나는 행복에 눈이 어두워지지 말고 그것의 허무함을 알며, 그들을 만족시키는 저급한 목적과 추구에 대해 경고할 수 있어야 한다.

12. **㉠**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벌이 임하는가? (13절)

- ㉠** (1) 그런 자에게는 자신이 답답하여 부르짖을 날이 올 때 아무리 부르짖어도 들어줄 자가 없는 벌이 임한다.
- (2) 이와 같이 벌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행한 대로 공의롭게 갚아 주시기 때문이다(참조, 마 25:42, 43; 약 2:13).

13. **㉠** 지혜자는 은밀한 선물과 뇌물의 효과를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14절)

- ㉠** (1) 본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은밀한 선물과 뇌물을 권장하고자 함이 아니라 단순히

실제적으로 되어지는 상황을 기술할 뿐이다. 사실 인간은 본래부터 물질에 나약한 존재이다. 그래서 그러한 본능을 이용하여 많은 사람들은 뇌물을 수수(授受)하기도 한다.

(2)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지적과 공박(攻駁)을 통해 사람이 불의한 뇌물을 받고도 분노를 그치는데 하물며 영화로운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자로서 성도들은 마땅히 분냄과 시기와 분쟁들과 같은, 육에 속한 것들을 버려야 됴을 배울 수 있다(참조, 갈5:19-21).

14. C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 즐거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15절)

- A (1) 그 이유는 공의가 하나님의 뜻이고 의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이므로 공의를 행하는 것이 자기의 소원을 행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 (2) 여기서 의인은 자기가 정한 어떤 계율을 행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의로운 법칙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자기의 소원으로 삼는 자임을 알 수 있다.
- (3) 또한 시편의 시인은 복있는 사람에 대해 노래하는 중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고 하였다(참조, 시 1:1-6).
- (4)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인 공의 행하기를 즐거움으로 삼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

15. C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 (16절)

- A (1)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여호와의 경외하는 지혜자의 삶을 버리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를 가리킨다(참조, 엠 2:3).
- (2)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명철의 길로 출발하였다고 해서 그 길을 완주(完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3) 어떤 사람은 도중에 그 길에서 떠나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가기도 한다(참조, 마 5:13).

16. C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어떻게 되고 마는가? (16절)

- A (1)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게 되고 만다.
- (2) 여기서 '사망의 회중'은 '죽은 자의 회중'을 가리킨다.
- (3) 그러므로 본질은 죄인이 바로 죽은 자들의 그늘에 있게 되며, 또한 급작스런 죽음을 만나게 됴을 뜻한다.
- (4) 워즈워드(Wordsworth)는 이것을 지혜자가 비꼬는 말투로서 악인이 잔치석의 손님처럼 편히 쉬고 누우며, 융숭하게 대접을 받을지 몰라도 알고 보면 그는 죽은 자들 틈에 있다는 것을 꼬집는다고 보았다.

17. C 지혜자가 말하는 쾌락주의자는 무엇을 좋아하는 자인가? (17절)

- A (1) 그는 연락(宴樂)을 좋아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이다.
- (2) 물론 하나님은 건전하고 절제 있는 범위 안에서 감각적 즐거움을 허락하신다.
- (3) 그러나 '연락' (宴樂)과 '술'을 좋아하는 자는 쾌락을 좇아 사는 자이고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자로서 이런 자들은 죄악된 길에 빠지기가 쉽다.
- (4) 또한 이런 것들을 사랑하여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열심으로 탐하는 자는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결국 죄악에 빠지는 쾌락주의자가 되고 만다(참조, 딤후 3:4).

18. C 쾌락주의자는 이 세상에서 결국 어떻게 되고 마는가? (17절)

- A (1) 쾌락주의자는 이 세상에서 결국 부하게 되지 못하고 가난하게 되고 만다.
- (2) 이러한 가난은 물질의 허비로 말미암아 오는 궁핍과 인생의 고상한 여러 정신적 가치들을 소유치 못하는 황량함, 그리고 영적인 고갈로 나타난다.
- (3) 따라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쾌락주의를 멀리하고 또 쾌락을 사랑하는 악한 습성을 고쳐야만 한다.

19. C '악인이 의인의 대속(代贖)이 되고'라는 말은 무엇을 지적하는 것인가? (18절)

- A (1) 이 말은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려다 오히려 그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 (2)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저가 응당이를 파 만듬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잔

해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학은 정수리에 내리리다'(시 7:15, 16)라고 말했다.

(3) 이렇게 악인이 망하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을 반드시 멸하시기 때문이다.

20. ㉠ 지혜 있는 자의 집에 있는 귀한 보배와 기름은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는가? (20절)

- ㉠ (1) 그것은 하나님을 경의하며 사는 자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상징한다.
 (2)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정을 평안케 하며 요동 없는 기쁨을 누리게 한다.
 (3)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며 그것을 항상 구한다.

21. ㉠ '의'와 '인자'는 각각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21절)

- ㉠ (1) '의'는 히브리어로 <체다카>인데 하나님과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는 것을 가리킨다.
 (2) 그리고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이며 사랑과 동정심에서 우러나오는 타인에 대한 부드러운 태도를 가리킨다.

22. ㉠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21절)

- ㉠ (1)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가 얻게 되는 것은 생명과 의와 영광이다.
 (2) 여기서 '따라 구하는 자'는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자를 말하는데 이것은 결국 의와 인자가 그 사람의 중심에 있음을 가리킨다.
 (3)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 얻게 되는 생명과 의와 영광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 옳다 인정받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이와 같이 사람이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인생을 무의미하게 허송하지 않고 지혜를 추구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

23. ㉠ 누가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의 견고히 의뢰하는 것을 파하는가? (22절)

- ㉠ (1) 지혜로운 자가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의 견고히 의뢰하는 것을 파한다.
 (2) 지혜자는 이렇게 하여 지혜와 힘을 대조시키면서 지혜가 힘보다 더 유력함을 말하였다.
 (3) 그런데 이 지혜는 단순한 인간의 계략이나 지모(智謀)가 아니라 세상의 만사(萬事)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경의하는 지혜를 말한다.
 (4)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영적인 싸움에 대하여 말하면서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후 10:4)고 하였다.

24. ㉠ 지혜자는 어떠한 사람에게 '망령된 자'란 이름을 붙였는가? (24절)

- ㉠ (1) 지혜자는 무례하고 교만한 사람에게 망령된 자란 이름을 붙였다.
 (2) 여기서 무례하고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약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는 자이다.
 (3) 이런 자는 정작 지식 있는 자가 행하여야 할 여호와 경외하기를 버리고 자기를 자랑하므로 인간의 분수를 넘어선 '망령된 자' (정신 나간 자)라고 불려짐이 마땅하다.
 (4)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갈수록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약간의 지식을 가졌다고 함부로 말씀을 평가하는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5. ㉠ '악인의 제물'과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은 각각 무엇을 가리키는가? (27절)

- ㉠ (1) '악인의 제물'은 회개와 믿음 없이 드리는 죄인의 제물을 가리키고,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은 죄인이 자기의 죄를 잘 봐달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환심을 사기 위해 드리는 제물을 가리킨다.
 (2) 이것은 외형적인 종교 행위 속에 감추어진 인간의 악한 중심을 지적한 것이다.
 (3) 오늘날 성도들은 겉과 속이 다른 종교적 행위가 결코 하나님께 열납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미움 받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6. ㉠ 지혜자는 악인과 정직한 자를 어떤 점에서 비교하고 있는가? (29절)

- A** (1) 지혜자는 악인과 정직한 자를 완고함과 부드러운 점에서 비교하고 있다.
 (2) 여기서 '악인이 그 얼굴을 굳게 한다'는 것은 그가 죄를 행하는데 부끄러움도 없고, 어떤 책망을 해도 완고하여 고칠 줄 모르는 점을 가리킨다.
 (3) 그러나 정직한 자는 그 행위를 삼가하여 잘못된 것을 고치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
 (4) 이와 같이 악인과 정직한 자는 자신을 돌보는 점에 있어서도 완고하고 부드러운 면에서 차이가 있다.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기를 주장하고 내세우는 완고한 자세를 버리고 항상 자기의 부족한 것을 드러내놓고 잘못된 것을 고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27. C 지혜자가 마지막 부분에서 가르치려 하는 것은 무엇인가? (30, 31절)

- A** (1) 지혜자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로 나아가도록 가르친다.
 (2) 즉 인간이 모든 현명한 수단들을 짜내어도 여호와를 이길 수 없으며, 또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완벽한 준비를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만 이길 수 있는 것이다.
 (3)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고 또 세상의 만사(萬事)를 섭리하시는 주권자이기 때문이다.
 (4) 이와 같이 여호와를 절대적인 주권자로서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은 인간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된 인생으로서 오히려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른길, 지혜의 길이다.

화보자료

유대교의 결혼식 장면. 아래의 사진은 두 사람이 한 개의 소울을 같이 쓰고 한 잔의 포도주를 나누면서 혼인 예식을 치루고 있는 장면이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묘사하면서까지 (엢 5:23-32) 가정을 매우 귀중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런데 본장에는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낫다는 말이 나온다 (9절).

제 22 장 선한 교훈이 가치 있다

단락구분 1-5 선한 이름과 은총을 택하라 / 6-12 마땅히 행할 길로 행하라 / 13-16 나태와 탐욕과 부패를 피하라 / 17-21 지혜자의 말에 주의하라 / 22-29 압제(壓制)를 금하고 자기 사업에 근실히 행하라

1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2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3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4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5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울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6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7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빛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8 악을 뿌리누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9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10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11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입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12 여호와께서는 지식 있는 자를 그 눈으로 지키시나 궤사한 자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13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으니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14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와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15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없었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16 이를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17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들지어다

18 이것을 네 속에 보전하며 네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19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

20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21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22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23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24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25 그 행위를 본받아서 네 영혼을 울무에 빠칠까 두려우니라

26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충이 되지 말라

27 만일 값은 것이 없으면 네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28 네 선조의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29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1. ㉠ 본장의 내용은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가?

㉠ (1) 본장은 크게 1-16절과 17-29절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2) 전반부는 16장부터 계속된 경건한 생활에 대한 교훈 중 마지막 부분이며, 후반부는 24:34까지 계속되는 히스기야 이전 시대의 잠언 중 첨가된 잠언들의 첫 부분이다.

(3) 내용에 있어서 전반부는 선한 이름이 가치 있음을 말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 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을 가르친다.

(4) 후반부에는 다시 지혜자의 말에 주의할 것을 촉구하는 서론적인 말과 이웃에 대하여 압제를 금하고 어리석은 자를 본받지 말며 자기 사업에 근실히 행하라는 교훈이 있다.

(5) 오늘날 성도들은 이 세상의 가치들에 대하여 가치 평가를 잘하여서 부귀 영화보다는 선한 이름 얻기를 힘쓰고, 지혜의 길로 행하게 하는 선한 교훈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자.

2. C '명예'는 히브리 원문의 어떤 말을 번역한 것인가? (1절)

A (1) '명예'는 히브리어로 '이름'을 뜻하는 <셈>이라는 말을 번역한 것이다.

(2) 그래서 흔히 이름이 좋게 알려지는 것을 명예라고 하므로 본절에서의 '명예'라는 번역은 문맥으로 보아 적당하다.

3. C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1절)

A (1) 그 이유는 많은 재물이 가져다 주는 부유한 생활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명예(선한 이름)는 영원히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참조, 10:7; 눅 10:20).

(2)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욕을 더 귀하게 여긴 모세의 믿음을 칭찬하였다(참조, 히 11:24-26).

(3) 여기서 명예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이상의 높은 가치,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 때 얻는 것이며 하나님께로서 나오는 칭찬임을 알 수 있다(참조, 롬 2:29).

(4)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은 가치 판단을 바로 하여서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명예(선한 이름)를 택하는 자들이 되자.

4. C 무엇을 은이나 금보다 더욱 택하라고 권하는가? (1절)

A (1) 은총을 은이나 금보다 더욱 택하라고 권하였다.

(2) 여기서 '은총'은 히브리어로 <헨>인데 사랑을 얻는 방법과 태도를 말한다.

(3)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은이나 금 같은 물질적인 재화보다 사랑이 더 귀중함을 알 수 있다.

(4) 아무리 많은 은·금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인생은 오아시스 없는 사막과 같이 황량하고 무서운 것이 되고 말 뿐이다.

(5) 성도들은 이 황막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 사랑을 나타내야 할 자들로서 마땅히 은·금보다 은총을 택해야 한다.

5. C 지혜자는 세상에 빈부가 섞여 사는 것에서 누구를 생각토록 하는가? (2절)

A (1) 지혜자는 세상에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섞여 사는데 그들을 지으신 분이 여호와라고 말함으로 빈부의 문제에서 여호와를 생각토록 한다.

(2) 비록 소유의 문제에 있어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으나 그들이 서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함께 교제하며 형제가 될 수 있다.

(3) 부자는 빈자를 멸시하지 말고, 가난한 자 역시 부자를 부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양자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서로 사랑하며 조화를 이루어 살아야 한다.

(4) 이러한 사상은 1절에서 은·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하라는 권면과 연결지어 생각할 때 단 순히 지배자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지혜임을 알 수 있다.

(5)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탐욕에 빠져서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부한 자나, 부하기를 탐내는 가난한 자는 스스로 불행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

6. C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게 하다가 해를 받는가? (3절)

A (1)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는다.

(2) 즉 어리석은 자들은 선악에 대한 분명한 판단 기준이 없음으로 아무 일이나 뛰어들고 물불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자기를 망치게 된다.

(3) 그러므로 성도들은 경계 망동(輕舉妄動)하지 말고 신중하고 사려 깊게 현실을 파악하여 어리석은 모험을 피해야 한다.

7. C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가? (4절)

- A** (1)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서로 동격(同格)의 관계에 있다.
 (2) 즉 '겸손'은 참된 생활을 가능케 하는데, 그 종교 생활은 곧 '여호와를 경외함'이다.
 (3)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함, 의지의 복종, 죄의 확신 등 겸손과 관련된 모든 결과들을 표현한다.
 (4) 그러므로 겸손하다고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참으로 겸손한 자가 아니며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면서 겸손하지 않는 자도 진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아니다.
8. **Q**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報應)은 무엇인가? (4절)
A (1)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2) 이러한 것들은 사람의 노력의 결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세상과 오는 세상에 다같이 유효하다.
 (3)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오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정당하게 누리는 것은 금할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것이다.
9. **Q** '패역한 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말인가? (5절)
A (1) '패역한 자'는 마음이 바르지 못한 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2) 이런 사람은 자기의 마음이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진리를 거부한다.
 (3) 그런 까닭에 진리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말씀을 왜곡하며 불의를 행한다.
10. **Q** 패역한 자의 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5절)
A (1)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울무가 있다.
 (2) 여기서 '가시'란 고통과 고난을 상징하고 '울무'는 갑작스런 위협과 곤경을 가리킨다.
 (3) 그런데 패역한 자의 길에 이러한 가시와 울무가 있는 것은 그가 진리를 왜곡하고 악을 행하기 때문이다.
 (4) 그러나 진리를 바르게 받아들이고 악을 금하여 영혼을 지키는 자는 패역자의 길로 행치 않기 때문에 가시와 울무에서 벗어나게 된다.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일반적인 고통과 곤경을 멀리하기 위하여 패역한 자의 길을 피하고 영혼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11. **Q** 어떤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나이를 먹어도 변함없이 바르게 행하는가? (6절)
A (1)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나이를 먹어도 변함없이 바르게 행하게 된다.
 (2) 그런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친다는 것은 처음부터 옳은 길, 곧 순종과 경건의 길로 가도록 훈련한다는 뜻과, 교육할 때 아이의 본성과 재능, 재질 등을 고려하여서 적합하게 교육하여야 한다는 뜻을 포함한다.
 (3) 이러한 교육 내용과 방법을 통해 교육받는 아이는 자연스럽게 평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녀를 교육할 때 그 아이의 기질과 성품을 잘 고려하여 어렸을 때부터 경건한 삶의 방식이 몸에 배이도록 가르쳐야 한다.
12. **Q** 지혜자는 빈부의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교훈을 하고 있는가? (7-9절)
A (1) 지혜자는 빈부의 문제에 대하여 일반 세상 사람들의 기본적 태도를 말하고 악한 자의 경우와 선한 자의 경우를 각기 묘사하면서 선한 자가 되도록 교훈을 하고 있다.
 (2) 즉 일반 세상 사람들의 빈부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는 재물이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주관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이다(7절).
 (3) 그런데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재물을 더 많게 하려고 가난한 자를 탈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악한 자는 결국 재앙을 거두고 만다(8절).
 (4) 그렇지만 부를 소유한 자의 모두가 악한 것은 아니다. 부자라도 선한 눈을 가진 자,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겸손한 자는 자기가 소유한 부를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므로 재

물보다 더 귀한 '사랑'을 실천하고 누리게 된다(1, 2, 9절).

- (5) 이와 같이 세상에서 '재물'이나 '빈부' 그 자체를 악이나 선이라고 정의내리기는 어렵다. 문제는 세상에서 얻은 부를 어떻게 사용하고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에 따라 복과 저주가 달려 있는 것이다.
- (6) 그러므로 성도들은 부한 것을 자랑하지 말고 청지기로서 주어진 부를 겸손하게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함으로 가난한 자와 함께 참된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참조, 약 1:9, 10).

13. **㉠** 입술에 덕이 있어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11절)

- ㉠** (1) 그는 마음의 정결(淨潔)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 (2) 이런 사람은 그 마음에 속임이나 간사가 없고 선하고 정직한 것을 좋아하므로 정직한 말과 남을 유익되게 하는 말을 하여 덕을 세우는 일을 한다.
- (3) 그러므로 의로운 왕은 이런 사람을 친구로 삼아 그의 선하고 정직한 말을 즐겨 듣는다.
- (4) 예수님은 산상 수훈(山上垂訓)에서 '마음이 청결(淸潔)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마 5:8).

14. **㉠** '지식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 (12절)

- ㉠** (1) '지식 있는 자'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길로 행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의 재물과 재능을 쓰는 자를 가리킨다.
- (2) 여기서 '지식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이론적 지식을 가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이고 일상 생활에서 활용되는 산 지식을 말한다.

15. **㉠** 게으른 자는 어떠한 말로 자기의 게으름을 변명하는가? (13절)

- ㉠** (1) 게으른 자는 사자가 밖에 있으므로 자기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게으름을 변명한다.
- (2) 지혜자는 이러한 비유적인 표현으로 게으른 자가 항상 자신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실을 꼬집고 있다.
- (3) 성도들은 이러한 게으른 자의 핑계에 현혹되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한다.

16. **㉠** 아이의 마음에는 어떠한 것이 얽혀 있는가? (15절)

- ㉠** (1)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
- (2) 여기서 '미련한 것'은 아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악을 좋아하는 기질과 제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성질을 가리킨다.
- (3) 이렇게 지혜자는 단순한 애정의 차원을 넘어서서 지혜로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아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4) 성도들은 자식 귀여운 줄만 알고 자식이 가지는 미련한 것을 그저 용납해 줌으로 자녀 교육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17. **㉠** 정당한 교육은 미련한 것들을 무엇으로 처리하는가? (15절)

- ㉠** (1) 정당한 교육은 미련한 것들을 징계하는 채적으로 처리한다.
- (2) 물론 부모는 아이들에게 먼저 지혜와 경건으로 성실하게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하며, 때를 드는 일은 이 가르치는 일의 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
- (3) 이러할 때 그 징계는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라 사랑의 징계가 되고, 미련한 것이 얽혀 있는 아이의 마음에 바른 생각을 집어 넣어 줌으로 그 아이로 하여금 미련한 것을 버리게 한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때로 징계하는 부모들이 되어야 한다.

18. **㉠** 가난하여질 수밖에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 (16절)

- Ⓐ (1) 그는 이(利)를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虐待)하는 자이다.
 (2) 이런 사람이 가난하여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일반적인 원칙, 즉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주어진 재물은 의를 위해 써야 하는 원칙을 어기기 때문이다.
 (3) 이런 사람은 아무리 이(利)를 얻고자 해도 얻을 수 없으며, 또 얻었다 해도 자기의 참소유가 되지 못하고 자신을 망치게 하는 것이 되고 만다.
19. Ⓒ 17-21절 부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 (1) 이 부분은 지혜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주의와 앞으로 나올 교훈의 대략적인 성격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미 앞에 나온 교훈들에 대한 언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이렇게 구성된 이 부분은 24:34까지 계속되는 일련의 잠언들의 서론 부분이다.
20. Ⓒ 지혜자가 이러한 지식을 알게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19절)
 Ⓐ (1) 그 목적은 지혜자의 말을 듣는 자로 하여금 여호와를 의뢰(依賴)하게끔 하는 것이다.
 (2) 이와 같이 참지혜는 인간이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고 인간의 본분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게 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의리하게 한다.
 (3)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고자 하는 자는 지혜자의 교훈을 주의 깊게 살피서 그 교훈대로 살도록 해야 한다.
21. Ⓒ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壓制)하지 말라'는 말은 어떠한 뜻인가? (22절)
 Ⓐ (1)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는 말은 약자에 대한 불공평한 재판을 삼가라는 뜻이다.
 (2)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재판을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성문에서 하였다.
 (3) 그런데 이러한 재판에서 마땅히 약한 자를 보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력이 없다고 약한 자에게 불리한 재판을 하는 것은 공의(公義)를 무시하는 극악한 죄이다.
 (4) 그러므로 지혜자는 공의를 무시하는 그러한 악을 범하지 않도록 권고하였다.
 (5) 오늘날 성도들은 이러한 지혜자의 권고에 귀를 기울여 모든 분야에서 공의를 세우고 억울한 것을 없애도록 해야 한다.
22. Ⓒ 지혜자는 인생에 대한 궁극적인 심판주가 누구라고 말하는가? (23절)
 Ⓐ (1) 지혜자는 인간이 인간을 압제할지라도 궁극적인 심판주는 여호와라고 말한다.
 (2)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압제당한 자의 억울함을 들어주셔서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심으로 공의를 집행하시기 때문이다.
 (3) 사람들은 이러한 심판주가 살아 계신 사실을 무시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만 그들이 무시한다 해도 그분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결국 그 악에 해당하는 심판을 받고 만다.
 (4) 그러므로 사람이 지혜롭게 사는 길은 악을 행하여 무조건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에 있지 않고 심판받을 자처럼 매사를 살피서 정직하게 행하는 데 있다.
23. Ⓒ 24-27절 부분에서 지혜자가 말하려는 교훈은 무엇인가?
 Ⓐ (1) 이 부분에서 지혜자가 말하려는 교훈은 해로운 사귀를 피하라는 내용이다.
 (2)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분내기를 잘하는 사람과 동행하기를 피하고, 분수에 맞지 않게 보증서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3) 이와 같이 성도들은 사람을 사귄 때에 주의함으로 자타(自他)에게 유익한 사귀를 갖도록 해야 한다.
24. Ⓒ 지계석(地界石)은 무엇을 위해 세웠던 것인가? (28절)
 Ⓐ (1) 지계석(地界石)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전답(田畓)이나 행정 구역, 또는 국가들간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세웠던 것이다(참조, 창 31:51, 52).
 (2) 그런데 모세 율법에서는 지계석을 옮기는 일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경고하였다(참조,

신 19:14;27:17).

25. **Q** 지혜자가 선조들이 세운 옛 지계석은 옮기지 말라고 권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28절)

- A** (1) 그것은 지계석을 옮기는 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2) 이와 같이 지혜자는 자기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도 존중해야 함을 가르쳐 준다.
- (3) 사람들은 흔히 자기 권리는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 (4) 그러나 참지혜는 자기 권리 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같이 존중하는 데에 있다.

26. **Q**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은 누구 앞에 서게 되는가? (29절)

- A** (1)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은 천(賤)한 자 앞에 서지 않고 왕 앞에 서게 된다.
- (2) 이것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이 수치를 당치 않고 마침내 큰 명예를 얻게 될 것을 말한다.
- (3) 이와 같이 수고한 것에 대한 정당한 영광을 얻게 되리라는 것은 인간의 욕심을 자극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수고를 칭찬해 주기 위한 것이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롬 8:18)라고 한 말씀을 깊이 명심하고 현재의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화보자료

가난한 자. 자기의 분향에서 쫓겨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어 절망적으로 앉아 있는 두 모녀의 사진은 가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가난한 자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일은 (9절) 지혜를 가진 자들이 행하는 일이다. 악한 자들은 도리어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그 가진 얼마 안 되는 재물까지도 빼앗으려 한다 (욘 24:2-4).

연구자료

지혜로운 자와 겸손

어리석은 자가 교만과 관계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자는 겸손과 연관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관계는 본서에서 직접적으로 거의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전체적인 내용에서 살펴볼 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지혜로운 자가 어떠한 사람이며, 겸손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알아본 후 그 둘의 관계에 대해서만 파악해 보기로 하겠다.

1. 지혜로운 자

본서에 언급된 지혜는 그 말이 사용된 내용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별된다.

① 신학적 지혜 : 1:9에서 주로 많이 언급된 지혜로서 '지혜' 그 자체에 대해서 '인격화'를 시키고(참조, 1:20-23; 8:1-4) 나아가서는 '신격화' 시키는(8:22-30) 신학적인 작업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말씀'(헬, 로고스)이 인격화됨과 동시에 신격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었던 것과 유사하다(요 1:1-15). 이러한 차원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던 것이다(고전 1:24).

② 실천적 지혜 : 10:1-22:16과 25-29장의 주축을 이루는 지혜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의미한다. 여기서의 지혜는 윤리적 성격을 강하게 띤다. 이 지혜의 윤리성이란 단순히 인간 관계의 도덕성만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근거한 윤리적 지혜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서의 지혜자가 '지혜로운 자'란 표현을 쓸 때에는 위의 두 가지 지혜를 염두에 두었음을 이해해야 한다(참조, 10:14; 11:30; 12:15; 14:16; 15:7; 16:21, 23; 19:8).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라는 말은 본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의로운 자', '슬기로운 자', '명철한 자', '인자한 자', '정직한 자', '완전한 자', '부지런한 자', '겸손한 자'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

2. 겸손

앤드류 머레이(Andrew Murray, 1828-1917)는 겸손이 기독교의 최고 최귀(最貴)의 도덕이며 사랑도 그 겸손을 뿌리로 하여 피어난 꽃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만큼 겸손을 높이 평가했다. 본서에서는 겸손을 '존귀의 앞잡이'(15:33; 18:12)라고 하여 겸손의 가치를 설명하기도 했으며, '겸손한 자와 함께 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라 하여 겸손의 특징을 잘 묘사하기도 했다. 성경 전체적인 차원에서 겸손의 특징을 살펴보면 ① 자신의 허물(눅 15:17-21)과 죄를 깨닫는 것(눅 18:13, 14) ②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것(왕상 9:6

-14) 그리고 ③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는 것(사 6:1-8) 입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겸손을 가장 모범적으로 실천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는 자신을 두고 '은유하고 겸손하다' (마 11:29)고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 겸손의 본을 보이셨으며(요 13:5)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시다(빌 2:8). 이처럼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가 나오므로(요 1:17) 본서의 지혜자는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3:34)라고 말했다(약 4:6; 뱀전 5:5). 그리고 성도들이 겸손함으로 받는 대가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22:4).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선포하였다(사 57:15).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시 57:17)라고 고백했다. 이처럼 본서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성도들의 덕목으로 말하는 겸손은 단순히 사람 앞에서 나타내는 겸손(골 2:18, 23)이 아니라 통회하는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를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3. 지혜로운 자와 겸손의 관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겸손한 자의 특성에 속한다. 그래서 본서의 지혜자는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 (12:15),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11:2)고 훈계했다. 또한 지혜로운 자가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과(3:35) 겸손의 대가는 영광이라는 말씀(22:4)을 통해 볼 때 지혜와 겸손은 결코 분리해서 생각될 수 없다. 그렇다고 지혜와 겸손을 동일시해서도 안 된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그것들의 특성을 살펴볼 때에는 서로 다르다. 또한 어리석음과 교만은 결코 일치되는 것이 아니지만 악한 자의 속성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표현인 것이다.

4. 결론

지혜로운 자가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권고를 받아들여(12:15) 더욱 지혜롭게 되며(1:5), 겸손한 자는 그가 행하는 겸손으로 인해 지혜롭다고 칭찬받는다(11:2). 그 이유는 지혜가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듯이 겸손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게 하여 존귀케 하기 때문이다.

제 23 장 탐욕을 피하고 지혜를 얻으라

단락구분 1-8 먹는 것과 재물을 탐내지 말라 / 9-11 어리석고 사악한 일을 금하라 / 12-26 지혜를 얻어 정로(正路)로 행하라 / 27-35 음녀와 술취함을 멀리하라

1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2 네가 만일 탐식자여든 네 목에 칼을 들 것 이니라
 3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풀 식물이니라
 4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5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녕히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6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진찬을 탐하지 말지어다
 7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8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네 아름다운 말도 헛된 데로 돌아가리라
 9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네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이니라
 10 옛 지혜를 옮기지 말며 외로운 자식의 발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11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너를 대적하사 그 원을 퍼시리라
 12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13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14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15 내 아들이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16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17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18 정녕히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19 내 아들이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20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21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해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22 너 낳은 아버지께 청중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23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24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25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26 내 아들이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이다
 27 대저 음녀는 깊은 구렁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28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인간에 꾀사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29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 없는 창상이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30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31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32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쏘 것이며
 33 또 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발할 것이며
 34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35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켈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1. ㉠ 본장의 교훈들에 대하여 성도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여야 하는가?

㉡ (1) 본장에는 먹는 것과 재물을 탐내지 말고, 의와 정직을 구하며, 진리를 귀히 여기고 지혜

뜬게 행함으로 부모를 기쁘게 하라는 교훈과 음녀의 유혹을 멀리하고 술취하지 말라는 교훈이 있다.

- (2) 그런데 이러한 교훈은 일반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 형식은 개인을 상대로 하는 훈계의 형식을 취하였다.
- (3)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러한 애정 어린 지혜자의 교훈을 잘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삼아서 탐욕을 피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정로(正路)로 행하도록 해야 한다.

2. **Q** 지혜자는 어떠한 상황을 가정하면서 교훈을 하고 있는가? (1-3절)

- A** (1) 지혜자는 사람을 다스리는 권력을 가진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는 상황을 가정하면서 교훈하고 있다.
- (2) 즉 평범한 사람이 권력을 가진 관원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며 영광이기는 하나 조심해야 할 일이 많다.
- (3) 그러므로 지혜자는 그런 드문 기회에 조심스럽게 행할 일을 말하고 있다.

3. **Q** 지혜자가 이 상황에서 제일 먼저 생각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무엇인가? (1절)

- A** (1) 그것은 식탁 앞에 앉아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하라는 권고다.
- (2) 즉 이러한 초대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차려진 음식이 아니라 그런 음식을 베푼 그 관원의 의도임을 지혜자는 지적한다.
- (3) 만약 초대받은 자가 초대한 관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그는 그 관원과 사귄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놓치고, 오히려 자기의 약점을 노출시키는 처지가 되고 말 것이다.

4. **Q** ‘네 목에 칼을 두라’는 말은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경고인가? (2절)

- A** (1) 이 말은 관원의 초대를 받은 자가 먹기를 탐하는 자일 경우에 그 탐식자(貪食者)에게 주는 경고이다.
- (2) 즉 지혜자는 이 말로써 탐식자가 자신의 탐욕(貪慾)을 자제하도록 권고하였다.
- (3) 이렇게 하면 탐식가는 그의 욕망을 다 채우지는 못하겠지만 그가 자제할 때 초대된 관원의 의도에 더 신경을 쓸 수 있고 자신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초래하게 될 위험을 피할 수 있다.
- (4) 이와 같이 성도들은 선한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자제할 수 있어야 한다.

5. **Q** ‘진찬’(珍饌)은 무엇을 뜻하는 말인가? (3절)

- A** (1) ‘진찬’(珍饌)은 히브리어로 <마타모트>인데 보기 드물게 잘 차린 음식이나 맛이 아주 좋은 음식을 뜻하는 말이다.
- (2) 그리고 이 말이 창 27:7에서는 ‘별미’로 번역되었다.

6. **Q** 지혜자는 무엇 때문에 관원이 베푼 진찬을 탐하지 말라고 하는가? (3절)

- A** (1) 왜냐하면 그 진찬은 간사(奸詐)하게 베푼 식물이기 때문이다.
- (2) 즉 그런 음식은 흔히 우정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어떤 목적, 즉 그 사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라든지, 그 사람의 본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베푼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3) 그러므로 이런 경우는 음식을 탐하지 말고 초대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여 그 기회를 선용(善用)토록 해야 한다.

7. **Q** 지혜자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무엇을 버리라고 하는가? (4절)

- A** (1) 지혜자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고 하였다.
- (2) 여기서 ‘사사로운 지혜’라고 묘사된 ‘지혜’는 히브리어의 <비나>로서 최고의 지혜인 <호크마>가 아니라 사물을 분별하는 기능, 즉 부를 만들고 지키기 위해 필요한 단순한 식별력을 가리킨다.
- (3)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사사로운 지혜’를 얻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정력과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4) 그러나 성도들은 '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 (요 6:27)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지혜자의 교훈을 따라 부자 되려는 욕심을 부추키는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도록 해야 한다.

8. **㉠** 지혜자는 세상에서 얻어지는 재물의 허무함을 어디에다 비유하였는가? (5절)

- ㉠** (1) 지혜자는 재물의 허무함을 날개를 내어 하늘로 날아가는 독수리에다 비유하였다.
 (2) 즉 재물은 아무리 수고하여 모아서 고이고이 간직하더라도 한번 몰아침을 당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만다.
 (3) 한편 사도 야고보는 아무리 재산을 많이 쌓아 두어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취하시면 그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였다(참조, 약 4:13-16).
 (4) 그러므로 참지혜자들은 재물에 연연하지 않고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가짐으로써 재물로 인해 시험에 들지 않았다(참조, 욥 1:21).
 (5) 따라서 성도들은 쉽게 사라져 버리는 허무한 재물에 연연하지 말고 재물보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한다(참조, 시 17:14, 15; 49:16-20).

9. **㉠**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어떠한 사람을 가리키는가? (6절)

- ㉠** (1) '악한 눈이 있는 자'는 타인의 행복과 번영을 그대로 보지 못하고 훼방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2) 또한 '선한 눈을 가진 자' (22:9)가 추구하는 정의로운 일을 포기한 채 항상 불법 행하기를 좋아하는 자를 가리킨다.

10. **㉠** 지혜자는 사람을 평가할 때 무엇을 보고 평가하는가? (7절)

- ㉠** (1) 지혜자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가를 보고 평가한다.
 (2) 이러한 것은 사람들이 흔히 외모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과는 다른 것으로 바람직한 방법이다.
 (3) 그런데 지혜자가 이와 같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평가 방법(참조, 삼상 16:7)을 배운 데서 나온 것이다.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지혜자와 같이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가를 보고 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11. **㉠** 왜 지혜자는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라고 하는가? (9절)

- ㉠** (1) 왜냐하면 미련한 자는 마음이 좁고 완고해서 지혜로운 말을 듣더라도 자기의 좁은 소견을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그 지혜의 말을 업신여기기 때문이다.
 (2) 이러한 자에게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은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는 것과 다름이 없다(참조, 마 7:6).
 (3) 그러므로 성도들은 진리를 왜곡하고 무시하는 자들 앞에서는 억지로 말하지 말고 도리어 침묵하는 편을 취해야 한다.

12. **㉠** 지혜자는 외로운 자식(고아)의 발을 침범치 말라고 하면서 어떤 경고를 하였는가? (10, 11절)

- ㉠** (1) 지혜자는 만약 고아의 발을 힘이 약하다고 침범하면 그 억울한 것을 강하신 하나님께서 구속자가 되셔서 대신 보우해 주실 것이라는 경고의 말을 하였다.
 (2) 이스라엘에서는 친척 중에 억울한 일을 당한 약한 사람이 있을 경우 그 친족 중에서 강한 자가 대신 그 억울함을 풀어 주었는데 이런 사람을 히브리어로 <고엘>, 즉 구속자라 하였다(참조, 레 25:5; 민 25:12, 19, 21; 룖 3:2, 9, 12).
 (3) 그런데 본절에서 하나님 자신이 고아의 구속자(히, 고엘)가 되시므로 고아의 발을 침범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복을 당하고 말 것이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강한 권력자들 앞에서는 꼼짝하지 못하면서도 의

로운 자들과 약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압제한다.

- (5) 그렇지만 실상은 이런 외로운 자와 약한 자의 편에는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심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그러한 악행을 행하는 것이다.
- (6) 따라서 성도들은 결단코 약한 자와 외로운 자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들을 돌보아 주어야만 한다(참조, 마 25:40, 45).

13. Q 지혜자는 자기 아들이 어떠한 때 자기 마음이 즐겁고 유쾌하다고 했는가? (15, 16절)

- A** (1) 지혜자는 자기 아들의 마음이 지혜롭고, 그의 입술이 정직을 말할 때 자기 마음이 즐겁고 유쾌하리라고 말한다.
- (2) 여기서 ‘마음’과 ‘입술’은 사람의 온 인격을 의미한다.
- (3) ‘마음’은 인격의 내부적인 면, ‘입술’은 외부로 드러나는 인격의 표현이다.
- (4) 따라서 지혜자는 자기 아들 역시 진정한 인격적 존재로 지혜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다.
- (5) 이와 같이 성도들은 자기의 자녀들이 비록 세상에서 출세하는 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진정한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 되기를 소원해야 한다.

14. Q 지혜자는 죄인의 행동을 부러워하지 않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기 자식에게 어떠한 복이 있으리라고 말하는가? (17, 18절)

- A** (1) 지혜자는 지혜로운 자식에게 반드시 그의 장래가 있겠고, 그의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이 있으리라고 말한다.
- (2) 여기서 ‘장래’는 히브리어로 <아하리트>인데 경건한 자들을 위해서 있는 영광스러운 앞날을 가리킨다.
- (3) 여기서 지혜자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와 하나님께서 현재의 모든 비정상적인 현상을 바로잡을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보이고 있다(참조, 14:32).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장래에 대한 확고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의 길로 가도록 권고해야 한다(참조, 마 16:26, 27; 고전 15:50-58).

15. Q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야 할 정로(正路)는 어떤 것인가? (19절)

- A** (1) 우리의 마음이 인도되어야 할 정로(正路)는 지혜의 근본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 (2) 전도서의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 즉 사람이 가야 할 바른길이라고 하였다(참조, 전 12:13).
- (3)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바른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많은 사상과 교훈들은 인간 스스로가 자기 길을 개척하고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듯이 말하고 있다.
- (4) 오늘날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세속적 주장들은 그 힘을 크게 발휘하고 있다.
- (5) 그렇지만 성도들은 다시 한번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 제한적인 실존(實存)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길로 끝까지 가야 한다.

16. Q 누구와 더불어 사귀어서는 안 되는가? (20절)

- A** (1) 술을 즐겨하는 자, 그리고 고기를 탐하는 자와 더불어 사귀어서는 안 된다.
- (2)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향락과 무절제한 것을 좇아가며 인간으로서 마땅히 힘써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 (3) 더우기 육체적 소욕은 하나님의 일에 큰 방해가 된다(갈 5:17).

17. Q 지혜자는 누구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했는가? (22절)

- A** (1) 지혜자는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했다.
- (2) 즉 지혜자는 자기를 낳은 어머니가 늙고 쇠약해졌다고 해서 구박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어머니의 장수를 감사하고 어머니의 사랑과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진실한 지혜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며 감사하라고 권한다.

- (3) 이 교훈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출 20:12)는 모세의 율법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라는 것이다.
- (4) 성도들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섬기는 일에 깊은 정성을 기울이고 또한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에서 부모님을 모시도록 해야 한다.

18. **㉠**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23절)

- ㉠** (1) 이 말은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고통과 희생을 지불하기를 아끼지 말고, 또한 그것을 얻은 후에는 물질적인 이익이나 쾌락과 바꾸지 말고 잘 보존하라는 뜻이다.
- (2) 이와 같이 사람이 진리를 얻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얻은 후엔 잘 보존하는 일도 또한 매우 중요하다.
- (3) 그러므로 성도들은 진리를 힘들여 사고서 허무하게 파는 일이 없도록 잘 보존해야 한다.

19. **㉠** 어떠한 자식을 낳은 자가 그 자식으로 인하여 즐겁게 되는가? (24절)

- ㉠** (1)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가 그 자식으로 인하여 즐겁게 된다.
- (2) 여기서 지혜로운 자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道)를 행하는 자인데 그런 자를 낳는 일은 그저 육체적인 출산(出産)으로만 되어지지 않고 부모의 정성스런 교육에 의해 된다.
- (3) 그리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일은 부모가 먼저 지혜자의 길에 서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 (4)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부모는 곧 그의 인생을 지혜롭게 산 것을 증명받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식으로 인하여 즐겁게 된다.
- (5) 성도들도 이러한 즐거운 일을 사모하면서 자기의 삶을 지혜롭게 살며 자기의 자식을 지혜의 길로 인도해야 한다(참조, 고전 4:16).

20. **㉠** 지혜자가 그 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26절)

- ㉠** (1) 그것은 마음을 지혜자 자신에게 주며 눈으로 지혜자의 길을 즐거워하라는 것이다.
- (2) 여기서 지혜자는 그 아들이 겉치레가 아니라 그 중심(中心)으로 지혜자 자신의 말을 청종(聽從)하고 정신을 차려서 그 길에 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3) 그러므로 성도들은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먼저 마음을 다 쏟아서 지혜자의 말을 듣고 그 지혜를 따라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기를 즐거워해야 한다.

21. **㉠** 음녀와 이방 여인은 각각 무엇에 비유되었는가? (27절)

- ㉠** (1) 음녀는 깊은 구렁에 그리고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陷穽)에 각각 비유되었다.
- (2) 이것은 음녀와 이방 여인의 유혹에 한번 빠지면 나오기가 몹시 어려움을 묘사한다.
- (3) 그러므로 성도들은 음녀와 이방 여인을 피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다.

22. **㉠** 음녀는 누구와 같이 매복하고 있는가? (28절)

- ㉠** (1) 음녀는 강도와 같이 귀한 것을 빼앗고 생명을 해하려고 매복하고 있다.
- (2) 그러나 지혜 없는 사람들은 음녀의 달콤한 유혹에 정신이 팔려서 그 음녀로 말미암아 자기가 당하게 될 것들을 생각하지 못한다.
- (3) 여기서 지혜자는 음녀의 본질을 강도에 비유하여 그 위협을 피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있다.

23. **㉠** 29-35절 부분에서 지혜자는 무엇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는가?

- ㉠** (1) 이 부분에서 지혜자는 술 취함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다.
- (2) 여기서 술 취함은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없는 상처, 붉은 눈이 있게 한다(29, 30절).
- (3) 그런데 일단 술에 인이 박히게 되면 거기서 헤어난다고 하는 것이 몹시 어려워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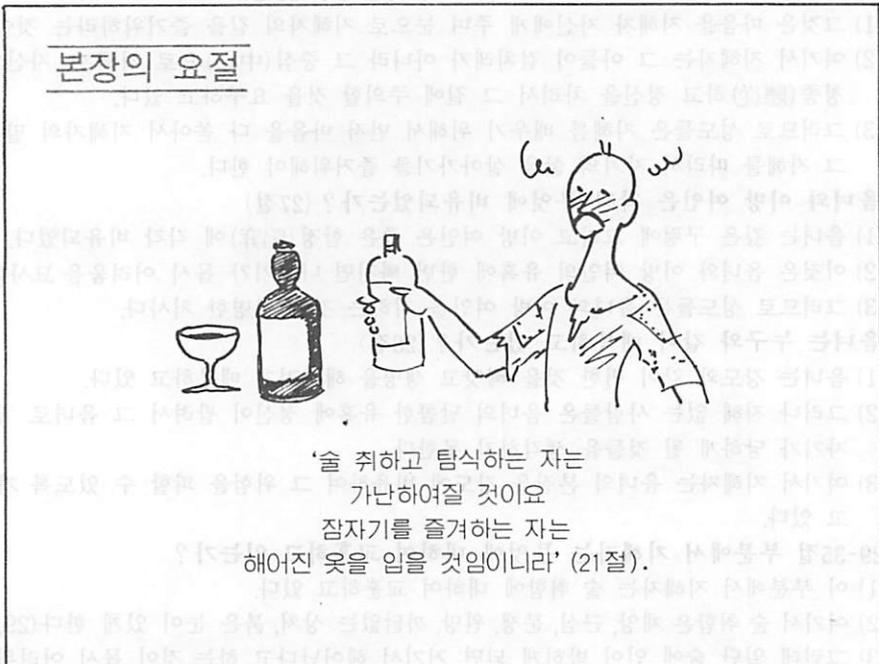
- (4) 왜냐하면 술은 보기에 좋고 먹기에 순하며 일단 술에 취하게 되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환각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31, 33-35절).
- (5)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며 그것에 취하여 인생을 허비한다.
- (6) 그러나 성도들은 술 취함의 피해가 얼마나 막심한가를 잘 생각하고 술에 취하여 해를 당하지 않도록 술을 조심해야 한다.

24. Q 분쟁, 원망, 까닭없는 창상(創傷), 붉은 눈 등은 각각 어떤 것을 나타내는가? (29절)

- A**
- (1) '분쟁'은 술 취함으로 생기는 싸움과 소동을 말한다.
 - (2) '원망'은 히브리어로 <시아흐>인데 '근심스런 생각'을 뜻하며, 재물, 건강, 친구를 잃음에 대한 후회의 정을 의미한다.
 - (3) '까닭없는 창상'은 정신이 맑은 사람이면 결코 말려들지 않았을 분쟁에 끼어듬으로써 생긴 상처를 가리킨다.
 - (4) '붉은 눈'은 히브리어로 <하클릴루트 아인>으로서 술에 취해서 눈이 벌겍게 된 것을 말한다.
 - (5) 이러한 것들이 술에 잠긴 자,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는 필연적으로 따라다닌다.

25. Q 지혜자는 술에 대하여 어떻게까지 말하였는가? (31절)

- A**
- (1) 지혜자는 술을 보지도 말라고까지 하였다.
 - (2) 이 말은 술 취함의 해독(害毒)을 말한 후(30,31절) 그 해독을 보다 더 상세히 설명하기(31-35절) 전에 주는 지혜자의 충고(忠告)이다.
 - (3) 이러한 충고(忠告)는 술을 마시고 취하여 나쁜 행태(行態)를 보인 많은 사람들을 관찰한 후 내려진 경험적인 충고이고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술에 대한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



제 24 장 여호와와는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단락구분 1-7 지혜와 지식은 요긴하다 / 8-12 이웃을 돌아보라 / 13-22 악인은 멸망하나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 / 23-29 공정하게 재판하라 / 30-34 게으른 사람보고 훈계를 받다

- 1 너는 악인의 행동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 2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 입술은 잔해를 말함이니라
- 3 짐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 4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 5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 6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 7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의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 8 악을 행하기를 피하는 자를 일컬어 사륙한 자라 하느니라
- 9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의 미움을 받느니라
- 10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 11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 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 12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 13 내 아들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 14 지혜가 네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녕히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 15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 16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 지느니라
- 17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 18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시라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 19 너는 행악자의 득의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행동을 부러워하지 말라
- 20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 21 내 아들이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 22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이 두 자의 멸망을 누가 알라
- 23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옮지 못하니라
- 24 무릇 악인더러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 25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 26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 27 네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밭에서 예비하고 그 후에 네 집을 세울지니라
- 28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네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 29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 30 내가 증왕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 31 가시 덩굴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 32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 33 내가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눕자 하니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 34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1. **㉠ 악인의 행동함을 보고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본장에서 찾아 보라.**
㉡ (1) 본장에서는 악인의 행동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지

혜를 얻어 악을 버리고 부지런하게 공의를 행하도록 교훈한다.

(2)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셔서 악인의 형통함을 장래가 없는 멸망으로 끝나게 하시고 의인을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다.

(3) 그러므로 성도들은 선악간에 보응하시는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 말고 여호와께서 끝까지 인정해 주시는 의인의 길을 부지런히 가야 한다.

2. **Q** 지혜자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는가? (1절)

A (1) 지혜자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한다.

(2) 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서 악인이 잘된다는 것은 매우 이상하게 보일지 모른다.

(3) 그러나 사람들이 인생을 평가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모습만을 가지고 평가한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 되고 만다.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심판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 바른 평가를 내리고 부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3. **Q** 지혜자가 악인과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1, 2절)

A (1) 그 이유는 악인의 마음이 강포(強暴)를 품고 그의 입술은 잔해(殘害)를 말하므로 그와 함께 있으면 그를 닮아서 악해지기 때문이다.

(2) 이것은 악인이 악을 행하는 데 있어 소극적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전인격(全人格)을 다 사용해서 행함을 경계하면서 이런 자와 함께 할 때 필연적으로 악에 전염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는 말이다.

(3)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기를 살피고 악인과 함께 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조심해야 한다 (참조, 시 1:1).

4. **Q** '집'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3절)

A (1) '집'은 외형적인 건물이나 가정을 가리키기 보다 사람의 일생 동안의 삶을 뜻한다.

(2)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축하지 않으면 그 집(일생)은 바로 설 수 없으며(시 127:1) 또한 그 집이 무너질 때(죽을 때)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참조, 고후 5:1).

5. **Q** 지혜자는 집을 세우고 아름답게 장식하는 일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고 하는가? (3, 4절)

A (1) 지혜자는 '지혜'로 말미암아 집이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장식되어진다고 한다.

(2) 여기서 '지혜'와 '명철'과 '지식'은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

(3) 그러므로 성도들의 인생이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며 장식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착념(着念)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여야 한다.

6. **Q**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5절)

A (1) 그 까닭은 지혜 있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참조, 21:30, 31), 또 지식 있는 자는 가지고 있는 힘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줄 알기 때문에 더욱 힘있게 하는 것이다.

(2) 성도들은 이러한 경우의 예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다윗이 골리앗 대장을 이긴 사실은 훌륭한 예가 된다(참조, 삼상 17:45, 49).

(3) 그러므로 성도들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지혜 있는 자로서 그 지혜대로 행할 때 세상의 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7. **Q** 지혜는 어떠한 자를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하는가? (7절)

A (1)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한다.

(2) 즉 지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미련한 자, 즉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는 땅의 일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지혜를 이해할 수 없다.

(3) 이것을 요한은 사람들이 빛을 알지 못하고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고 적었다(요 3:19).

8. **㉠** ‘미련한 자가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한다’는 말은 어떠한 뜻인가? (7절)

㉠ (1)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소유치 못했기 때문에 옳은 것과 그릇된 것을 판단할 자리에서 판단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2) 그러므로 미련한 자는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없으며 어두움 가운데서 헤매일 수밖에 없다.

(3) 그러나 성도들은 이런 미련한 자의 길에서 건짐 받은 자이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분명히 분간하며 빛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참조, 뱀전 2:9).

9. **㉠** 지혜자는 환난 날에 어떻게 하기를 권하는가? (10절)

㉠ (1) 지혜자는 환난 날에 낙담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지혜의 길로 행하라고 권한다.

(2) 이것을 위해서 지혜자는 만약 그날에 낙담하고 주저앉으면 자기의 미약함을 보일 뿐이라고 말하였다.

(3)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시 50:15)라고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4) 성도들은 평상시에도 여호와만을 의뢰하고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살지만 더욱 환난 날에는 세상 사람처럼 낙담하지 말고 여호와께 매달려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시는 구원을 맛보아야 한다.

10. **㉠** 지혜자는 어떠한 사람을 건져 주며 구원해 주라고 하는가? (11절)

㉠ (1) 지혜자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 주며 살륙(殺戮)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해 주라고 한다.

(2) 여기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와 ‘살륙(殺戮)을 당하게 된 자’는 사회가 부패해져서 거짓 증인과 불의(不義)의 판결에 의하여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참조, 시 64:4-6; 94:3-7; 109:16; 호 4:1, 2).

(3)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비록 공의를 짓밟고 불의로 진실한 자들을 멸시하고 무시할지라도 그들을 보호하고 건져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11. **㉠**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묘사되어 있는가? (12절)

㉠ (1) 본절에서 하나님은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 ‘영혼을 지키시는 이’로 묘사되어 있다.

(2)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깊은 중심을 다 들여다보시고 계심을 의미하는 말이다.

(3)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살피시고 아시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핑계를 대고 걸치레를 하더라도 결코 속지 않으신다.

12. **㉠**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12절)

㉠ (1)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대로 보우하신다.

(2)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선한 행위를 하였으면 상을 주시고 악한 행위를 하였으면 벌을 내리신다.

(3) 예수님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요 5:29)고 하셨다.

(4) 그러므로 성도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선한 일을 함으로 생명의 부활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

13. **㉠** 송이꽃이 입에 단 것처럼 지혜는 무엇에게 유익한가? (13, 14절)

㉠ (1) 송이꽃이 입에 단 것처럼 지혜는 영혼에게 유익하다.

- (2) 이것은 송이꿀이 그 달콤함으로 입에 만족을 주는 것처럼 지혜는 영혼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족을 준다는 뜻이다.
- (3)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道)는...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시 19:10)고 노래하였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지혜를 얻어서 여호와를 경외할 때 지혜가 주는 참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14. **Q** 지혜자는 악한 자에게 어떠한 경고를 발하고 있는가? (15절)

- A** (1) 지혜자는 악한 자에게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고, 그 의인이 쉬는 처소를 헐지 말라는 경고를 발하고 있다.
- (2) 여기서 '헐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사다드>는 '약탈하다', '빼앗다'라는 뜻이다.
- (3) 그러므로 지혜자가 발하는 경고는 악인이 의인의 허물을 찾아내어 의인이 누리는 평안을 빼앗으려는 것을 금하는 것이다.
- (4) 그런데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악행과 파괴를 일삼는 악인들은 결국 스스로 멸망을 초하게 될 것이다.

15. **Q**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은 누구인가? (16절)

- A** (1)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은 의인(義人)이다.
- (2) 비록 의인도 죄를 지을 수 있으나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게 된다.
- (3) 그런데 이런 회개로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풍성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의인의 일어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하게 드러난다.
- (4)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의 길로 가야 한다.

16. **Q** 17절에서 말하는 '원수'는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가?

- A** (1) 본절에서 말하는 '원수'는 사적인 감정에 의해 '원수'가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 (2)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원수가 넘어질 때, 예를 들면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가 수장(水葬)당했을 때의 경우나(출 15장), 드보라와 바락이 시스라의 군대를 이겼을 때의 경우(삿 5장)에는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 (3) 그리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항한 악인의 멸망을 좋아하여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함이며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시 58:10)라고 노래했다.
- (4)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기 뜻대로 원수 맺는 일은 옳지 못한 것이며 그런 사람에게 진노가 임할 때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는 일도 잘못된 것이다.

17. **Q** 지혜자가 행악자의 득의(得意)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18, 19절)

- A** (1) 그 이유는 행악자의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질 것이기 때문이다.
- (2) 즉 그들은 잠시 잘되는 것 같으나 영원한 멸망이 눈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 (3)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믿는 성도들은 악을 행하며 잘되는 것처럼 평평거리는 자들에 대하여 부러워하거나 분낼 필요가 없다(시 37:1, 2).

18. **Q** '반역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 (21절)

- A** (1) '반역자'는 히브리어로 <쇼님>인데 '달리 생각하는 자', '불찬성자'를 가리킨다.
- (2) 즉 이 '반역자'는 하나님과 왕을 존경치 않고 일체의 권위를 부정하는 자이다.

19. **Q** '이 두 자의 멸망'은 누구의 멸망을 말하는가? (22절)

- A** (1) 본절의 '두 자의 멸망'은 21절과 연관해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와 왕을 경외하지 않는 두 종류 사람의 멸망을 말한다.

- (2)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은 대부분이 지체하지 않고 내리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는 자도 그 재앙을 피할 수 없다.
- (3) 그러므로 성도들은 여호와와 왕을 경외함으로 반역자와 더불어 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0. **Q** 23, 24절은 무엇을 권하는 교훈인가?

- A** (1) 이 부분은 재판할 때에 공의(公義) 대로 재판할 것을 권하는 교훈이다.
- (2) 왜냐하면 의로운 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재판을 덕을하게 하지 말고 공정하게 하라고 명령한다(레 19:15; 신 1:17).

21. **Q** '악인더러 옳다 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24절)

- A** (1) '악인더러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詛呪)를 받고, 국민에게 미움을 받는다.
- (2) 이와 같이 재판을 그릇되게 하는 통치자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민중들에게도 미워함을 받게 된다.
- (3) 그러므로 통치자들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불의를 버리고 공의 행하기를 부지런히 해야 한다.

22. **Q** 적당한 말로 대답하는 것은 무엇과 같은가? (26절)

- A** (1) 적당한 말로 대답하는 것은 입맞춤과 같다.
- (2) 이것은 경우에 합당한 대답이 듣는 자에게 즐거움과 만족을 주기 때문이다.
- (3) 그러므로 성도들은 대답할 때에 함부로 말하지 말고 경우에 적절하게 대답함으로써 듣는 자에게 즐거움과 만족을 주도록 해야 한다.

23. **Q** '네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밭에서 예비하고 그 후에 네 집을 세울지니라'는 말은 어떠한 뜻인가? (27절)

- A** (1) 이 말은 '네 집을 세우기 전 충분한 재력(財力)을 미리 마련해 놓으라'는 것이다.
- (2) 사실 당시의 신랑은 신부를 그의 친척들로부터 사기 위해 상당한 선물을 마련해야 했다(창 34:12; 출 22:16). 따라서 결혼을 계획하는 자는 먼저 재물을 준비해야 했다.
- (3) 이 말은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심령은 먼저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마음을 열 때에만 선한 행실의 건물을 세울 수 있고 선한 품성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24. **Q** 28절에서 지혜자가 경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 A** (1) 본절에서 지혜자가 경계하고 있는 것은 의도적이 아닌 성급함과 생각 없음에서 나오는 말이다.
- (2) 즉 주의하지 않고 입을 내버려두면 까닭없이 이웃에 대해 나쁜 증언을 하기 쉽고 또 생각 없이 거짓말을 내뱉기 쉬운 것이다.
- (3)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말에 조심하고 주의해야만 한다.

25. **Q** 지혜자는 복수하는 일에 대하여 어떠한 주의를 주는가? (29절)

- A** (1)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대로 갚겠다'고 말하지 말라는 주의를 준다.
- (2)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원한에 의하여 복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 (3)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눅 6:27, 28)고 말씀하셨다.
- (4)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복하기 보다는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자를 사랑하는 데로 나아가야 한다.

26. **Q** 지혜자는 근면에 대한 교훈을 하기 위하여 어떤 사건을 말하였는가? (30, 31절)

- A** (1) 지혜자는 근면에 대한 교훈을 하기 위해 일찌기 자기가 보았던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하였다.

(2) 그 내용은 그들의 밭과 포도원이 그들의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가시덤불이 퍼졌고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으며 짐승이 넘어오는 것을 막는 돌담은 무너진 것이었다.

27. ㉠ ‘거친 풀’은 어떤 종류의 풀인가? (31절)

㉠ (1) ‘거친 풀’은 가시 있는 풀로서 팔레스틴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가시돋친 아칸투스(acanthus)류의 풀이다.

(2) 이 풀은 경작하지 않은 곳 어디에서나 재빨리 덮어 버릴 정도로 생식력이 강하다.

28. ㉠ 지혜자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보고서 생각한 것과 받은 훈계는 무엇이겠는가? (32절)

㉠ (1) 지혜자는 육체적인 게으름이 가져오는 결과들을 보고서 영적인 게으름에 대해 생각하고 훈계를 받았다.

(2) 즉 육체적인 게으름으로 그 밭이 황폐해지고 아무런 결실을 낼 수 없는 것같이 사람이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그 인격이 황폐해지고 마귀에게 쉽게 침범을 당하며 선한 열매를 낼 수 없게 된다.

(3) 이러한 영적인 게으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그러므로 성도들은 게으름이 가져오는 폐해를 깊이 생각하고 육체적인 게으름은 물론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참조, 롬 12:11, 12).

연구자료

지혜(智慧)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신·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히, 호크마)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말씀대로 지키며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9:10)이며 이 지혜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이다(2:6). 이는 인간의 삶을 의미 있고 영화롭게 해준다(4:8). 물론 인간의 경험과 지성(知性)으로 얻어지는 처세(處世)나 단순한 문제의 해결에 관한 인간적인 지혜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참되며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값을 알지 못할’(욥 28:13) 정도로 귀하 다. 그러므로 성경은 지혜를 진주나(8:11) 금보다(16:16) 보배로 우며 생명을 보존케 하고(전 7:12) 능력 있게 하며(전 7:19) 장수하게 하는 것(9:11)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1. 지혜로운 사람들(賢者)

현자는 개역 성경에서 ‘지혜자’, ‘술객’, ‘박사’ 등으로 번역되었으며 이 범주에는 ‘박수’, ‘점장이’, ‘갈대아 술사’ 등이 모두 포함된다. 성경의 뛰어난 인물 가운데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다니엘도 자신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때 문임을 말하였다(단 1:20; 2:30). 또 히브리인으로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행 7:10). 이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은 자들은 그 삶이 경건했고 능력이 있었다.

2. 구약에서의 지혜

구약에 나타난 지혜의 개념은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뜻대로 사는 것이었다. 이런 의미에서의 지혜는 역사(歷史)를 통한 이스라엘의 체험과 신앙에서 분명하게 확인될 수 있다. 즉 그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은 것은 신앙이지만 이는 곧 지혜였으며,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와 호소에 응답하셨던 것이다. 또 본서에 많이 나타난 음녀와 음란(헬, 포르네아)을 피할 지혜를 촉구하는 경고도 결국은 신앙의 정결을 지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영적인 의미를 지닌다(2:16; 5:15; 7장). 왜냐하면, '음란'이라는 단어의 원어적(原語的) 의미에는 '우상 숭배'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여러 선지서에 나타난 음란은(사 23:17; 렘 3:8; 호 2:5) 같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며, 지혜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고 바른 신앙을 지키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3. 신약에서의 지혜

① 언어적 관찰 : 지혜(헬, 소피아)라는 말의 원어는 '능력', '지식', '재간'이라는 뜻도 있다. 신약에서는 지혜가 이러한 동의어들과 함께 쓰여 '지혜와 능력'(계 5:12; 7:12), '지혜와 지식'(골 2:3), '지혜와 총명'(골 1:9) 등과 같은 표현으로 나타난다. 이 같은 표현이 사용된 이유는 지혜란 피동적이며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고 역동적(力動的)이며 능력 있는 개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② 사도 바울과 지혜 : 바울은 세속적인 지혜를 비판하면서 '지혜'를 십자가의 구속 사건에만 연관시킨다. 즉 세상의 지혜는 단지 지식에만 그칠 뿐이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빌 3:8).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셨는데 이를 믿는 것이 곧 영적인 지혜라는 것이다(고전 1:18-31).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관한 지혜를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지혜로 전환시켰던 것이다.

4. 신자와 지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성령의 선물로 지혜를 받았다(엡 1:8, 17). 따라서 신자들은 지혜롭게 행동하도록 노력해야 하며(엡 5:15; 골 4:5) 만일 지혜가 부족할 경우에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된다(약 1:5).

제 25 장 경우에 합당하게 행하라

단락구분 1 서론 / 2-7 왕 앞에서 겸손히 행하라 / 8-15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 / 16-28 자신을 지혜롭게 제어(制馭)하라

1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의 편집한 것이니라
 2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3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4 은에서 찌끼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의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5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 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6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 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7 이는 사람이 너더러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 네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8 너는 급거히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9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10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수욕이 네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11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니라
 12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13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열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14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15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16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족하리 만큼 먹으라 파식하므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17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18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이니라
 19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의뢰는 부러진 이와 위골 된 발 같으니라
 20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쏘다 위에 초를 부음 같으니라
 21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22 그리하는 것은 편 솟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네게 상을 주시리라
 23 복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24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25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26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의 흐리어짐과 샘의 더러워짐 같으니라
 27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28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욕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장은 히스기야 왕(B. C. 728-697) 시대에 그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25:1-29:27) 중 처음 부분에 해당한다.
 (2) 본장에는 여러 잠언들이 모여져 있는데 중요한 내용은 왕을 존경하며 그 앞에서 겸손히 행할 것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것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여 원수에게라도 선하게 대해 주라는 것이다.
 (3) 여기서 성도들은 지혜자의 교훈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얻도록 해야 한다.

2. **㉠**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라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1절)

- ㉠** (1) 이 말은 이제부터 편집하는 잠언 역시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하여 쓰여진 말이다.
 (2) 그리고 이미 편집된 잠언들 외에도 편집되지 않은 솔로몬의 잠언이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참조, 왕상4:32).
 (3) 그런데 이러한 편집되지 않는 잠언의 내용이 사라지기 전에 수집되어 전해짐으로써 오늘날 성도들이 다시 솔로몬의 지혜에 접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이다.

3. **㉠** 유다 왕 히스기야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1절)

- ㉠** (1) 히스기야는 아하스의 아들로서 25세에 유다 왕위에 올라 29년간 (B. C. 715 - 686) 유다를 통치한 왕이다 (참조, 왕하18:2; 대하29:1).
 (2) 그는 유다 왕국이 정치적, 종교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왕이 되어 종교 개혁(참조, 대하 29:2-11)을 단행하였으며 앗수르의 침략을 믿음으로 물리쳤으며 (참조, 대하32:20-23) 하나님의 은혜로 15년간이나 더 연명하였다 (참조, 왕하20:1, 6).
 (3) 역대기 사가는 이 히스기야에 대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서나 계명이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다’고 평하였다.

4. **㉠** 누가 이러한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하였는가? (1절)

- ㉠** (1)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이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하였다.
 (2)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 히스기야를 자문하는 학자들이었음이 분명하다 (참조, 왕하 18:18).

5. **㉠** 일을 숨기는 것은 누구의 영화인가? (2절)

- ㉠** (1)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이다.
 (2) 여기서 ‘일을 숨기는 것’이란 하나님의 본성, 속성, 사역 등이 유한한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3) 그러므로 성도들은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 (신29:29)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6. **㉠** 어떻게 하는 것이 왕에게 영화가 되는가? (2절)

- ㉠** (1) 일을 살피는 것이 왕에게 영화가 된다.
 (2) 왕의 영화는 공의를 행하고 자기 백성의 권익과 안전을 지켜 주는 일이므로 이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왕은 자기가 처리해야 될 문제를 심사 숙고해야 한다.
 (3)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지혜대로 잘 살피서 나라를 다스렸으므로 그에게 큰 영화가 있었다 (참조, 왕상3:28).
 (4) 오늘날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 (벧전2:9)으로서 비록 세상의 만사를 전부 알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따라 자신이 처해진 상황을 잘 살피서 행하도록 해야 한다.

7. **㉠** 지혜자는 왕의 마음의 깊음을 무엇에다 비유하였는가? (3절)

- ㉠** (1) 지혜자는 왕의 마음의 깊음을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에 비유하였다.
 (2) 사람은 무한한 하늘의 높이도, 땅의 깊이도 측량할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왕의 마음을 결코 꿰 수도 없으며 그의 본심(本心)을 헤아릴 수가 없다.
 (3) 그러므로 사람이 함부로 왕에게 아첨하거나, 왕이 판결하기 전에 자기 주장을 내세운다면 그것은 자기의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것이 되고 말 뿐이다.

8. **㉠** 4, 5 절에서 지혜자가 말하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인가?

- Ⓐ (1) 그 교훈은 은에서 찌꺼기를 제함으로 순수하고 좋은 은그릇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왕에게 간신(奸臣)을 제거하여 그의 왕위를 공의로 든든하게 세우라는 것이다.
- (2)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왕이 먼저 공의 행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하다.
- (3) 그렇지만 이런 불순한 것들을 제거하면 할수록 왕의 자리는 더욱 견고하게 되고, 영화롭게 된다.
- (4) 그러므로 왕들은 공의 행하기를 기뻐하고 자기를 망하게 하는 아첨하는 세력을 제거하여 그 위를 공의로 든든하게 세워야 한다.

9. Ⓞ ‘대인의 자리’는 어떠한 것을 가리키는가? (6절)

- Ⓐ (1) ‘대인의 자리’는 한 나라에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의 사회적 위치를 가리킨다.
- (2) 이것이 70인역(LXX)에서는 ‘방백들의 자리’로 번역되었다.

10. Ⓞ 7절의 말씀이 가르치는 교훈은 무엇인가?

- Ⓐ (1) 이 말씀이 가르치는 교훈은 자기 분수를 모르고 성급하게 행하는 무례한 처신을 경고하며 겸손과 자제를 권하는 것이다.
- (2) 예수님은 눅14:7-11 부분에서 본절과 비슷한 상황을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겸손히 행할 것을 가르치셨다.
- (3) 그러므로 성도들은 분수도 모르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겸손을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11. Ⓞ ‘급거(急遽)히 나가서 다투지 말라’는 말은 결국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8절)

- Ⓐ (1) 이 말은 결국 다투기를 더디하고 신중하게 하라는 것이다.
- (2) 그렇게 해야만 열기와 분노를 가라앉히고 사리를 따져서 일을 처리하게 된다.
- (3) 그런데 그저 성급하게 열기와 분노대로 막 다그치다가는 자신의 인격의 수치를 그대로 드러내는 꼴이 되며, 후에 그런 잘못을 지적당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고 만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여하한 경우라도 신중하게 처신하며 다투기를 더디하고 또한 다름을 피해야 한다.

12. Ⓞ 이웃과 다툴 때에 특히 주의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9절)

- Ⓐ (1) 이웃과 다툴 때에 사리를 따져서 말하되 특히 ‘이웃의 은밀한 일’을 폭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 (2) 왜냐하면 다투는 일은 서로 화해하고 이해함으로 해결될 수 있지만 한번 발설된 인신 공격(人身攻擊)의 말은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큰 해를 끼치며 미움을 더 크고도 깊게 하기 때문이다.
- (3)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마 5:22)고 엄히 말하셨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다투는 경우라도 분내지 말며 더욱 남의 허물을 들추어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13. Ⓞ ‘금사과’는 어떠한 것을 가리키는가? (11절)

- Ⓐ (1) ‘금사과’는 황금 빛 색깔을 띤 천연 사과를 가리킨다.
- (2) 그런데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오렌지나 레몬을 가리킨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팔레스틴에 풍부한 그옥한 향기를 발하는 살구를 가리킨다고 말하기도 한다.
- (3) 그러나 이 ‘금사과’는 금으로 만든 사과를 가리키지는 않는다.

14. Ⓞ 지혜자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11절)

- Ⓐ (1) 지혜자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라고 한다.
 (2) 즉 때와 장소에 맞게 적절히 사용되는 말은 아름다운 그릇에 보기 좋고도 향기로운 과일
 이 있는 것과 같이 아름답다.
 (3) 이러한 말은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며 다툼과 오해를 풀어 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서
 로 화평하게 한다.
 (4) 그러므로 '경우에 합당한 말'이야말로 마땅히 성도들이 해야 할 말이다.
15. Ⓞ '금고리'와 '정금 장식'은 각각 무엇을 가리키는가? (12절)
 Ⓐ (1) '금고리'는 히브리어로 <네뻬>인데 이것은 금으로 만든 코걸이를 가리킨다(참조, 11:
 22). 그러나 본절에서는 귀걸이를 의미한다.
 (2) 그리고 '정금 장식'은 히브리어로 <하리>이며 평범한 장신구나 목이나 가슴에 거는 보
 석을 가리킨다.
 (3) 그런데 이 두 가지 장식품은 잘 조화시켜서 몸에 걸침으로 사람의 모습을 우아하고 아
 림답게 돋보이도록 한다.
16. Ⓞ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어디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인가? (12절)
 Ⓐ (1)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聽從)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다.
 (2) 이 말은 지혜자의 훈계를 잘 듣고 자기를 살필 때 그 훈계로 인해서 훈계를 듣는 자
 의 인격이 아름답게 되어짐을 뜻한다.
 (3) 그러므로 전도서 기자는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
 보다 나으니라'고 하였다(전 7:5).
 (4) 이와 같이 성도들은 지혜자의 책망을 청종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17. Ⓞ 어떠한 사람이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가? (13절)
 Ⓐ (1) 그를 보낸 주인의 부여한 사명에 충성된 사신(使臣)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
 (2) 즉 자신의 의지와 판단은 철저히 포기한 채 자기를 보낸 자의 의도에 따라 모든 일을
 수행해 가는 선한 청지기들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이런 자들은 물론 인간
 에게 대한 성실을 행하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된다.
 (3) 그러나 일반적인 의미에서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이 세상에
 보낸 자들이다.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깨
 닫고 그 사명에 충성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참조,
 고전 15:58).
18. Ⓞ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무엇과 같은가? (14절)
 Ⓐ (1)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
 (2) 이 말은 비가 쏟아질 것 같으나 비를 주지 못하는 구름과 바람처럼 거짓말하는 자의
 허황된 약속에는 결실이 없다는 뜻이다.
 (3) 그러므로 성도들은 허황된 약속을 하지도 말 것이고, 그런 약속을 믿지도 말아야 한다.
19. Ⓞ 오래 참으면 누가 그 말을 용납하는가? (15절)
 Ⓐ (1)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한다.
 (2) '오래 참으면'이란 말은 거짓되고 허위에 찬 비난을 받을 때에도 침착하게 격동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서 초연한 자세를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3) 그리고 '관원'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카친>인데 '중재자나 재판관'을 가리킨다.
 (4) 이상에서 본절은 '중재자나 재판관'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침착하고 냉정하게 사리를
 따지는 사람에게 호의적인 입장을 취하게 됨을 말하고 있다.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떤 일에 대해 판단받을 때 구차한 변명을 하려고 피하지 말고 침착하게 오래 참으면서 사리를 따지도록 해야 한다.

20. ㉠ 무엇이 뼈를 꺾는가? (15절)

㉠ (1)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

(2) 즉 흥분하거나 화내는 일이 없이 침착하고 차분하게 하는 말이 극히 거친 마음도 진정시키며 침울에 빠진 자의 마음을 녹여 준다.

(3) 기드온은 부드러운 혀로써 에브라임 사람들을 진정시켰고(참조, 사8:1-3), 아비가일은 다윗의 분노를 사라지게 하였다(참조, 삼상25:23-31).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든지 신중하게 부드러운 말을 해야 한다.

21. ㉠ 지혜자는 ‘꿀’에 대하여 어떠한 교훈을 하는가? (16절)

㉠ (1) 지혜자는 ‘꿀’에 대하여 그것을 만나면 죽하게 먹되 과식하지 말라는 교훈을 한다.

(2) 그런데 ‘꿀’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을 가리킨다.

(3) 그러므로 본질은 인생에서 얻어지는 즐거움을 만족하게 누리되 그것에 빠져서 하나님 경외하는 인생의 본분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절제하기를 권하는 것이다.

22. ㉠ 지혜자는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을 무엇에 비유하는가? (18절)

㉠ (1) 지혜자는 그런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는 방망이, 칼, 뾰족한 살에 비유하였다.

(2) 이것은 거짓말로 남을 속이고 중상 모략하는 것이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살해하는 것과 다름없는 큰 죄임을 경고한 것이다.

(3)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참조, 출20:16).

23. ㉠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의뢰는 무엇과 같은가? (19절)

㉠ (1) 그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遼骨)된 발과 같다.

(2) 이 말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뼈가 필요한 때 제 구실을 못하고 오히려 아픔을 주듯이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못 되고 오히려 고통을 더하게 됨을 뜻한다.

(3) 그러므로 성도들은 환난 날에 아무 도움이 못 되는 진실치 못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를 얻어야 한다.

24. ㉠ 20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교훈은 어떤 것인가?

㉠ (1) 그것은 모든 일에는 적합한 때가 있으므로 어떤 일을 할 때는 경우에 맞게 적합한 때에 하라는 것이다.

(2) 아무리 노래가 좋은 것이긴 하지만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노래가 노래로 들리지 않는 법이다.

(3) 그러므로 성도들은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롬12:15)고 하신 말씀대로 행해야 하겠다.

25. ㉠ 원수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핀 솟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인가? (21,22절)

㉠ (1) 원수가 배고파할 때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할 때 물을 마시우는 것이 그러하다.

(2) 이것은 원수에게 따뜻하게 해주는 사랑이 그 원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참회와 회개로 이끌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3) ‘핀 솟’이란 말은 참회와 회개의 고통을 갖게 하는 것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 방식이다.

(4) 바울 사도는 본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롬12:12)고 가르쳤다.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26. ㉠ ‘참소(讒訴)하는 혀’는 어떠한 것을 가리키는가? (23절)

㉠ (1) ‘참소(讒訴)하는 혀’는 남을 해치기 위해서 없는 죄도 있는 것처럼 윗사람에게 고해

바치는 말을 가리킨다.

(2) 이런 말은 주로 아침하길 잘하는 기회주의자들이 꾸며 낸다.

(3) 그리고 이런 말은 여러 사람 사이에 우의(友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의심을 갖게 만들어 적개심을 조성하게 된다.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변에서 참조하는 혀를 제거해야 한다.

27. ㉠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과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는 어떤 점에서 비교가 되는가? (25절)

㉠ (1) 양자(兩者)는 갑갑하고 답답한 것을 풀어 주며 시원하게 해주는 점에서 비교가 된다.

(2) 이것은 복음이 하늘의 기쁨과 매우 먼 곳에 있는 땅의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참기쁨의 소식이 된 것을 가리키기도 한다.

(3) 복음은 하늘의 기쁨을 알리는 인생에게 참으로 좋은 소식이다.

28. ㉠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말인가? (26절)

㉠ (1) 이것은 착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그 착함을 드러내지 않고 죄인 앞에서 착함을 내세우지 아니하는 상황을 설명하는 말이다.

(2) 이렇게 되면 의인은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해서 아무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생명의 샘이 되어야 할 의인의 입'(10:11)은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되고 만다.

(3) 그러므로 의인의 행위는 시종 여일(始終如一)하고 끝으며, 의를 행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고, 죄를 대적하는 일에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

(4) 예수님께서서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마 10:33)고 말씀하셨다.

(5) 성도들은 의를 행하는 데 있어 담대해야 한다.

29. ㉠ 지혜자는 무엇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는가? (27절)

㉠ (1) 지혜자는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한다.

(2) 지혜자는 24:13, 14에서 '꿀'로 지혜를 비유하였는데 본질에서는 꿀을 많이 먹을 때 생기는 나쁜 결과로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의 헛됨에 적용시켰다.

(3) 이와 같이 지혜자는 한 가지 사물을 가지고서도 그 사물의 특징에 따라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하여 그 경우에 맞는 교훈을 적용시킨다.

30. ㉠ '자기의 마음을 제어(制馭)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과 같은가? (28절)

㉠ (1) 그는 성욕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2) 이것은 자신의 정욕과 욕망과 애정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유혹이 다가올 때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죄와 파멸에 빠지고 말게 됨을 강조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3) 그런데 이미 지혜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3:23)고 가르쳤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16:32)고 말했다.

(4) 이와 같이 사람에게 있어 마음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며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거거서 결정된다.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보여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마음을 잘 제어(制馭)해야 한다.

연구자료

잠언에 나타난 특이한 표현들

본서에는 팔레스틴의 풍습에 관계된 특이한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 이러한 표현들은 그 문화권이 다른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본고는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① '핀 솥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 (25:22) : 팔레스틴에서는 화로에 불을 담아 간단한 음식을 조리하거나 난방용으로 사용한다. 그 외에도 이 불은 여러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귀중하게 여겨진다. 만일 이 불을 꺼뜨리게 되면 화로를 가지고 옆 집에 가서 불을 얻어와야 하는데 이웃 사람이 마음이 너그러울 경우 화로에 솥불을 가득하게 채워 준다. 그러면 불을 얻은 사람은 화로를 머리 높이까지 쳐들고 돌아온다. 결국 이러한 표현은 지극한 관대와 친절을 묘사한 것이다(참조, 롬 12:20).

② '다투는 부녀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27:15) : 팔레스틴의 부녀자들은 오늘날도 별것 아닌 일로 다투는 일이 많다. 그들은 단지 말로만 싸우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카락을 뜯으며 마구 아우성치면서 싸우는데 식사도 건너뛰고 지칠 때까지 격렬하게 싸운다. 따라서 이렇게 싸우는 여자들을 말리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참조, 27:16).

③ '젓을 저으면 베테가 되고 코를 비틀면' (30:33) : 여기에서 '저으면'이라는 말과 '비틀면'이라는 말은 같은 동사(히, 미츠)가 사용되었다. 팔레스틴의 여자들은 뼈터를 만들 때 먼저 짐승 가죽의 털이 난 부분을 안쪽으로 해서 부대를 만들고 그 안에 짐승의 젓을 넣고 비튼다. 이렇게 흔들고 비틀어서 만들어진 뼈터는 털이 들어 있기 때문에 뼈터를 녹여 털을 고른 다음 병에 넣어 보관한다. 결국 본서의 표현은 같은 동사를 사용한 멋진 대조적 비유이다.

④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31:22) : 팔레스틴 지방에 사는 여인들은 무척 일이 많다. 그들은 부엌을 청소하고, 빨감을 모으며, 불을 때고, 음식을 만들고, 남자와 같이 들에서 일을 하며 심지어는 재배한 채소를 시장에 갖다가 파는 일까지 한다. 그러나 명절 때에는 아름다운 채색 옷을 입고 일을 쉬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옷들을 만들어 입고 가족들에게도 입힐 수 있다는 것은(31:21) 그 여인의 근면성을 잘 나타내는 것이다.

제 26 장 어리석은 자들을 보라

단락구분 1-12 미련한 자를 옹호하지 말라 / 13-16 게으른 자는 이러하다 / 17-28 다름과 위선을 피하라

1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2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의 떠도는 것과 제비의 날아가는 것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3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4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네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5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에게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6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이라 해를 받느니라

7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8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9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슬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10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자를 고용함과 같으니라

11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둬 행하느니라

12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13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14 문짝이 돌져귀를 따라서 도는 것같이 게으

른 자는 침상에서 구으느니라

15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16 게으른 자는 선히 대답하는 사람 얼굴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17 길로 지나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름을 간섭하는 자는 개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18 햇볕을 던지며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19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회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20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으면 다름이 쉬느니라

21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같이 다름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22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23 은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토기니라

24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꾀함을 품나니

25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일곱 가지 가중한 것이 있음이니라

26 꾀물로 그 감정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27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느니라

28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의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1. ㉠ 본장은 무엇에 관하여 훈계하고 있는가?

㉠ (1) 본장에는 크게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 그리고 다름을 좋아하고 위선 된 자에 대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다.

(2) 미련한 자에 대하여는 그를 옹호하지 말고 그의 어리석음을 책망할 것을 권한다.

(3) 그리고 이어서 게으른 자의 나태함과 어리석음을 지적하여 경고하고 다음으로는 다름을 좋아하며 남을 회롱하는 것과 위선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다.

(4) 성도들은 이러한 어리석은 자들의 습성을 잘 파악하여 그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 무엇이 여름에 눈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오는 것처럼 적당치 않는가? (1절)

- ㉠** (1) 미련한 자에게 주어지는 영예가 그러하다.
 (2) 여기서 '미련한 자'는 마음이 강퍹해져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그런데 이런 '미련한 자'에게 존귀한 자리가 주어지거나 존경을 표시하게 되면 그의 미련함을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되며 다른 사람들도 그를 본받게 되므로 모두에게 큰 해(害)가 되고 만다.
 (4) 그러므로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 '까닭없는 저주'는 어떤 것을 가리키는가? (2절)

- ㉠** (1) '까닭없는 저주'는 저주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애매하게 자기의 감정대로 하는 저주를 가리킨다.
 (2) 이러한 저주는 무지한 유대 동족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던 그런 성질의 것이다. 즉 예수께서는 흠없는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받으셨다(참조, 마 26:57-68).
 (3) 그러나 그런 저주들은 그대로 시행되지 않았고 그대로 미치지 않았다.
 (4)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다가 받는 대적들의 애매한 저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4. **㉠** 지혜자는 '미련한 자'를 어떤 부류와 동일시하고 있는가? (3절)

- ㉠** (1) 지혜자는 '미련한 자'를 말과 나귀같이 주인으로부터 항상 억압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취급하였다.
 (2) 즉 말과 나귀를 부리기 위해서는 채찍과 자갈이 필요하듯이 미련한 자를 바르게 징책하려면 막대기가 사용되어야 한다.
 (3) 이와 같이 사람이 짐승과 비교되어 책망받을 자리에 있다면 참으로 불쌍할 뿐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악에서 떠난 생활을 통해 인간다움을 유지해야 한다.

5. **㉠** 4,5절에서 알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 ㉠** (1) 4,5절은 서로 상반되는 충고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성도가 미련한 자들에게 대처해야 할 현명한 두 가지 방법(침묵과 웅변)을 다루고 있다.
 (2) 먼저 미련한 자에게 침묵을 지킴이 지혜가 되는 것은 미련한 자가 진리를 무시하고 장난거리로 취급할 때이다.
 (3) 사실 미련한 자들은 항상 남의 말을 책잡아 모함하는 버릇이 있다.
 (4) 그러나 미련한 자가 무지한 말로 스스로 옳게 여길 때는 그의 어리석은 것을 밝히고 옳은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참조, 요 18:33-37; 19:11).
 (5) 이와 같이 성도들은 침묵할 때와 대답할 때를 잘 구분하여 지혜롭게 대처함으로써 미련한 자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6. **㉠** 미련한 자 편에 기별(奇別)하는 것은 무엇과 다름없는가? (6절)

- ㉠** (1) 그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과 다름없다.
 (2)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시켜서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는 것은 자기가 발로 수고할 것을 대신 맡기는 것과 같은데 그 일을 미련한 자에게 맡김은 스스로 망치게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3) 성도들은 미련한 자를 사용해서 어떤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箴言)이 힘없이 달린 저는 자의 다리에 비교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7절)

- ㉠** (1) 그 이유는 미련한 자가 비록 경건하고 좋은 말을 하더라도 그의 생활은 자신의 말과 모순이 되므로 언행(言行)이 불일치하기 때문이다.

- (2) 그리고 말과 행실이 일치되지 않는 자의 말은 저는 자의 다리가 힘을 쓸 수 없는 것과 같이 전혀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위신을 끌어 내릴 뿐이다.
- (3) 지혜의 교훈인 잠언(箴言)은 실제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있는 교훈이지 결코 입에서만 떠벌리도록 있는 교훈이 아니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만 떠벌이는 자들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겸손하게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요일 3:18).

8. **㉠ 무엇이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은가? (8절)**

- ㉠** (1)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이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
- (2) 돌을 던지려고 할 때 그것을 물매에 매면 돌을 던질 수 없다. 마찬가지로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면 그 영예는 가치를 발휘할 수 없게 된다.
- (3) 그러므로 영예는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에게 주어져야지 아무에게나 주어져서는 안 된다.

9. **㉠ 지혜자는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가? (9절)**

- ㉠** (1) 지혜자는 그것을 술취한 자의 손에든 가시나무에 비유하고 있다.
- (2) 이미 지혜자는 7절에서 미련한 자가 말하는 잠언이 무익함을 지적하였는데 본절에서는 그것의 해악성(害惡性)을 지적하고 있다.
- (3) 즉 술취한 자가 손에 가시를 들고 서슴없이 다른 사람을 찌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害)를 끼치듯이 미련한 자가 말하는 잠언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 떠벌이므로 다른 사람이 진리를 곡해하게 되는 해를 끼친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잠언으로 인해서 진리를 알고 행하는 일에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그런 말들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

10. **㉠ '지나가는 자를 고용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0절)**

- ㉠** (1) 이 말은 고용주가 성급하고 경솔하게 사람을 채용하는 것을 뜻한다.
- (2)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인데 미련한 자를 들어서 쓰는 것도 그와 같이 위험한 일임을 지혜자는 지적하였다.

11. **㉠ 미련한 자가 그 미련한 짓을 거듭 행하는 것은 무엇과 같은가? (11절)**

- ㉠** (1) 그것은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다.
- (2) 개는 자기 위에 고통을 가져다 주는 음식을 토해냄으로써 평안을 얻으나, 고통이 가라앉으면 그 뒤에 다시 그 토해낸 더러운 것을 먹는다.
- (3) 마찬가지로 미련한 자는 미련하게 죄를 지으므로 큰 고통을 당하고 나서도 그 고통이 지나면 얼마 못가서 또다시 그 죄를 반복한다.
- (4) 사도 베드로는 본절의 말씀을 '의의 도를 안 후' 다시 '저버리는' 자들에게 적용시키고 있다(참조, 벧후 2:21, 22).
- (5) 이런 미련한 자들은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를 하여서 죄를 단념해야만 징벌을 피하게 될 것이다.

12. **㉠ 미련한 자보다 더 소망이 없는 자는 누구인가? (12절)**

- ㉠** (1) 그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이다.
- (2) 즉 스스로 온전해서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는 발전의 가능성이 무너져 버린 자로서 자신이 지혜롭지 못하다고 여기는 미련한 자가 더 소망이 있다.
- (3) 그런데 세상에는 자신이 지혜롭고 경건하다는 거짓되고 터무니없는 망상에 빠져 있는 자가 의외로 많이 있다.
- (4)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있을 진저'(사 5:21)라고 그런 자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였다.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참조, 고전 3:18).

13. **㉠** 13절의 교훈은 본서의 어디에 있는 교훈의 반복인가?

㉠ (1) 본절의 교훈은 22:13에 있는 교훈의 반복이다(참조, 22장 **㉠** 16, 17).

(2) 그런데 한 가지 차이는 본절의 사자는 히브리어로 <사할>인데 늙은 사자를 말하고, 22:13의 사자는 히브리어로 <아리>로서 한창 때의 사자를 가리키는 점이다.

(3) 이와 같이 게으른 자는 두려움을 이유로 자기의 게으름을 변명한다.

14. **㉠** 지혜자는 게으른 자가 안일에 빠져 있는 모습을 무엇에 비유하였는가? (14절)

㉠ (1) 지혜자는 그 모습을 문짜이 들찌귀를 따라서 이리저리 도는 것에다 비유하였다.

(2)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한 쪽으로 누워 있다가 그쪽이 싫증나면 또 딴 쪽으로 돌아 눕는다. 이렇게 해서 그는 일을 해야 할 시간에도 여전히 침상에 누워 있기를 좋아한다.

(3) 그러나 이렇게 신체적인 안일만을 추구하는 자는 자기가 좋아하던 그 안일로 인하여 망하고 만다.

15. **㉠** 15절에는 게으른 자의 어떤 모습을 묘사했는가?

㉠ (1) 본절에는 게으른 자가 사람이 생존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밥먹는 일조차도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였다.

(2) 이러한 묘사는 13절에 게으른 자의 두려움, 14절에 게으른 자가 좋아하는 것을 언급한 뒤에 이어지는 것으로 그가 이제 게으름의 극치에 이른 것을 보여 준다.

(3) 이런 자는 결국 무덤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다른 수가 없다.

16. **㉠** 게으른 자는 누구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가? (16절)

㉠ (1) 게으른 자는 선히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2) 왜냐하면 게으른 자는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과대 평가하며 가능한 모든 안일을 취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3) 그러므로 이런 게으른 자의 눈에는 부지런히 선을 좇아 행하는 지혜자가 오히려 어리석게 보인다.

(4) 그러나 이렇게 자기 도취에 빠진 게으른 자는 인생의 풍성한 복들을 누릴 기회를 잃어버리므로 인생 중에 가장 불쌍한 자이다.

17. **㉠** 길로 지나가다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름을 간섭하는 자는 무엇과 같은가? (17절)

㉠ (1) 그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다.

(2) 여기서 지혜자는 참견하기를 좋아하지 말 것과 조용히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열중할 것을 교훈하고 있다.

(3) 성도들은 쓸데없는 일에 참견하여 애매한 곤욕을 치루지 않도록 해야 한다.

18. **㉠** 18, 19절에서 말하려고 하는 교훈은 무엇인가?

㉠ (1) 여기서의 교훈은 남을 눈하나 깜짝 앓고 속이는 것이 미친 행동이라는 것이다.

(2) 자기 이웃을 모욕하고 기만하며 거래에서 속이고 그들에게 거짓말하거나 그들에 대한 거짓말을 지어내어 욕을 돌리고 명예를 손상시킨 뒤에 장난으로 그랬다고 변명하는 자는 확실히 정신나간 자이다.

(3) 사람들이 거짓말은 사단에게서 나오며 지옥불에 이르는 것인 줄을 깊이 생각한다면 이러한 정신 나간 일을 하기가 두려울 것이다(참조, 요 8:44).

19. **㉠** 말장이는 다름은 일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20, 21절)

㉠ (1) 말장이는 다름에서 다름을 북돋아 주고 숯불 위에 숯을 더하고,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같이 다름거리들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2) 즉 말장이들은 간사한 말로 남을 헐뜯고 비밀을 누설시키며 남의 말과 행동을 그릇되

게 전하므로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고 미움을 조성시킨다.

(3) 그러므로 다툼을 쉬게 하려면 이런 말장이를 추방시켜야만 한다.

20. **㉠**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어떠한 것들인가? (22절)

㉠ (1) 그것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중상, 비방, 무고 등이다.

(2)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나쁜 말들이 자기의 명예와 상관없고 자기를 해치지 않는다고 흥미있게 듣고서는 그것을 재미있게 생각한다.

(3)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말들이 구역질 나는 것들이다.

21. **㉠** 위선자는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23절)

㉠ (1) 위선자는 입술로는 은유한 말을 하지만 마음은 악한 성품을 가진 이중 인격자이다.

(2) 유다는 예수님께 입을 맞추고 안부의 말을 하였지만 그 속에는 악한 마음으로 가득했던 위선자의 표상이다(참조, 마 26:48, 49).

(3)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낮게 은을 입힌 토기'가 겉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므로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이러한 위선자의 본색을 모르고 그의 말에 속고 만다.

(4)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속임수를 간파하고 위선자의 거짓된 성품에 속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판단 기준은 외모가 아니라 상대방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22. **㉠** '그 마음에 일곱 가지 가증(可憎)한 것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25절)

㉠ (1) 이 말은 위선자의 마음이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이다.

(2) 여기서 '일곱'은 완전수로서 마음이 온통 가증한 것으로만 채워진 것을 가리킨다.

(3)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내는 것이 정상적이나 위선자는 속과 겉이 다르게 꾸민다.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의 달콤한 말은 조심하여 속지 않도록 해야 한다.

23. **㉠** 지혜자는 위선자의 결국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였는가? (26-28절)

㉠ (1) 지혜자는 위선자의 위선이 마침내 회중 앞에 드러나고 그는 스스로 판 함정에 빠지며 스스로 교묘하게 만든 말에 얽혀서 망하고 말 것이라고 말하였다.

(2)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고 들리는 아름다움에 미혹되어 위선자의 결국을 보지 못하고 그런 자를 좋아하다가 그와 함께 망하고 만다.

(3) 그러나 성도들은 지혜자가 가르쳐 주는 것과 같이 위선자의 결국을 주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

본장의 요절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네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4절).



연구자료

기독교인의 직업 윤리

본서에서 지혜자는 게으름에 대하여 여러 번 경고하고 있다(참조. 13-16절; 6:6-9; 10:26; 13:4; 19:15; 20:4). 왜냐하면 게으름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위배되기 때문이다(참조, 창1:2; 3:17-19). 하나님의 지상 명령은 기독교 문화를 이 땅에 심는 것인데, 기독교인의 직업 윤리가 올바른 때에야 올바른 기독교 문화를 이루어 갈 수 있다. 그래서 본고는 이 세상의 문화를 올바른 하나님 중심의 문화로 이끌어 가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독교인의 직업 윤리에 대해서 논하려고 한다.

1. 노동

초대 교회 시대에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매우 무관심했던 것 같다. 그 이유는 그들이 게을렀기 때문이 아니라, 압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관념과 혹독한 핍박 때문이었다. 어거스틴에 이르러 노동은 저주로 여겨졌지만 중세기에는 직업 윤리를 기독교 윤리의 한 분야로 취급하였다. 그래서 생계를 위하여 각자가 노동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견해는 종교 개혁 시대에 이르러 칼빈에 의해서 체계화되어 프로테스탄티즘(Protestantism)의 직업 윤리에 대한 연구가 발전하게 되었다. 이 발전된 직업 윤리를 조금 더 성경적으로 접근하여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정복하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것을 명령하셨다(창 1:28). 이 명령은 인간의 타락 후 홍수로 세계가 멸망했을 때에 한 번 더 주어졌던 것이다(창 8:17; 9:7). 홍수 후에 주어진 이 명령은 타락 후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던 것, 즉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창 3:17-19) 라는 말씀과 연관해서 주어진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사람이 자기 손으로 수고하지 않는 것을 취하고자 하며 먹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이다(참조, 살후 3:10-12).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요 5:17) 고 하심과 아울러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완전히 이루는 것이니라’(요 4:34)고 말씀하셨다. 특히 주의 말씀에서 강조된 것은 누구든지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노동이 하나님께 대한 봉사임을 깨닫고 노동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명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2. 노동의 종류

노동이라 함은 보통 경제적인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인간이 행

하는 제반 경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관점에서에서는 그 뜻을 확대시켜 영적인 사업을 위한 것까지도 포함시킨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로 구분하여 논하기로 한다.

① 육적인 일: 많은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행하는 제반 경제 활동을 하나님과 연관지어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요리 문답 제 1문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말은 인간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의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전 10:31),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골 3:23)고 권고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어진 옛새 동안 열심히 일해야 하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정신으로 모든 일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영지주의자들(Gnostic)처럼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고 생각하여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분리하면 이원론에 빠져 육적인 노동을 부정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

② 영적인 일: 기독교인들은 육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들릴 뿐 아니라 예배, 전도, 봉사, 그리고 교육을 통해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 이 영적인 일을 함에 있어서는 자주(紫紬) 장사 루디아(행 16:14)나 장막을 만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행 18:2,3)처럼 육적인 일을 하면서 영적인 일에 전념하는 이들이 있는가하면 그리스도와 사도들처럼 영적인 사업에만 전념하는 이들도 있다. 이러한 영적인 사업을 하는 이들은 갈라디아 교회처럼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다.

3. 돈의 사용

옛말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돈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함을 교훈하는 격언이다.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딤후 6:10)고 하여 기독교인이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을 금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부한 자들에게 명하기를 '정(定) 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될 것'을 권면했다(딤후 6:17, 18).

결론적으로 기독교인들은 노동을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들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에 기독교 문화는 이 땅에서 발전할 수 있다.

제 27 장 겸손하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라

단락구분 1-4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 / 5-10 참된 사랑이 아름답다 / 11-22 지혜로운 자는 재앙을 피한다 / 23-27 자기 소유를 잘 관리하라

1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2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말지니라
 3 들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나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들보다 무거우니라
 4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갈거나와 투기 앞해야 누가 서리요
 5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오니라
 6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7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주린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8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9 기쁨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답우니라
 10 네 친구와 네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네 환난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가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오니라
 11 내 아들이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겠노라
 12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13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이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불모잠힐지니라

14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15 다투는 부녀는 피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16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17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18 무화과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을 시중하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19 물에 비취이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취느니라
 20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21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시련하느니라
 22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이로 쟁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23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에 마음을 두라
 24 대저 재물은 영영히 있지 못하니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25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풀을 거둘 것이니라
 26 어린 양의 털은 네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27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네 집 사람의 식물이 되며 네 여종의 먹이 되느니라

1. ㉠ 본장의 개요를 말하라.

- ㉠ (1) 본장에서는 자기 자랑을 피하고 친구의 충성된 권고를 좋아하며 지혜를 따라 재앙과 다툼과 욕심을 멀리할 것과 자기에게 주어진 재산을 잘 관리하며 부지런히 일할 것을 권하고 있다.
 (2) 그런데 지혜자는 그의 권고를 듣고 지혜를 얻어 자기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3) 여기서 우리들은 성도들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아무리 훌륭한 지혜

가 있어도 그것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실제 생활 속에서 지혜를 실행하여 그 지혜가 참으로 옳은 것임을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2. **㉠** 지혜자는 어떠한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가? (1절)

㉠ (1) 지혜자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한다.

(2) 왜냐하면 인간은 내일 일은 접어두고라도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3)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의 한계성을 깨닫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오늘이라는 시간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

3. **㉠** '외인'이란 어떠한 사람을 가리키는가? (2절)

㉠ (1) 이 말은 히브리어로 <노크리>로서 '알지 못하는 곳에서 온 낯선 사람'을 가리킨다.

(2) 그러나 이 말은 본질 앞부분의 타인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잘>과 같이 사용되어 '다른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

4. **㉠** 2절에서 지혜자가 반복하며 강조하는 교훈은 무엇인가?

㉠ (1) 그 교훈은 자기 자랑을 피하고 겸손히 선행(善行)을 베풀어서 이웃이 칭찬하는 선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2) 사도 바울은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고후 10:18)라고 말하였다.

(3) 그러므로 성도들은 선을 행하되 자기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옳다 인정하는 자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

5. **㉠** 미련한 자의 분노는 어느 것보다 더 무거운가? (3절)

㉠ (1) 미련한 자의 분노는 돌이나 모래보다 더 무겁다.

(2) 이처럼 미련하고 머리가 둔한 자가 품은 분노는 너무 무거워서 쉽게 치워지지 않고 오랫동안 남아 있게 된다.

(3) 이렇게 해서 미련한 자는 그 분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만다.

(4) 한편 시편 기자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시 37:8)고 성도들에게 권고하였다.

(5) 그러므로 성도들은 미련한 자같이 분을 오랫동안 품어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6. **㉠** '노는 창수(瀉水)와 같다'는 말은 어떤 뜻인가? (4절)

㉠ (1) 이 말은 성내는 것이 격렬하여 금방 사람을 삼킬 듯하나 시간이 지나면 수그러진다는 뜻이다.

(2) 따라서 노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격동을 잘 제어하면 그 화를 피할 수 있다.

7. **㉠** 분노(憤怒)보다 더욱 잔인한 것은 무엇인가? (4절)

㉠ (1) 분노보다 더욱 잔인한 것은 '투기', 즉 샘내는 일이다.

(2) 왜냐하면 분노는 보통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지만 투기는 상대방의 행동을 부러워하는 데서 나온 것으로 분노보다 훨씬 오래 가기 때문이다(23:17).

(3) 또한 분노는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간접적으로 자신의 이권이 침해를 당했다는 피해 의식에 기인하지만 투기는 상대방이 잘못된 일이 없는데도 상대방이 잘되는 것을 공연히 좋아하지 않고 방해하려는 데서 생기기 때문이다.

(4) 그러므로 성도들은 다른 사람이 잘되는 것을 보고 칭찬하지는 못할망정 샘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8. **㉠** 무엇이 숨은 사랑보다 더 나은가? (5절)

㉠ (1) 면책(面責)이 숨은 사랑보다 더 낫다.

- (2) 여기서 '면책'은 얼굴을 맞대고 책망하는 것을 말하는데(참조, 마 18:15)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행동으로 표현된 것이다.
- (3) 그러므로 면책은 어떤 친구를 속으로는 사랑하면서도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숨은 사랑보다 더 훌륭한 것이다.
- (4) 그러나 이러한 면책도 받아들이는 자가 어리석으면 오히려 유익보다 해를 끼친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거침없이 옳은 말을 하고 또한 저항 없이 그런 옳은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

9. **㉠ 6절에서는 무엇과 무엇이 비교되고 있는가?**

- ㉡** (1) 본절에서는 친구의 통책(痛責)과 원수의 자주 입맞춤이 비교되고 있다.
- (2) 즉 참된 친구는 선한 길로 이끌기 위한 책망을 하지만 아첨자는 비위를 맞추기 위해 듣기 좋은 말만 한다.
- (3) 그러므로 성도들은 충고와 아부를 구별할 수 있는 참지혜자가 되어야 한다.

10. **㉠ 지혜자는 배부른 자와 주린 자를 비교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7절)**

- ㉡** (1) 지혜자는 양자(兩者)를 비교하면서 가난한 사람이 어떤 점에서는 부자가 갖지 못한 장점을 지니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 (2) 즉 '주린 자'는 약간의 떡과 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배부른 자들은 아무리 고량 진미라도 별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
- (3) 이러한 태도의 차이는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눅 1:53)의 말씀이 뒷받침해 준다.

11. **㉠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을 가리키는가? (8절)**

- ㉡** (1)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마땅히 머물러야 할 자기의 처소와 본분을 망각하고 그 길에서 벗어나 헤매는 사람을 가리킨다.
- (2) 이러한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아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불안한 가운데 떠돌게 된다.

12. **㉠ 지혜자는 친구의 충성된 권고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는가? (9절)**

- ㉡** (1) 지혜자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기름과 향에다 비유하고 있다.
- (2) 그런데 이렇게 좋은 친구의 충성된 권고를 무시하는 자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다.
- (3) 성도들은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요 15:14)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근심히 주의하며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13. **㉠ 지혜자는 친구 사귄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10절)**

- ㉡** (1) 지혜자는 친구 사귄에 대하여 먼저 친구를 귀하게 여길 것을 말하고 그리고 자신이 환난을 당할 때 그 친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다.
- (2) 즉 '네 친구와 네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라는 말은 친구를 귀하게 여길 것을 말하는 것이고, '네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니라'는 말은 환난 날에 그 우정(友情)에 의지하라는 것이다.
- (3) 그러므로 성도들은 우정(友情)의 관계를 귀하게 여기고 형제보다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4. **㉠ '가까운 이웃'과 '먼 형제'라는 말에서 '가까운'과 '먼'은 어떤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한 것인가? (10절)**

- ㉡** (1) 본절에서 '가까운'과 '먼'은 감정이나 지역적 관계의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 (2) 먼저 감정적 관계에서 '가까운' 이웃은 애정도 없고 동정심도 없는 친척보다 필요할 때에 더욱 유익하다.

- (3) 또한 지역적 관계에서 가까운 데 사는 이웃은 먼 곳에 사는 형제보다 재난을 만날 때에 더 빠른 도움이 된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비록 피를 같이 나누지는 않았지만 이웃과의 긴밀한 사귀를 귀중히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15. **㉠** 재앙을 당할 때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가? (12절)

- ㉠** (1) 재앙을 당할 때 슬기로운 자는 그것을 보고 피하나 어리석은 자는 그냥 나아가다가 해를 받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2) 이러한 차이는 지혜의 가치를 더욱 높여 주고 지혜를 얻는 자를 칭찬하게 한다.
- (3) 그러므로 성도들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 길을 살면서 항상 여호와의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고 슬기롭게 살아야 한다.

16. **㉠** 이웃이 듣고 그것을 저주같이 여기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14절)

- ㉠** (1)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축복하는 것을 이웃은 저주같이 여긴다.
- (2) 왜냐하면 이러한 축복은 경우에 합당한 것이 아니고 아침이 가득 찬 형식적인 축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3) 그리고 이는 아침에 드리는 축복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인데 사람에게 돌리므로 오히려 하나님께 미움을 받게 된다(참조, 눅 16:15).
- (4) 그러므로 정신 빠진 사람이 아니라면 이러한 축복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저주하는 것 같이 싫어한다.
- (5) 성도들은 과장되고 지나친 아부의 말들에 조심하도록 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 돌릴 찬양을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참조, 시 115:1; 사 48:11; 행 12:22-33).

17. **㉠** 다루는 부녀를 제어(制馭)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은가? (15, 16절)

- ㉠** (1) 다루는 부녀, 즉 잔소리가 심한 여인을 제어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을 제어하는 것과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과 같다.
- (2) 이것은 잔소리 심한 여인을 단속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함을 나타내는 말이다.
- (3) 성도들은 이러한 여인에 대해 경계하면서 온유와 순종의 덕을 지닌 아름다운 여성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참조, 딤후 2:11; 벰전 3:4).

18. **㉠** 17절에서 지혜자가 말하려는 교훈은 무엇인가?

- ㉠** (1) 그 교훈은 사람이 서로 교제할 때 피차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 (2) 즉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같이 악한 사람과의 사귀는 더욱 악한 자가 되게 하고 선하고 예의 바른 사람과의 사귀는 더욱 선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 되게 한다.
- (3) 그러므로 성도들은 교제를 통해 남과 자신을 아울러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하며, 시간을 낭비하거나 서로 농담으로 시종하지 말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히 10:24) 서로를 더욱 지혜롭고 선한 자로 만들어야 한다.

19. **㉠** '무화과나무를 지키는 자'는 어떠한 사람을 가리키는가? (18절)

- ㉠** (1) '무화과나무를 지키는 자'는 무화과나무를 때를 따라 잘 간수하며 보살피는 성실한 사람을 가리킨다.
- (2) 이런 사람은 그 무화과나무에서 생산되는 과실을 먹게 되는데 이것은 그가 성실히 일한 대가로 얻는 것이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맡은 일을 성실히 행하는 자에게 그 수고한 것을 먹게 하신다.

20. **㉠** 자기 주인을 시종하는 자는 무엇을 얻게 되는가? (18절)

- ㉠** (1) 자기 주인을 시종하는 자는 영화를 얻게 된다.
- (2) 이것은 주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충성을 하는 사람이 주인의 손으로부터 합당한 대

가를 받게 됨을 말하는 것이다.

(3) 이러한 원리는 충성스럽고 진실하게 하늘의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참조, 마 25:21).

21. **㉠**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취느니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19절)

- ㉠** (1) 이 말은 사람의 실제 얼굴과 물에 비친 얼굴 모습에 유사성이 있듯이 사람들의 마음도 서로 유사함이 있다는 뜻이다.
- (2)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같게 만드셨음을 말해 준다.
- (3) 그리고 이러한 사람의 본성(本性)에 있는 일치성(一致性)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기의 마음에 비추어 보아서 싫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며, 또한 상대방을 이해할 때 보다 조심스럽게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충분히 생각해야 한다(참조, 눅 6:31).

22. **㉠** 음부(陰府)와 유명(幽冥)은 각기 무엇을 가리키는가? (20절)

- ㉠** (1) 음부는 히브리어로 <스울>로서 죽은 자가 거하는 지하 세계 곧 무덤을 말한다.
- (2) 그리고 유명은 히브리어로 <아바단>으로서 산 자의 세계에서 완전히 끊어진 둘째 사마를 가리킨다.

23. **㉠** 끊임이 죽은 자를 부르는 음부(陰府)와 유명(幽冥)의 불만족에 비교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20절)

- ㉠** (1) 그것은 눈으로 대표 되는 사람의 정욕(情慾)이다(참조, 요일 2:16).
- (2) 이 사람의 정욕은 채워질수록 채워질수록 더욱더 많은 것을 탐내기 때문에 세상이 어떤 것으로도 그것에 만족을 줄 수 없다.
- (3) 그러므로 정욕을 좇아서 사는 자는 항상 불만족한 가운데 헛된 욕심을 좇다가 인생을 다 허비하고 만다(참조, 갈 5:16).

24. **㉠** 22 절에서 지혜자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 ㉠** (1) 지혜자는 본질에서 미련한 자, 즉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은 어떤 방편에 의해서도 바르게 고쳐질 수 없음을 말하고자 한다.
- (2) 그들은 미련함이 제 2의 천성이 되어서 교육이나 훈련 또는 준엄한 징계 등으로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
- (3) 그러므로 이런 미련한 자들은 내다 버리는 쓰레기처럼 배격받을 수밖에 없다.

25. **㉠** 23-27 절 부분에서 지혜자는 어떠한 권고를 하고 있는가?

- ㉠** (1) 이 부분에서 지혜자는 자기에게 맡겨진 직업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는 권고를 하고 있다.
- (2) 물론 지혜자는 가축을 돌보는 자를 대표적으로 들어서 말하고 있지만 이것이 오늘날에 적용될 때는 모든 분야의 정당한 직업에 확대되어질 수 있다.
- (3)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들의 생업이 무엇이든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며 성실히 그 일을 행해야 한다.

26. **㉠** 지혜자는 무엇을 부지런히 살피며 어디에 마음을 두라고 하는가? (23절)

- ㉠** (1) 지혜자는 '네 양 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 떼'에 마음을 두라고 한다.
- (2)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양 떼와 소 떼이다.
- (3) 이와 같이 자기의 생업(生業)에 전념하고 다른 데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성도가 자기 직업에 대해 취하여 할 중요한 자세이다.

27. **㉠** 지혜자는 양 떼와 소 떼를 어느 정도로 잘 관리하라고 하는가? (23절)

- ㉠** (1) 지혜자는 양 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소 떼에 마음을 둘 정도로 그것들을 잘 관리

하라고 한다.

- (2) 이것은 자기의 가축을 보석 다루듯 귀하고 신중히 돌보며 또 열심히 수고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이다.
- (3) 이와 같이 성도들도 자기의 직업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신중하고 분별력 있게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

28. ㉠ '대저'는 어떤 역할을 하는 접속사인가? (24절)

- ㉠ (1) '대저'는 히브리어로 <키>인데 문장의 앞이나 뒤에서 모든 인과적(因果的) 관계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접속사이다.
- (2) 본절에서는 이것이 문장 앞에 나와서 23절과 24절을 연결시켜 주는데 그 뜻은 '왜냐하면'이다.

29. ㉠ 재물과 면류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는가? (24절)

- ㉠ (1) 재물은 영영히 있지 못하고 면류관, 즉 권세나 인간의 영화도 오래 지속되지 못하므로 그것에 대해서 의지하는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 (2) 이러한 잠시 뿐인 부귀 영화에 대하여 연연할 때 자기 생업에 전념하기가 어렵다.
- (3) 그러므로 지혜자는 재물과 권세(면류관)의 가변성(可變性)과 일시성(一時性)을 강조하여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업에 부지런히 열중할 것을 교훈한다.
- (4) 오늘날의 성도들도 헛된 권세와 재물에 이끌려서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부르신 소명(召命)을 따라 욕심 없이 자기의 생업(生業)에 열중해야 한다.

30. ㉠ 생업(生業)에 열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일을 도우시는가? (25절)

- ㉠ (1) 생업에 열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소와 양이 먹을 풀을 벤 후 계속 새롭게 움이 돌아서 다시 풀이 있도록 하시는 것같이 계속적으로 일거리가 있도록 도우신다.
- (2)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일반적인 은총(恩寵)이다(참조, 마 5:45).
- (3) 그러므로 정직한 자라며 자기가 땀흘려 수고한 것을 먹을 것이고, 부지런히 생업에 열중하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않을 것이다.

31. ㉠ 생업에 열중하였을 때 어떠한 유익을 얻게 되는가? (26, 27절)

- ㉠ (1) 생업에 열중하였을 때 어린 양의 털은 옷이 되고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온 집안 식구의 식물이 되며 그리고 하인에게까지 먹을 것이 되는 유익을 얻게 된다.
- (2) 위에 묘사한 유익은 목축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이 생업을 통해 얻는 평강과 풍성한 삶을 나타내는 것이다.
- (3)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생업에 부지런하고 성실히 전념할 때 내우 외환(內憂外患)이 없이 수고한 것으로 먹고 마시며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

본장의 요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1절).

제 28 장 여호와를 의지하여 율법을 지켜라

단락구분 1-5 율법을 지키는 자는 담대하다 / 6-20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가 악한 부자보다 복되다 / 21-28 악인에게는 저주가 많으나 지혜자는 구원을 얻는다

1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2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3 가난한 자를 확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쪽우 같으니라

4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5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6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사곡히 행하는 부자보다 나으니라

7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탐식자를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8 중한 변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9 사람이 귀를 들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중하니라

10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

11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도 명철한 가난한 자는 그를 살피 아니니라

12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13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14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

박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15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린 곰 같으니라

16 무지한 치리자는 포학을 크게 행하거나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17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18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니 사곡히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19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쫓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20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21 사람의 낫을 보아 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먹을 인하여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22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23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24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 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류니라

25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26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27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체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28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1. ㉠ 본장의 문체적 특징은 무엇인가?

- ㉠ (1) 대조법이다. 즉 본장은 악인과 의인의 성격과 행위 그리고 그들의 행위에 대한 결과의 차이를 서로 대조해 가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다.
- (2) 그런데 본장에서 의인은 율법을 지키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 성실한 자, 지혜롭게 행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등 여러 가지 다른 말로 묘사되고 있다.

- (3) 그리고 지혜자는 이러한 의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면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할 것임을 말해 준다.
- (4) 또한 지혜자는 의인들이 나라를 영화롭게 함을 말하면서 악인은 이상의 모든 점에서 의인과 대조됨을 보여 준다.
- (5) 성도들은 이상의 교훈들을 자신의 삶과 연결시켜서 의인의 성격과 행위 그리고 그의 행위의 결과가 각자의 삶에서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2. **㉠ 악인과 의인은 어떠한 점에서 대조가 되는가? (1절)**

- ㉠** (1)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한 점에서 대조가 된다.
- (2) 이러한 차이는 겉으로 드러나기 보다는 내적인 심리 상태를 나타낸다.
- (3)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양심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 (4) 그러므로 악인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참평안을 누릴 수 없고 의인만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
- (5) 따라서 성도들은 죄를 담대히 물리침으로 양심의 가책 없이 의인이 누리는 참평안을 누리야 한다.

3. **㉠ 의인이 사자같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1절)**

- ㉠** (1) 그 이유는 의인이 세상 만사를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에서 능히 건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 (2) 그러나 의인의 담대함은 자기 자신의 강함을 느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임에 주의해야 한다.
- (3) 그러므로 믿음은 곧 연약한 자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힘이 있다(참조, 고후 12:10).
- (4)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자같이 담대하게 험한 세상을 헤쳐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4. **㉠ 나라에 무엇이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지는가? (2절)**

- ㉠** (1) 나라에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진다.
- (2) 즉 이것은 한 나라에 죄악이 번성하게 되어 그 나라 안에 권력을 행사하는 무리들이 많아진 것을 암시한다.
- (3) 사실 한 나라에 정국(政局)이 혼란한 이유를 살펴보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배치된 악행들이 알게 모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 (4) 그러므로 나라의 질서와 안정을 원하는 국민들이라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5. **㉠ 어떠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장구(長久)하게 되는가? (2절)**

- ㉠** (1)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장구하게 된다.
- (2) 이것은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이 국가의 중요 직책에 종사하게 될 때에 공의가 계속 시행될 수 있고 그 공의로 말미암아 나라가 안정되고 강성해져서 장구(長久)해짐을 말하는 것이다.
- (3)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아사, 여호사밧, 웃시야, 히스기야 같은 왕들의 통치 기간이 길었음이 이 교훈을 실증적으로 깨닫게 한다.
- (4) 그러므로 자기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6. **㉠ 가난한 자를 확대하는 가난한 자는 무엇과 같은가? (3절)**

- ㉠** (1) 그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와 같다.
- (2) 씨를 뿌릴 때에 엄청난 비가 오면 흙을 휩쓸어 버려서 씨앗이 다 없어져 버리거나 추

수 때에 폭우가 내리면 다 익은 곡식을 망쳐 버리기도 한다.

- (3) 이러한 폭우의 피해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치명적이어서 가난한 자로 하여금 먹을 양식에 대한 걱정과 근심에 빠지게 한다.
- (4) 그런데 가난한 자를 확대하는 가난한 자는 이러한 폭우와 같이 잔혹하게 상대방을 처리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준다.
- (5) 그러므로 이런 악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참조, 약 2:13).

7. **㉠** '율법'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 (4절)

- ㉠** (1)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로서 '법칙' 또는 '법령'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사람이 '율법'이라 할 때는 일반적으로 모세 오경을 가리킨다.
- (2) 그런데 이 <토라>라는 말은 구약의 여러 곳에서 사용될 때 일정한 상황하에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린 가르침(참조, 학 2:10-13)을 가리키기도 하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충고나 깨우침을 뜻하기도 하였다(참조, 1:8).
- (3) 또 이 말은 단일한 법적 규제(참조, 레 8:6)를 가리키기도 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는 모든 가르침을 가리키기도 한다.
- (4) 이상에서 <토라>는 율법상의 특별한 규제나 명령에서부터 모세 오경과 그밖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포괄하는 말임을 알 수 있다.

8. **㉠** 율법을 버린 자는 누구를 칭찬하는가? (4절)

- ㉠** (1)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한다.
- (2) 이것은 율법을 버리고 악에 빠지는 자가 악을 사랑하고 악을 좋아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다.
- (3) 이렇게 하여서 그는 양심 절규를 잠잠하게 하고 악한 길에서 있는 자기를 합리화하여 목을 더욱 굳게 한다(참조, 롬 1:32).

9. **㉠** 어떠한 사람이 악인을 대적하는가? (4절)

- ㉠** (1)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악인을 대적한다.
- (2) 하나님의 법은 악에서 떠나 의로운 길로 행하게 하기 때문에 율법을 삶의 원칙으로 삼는 자는 악한 길에서 떠나고 악을 조장하는 악인을 대적하게 된다.
- (3) 이처럼 의로운 투쟁은 모든 세대의 하나님 백성에게 필연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오늘날의 성도들도 이 의로운 투쟁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참조, 롬 12:21).

10. **㉠**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 (5절)

- ㉠** (1) 이 말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자는 어떤 일을 할 때 무엇이 옳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뜻이다(참조, 고전 2:15).
- (2) 이렇게 하여서 여호와를 찾는 자는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공의의 길로 행하게 된다.
- (3) 그러므로 성도들은 매사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 분별력을 가지고 행해야 한다.

11. **㉠** '사곡(邪曲)히 행하는 부자'는 어떠한 사람을 가리키는가? (6절)

- ㉠** (1) 사곡히 행하는 부자는 실상은 악한 길을 좇으면서도 겉으로는 선한 길을 좇는 것같이 행하는 결과 속이 다른 사람을 가리킨다.
- (2)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진실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 마음으로는 세상의 재물을 사랑하고 그것을 섬기는 자이다.
- (3)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마 7:24)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버린 이 세상에서 혹시 자신도 물질지나

왔는지 늘 냉철하게 살피면서 그 사곡한 길을 버려야 한다.

12. **㉠** 8절에서 지혜자가 말하려는 교훈은 무엇인가?

- ㉠** (1) 그 교훈은 어떤 사람이 악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더라도 결국 그 돈은 선을 베푸는 자를 위해 사용됨으로 헛수고를 하지 말고 자비를 베푸라는 것이다.
- (2)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소유욕(所有慾)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공의(公義) 행하는 것을 무시해 버린다.
- (3) 그러나 자기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는 자는 오래 가지 못해 망하게 되고, 자비를 베푸는 의로운 사람은 더욱 견고하게 설 것이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공의(公義)를 어기면서 부자 되기에 급급한 자들을 부러워 말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공의 행하기를 기뻐하며 자비를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13. **㉠** 어떠한 자의 기도가 가중한 것이 되고 마는가? (9절)

- ㉠** (1)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는 자의 기도는 가중한 것이 되고 만다.
- (2) 여기서 '귀를 돌이킨다'는 것은 거역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의적(故意的)으로 말씀 듣기를 회피하는 것을 가리킨다.
- (3)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가 외형적으로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희롱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자신의 주위를 속이는 행동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알팍한 꾀에 속지 않으시며 반드시 그 행위를 심판하신다.
- (4)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외식적인 기도를 가장 싫어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해야 한다(참조, 마 15:8, 9).

14. **㉠**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도'라는 말은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것인가? (11절)

- ㉠** (1) 이 말은 부자가 식객이나 아첨자들에게 칭찬을 듣고서 스스로 자기를 높은 자로 생각하며 다른 사람보다 정신적으로나 지적인 재능까지도 더 많이 가진 것으로 착각하는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2) 그러나 정신적이고 지적인 재능은 재물의 많고 적음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15. **㉠** 지혜자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부자와 대조해서 명철한 가난한 자를 내세우는 이유는 무엇인가? (11절)

- ㉠** (1) 그 이유는 지혜는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 (2) 참으로 지혜에 대하여 굶주린 자만이 지혜롭게 될 수 있지 약간의 지식을 가지고서 그것으로 자랑하고 만족하는 부자는 참된 지혜를 소유할 수 없다.
- (3) 그런데 약간의 지혜는 오히려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하지만 결국은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우둔한 자임을 드러내게 한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물질적인 부에 만족해서 참된 지혜를 추구하는 것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16. **㉠**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13절)

- ㉠** (1)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게 된다.
- (2) 자기의 죄를 숨기는 것은 그 죄를 완강히 부인하거나 변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그런 행위로는 죄책감에서 결코 해방될 수가 없다.
- (3) 그리고 이러한 죄책감에서 놓이지 못하고서는 참된 평화를 맛볼 수 없다(참조, 시 32:3).

17. **㉠** 어떠한 사람이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는가? (13절)

- ㉠** (1) 자기 죄를 자복(自服)하고 버리는 자가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된다.
- (2) 죄인이 자신의 죄과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이제 새로운 생활로 전환할 때에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새 힘을 주신다(참조, 요일 1:9).

212 잠언 28장

(3) 그러므로 성도들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즉시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회개하며 그 죄를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사죄하시는 은혜와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참조, 시 32:1, 2).

18. **Q** 지배자는 어떠한 사람이 복되다고 하는가? (14절)

A (1) 지배자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복되다고 한다.

(2) 즉 자기 마음속에 언제나 거룩한 두려움과 하나님께 대한 존경, 그의 영광과 선하심과 다스리심에 대한 경외감을 품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다.

(3)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외하는 사람을 실패함 없이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다.

(4) 성도들은 이미 이러한 복을 소유하고 있으니 감사할 수밖에 없다.

19. **Q**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무엇과 같은가? (15절)

A (1) 그는 부르짖는 사자와 주린 곰과 같다.

(2) 즉 악한 지배자는 부르짖는 사자와 같이 백성에게 두려움을 주며 굶주린 곰처럼 큰 해를 입히게 된다.

(3) 이러한 관원은 하나님께서 그를 관원으로 세우신 목적, 즉 백성들을 잘 보살피고 섬기는 것을 반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 징벌을 받게 된다.

20. **Q** 어떠한 사람이 장수하게 되는가? (16절)

A (1) 탐욕을 미워하는 사람이 장수하게 된다.

(2) 그런데 이 말은 치리자(治理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중에 나온 것으로서 자기 백성을 자유롭고 공평하게 탐욕 없이 통치하는 치리자가 오래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3) 그러므로 권세를 맡은 자들은 욕심을 버리고 죄악을 미워하며 공의를 시행함으로 자기 자리를 유지해야 한다.

21. **Q** 17절이 말하려는 교훈은 무엇인가?

A (1) 그것은 아무 죄도 없는 자를 압제하고 죽이는 자는 반드시 그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참조, 사 38:14).

(2) 물론 인간의 생명을 죽음에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본질과 같이 고의적인 살인범의 경우에는 그 형벌로 말미암는 죽음에서 구원해 낼 수가 없다.

(3) 그러므로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절대적으로 금해야 한다.

22. **Q** '성실히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 (18절)

A (1) '성실히 행하는 자'는 마음속에 하나님만을 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하게 행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2) 그런데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항상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위협과 환난에서부터 구원을 얻게 된다.

(3) 그러므로 성도들은 순전하게 하나님만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23. **Q** 사곡히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되고 마는가? (18절)

A (1) 사곡히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고 만다.

(2) 여기서 '사곡히 행하는 자'란 '두 길을 좇는 자' 혹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二重的)인 사람'을 가리킨다.

(3) 이런 사람은 넘어지되 '곧', '즉시', '단번에' 넘어진다. 즉 넘어지는 것 이외에 다른 가능성은 전혀 없다.

(4) 그러므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성공하거나 복받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24. ㉠ 지혜자는 충성된 자와 누구를 대조하고 있는가? (20절)

㉠ (1) 지혜자는 충성된 자와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를 대조하고 있다.

(2) 이것은 자기가 맡은 산업(産業)을 근실하고 부지런하며 꾸준히 가꾸어 가는 자와 그저 돈에만 욕심을 내고 비열한 수단 방법까지 동원하여 성급히 부하고자 하는 자를 대조한 것이다.

(3) 성도들은 속히 부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산업(産業)에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25. ㉠ 지혜자는 어떠한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였는가? (21절)

㉠ (1) 지혜자는 사람의 낫을 보아 주는 것과 한 조각 떡 때문에 범법(犯法)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였다.

(2) 여기서 지혜자는 공정한 재판을 그릇되게 하는 두 가지, 즉 사람의 편견과 뇌물을 경계하고 있다.

(3) 그런데 지혜자는 뇌물이 아무리 많고 귀한 것이라고 해도 단지 '한 조각 떡'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람은 공의(公義)를 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였다.

(4)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사사로운 인정(人情)이나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26. ㉠ 재물을 얻기에만 급한 악한 눈이 있는 자는 무엇을 알지 못하는가? (22절)

㉠ (1) 그는 빈궁(貧窮)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한다.

(2) 여기서 지혜자는 인간의 탐욕스러운 욕심은 바라는 축복을 가져오지 못하고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함을 지적하고 있다.

(3) 이 점을 인정하는 자는 불확실한 재물에 욕심을 두지 않고 재물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께 눈을 돌려야 한다.

27. ㉠ '떨망케 하는 자의 동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24절)

㉠ (1) 이 말은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노상 강도와 똑같다'는 뜻이다.

(2) 여기서 지혜자는 자기 부모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들의 악함과 그릇됨을 신랄하게 비난하였다.

(3)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기를 살피서 이러한 악을 행하지 않고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마 15:4-6).

28. ㉠ 지혜자는 지혜롭게 행하는 자를 누구와 대조시키고 있는가? (26절)

㉠ (1) 지혜자는 지혜롭게 행하는 자를 자기의 마음을 믿는 미련한 자와 대조시키고 있다.

(2) 여기서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자기의 마음을 믿지 않고 자기 밖에서 지침(指針)을 찾는 자임을 알 수 있다.

(3)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항상 불안정하며 한 치 앞도 제대로 내다보지 못하여 사람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기의 마음을 믿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어 지혜롭게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연구자료**기독교인의 사회 참여**

사회는 인간들이 참여하는 장(場)이다. 모든 인간들은 사회를 통하여 삶(生)과 역사를 꾸며간다. 그래서 그리이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B. C. 384-322)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정의(定義)하였다. 물론 기독교인들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 속에서 갖가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하늘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일반 불신자들과는 삶의 양태(樣態)가 다르다. 따라서 영적인 소속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대하여 갖는 감정이나 판단은 특별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독교인들도 육신을 가지고 인간들 사이에서 살아가므로 사회를 벗어나 고립된 생활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과 세속적인 사회와는 필연적인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된다. 본고는 이러한 위치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이며 사회에서 어떠한 활동을 해야 기독교인으로서 옳은 것인가를 논하여 현대의 복잡한 사회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하여 애쓰는 성도들에게 작은 도움을 주려고 한다.

1. 교회와 사회

사람이 사회를 떠나서 살 수 없다면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會, 에클레시아)도 역시 사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며 또한 교회라는 모임 자체도 하나의 소단위적 사회의 성격을 갖게 된다. 그러기에 영적 집합체인 교회는 일반적인 개념에서의 '사회'(society)와 병립 내지는 포함 관계에 있게 되는데 바로 이 점에서부터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역이 시작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누룩의 비유'(마 13:33)를 통하여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 나갈 것을 시사하셨다. 즉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세속화되거나 타락해서는 안 되며 도리어 복음과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세상을 정화시키며 선한 일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집합적 의미에서의 교회가 갖는 대(對)사회적인 사명과 개개인의 기독교인들이 갖는 사명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세상을 향하여 성도가 갖는 자세는 동일한 것이다.

2. 참여란 무엇인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적인 행동으로 표출해 내는 것을 교회의 사회 참여라 한다. 따라서 참여는 사회의 병리적 현상들을 지적하고 고쳐 나가는 개혁적인 측면이 있어야 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와(암 5:21-24) 인애를(사 1:16, 17) 전하여 더 이상의 오염을 방지하는 보수적(保守的)인 측면도 있어야 한다. 또한

문자적 의미에서의 참여는 '자발적이고도 주체적'이라는 뜻이 포함되므로 기독교인의 사회 참여 역시 강요나 형식에 의한 것이 아니며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召命)에 따라 행해지는 것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참여는 관계성과 실천이라는 요소를 내포한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사회와 관련을 맺고 있으며 그리스도인들의 사회 참여는 성경적 원리의 실천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뜻이다.

3. 기독교인의 사회 참여와 사회 변화

기독교인이 사회에 참여하는 목적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시키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 이후로 죄에 거하여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다(영적인 죽음). 그로부터 인간은 죄와 악에 거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으며 하나님의 의(義)와 사랑을 받기를 거부했던 것이다. 따라서 피조 세계에는 죄가 들끓게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회복' 때문에 피조 세계는 다시 창조주 하나님과 화목케 되었다(롬 5:10). 따라서 기독교인들의 사회 참여는 당연히 변화를 수반하게 되며 그 변화의 방향은 '하나님과 화목' 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사회 변화는 사회 내의 자체적이고 부분적인 곳에서부터 일어나 사회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일에 힘쓰는 수준에까지 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러한 변화의 주역이 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1937년 7월 12-26일에 영국의 옥스퍼드에서 '교회, 사회, 국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렸던 회의(Oxford Conference)에서는 국가에 대한 교회의 사명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정리하였다. ① 국가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할 것. ② 국가에 충성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에는 불순종해야 한다. ③ 복지 사회 건설에 협력해야 한다. ④ 국가가 바른길에서 벗어날 때에는 비판해야 한다. ⑤ 법의 제정과 행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도록 해야 한다. ⑥ 기독교 정신이 국민 생활 속에 배도록 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본고의 주제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론적으로 기독교인은 세상을 바른길로 이끌며 악과 불의를 정화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다(참조, 창 1:27, 28; 마 5:13-16). 이러한 기독교인의 사회 참여는 성경적 가르침을 벗어나서는 안 되며 또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

제 29 장 여호와를 의지하여 공의를 행하라

단락구분 1-14 공의를 행하라 / 15-21 지혜롭게 교육하려면 책망하라 / 22-27 겸손히 여호와를 의지하라

- 1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 2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 3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하느니라
- 4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견고케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 5 이웃에게 아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 6 악인의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울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 7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 주나 악인은 알아 줄 지식이 없느니라
- 8 모만한 자는 성음을 요란케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 9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름이 그침이 없느니라
- 10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 11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 12 관원이 거짓말을 신청하면 그 하인은 다 악하니라
- 13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 14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 위

- 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 15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 16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 17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 18 목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 19 좋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 20 네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 21 중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지식인 체 하리라
- 22 노하는 자는 다름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 23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 24 도적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맹세함을 들어도 직고하지 아니하느니라
- 25 사람을 두려워하면 울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 26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 27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의인과 악인의 대조되는 모습과 행동, 왕과 관원이 공의를 행하므로 나라를 견고히 세울 것, 그리고 자식과 종을 지혜롭게 교육시키기 위해 책망의 필요함을 교훈하고 있다.
- (2) 그리고 이 모든 일에서 사람을 두려워 말고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여호와를 의지하여 겸손히 의를 행하도록 가르친다.
- (3) 따라서 성도들은 여호와를 의지함과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 지위의 고하(高下)에 관계 없이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2. ㉡ 누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는가? (1절)

- A** (1)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끈은 사람이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게 된다.
 (2) 왜냐하면 그가 그 패망의 경고를 여러 번 받았고 돌이킬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3) 그러므로 사람은 책망받을 때 짐승같이 목을 끈게 해서 안 되며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책망을 오히려 감사하게 여겨 어리석은 것을 고쳐야 한다.
3. **C** **백성이 즐거워하거나 탄식하는 것은 무엇에 달려 있는가? (2절)**
A (1) 그것은 그 나라에 의인이 많아지느냐 아니면 악인이 권세를 잡느냐에 달려 있다.
 (2) 의인이 많아지면 (또는 권세를 잡으면) 죄인은 벌을 받고 억제를 당할 것이며, 백성들은 평안한 가운데서 의를 행하며 즐겁게 살 수 있다.
 (3) 그러나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악이 만발하게 되고 경건한 신앙과 공의는 땅에 떨어지므로 폭행과 탈취만이 가득하여 백성은 탄식 가운데 살게 된다.
 (4) 그런데 오늘날은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백성들이 자기들의 지도자를 뽑기 때문에 백성들은 정신을 차려서 의로운 사람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투표권을 잘 행사해야 한다.
4. **C** **왕은 무엇으로 나라를 견고케 하는가? (4절)**
A (1) 왕은 공의(公義)로 나라를 견고케 한다.
 (2) 이것은 통치자가 국가의 기본되는 법률들을 존중하고 그것에 충실하여 나라를 다스림으로 나라가 견고하게 됨을 말하는 것이다.
 (3) 그런데 세상 나라의 왕들은 모두 불완전한 인간이므로 완전한 공의를 시행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얼마 가지 않아서 불의가 나타나 나라는 망하고 또 다른 왕이 그 뒤를 이어 나라를 세우는 일이 계속되어 왔다.
 (4)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요동함이 없이 공의로 견고하게 서서 영원하게 있을 것이다.
5. **C** **이웃에게 아침하는 것은 무엇과 같은가? (5절)**
A (1) 이웃에게 아침하는 것은 그 이웃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과 같다.
 (2) 왜냐하면 아침은 이웃으로 하여금 현실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그를 과대 평가하게 만듦으로 이웃이 그 말을 그대로 믿고 행하다가는 그물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같이 실족하게 되기 때문이다.
 (3)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웃에게 쓸데없이 아침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또한 자신들도 아침의 말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6. **C** **악인의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무엇이 되게 하는 것인가? (6절)**
A (1) 악인의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울무가 되게 하는 것이다.
 (2) 이것은 악인이 죄를 범하는 즉시 형벌을 받지 않을지라도 마침내 그 죄로 인하여 멸망하게 되어짐을 말하는 것이다(참조, 5:22).
 (3) 그러므로 성도들은 악인들이 속히 멸망하지 않더라도 마침내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이 멸망할 것을 알고 실망치 않아야 한다.
7. **C** **무엇 때문에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는가? (6절)**
A (1) 의인이 노래하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악인의 범죄에 동참치 않고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와 생명의 길을 가기 때문이다.
 (2) 즉 의인은 죄악으로 인한 순간의 기쁨을 택하지 않고 그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길을 걷게 되니 기쁨의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참된 길을 걷는 데서 오는 기쁨을 알지 못하고 순간의 쾌락에 자신을 맡겨 결국은 죄값을 받게 된다.
 (3) 성도들은 이러한 의인의 노래와 기쁨을 생활 속에서 항상 누리도록 해야 한다.

8. **㉠** 7절은 어떠한 상황에서 나오게 된 교훈인가?

- ㉠** (1) 본질의 교훈은 의로운 재판관이 가난한 자일지라도 그의 사정을 잘 살펴 주며 판결을 바르게 하나 악한 재판관은 득될 것이 없으므로 가난한 자의 송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 (2) 여기서 의인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의(公義)를 위해 애쓰나 악인은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공의가 시행되느냐의 여부엔 관심이 없음을 알 수 있다.
- (3)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이 자기 개인의 구원에만 관심을 가지고 공의를 시행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올바른 성도라고 할 수 없다.

9. **㉠** '모만(侮慢)한 자'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 (8절)

- ㉠** (1) '모만(侮慢)한 자'란 거만스러운 태도로 업신여기고 자신만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 (2) 그러므로 이러한 모만한 자가 속한 성읍, 즉 지역 사회나 단체는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고 항상 다툼이 그칠 날이 없으므로 요란케 된다.
- (3) 또한 교회에 이런 모만한 자가 있게 되면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성도들은 교회에 그런 자가 생기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10. **㉠**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그 다툼은 어떻게 되는가? (9절)

- ㉠** (1) 이 양자(兩者)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치지 않게 된다.
- (2) 이것은 어리석은 자와 토론을 벌임으로써 그에게 이치를 깨닫게 하겠다거나 그로부터 시인을 받겠다고 생각지 말고 어리석은 자와는 아예 논쟁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뜻이다.
- (3) 워즈워드(Wordsworth)는 본절과 연관해서 믿음이 없는 미련한 자가 세례 요한의 준엄한 설교나 그리스도의 온화한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들 다 거절한다(참조, 마 11:16-19)는 점을 지적하였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주장만을 어리석게 내세우는 미련한 자와 논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11. **㉠** 피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누구를 미워하는가? (10절)

- ㉠** (1) 피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한다.
- (2) 여기서 '피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란 태초로부터 살인자였던 옛 뱀의 자손들로서 악행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자들을 가리킨다.
- (3) 그런데 이들이 온전한 자를 미워하는 것은 온전한 자의 정직하고 의로운 생활이 무언(無言)으로 그들을 책망하며 그들을 괴롭게 만들기 때문이다(참조, 요 3:20).

12. **㉠** 노(怒)가 일어날 때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는 각각 어떻게 하는가? (11절)

- ㉠** (1) 노(怒)가 일어날 때 어리석은 자는 그 노(怒)를 다 드러내 놓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한다.
- (2) 왜냐하면 어리석은 자는 사리를 분별하지 않고, 그저 자기 감정대로 일을 처리하고, 지혜로운 자는 잘 분별해서 감정에 매이지 않고 사리에 맞게 자신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 (3) 그러므로 사람이 어리석으나 지혜로우냐는 그 사람이 얼마나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며 자제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 (4) 따라서 성도들은 자제(自制)의 덕(德)을 소유한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약 1:19).

13. **㉠** 관원이 어떻게 행하면 그 하인은 다 악해지는가? (12절)

- ㉠** (1) 관원, 즉 다스리는 자리에 있는 자가 거짓말에 귀를 기울여 들을 때 그 하인들은 모두가 악해진다.

- (2) 왜냐하면 그 하인들은 그의 자리를 유지하려고 사실을 고하는 것을 멀리하고 계속 거짓말을 꾸며야 하기 때문이다.
- (3) 동서 고금(東西古今) 을 막론하고 지도자가 사악하여 정도(正道) 를 떠나면 그 신하들도 반드시 거짓된 말만하였다(참조, 왕상 22:6).
- (4) 그러나 다스리는 자리에 있는 자들은 비록 자기들을 비판하고 책망하는 소리라 하더라도 바른말이면 기꺼이 받아들이고 아무리 자기에게 유리한 말이라도 거짓말일 때는 그것을 과감히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 (5) 이렇게 할 때 그의 밑에 있는 자들이 정직하게 행하며 온 나라가 정직한 것을 좋아하게 된다.

14. **㉠**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에 빛을 주신다' 는 말은 어떤 뜻인가? (13절)

- ㉠** (1) 이 말은 부한 자나 가난한 자, 압제하는 자나 압제받는 자가 다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고 있다는 뜻이다.
- (2) 하나님은 악한 자나 선한 자 모두에게 햇빛이 비취게 하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비를 내리셔서 살게 하신다(참조, 마 5:45).
- (3) 그런데 사람들은 가난한 자와 포학한 자가 세상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못 섭리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 (4)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조차 당신의 지혜로우신 섭리하에서 살게 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러한 현실을 볼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높은 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려야 할 찬양과 경배를 돌려 드려야 한다(참조, 롬 12:33-36).

15. **㉠** 왕이 어떻게 하면 그 위(位)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는가? (14절)

- ㉠** (1)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伸冤)하면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된다.
- (2) 여기서 지혜자가 특별히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을 들추어 이야기하는 것은 공의(公義)를 시행하는 것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 (3) 즉 가난한 자를 성실히 돌보아 줄 정도면 다른 분야에서 공의를 시행하는 것은 말할 필요 없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 (4) 이렇게 공의를 시행하는 왕의 위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므로 견고하게 된다(참조, 16:12; 20:28).

16. **㉠** 지혜자는 무엇이 지혜를 준다고 말하는가? (15절)

- ㉠** (1) 지혜자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고 말한다.
- (2) 여기서 지혜자는 합당한 징계가 유익함을 말하고 있다.
- (3) 즉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이 선이며 악인지 가르쳐 주어야만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즉 자식이 선한 일에 태만하거나 악한 일을 행할 때에는 꾸짖고 경계하여 바로잡아야 하는데 이때 채찍과 꾸지람이 유익하다.
- (4) 물론 당장에는 징계가 아비와 자식에게 불편한 마음을 안겨다 준다 하더라도 이런 아픔은 감수해야만 한다.
- (5) 이와 같이 지혜를 얻고 가르치는 일은 결코 쉽게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6) 그러므로 성도들은 지혜를 위해 자식에게 합당한 채찍과 꾸지람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17. **㉠** 채찍과 꾸지람이 필요할 때 그냥 버려 두면 그 자식은 어떻게 되는가? (15절)

- ㉠** (1) 채찍과 꾸지람이 필요할 때 그냥 버려 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을 돌리게 된다.
- (2) 즉 그 자식이 나중에 나쁜 길로 빠져서 악한 자가 되면 자식을 교육시키는 데 실패한 어머니에게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게 된다는 뜻이다.
- (3) 그러므로 성도들은 잘못된 사랑으로 자식을 방종에 빠지게 만들어 자신들이 욕먹지 않

도록 잘못하는 자식은 징계해야 한다.

18. **㉠**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는 말은 특별히 무엇을 가르치는가? (16절)

- ㉠** (1) 이 말은 특별히 악인들을 지향한 환난에서 의인은 구원을 받을 것을 가르친다.
 (2) 즉 극악한 시대에 악인처럼 죄에 물들지 않고 순결을 지킨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악인들이 멸망받을 때 해(害)를 면하게 된다.
 (3) 그 예로 노아와 그 식구들은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이 홍수로 멸망받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살아 남을 수 있었다(참조, 창7:1; 8:16-19).
 (4) 그러므로 성도들은 비록 세상에 악이 횡행하더라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로 행하여 주님이 주시는 큰 구원의 기쁨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

19. **㉠** '묵시(默示)가 없다'는 말은 어떤 뜻인가? (18절)

- ㉠** (1) 이 말은 율법을 설명할 만한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없고, 여호와께 대한 선한 지식을 선포할 선지자가 없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소하게 되었다는 뜻이다(참조, 삼상 3:1).
 (2) 오늘날도 수많은 책과 연설을 통해 사람의 말을 많이 듣기는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20. **㉠**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행하게 되는가? (18절)

- ㉠** (1)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放恣)히 행하게 된다.
 (2)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거나 선포되지 않는 곳에서는 백성들이 살아갈 분명한 삶의 원칙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자행 자지(自行自之)하게 되기 때문이다.
 (3) 그러나 오늘날은 다행스럽게도 성경을 쉽게 구할 수 있고 그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는 교회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4) 그러므로 오늘날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삶의 분명한 원칙들을 알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참조, 롬 12:1, 2).

21. **㉠**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18절)

- ㉠** (1)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2) 여기서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인데 이것은 꼭 모세 오경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도 포함된다.
 (3) 그리고 '율법을 지키다'는 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계시하신 큰 뜻을 알고 그것을 자기의 소원으로 삼아서 기쁘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가리킨다.
 (4)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는 복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22. **㉠** 19절에서 말하는 종은 어떠한 자임을 알 수 있는가?

- ㉠** (1) 본절에서 말하는 종은 악한 자임을 알 수 있다.
 (2) 왜냐하면 그는 행해야 할 일을 알고 있으면서 그것에 순종치 않고 말로 할 때는 그 나쁜 행동을 고치려 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이다.
 (3)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행 자지(自行自之)한다면 이러한 악한 종과 다를 바가 없다.
 (4) 그러나 슬프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런 악한 종과 같은 위치에 서 있다.

23. **㉠** 지혜자가 본절에서 경계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20절)

- ㉠** (1) 그는 언어(言語)에 조급한 사람이다.
 (2)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나 자기가 다 아는 듯이 아는 체를 잘하고 때때다 급하게 자기 말만 주장하므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말을 꺼내지도 못하게 한다.
 (3) 그리고 이런 자는 지혜자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고 또 그것을 너무나 가볍게 취급하므로 지혜를 깨달을 수 없다.

- (4) 그러나 미련한 자가 비록 그 깨닫는 것이 둔하더라도 그가 계속 정진한다면 지혜를 깨달을 가망이 있다.
- (5) 그러므로 지혜자는 언어에 조급한 사람보다는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다고 말하였다.
- (6) 성도들은 이러한 점에 주의하여 경거 망동하지 말고 보다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

24. **㉠**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23절)

- ㉠** (1) 그 이유는 교만한 마음은 그를 패망의 길로 인도하지만 겸손은 그를 존귀의 길로 이끌기 때문이다(참조, 15:33; 16:18; 약4:6).
- (2) 그러므로 사람은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보다 자기를 지으셨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보잘것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고 겸손히 살아가야 한다.

25. **㉠** 26절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인가?

- ㉠** (1) 그 교훈은 세상의 만사(萬事)가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권자 중의 주권자이신 여호와께서 섭리하시는 대로 움직여진다는 것이다.
- (2) 그러므로 세상에서 사는 동안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자는 울무에 걸리게 되고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 (3)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안전하게 된다.
- (4) 따라서 오늘날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섭리하심을 믿고서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참조, 마 10:28-33).

연구자료

창부(娼婦)에 대하여. 창부는 히브리어로 <조나> 또는 <크데샤>라고 하는데 <조나>는 대개 자리를 옮기며 윤락 행위를 하는 창녀를 가리키며(6:26; 창 34:31), <크데샤>는 일반적으로 신전에 있었던 창녀를 가리킨다(창 38:21).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창부들은 허락되지 않았고(레19:29; 신22:21), 레위인과 창부와의 결혼이 금지되었으나(레 21:7, 9, 14), 창기의 번 돈을 현금으로 드리는 것이 금지된 사실(신 23:18)로 보아 당시에 이스라엘에도 윤락 행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더우기 성경에 의하면 당시에는 이런 여자들의 매춘(賣春) 행위 뿐만 아니라 남창(男娼)히, 카데쉬)들도 있어서 남녀간의 더러운 성(性) 행위가 이루어졌었음을 알 수 있다(참조, 14:24; 15:12; 욥 36:14). 창부들은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얼굴을 감추기 위하여 면박(面帕)을 했으며(창 38:14) 또한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하여 화려한 장신구로 몸을 장식하였다(겔 16:10-13). 한편 성경에는 우상 숭배의 악함과 더러움을 지적할 때 이런 창부들과의 관계를 뜻하는 '행음(行淫)하다', '매춘 행위를 하다'라는 표현을 썼다(참조, 렘 3:6; 겔 6:9).

제 30 장 아굴의 잠언

단락구분 1 서론 / 2-6 나는 무지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 / 7-10 두 가지 일을 구하다 / 11-14 악을 행하는 무리들 / 15-16 족(足)함을 모르는 것들 / 17 부모를 거역하는 자의 벌 / 18-20 이해할 수 없는 일들 / 21-23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들 / 24-28 작지만 지혜 있는 것들 / 29-31 권위 있게 움직이는 것들 / 32-33 범사에 신중히 행하라

1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2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3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4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반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5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6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 하시겠고 너는 거짓말 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7 내가 두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8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9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10 너는 종을 그 상전에게 훼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11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12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13 눈이 심히 높으며 그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14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15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었 다고 하느니라 죽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16 곧 움부와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17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18 내가 심히 기이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19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 한 자취며
 20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21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22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과
 23 거림을 받는 제집이 시집간 것과 제집 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24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25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26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27 입군이 없되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28 손에 잠혈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29 잘 걸으며 위풍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나니
 30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31 사냥개와 수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32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체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네 손으로 입을 막으라
 33 대저 젖을 저으면 뼈터가 되고 코를 비틀

면 피가 나는 것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름이 남 이니라

1. **㉠** 본장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대하여야 한다고 교훈하는가?

- ㉠** (1) 본장은 야계의 아들 아굴의 잠언으로서 이디엘과 우갈에게 가르쳐 준 교훈이었다.
 (2) 아굴은 먼저 자기의 무지한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높이며 또한 그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 두 가지를 구한다.
 (3) 또한 각각 네 가지씩으로 구성된 사항들 - 악을 행하는 무리들, 족(足)함을 모르는 것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들, 작지만 지혜 있는 것들, 권위 있게 움직이는 것들 - 에 대해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신중히 행하도록 권고한다.
 (4) 이와 같이 사람이 자기의 무지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려고 할 때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적당한 평가를 내리고 지혜를 배울 수가 있다.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께 겸손히 구할 것을 구하고 세상의 일들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지혜롭게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2. **㉠** 본장의 말씀은 누구의 잠언인가? (1절)

- ㉠** (1) 이 말씀은 야계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
 (2) 여기서 아굴이란 '수집하는 자', '소집하는 자' 등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야계는 '복종' 또는 '경건한 것' 을 의미한다.
 (3) 그런데 야계와 아굴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전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유대인 주석 학자들은 '야계의 아들 아굴' 을 솔로몬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다.
 (4) 그러나 솔로몬은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3절) 라고 할 자가 아니므로 아굴을 솔로몬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아굴' 은 역사상에 분명히 알려지지 않은 솔로몬 시대의 현자라고 하는 것이 정당하다.

3. **㉠** 본장의 말씀은 아굴이 누구에게 이른 것인가? (1절)

- ㉠** (1) 이 말씀은 아굴이 그의 제자인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다.
 (2) 그런데 이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디엘이란 이름이 느 11:17에서도 등장하며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다.
 (3) 그러나 우갈이란 이름은 이 부분 외에서는 구약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으며 그 뜻은 '질투로 소멸된' 또는 '강한', '온전한' 이다.
 (4) 워즈워드(Wordsworth)는 이 이름의 뜻에서 독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강한 자가 되기를 소원케 한다고 해석하였다.
 (5) 그러므로 이 잠언을 읽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강한 자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읽도록 해야 한다(참조, 고후 3:5; 빌 4:13).

4. **㉠**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는 말은 어떠한 뜻인가? (2절)

- ㉠** (1) 이 말은 '나는 너무나 우둔한 사람이다. 나는 이성이 없는 짐승이다' 라는 뜻이다.
 (2) 이러한 고백은 아굴이 세상 사람들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무식하다는 말이 아니라 시편 기자가 시 73:22에서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라고 말하는 것같이 하나님 앞에서 무지하다는 말이다.
 (3)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와 동일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

5. **㉠** 아굴은 자기에게 무엇이 없다고 말하는가? (2, 3절)

- ㉠** (1) 그는 자기에게 사람의 총명(聰明)이 없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고 말한다.
 (2) 여기서 사람의 총명과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다.

- (3) 즉 아굴은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그가 사람으로서 총명한 것이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총명하다 할지라도 짐승과 다름없다고 말한다.
- (4) 사람이 사람으로서 활동하고 사람답게 생명력을 발휘하며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
- (5) 개혁자 칼빈(Calvin)도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다’(참조, 기독교 강요 1권 1장)고 말하였다.

6. **㉠** 2,3절에서 아굴이 어떠한 사람임을 알 수 있는가?

- ㉠** (1) 2,3절에서 아굴이 매우 겸손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 (2) 즉 사람으로서 웅당 소유해야 할 지적 능력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말과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는 말에서 잘 알 수 있다.
- (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과 인간들 앞에서 겸손한 자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로운 일을 맡기신다.

7. **㉠** 아굴은 어떠한 내용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가? (4절)

- ㉠** (1) 아굴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掌中)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즉 하나님의 본성(本性)과 그 사역을 내가 알 수 있느냐는 내용의 질문을 던지고 있다.
- (2) 이미 아굴 자신은 자기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무지한 자라고 고백하였는데 이제 이러한 내용의 질문을 던지는 것은 그의 말을 듣는 자로 하여금 자기와 같이 겸손케 하기 위해서이다.
- (3)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무식함과 또 아무것도 아닌 사실을 자백할 것밖에 없다.

8. **㉠** 아굴은 자기의 무지를 고백한 후에 무엇을 인정하는가? (5절)

- ㉠** (1) 그는 자기의 무지를 고백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순전함을 인정한다.
- (2) 이것은 사람이 마땅히 알아야 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감 없이 전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 (3) 그러므로 자기의 무지함을 아는 자들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돌려야 한다.

9. **㉠**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들린 자는 무엇을 발견하고 체험하게 되는가? (5절)

- ㉠** (1) 그는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며 또한 하나님이 그를 의지하는 자를 지키시는 방패임을 발견하고 체험하게 된다.
- (2)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려 주셔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하나님의 지켜 주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도록 한다.
- (3)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험한 세상의 풍파 속에서 하나님의 지켜 주심을 체험하도록 하자.

10. **㉠**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떠한 경계를 하고 있는가? (6절)

- ㉠** (1) 그는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에 인간의 생각을 더하지 말라고 경계하고 있다.
- (2)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믿고 순종할 것이지 인간적인 요소가 개입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 (3) 이러한 경계는 구약 율법에서 주어졌고(참조, 신 4:2;12:32) 신약 성경에서도 강조(참조, 계 22:18, 19)하고 있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것이 말하려는 것을 들으려고 해야지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하려 해서는 안 된다.

11. **㉠** 왜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

렵다'고 말하는가? (6절)

- Ⓐ (1)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적인 생각을 더하여서 제 만에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여도 결국은 자기의 생각을 실천한 것에 불과하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 (2)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그대로 받아들여서 행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곁들여서 그 말씀을 행하면 아무리 그것을 엄숙하게 지켰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법이 되고 만다 (참조, 마 7:22-27).
- (3) 더우기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이익이나 교회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아전 인수(我田引水) 격으로 해석한다면 그 형벌은 면키 어려울 것이다.
- (4) 성도들은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받아들여야 한다.

12. Ⓞ 아굴은 몇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는가? (7, 8절)

- Ⓐ (1) 아굴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다.
- (2) 그것은 허탄(虛誕)과 거짓말을 그에게서 멀리하여 주실 것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고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 주시도록 하는 것이다.
- (3)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겸손하고 정당한 기도이다.

13. Ⓞ 아굴은 그가 기도한 것을 언제 주시기를 소원하였는가? (7절)

- Ⓐ (1) 그는 그가 기도한 것을 그가 죽기 전에 주시기를 소원하였다.
- (2) 이것은 그의 일생 동안의 소원을 말한 것이다. 즉 그는 매 순간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기도 제목이 항상 자신에게 응답되기를 바란 것이다.
- (3) 이것은 또한 그의 신앙이 결코 성급하게 눈에 보여지는 형태를 원치 않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 (4) 이처럼 기도란 결코 자신의 욕심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14. Ⓞ 아굴이 기도한 첫번째 일은 무엇인가? (8절)

- Ⓐ (1) 그것은 허탄(虛誕)과 거짓말을 자기에게서 멀리 해 달라는 것이다.
- (2) 여기서 허탄(虛誕)은 히브리어로 <샤브>인데 '파멸' 또는 '교활'이란 의미로 우상 숭배의 무익함을 가리킨다.
- (3) 그러므로 아굴의 첫번째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방해하는 잘못된 사상과 인간의 부패함에서 건져 주시기를 구한 것이다.
- (4)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 6:13)란 주기도문과 그 뜻이 같다고 할 수 있다.
- (5) 성도들은 악한 세상의 세력과 항상 대립하여 사는 자들이므로 이러한 악한 세력에서 건져 주시기를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여야 한다(참조, 엡 6:14-18).

15. Ⓞ 아굴이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옵소서' 라고 구한 이유는 무엇인가? (8, 9절)

- Ⓐ (1) 그 이유는 배부르게 되면 하나님을 부인하기 쉽고 또 가난하게 되면 도적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 (2) 결국 아굴은 생의 목적을 자기의 영화나 성공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두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었다.
- (3) 그러므로 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는 성도들도 이와 동일한 간구를 항상 해야 한다(참조, 고전 10:31).
- (4) 이것을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마 6:11) 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다.

16. ㉠ 아굴은 이제 이웃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하고 있는가? (10절)

- ㉠ (1) 아굴은 종을 그 상전에게 꾀방하지 말라는 교훈을 하고 있다.
- (2) 여기서 ‘꾀방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싼>인데 혀를 날름거리면서 남을 비난하고 헐뜯는 것을 가리킨다.
- (3) 그런데 종을 그 상전에게 꾀방하면 상전이 그 종을 미워하게 되고 그 종의 생계(生計)는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 (4) 이처럼 아굴은 이웃 사랑에 있어서 가장 등한시하기 쉬운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도록 교훈하고 있다(참조, 마25:31-46).

17. ㉠ 11-31 절 부분은 구성상 어떤 특징이 있는가?

- ㉠ (1) 이 부분은 구성상 한 가지 주제를 각각 4개의 항목을 가진 6개의 그룹으로 이루어진 특징이 있다.
- (2) 이러한 것은 저자의 예민한 관찰력과 조직적인 사고(思考)를 대변해 준다.

18. ㉠ 첫째 그룹은 무엇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는가? (11-14 절)

- ㉠ (1) 첫째 그룹에서는 네 종류의 악인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다.
- (2) 그들은 공경하지 않는 자(11절), 위선자(12절), 교만한 자(13절), 탐욕이 많은 자(14절)들이다.
- (3) 그런데 아굴은 이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음을 말함으로 이러한 죄악이 보편적이고 모든 세대에 나타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 (4)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러한 악인의 부류에 들어서는 안 된다(참조, 6:16-19).

19. ㉠ 죽(足)한 줄을 알지 못하는 것의 대표로 무엇을 말하였는가? (15절)

- ㉠ (1) 죽한 줄을 알지 못하는 것의 대표로 거머리를 말하였다.
- (2) 거머리는 팔레스틴 지방에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이것은 피를 빨아먹되 죽한 줄을 모르고 계속 빨아먹기 때문에 잔인하게 탐욕을 부리는 것들의 표로 언급되었다.

20. ㉠ 죽한 줄 모르고 탐욕을 부리는 네 가지는 어떠한 것들인가? (16절)

- ㉠ (1) 그것들은 음부와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다.
- (2) ‘음부’는 계속해서 죽은 자를 받아들이고, ‘아이 배지 못하는 태’는 항상 잉태하기를 원하고(참조, 창30:1), ‘땅’은 물을 붓는대로 다스며들고, ‘불’은 연료를 공급해 주어도 더 많은 연료를 요구한다.
- (3) 그런데 아굴이 이것들을 들어서 말하는 것은 인간의 탐욕이 어느 정도로 강렬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 주면서 탐욕을 경계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탐욕을 경계하고 그것의 허망(虛妄)함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참조, 약1:15).

21. ㉠ 아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17절)

- ㉠ (1) 그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게 된다.
- (2)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죽은 후에 몸이 땅에 묻히지 못하고 새들의 먹이가 될 것을 말하는 것이다(참조, 신28:26).
- (3) 물론 이러한 심판은 인간에게 가장 무섭고 두려우며 수치스러운 것이다.
- (4) 그러므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 무서운 경고의 교훈에 주의하여 부모를 조롱하고 거역하는 악행(惡行)을 금해야 한다.

22. ㉠ 아굴이 심히 기이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한 네 가지는 무엇인가? (18-20절)

- ㉠ (1) 그것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 남자가 여자와 함께 한 자취이다.
- (2) 그리고 음녀의 자취 (20절)는 남자와 여자가 동침한 자취 (19절)를 설명한 것이다.
- (3) 그런데 여기 열거된 것들은 모두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는 데에 공통점이 있다.
- (4) 왜 흔적을 남기지 않는지는 너무도 당연시된 일이라서 질문의 가치가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신비 속에 그 해답이 있다.
- (5) 그러나 이러한 신비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어질 수 없고 따라서 인간이 음녀의 행음함 같이 범죄하고서 그 범죄를 부인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고 말 것이다 (참조, 롬14:12).
- (6) 그러므로 성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또 남의 눈을 속일 수 있다고 해서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3. ㉠ 네번째 그룹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가? (21-23절)

- ㉠ (1) 이 부분은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다.
- (2) 그런데 이것들은 배부른 것, 꺼림을 받는 계집이 시집간 것, 계집종이 주모(主母)를 이은 것들이다.
- (3) 종이 입금 된 것이란 합법적인 왕위 계승의 절차를 밟지 않고 종이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국민을 어지러움으로 몰고 가는 상황을 말한다.
- (4)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은 미련한 그가 물질이 풍부해졌음을 가리키는데, 그는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자신을 더 신뢰하게 된다.
- (5) 꺼림을 받은 계집이 시집간 것은 부도덕한 행위가 주의함 없이 용납된 것을 가리킨다.
- (6) 계집종이 주모를 이은 것은 계집종이 주모를 쫓아내고 주모의 특권을 차지한 부도덕한 행위를 말한다.
- (7) 이상의 것들은 모두 다 무자격자가 불의에 의해서 높은 지위에 앉음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심에 거역하는 것들로서 세상으로 하여금 견딜 수 없게 만든다.

24. ㉠ 다섯째 그룹의 이야기에서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24-28절)

- ㉠ (1) 그것은 세상에서 매우 작지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의해 잘사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 (2) 그것들은 근면하며 예비할 줄 아는 개미 (25절)와 집단 생활을 하며 바위 틈에 집을 지어 위험을 피하는 사반 (26절), 그리고 질서 있게 단결하는 메뚜기 (27절), 담대하며 겁이 없는 도마뱀이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은 인간이 보기에 미물과 같이 보일지 모르나 그것들에 각기 하나님의 지혜가 숨어 있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바라볼 때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봄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깨닫고 또한 배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25. ㉠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것은 어떤 짐승인가? (26절)

- ㉠ (1) 그것은 사반이라는 짐승이다.
- (2) 그런데 이 사반은 토끼, 혹은 아라비아의 들쥐라고 이해되기도 한다.
- (3) 이것은 약하고 겁이 많지만, 스스로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바위 사이에 집을 지을 만큼 지혜가 많은 동물이다.
- (4) 이와 같이 인간은 자신의 불완전성과 연약함을 의식하고 보호와 후원을 얻기 위해서 견고한 바위 같은 신 하나님께 피하지 않을 수 없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 피하여 안전함을 누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한다 (참조, 시89:26;92:15).

26. ㉠ 잘 걸으며 위풍(威風) 있게 다니는 것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29-31절)

- Ⓐ (1)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에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 있다.
- (2) 여기서 아굴은 동물들 가운데서 당당하게 행하는 것들 세 종류를 말하고 마지막으로 용맹한 왕을 곁들였는데 이것은 왕의 자격이 어떠해야 함을 강력하게 말해 준다.
- (3) 곧 왕은 사자와 같은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사냥개와 같이 민첩하고 신속하게 행하며 수염소처럼 무리의 선두에 서서 무리를 인도하여야 한다.
- (4) 그런데 이러한 기상(氣象)은 오늘날의 성도들이 이 험악한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떳떳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다(참조, 요16:33; 벰전2:9).
27. Ⓢ 아굴은 어떠한 경우에 손으로 입을 막으라고 하는가? (32 절)
- Ⓐ (1) 그는 만일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체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圖謀)하였을 경우에 손으로 입을 막으라고 한다.
- (2) 왜냐하면 스스로 높은 체하여 토하는 말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악한 생각은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같이 다툼과 분쟁을 유발시키기 때문이다.
- (3)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기 분수를 알고 악한 생각은 마음에라도 품어서는 안 되며 만약 악한 생각이 날 때는 속히 버리도록 해야 한다.

화보자료

사자(獅子). 옆의 사진은 여로보암 2세(Jeroboam II, B. C. 793-753)의 도장에 새겨져 있는 사자를 도안한 이스라엘 공화국의 우표이다. 도장에 새겨져 있는 문자는 '여로보암의 종 세마의 것'이란 글이다.

사자는 야수(野獸)의 왕이라 일컬음을 받을 정도로 강하고 용맹스럽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자의 이러한 성질을 비유하여 여러 가지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잠30, 장 49:9; 계5:5).



제 31 장 현숙(賢淑)한 여인은 귀하고 복되다

단락구분 7-9 르무엘 왕이 훈계받았던 잠언 / 10-31 현숙한 여인은 귀하고 복되다

1 르무엘 왕의 말씀한 바 곧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2 내 아들이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태에서 난 아들이 내가 무엇을 말할꼬 서원대로 얻은 아들이 내가 무엇을 말할꼬
 3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지어다
 4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다
 5 술을 마시다가 범을 잊어버리고 모든 간곤한 백성에게 공의를 굶게 할까 두려우니라
 6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7 그는 마시고 그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그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8 너는 병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9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간곤한 자를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10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11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꺾일지 아니 하겠으며
 12 그런 자는 살아 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13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14 상고의 배와 같아서 면에서 양식을 가져오며
 15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 주며 여중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16 발을 간쯤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

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17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18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19 손으로 솜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20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21 그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집 사람을 위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22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식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23 그 남편은 그 땅의 장로로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이는 바가 되며
 24 그는 베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고에게 맡기며
 25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26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27 그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28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사례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29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30 고운 것도 거저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31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1. ㉠ 본장에서 취할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 ㉠ (1) 본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에게 훈계했던 내용의 잠언으로서 젊기 때문에 유혹받기 쉬운 죄에 주의하며 왕위에 나아갈 자로서 그에 따른 여러 의무를 행하라는 것과 현숙한 여인이 귀하고 복됨을 말하고 있다.
- (2) 여기서 현숙한 여인에 대한 묘사는 르무엘의 모친(母親)이 자기 딸들에게 주는 교훈이거나 아내를 택할 때 참작하라고 르무엘에게 준 지침이었음이 분명하다.

- (3) 오늘날 여성의 위치가 여러 면에서 중시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오래 전부터 여성의 위치와 역할을 바르게 규정하여 현숙한 여인의 귀함과 복됨을 말씀하셨다.
- (4) 그리고 영적인 면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되는 점에서 본장의 교훈은 교회에게 큰 가르침이 된다.

2. **㉠** 본장의 잠언은 누가 말한 것인가? (1절)

- ㉠** (1) 본장의 잠언은 르무엘 왕이 말한 것이다.
- (2) 그런데 이 잠언은 르무엘 자신이 만들어서 말한 것이 아니고 그가 자기의 어머니에게 훈계받은 잠언을 기억하여 기록한 것이다.

3. **㉠** 르무엘 왕은 누구인가? (1절)

- ㉠** (1) 많은 주석가들은 이 르무엘이 솔로몬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 (2) 왜냐하면 ‘르무엘’이란 이름이 ‘하나님을 위한 자’, ‘하나님께 바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솔로몬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헌신되었으며 하나님께서도 그 이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인 여디디야(삼하 12:25)라고 부르셨기 때문이다.
- (3) 그러나 본문의 내용 중 솔로몬에게 부합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르무엘이 히스기야나, 또는 어머니가 다윗 가문의 여인인 어떤 인근 나라의 왕자를 가리킨다는 견해도 있다.
- (4) 따라서 이 르무엘이 누구라고 확정짓기는 어렵지만 어렸을 때부터 훌륭한 어머니에게 교육을 잘 받은 매우 경건한 왕이었음은 분명하다.

4. **㉠** 르무엘의 어머니는 르무엘에게 무엇을 말하였는가? (2-9절)

- ㉠** (1) 르무엘의 어머니는 신중히 생각하고 생각하여서 르무엘에게 음욕을 피하고(3절), 독주를 금하며(4-7절), 공의를 시행할 것을 말하였다(8, 9절).
- (2) 이러한 내용은 나라를 다스릴 왕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으로,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들이다.

5. **㉠**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그 아들을 몇 번이나 불렀는가? (2절)

- ㉠** (1)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르무엘을 세 번이나 불렀다.
- (2) 처음에는 단순히 ‘내 아들이’ 그 다음에는 ‘내 태에서 난 아들이’ 그리고 ‘서원(誓願)대로 얻은 아들이’라고 세 번 불렀는데 점점 아들에 대한 사랑의 정도가 더 깊어지고 있는 어머니의 심정이 잘 나타난다.
- (3) 그런데 이 심정은 르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라는 점에서 절정에 이르고 이것은 이후의 가르침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짐작케 한다.
- (4) 즉 그것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서원해서 얻은 아들답게 키우고자 하는 경건한 어머니의 중심에서 나온 가르침이다.
- (5) 이와 같이 성도들은 경건한 중심으로 자녀들을 대하고 가르치며 교육하도록 해야 한다.

6. **㉠**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3절)

- ㉠** (1) 이 일은 앞절과의 연관상 왕이 여자들에게 미혹됨을 가리킨다.
- (2) 여자가 왕의 마음을 혼란케 하고, 격동시켜 다툼을 일으키고, 나쁜 영향력을 미쳐 왕을 멸망케 하는 일이 많이 있었다(참조, 신 17:11).
- (3) 이것은 다윗과 솔로몬 같은 훌륭한 왕들에게도 있었다(참조, 삼하 12:9, 10; 왕상 11:11).
- (4) 오늘날도 통치자들은 특히 여자들에게 미혹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런 일들에서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

7. **㉠** 4절에서 어떠한 말이 거듭 사용되고 있는가?

- ㉠** (1) 본절에서 ‘마땅치 아니하다’는 말이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 (2) 이러한 반복법(反復法)을 사용하는 이유는 술에 대한 경계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 (3) 개인의 경우에서도 무절제와 술취한 행위는 악으로 간주되는데 국민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는 왕의 경우에 이러한 술에 대한 경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5절).

8. **㉠ 술은 어떠한 사람에게 사용될 수 있는가? (6, 7절)**

- ㉠** (1) 술이 사용될 때가 있는데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사용될 수 있다.
 (2) 독주(포도주)는 회복제나 진정제 및 의약제로서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용도 하나님 안에서 되어져야 한다(참조, 눅 10:34; 딤후 5:23).

9. **㉠ 르무엘의 어머니는 르무엘에게 무엇을 위하여 입을 열라고 하였는가? (8절)**

- ㉠** (1) 르무엘의 어머니는 병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라고 하였다.
 (2) 여기서 병어리는 꼭 신체상의 불구자만이 아니라 소송 사건에서 자신의 입장을 변명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가리킨다.
 (3) 또 고독한 자는 그대로 방치하면 죽게 될 긴박한 위험에 처해 있는 자를 가리킨다.
 (4) 이렇게 르무엘의 어머니는 불쌍한 자들을 돌보는 일이 왕이 행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일임을 강조함으로 왕의 정치가 공의를 시행하는 것이 되어야 함을 말하였다.
 (5)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현실의 모든 부면에서 공의를 시행하며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돌보는 일에 지대한 관심과 정력을 쏟아야만 한다.

10. **㉠ 10-31절 부분에서 다루는 내용은 무엇에 대한 것인가?**

- ㉠** (1) 그 내용은 현숙한 여인에 대한 것이다.
 (2) 이 여인은 남편을 잘 내조하며(11, 12절), 부지런하고(13-19절), 불쌍한 사람들을 보살피며 주며(20절), 집안 일을 잘 돌본다(21-27절). 그래서 그녀는 큰 칭찬을 듣고 그 손의 열매를 받게 된다(28-31절).
 (3)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여인이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仁愛)의 법을 말하며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인 것이다.
 (4)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어느 정도로 실제의 삶과 연관되는지를 이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

11. **㉠ 10-31절 부분은 형식상 어떠한 특징을 띠고 있는가?**

- ㉠** (1) 이 부분은 형식적으로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를 각 절의 첫 글자로 사용하는 아크로스틱(acrostic) 문체의 특징을 띠고 있다.
 (2) 그런데 인위적으로 이러한 문체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 내용을 쉽게 기억토록 하기 위해서이다.
 (3) 이 문체는 시편 9, 10, 25, 34, 37, 111, 119, 112, 145편과 애가 1, 2, 3장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12. **㉠ 그 값이 진주보다 더 비쌀 정도로 귀한 여인은 누구인가? (10절)**

- ㉠** (1) 그 여인은 현숙한(賢淑)한 여인이다.
 (2) 여기서 현숙한 여인은 히브리어로 <에사트 하일>인데 '능력의 여인'이란 뜻으로 도덕적으로 순전하며 강건한 육체와 왕성한 활동력을 지닌 여자를 가리킨다.
 (3) 그런데 이 여인이 '진주보다 더하다'는 것은 그 값어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함을 나타낸 말이다.
 (4) 오늘날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육아법의 개발, 또 화장술과 패션의 대중화로 걸보기가 아름다운 여인은 많으나 현숙한 여인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귀하고 귀하다.

13. **㉠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어떻게 행하는가? (12절)**

- ㉠** (1) 그녀는 남편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고 선을 행한다.

- (2) 그런데 이러한 선행은 일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동안에, 즉 기쁘거나 불행할 때나 차이가 없다.
- (3) 그러므로 그 남편은 진심으로 그녀를 믿고 사랑하게 된다.
- (4) 그리고 이 여인은 가정사를 잘 처리하기 때문에 산업이 부족하지 않게 한다.
- (5) 이와 같이 현숙한 여인은 남편을 죽는 날까지 섬기며 남편의 마음을 평안케 하고 가정을 잘 꾸려서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남편에게 선을 행한다.
- (6) 그러므로 성도들은 현숙한 여인이 되기를 힘쓰고 또 그러한 여인을 사모해야 한다.

14. **㉠**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13절)

- ㉠** (1) 이것은 양털과 삼을 가지고 가족의 의복을 만드는 것을 가리킨다.
- (2) 양털은 옛날부터 옷을 만드는 데에 사용되었고(참조, 레 13:47; 욥 31:20), 삼은 실을 생산하는 재료와 여러 가지 옷감을 만드는 데에 사용되었다(참조, 사 19:9; 렘 13:1).
- (3) 그런데 오늘날 집에서 옷감을 짜거나 옷을 만드는 일은 거의 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 일이 여성이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의 하나였다.
- (4) 이와 같이 중요한 일을 현숙한 여인이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행하였음에 주의하여 성도들도 가정을 꾸려가는 데 중요한 여러 일을 부지런히 해야 한다.

15. **㉠** 14-19절 부분에서는 현숙한 여인의 어떠한 면을 칭찬하고 있는가?

- ㉠** (1) 이 부분에서는 현숙한 여인이 가정의 생활을 잘 영위하며 산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면을 칭찬하고 있다.
- (2) 즉 현숙한 여인은 값싸고 질 좋은 양식을 수고하여 구하고(14절), 가족들에게 양식을 부지런히 공급하며 종을 잘 통솔한다(15절).
- (3) 또 그녀는 열심히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번 돈으로 밭과 포도원을 사서 재산을 늘린다(16-19절).
- (4) 이와 같이 근면함과 강인함으로 가정을 돌보며 산업을 늘리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은 참된 여성의 아름다움을 바르게 규정하여 준다.

16. **㉠** ‘손으로 솜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는다’는 것은 어떠한 행동을 묘사하는 말인가? (19절)

- ㉠** (1) 이것은 물레질을 해서 실을 만드는 행동을 묘사한 말이다.
- (2) 여기서 가락은 히브리어로 <페레크>로서 실감는 막대기 부분을 가리킨다.
- (3) 현숙한 여인은 자기 가족의 의류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윤을 얻으려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않으면서 장사할 물건을 만든다.

17. **㉠** 현숙한 여인은 간곤(艱困)한 자와 궁핍한 자를 어떻게 대우하는가? (20절)

- ㉠** (1) 그녀는 간곤(艱困)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들을 따뜻하게 대우한다.
- (2) 여기서 ‘손을 펴며’, ‘손을 내밀며’라는 말은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며 그를 위하여 사랑을 베푸는 것을 의미한다.
- (3) 이와 같이 현숙한 여인은 자기 가정을 잘 돌보고 근면하게 일하여 산업을 늘리면서도 가난한 자 돌보는 일을 쉬지 않는다.
- (4) 오늘날 성도들은 이 현숙한 여인으로부터 불쌍하고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면을 순수하게 본받아야 한다.

18. **㉠** ‘홍색 옷’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21절)

- ㉠** (1) 이 ‘홍색 옷’은 추위에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옷을 가리킨다.
- (2) 따뜻한 옷은 방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화로에 숯불을 담아 놓은 것처럼 중요하였다.
- (3) 이렇게 따뜻한 옷을 식구들에게 입혀 주었기 때문에 현숙한 여인은 눈이 와도 가족 때

문에 염려하지 않는다.

(4) 이와 같이 성도들도 가족들의 생활을 위하여 때를 따라 준비성 있게 들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19. **㉠** 현숙한 여인이 자기를 위하여 하는 일은 무엇인가? (22절)

㉠ (1) 그녀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방석을 지으며 세마포(細麻布)와 자색(紫色) 옷을 입는다.

(2) 이것은 그녀가 자기를 잘 단장하는 모습을 가리킨다.

(3) 이와 같이 성도들도 자기를 잘 단장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20. **㉠** 현숙한 여인의 남편은 어떻게 되는가? (23절)

㉠ (1)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長老)와 더불어 성문에 앉으며 사람의 아는 바가 된다.

(2) 성문은 그 도시의 장로들이 모여서 재판을 하고 도시의 일들을 의논하던 곳이다(참조, 신 15:7; 룻 4:1).

(3) 이런 곳에 그녀의 남편이 앉게 된다는 것은 그 남편이 가정의 평안을 바탕으로 명성을 얻게 되어 공사(公事)를 들보는 데까지 이르게 됨을 가리킨다.

(4) 이와 같이 현숙한 여인은 그 남편을 영화로운 자리에 이르도록까지 한다.

(5) 그러므로 이런 현숙한 여인을 얻은 자는 복되다.

21. **㉠**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는다'는 말은 어떠한 뜻인가? (25절)

㉠ (1) 이 말은 현숙한 여인이 매일 생활을 근실하고 품위 있게 행하며, 장래에 올 영광을 소망한다는 뜻이다.

(2) 이러한 현숙한 여인의 생활 태도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꼭 있어야 할 것들이다.

(3) 즉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전히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그 소망이 있지만 그렇다고 현재의 삶을 무시하거나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즉 그날을 소망함으로 오히려 현실에 충실하고 품위 있게 살아야 한다.

22. **㉠** 현숙한 여인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는가? (26절)

㉠ (1) 그녀의 입에서는 지혜와 인애(仁愛)의 법이 나온다.

(2) 이것은 그녀가 자기의 삶을 현숙하게 영위할 수 있었고, 영위하는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순종함에 있음을 보여 준다.

(3) 그리고 그녀는 이제 자기 속에 있는 지혜와 인애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적으로만이 아니라 입으로 증거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까지 한다.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이 바로 살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때 그 인도함은 큰 힘을 가진다.

23. **㉠** 그 자식들은 현숙한 여인에게 어떻게 행하는가? (28절)

㉠ (1) 그 자식들은 그녀에게 일어나서 사례(謝禮)한다.

(2) 즉 자식들은 어머니의 따뜻한 양육과 지혜로운 교육에 의해 훌륭한 인격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 어머니를 극진히 섬기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된다.

(3) 그녀가 이렇게 자식으로부터 사례받는 것은 그녀의 성실한 삶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이다.

24. **㉠** 그 남편은 현숙한 여인을 어떤 말로 칭찬하는가? (28절)

㉠ (1) 그 남편은 그녀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는 말로 칭찬한다.

(2) 이 말은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나 미혼의 상태에서 덕스럽게 행하는 여자(딸들)는 많지만 이런 훌륭한 딸들이라 해도 현숙한 아내처럼 가정을 잘 꾸려 나갈 수는 없다는 뜻이다.

(3) 그런데 이러한 칭찬은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그 남편이 현숙한 아내로 말미암아 감동

을 받고 진심으로 한 칭찬의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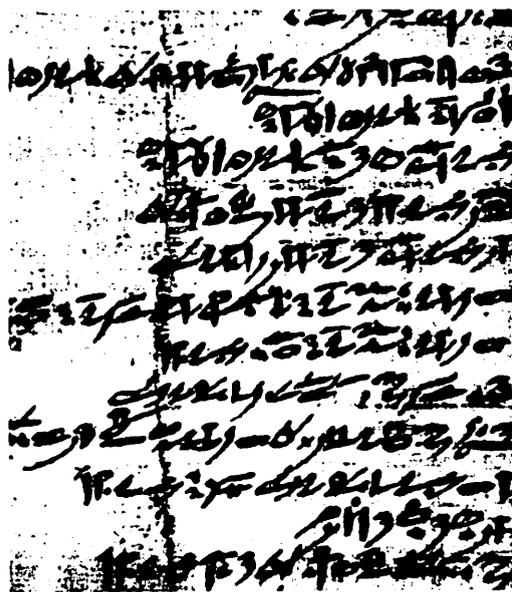
- (4) 그리고 이렇게 칭찬의 말을 하는 남편은 그 아내를 존경하며 뜨겁게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남편에게서 칭찬과 사랑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현숙한 여인의 삶을 살도록 해야겠다.

25. **㉠** 오직 어떠한 여자가 칭찬을 받게 되는가? (30절)

- ㉠** (1)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게 된다.
- (2) 여기서 인생의 참된 평가는 외모의 아름다움이나 고운 것에 있지 않고 삶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에 따라 되어짐을 말한다.
- (3) 이렇게 하여 본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금 본서가 처음부터 일관되게 강조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1:7)이라는 명제(命題)가 재차 강조되었다.
- (4) 이제 성도들은 현숙한 여인과 같이 인생 전체를 통해서 성실하고 품위 있게 여호와를 경외하여 살므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듣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화보자료

아메네오펫(Ameneopet)의 지혜서. B. C. 1000년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 파피루스는 애굽의 테베에서 발견된 것이다.



지혜에 관한 격언은 고대의 여러 나라에서 존재했지만 특히 이스라엘에서의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30절) 그 본질이었다.

연구자료

구약에 나타난 여성과 그 지위

흔히들 말하기를 성경은 남성 중심적인 책이며 남성 우위 사상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도리어 성경은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뚜렷하게 부각시켜 남자의 '동반자'로서의 모습을 확고히 해주고 있다. 본서만 해도 여성은 가정을 잘 보살피고(27절) 자녀를 교육하는 일에 협조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본고는 오늘날 성경과는 달리 왜곡되어 있는 여성상을 바로 잡으며 나아가서 사회 속에서의 여성의 바른 지위와 역할을 제시하려고 한다.

1. 본서에 나타난 여성상

본서에 묘사된 여성은 자애로운 어머니와 훌륭한 내조자로서의 아내의 모습이다. 즉 자녀를 지혜롭게 교육하며(1-9절) 가정을 알뜰하게 보살피는 여성의 모습(10-31절)을 칭찬하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은 남편을 잘 내조(內助)할 뿐만 아니라 성실하고 근면하며 가난하고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돕는 자상함도 겸비하였다. 여성이 남자의 성(性)적 대상으로 표현된 곳은 5:15-19인데 이곳에서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을 강조하므로 이 귀절을 '성(性)의 대상으로서의 여성'을 표현한 곳으로 볼 수는 없다. 결국 본서에 나타난 여성의 지위를 살펴보면 여성은 자녀를 갖기 위한 상대, 혹은 단순한 성적 대상자가 아니며 독자적으로 감당해야 할 역할을 가진 주체적 인격체로 나타난다. 이러한 여성은 결코 남자에 종속되거나 구속을 받는 존재가 아니며 도리어 가정의 유지나 자녀의 교육에 남자와 공동 노력하는 동반자의 모습을 보여 준다(11:16;14:1).

2. 창1-3장에 나타난 여성상

남성 우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여자보다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고 여자의 창조는 남자의 갈빗대로 말미암았으며 심지어는 여자의 약한 품성 때문에 인류가 타락했으니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깊이 없는 단견(短見)이며 편견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창 1:28에서 남성과 여성은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으며 세상을 다스릴 권한과 책임을 공동으로 부여받았기 때문이다(창 1:28). 또한 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라고 유혹할 때도 '너희'라는 복수 대명사를 사용했으니(창 3:1-5) 인간의 타락이 여성 때문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지고 만다. 그러나 죄의 결과로 남성은 여성을 '다스리게' 되었다(창 3:16). 비록 이러한 불평등과 차별이 있었기는 해도 여성이 가진 가정 내의 역할과 자녀를 낳는 일은 존중받았으며 훌륭한 여인은 남편을 칭송받게 했다(12:4). 여성의 종속

이 죄의 결과라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이루어졌으므로 '종승'은 '동등'으로 회복되어야 마땅하다.

3. 율법하에서의 여성

이때의 여성은 성적인 대상이며 자손 번식의 수단이었다. 여성은 남성보다 그 지위가 현저하게 낮았으며(참조, 레 27:2-7)남성에게 절대 복종이 요구되었다. 또 남성은 창녀와 상대할 수도 있었지만 여성은 자기 남편 이외의 남성과는 성 관계를 가질 수 없었다. 재산의 상속은 아들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딸들은 아들이 죽고 없을 때에만 상속을 받을 수 있었다(민 27:6-11). 그리고 수혼제도(참조, 룻4장 연구 자료)도 역시 가문의 대(代)를 잇기 위한 것이었으며 여성의 처지는 고려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성 차별은 당연시되었으나 여성이 어머니의 위치에 있을 때에는 남편과 동등하게 대접받았다. 이는 남편과 '한 몸' (비교, 창 2:24)이 된 여성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시사해 준다.

4. 신앙과 여성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몇몇 여성들의 뛰어난 신앙은 당시의 여성의 지위에 대하여 많은 힌트를 준다. 성경상에 나타나는 여선지(히, 느비아)로는 홀다(왕하 22:14; 대하 34:22), 미리암(출 15:20) 같은 여성들이 있었으며 룻,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같이 깊은 신앙을 가졌던 여성들에 대한 기록도 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비록 여성이지만 큰 믿음을 가졌으므로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존중을 받았었다. 이 같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문화 체계가 신앙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신앙 안에서는 남녀의 큰 구별이 없었음을 보여 준다.

5. 결론

1975년은 UN이 정한 '세계 여성의 해'였다. 현대의 여성들은 자신들이 성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여 '여권 신장'을 주장하며 남녀간의 동등한 대우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성경은 결코 여성이 열등하게 창조되었다든가 남성의 일을 보조하는 것이 여성의 역할이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단지 오늘날의 남성들이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무지할 뿐이다. 남성들은 남성이 감당해야 할 사회적 의무와 신앙적 책임이 있으며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할 일이 있는 것이다. 양자의 역할과 기능이 조화를 이룰 때 가정과 사회는 제대로 움직이게 된다. 물론 사회에는 남녀 누구가 맡아도 수행 가능한 영역이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의 성 차별은 철폐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남녀는 평등하나 그 본질과 역할은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참조, 엡 5:25; 딤후전 3:11; 벰전 3:1, 7). 남녀는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의 존엄성을 인정하여 서로가 존중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잠 언 Proverbs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1:7)

יְרֵאת יְהוָה רֵאשִׁית דָּעַת חִכְמָה וּמוֹסֵר אֱוִילִים בָּזוּ :

잠언 Proverbs

잠언 차례

잠언 서론	〈19제〉	11
제 1 장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자(智慧者)가 되라	〈41제〉	18
제 2 장 구하고 찾으라	〈27제〉	30
제 3 장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35제〉	38
제 4 장 지혜가 제일이다	〈31제〉	46
제 5 장 지혜를 즐거워하라	〈20제〉	53
제 6 장 스스로 돌이키라	〈30제〉	60
제 7 장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말라	〈14제〉	69
제 8 장 지혜는 가장 선한 것이다	〈33제〉	73
제 9 장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24제〉	81
제 10 장 의인과 악인이 대조되다	〈21제〉	88
제 11 장 의인은 그 이웃을 기쁘게 한다	〈25제〉	93
제 12 장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다	〈22제〉	101
제 13 장 악에서 떠나 정직하게 하라	〈24제〉	107
제 14 장 가정과 나라도 지혜로 크게 선다	〈23제〉	112
제 15 장 여호와를 악인과 선인을 살피신다	〈23제〉	118
제 16 장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27제〉	124
제 17 장 미련함을 버려라	〈24제〉	132
제 18 장 무리 가운데서 덕을 세우라	〈23제〉	139
제 19 장 온유(溫柔)한 자가 복되다	〈26제〉	144
제 20 장 인자와 진리로 행하라	〈36제〉	152
제 21 장 여호와 보시기에 옳아야 한다	〈27제〉	161
제 22 장 선한 교훈이 가치 있다	〈26제〉	167

제 23 장	탐욕을 피하고 지혜를 얻으라	〈25제〉	175
제 24 장	여호와는 행위대로 보우하신다	〈28제〉	181
제 25 장	경우에 합당하게 행하라	〈30제〉	188
제 26 장	어리석은 자들을 보라	〈23제〉	195
제 27 장	겸손하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라	〈31제〉	202
제 28 장	여호와를 의지하여 율법을 지켜라	〈28제〉	208
제 29 장	여호와를 의지하여 공의를 행하라	〈25제〉	216
제 30 장	아굴의 잠언	〈27제〉	222
제 31 장	현숙(賢淑)한 여인은 귀하고 복되다	〈25제〉	229

잠언 특별 자료 차례

잠언 서론	〈연구 자료〉	히브리인들의 지혜 문학(知慧文學)	17
제 1 장	〈화보 자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	27
제 1 장	〈연구 자료〉	바람직한 기독교인의 가정	28
제 2 장	〈본장의 요절〉		35
제 2 장	〈연구 자료〉	잠언의 교훈적 특성	36
제 3 장	〈화보 자료〉	정금 장식	45
제 4 장	〈연구 자료〉	히브리인들의 무게 단위	52
제 5 장	〈본장의 요절〉		57
제 5 장	〈연구 자료〉	기독교 교육의 성격	58
제 6 장	〈화보 자료〉	창가의 매춘부	67
제 6 장	〈연구 자료〉	기독교인과 보증(保證)	68
제 7 장	〈본장의 요절〉		72
제 8 장	〈연구 자료〉	의(righteousness)에 대하여	80
제 9 장	〈연구 자료〉	구약 성경에 나타난 죽음과 관계된 음부(陰府)의 제 개념(諸概念)	87

제 11장	〈본장의 요절〉	구제의 성경적 의미	98
제 11장	〈연구 자료〉	구제의 성경적 의미	99
제 12장	〈연구 자료〉	잠언에 나타난 미련한 자의 실상(實狀)	105
제 14장	〈본장의 요절〉		117
제 15장	〈화보 자료〉	입의 열매	123
제 16장	〈본장의 요절〉		129
제 16장	〈연구 자료〉	성도의 언어 생활	130
제 17장	〈연구 자료〉	어리석은 자와 교만	137
제 18장	〈본장의 요절〉		143
제 19장	〈화보 자료〉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	149
제 19장	〈연구 자료〉	히브리인들의 가정 교육	150
제 20장	〈화보 자료〉	주머니 속의 추돌	158
제 20장	〈연구 자료〉	가난한 자와 가난(poverty)에 대한 성경적 고찰	159
제 21장	〈화보 자료〉	유대교의 결혼식 장면	166
제 22장	〈화보 자료〉	가난한 자	172
제 22장	〈연구 자료〉	지혜로운 자와 겸손	173
제 23장	〈본장의 요절〉		180
제 24장	〈연구 자료〉	지혜(智慧)에 대하여	186
제 25장	〈연구 자료〉	잠언에 나타난 특이한 표현들	194
제 26장	〈본장의 요절〉		199
제 26장	〈연구 자료〉	기독교인의 직업 윤리	200
제 27장	〈본장의 요절〉		207
제 28장	〈연구 자료〉	기독교인의 사회 참여	214
제 29장	〈연구 자료〉	창부(娼婦)에 대하여	221
제 30장	〈화보 자료〉	사자(獅子)	228
제 31장	〈화보 자료〉	아메네오펫(Ameneopet)의 지혜서	234
제 31장	〈연구 자료〉	구약에 나타난 여성과 그 지위	235

잠언 서론

1. **㉠** 본서(本書)는 구분상 구약 성경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가?

- ㉠** (1)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크게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으로 대표되는 나머지 책들(참조, 눅 24:24) 등 세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본서는 세째 부분에 해당한다.
 (2) 구약 성경의 이 세째 부분은 성문서(聖文書)들로서 시가서와 다섯 두루마리 책 그리고 역사서가 있는데 본서는 그 가운데 시가서(시편, 잠언, 욥기) 부분에 속한다.
 (3) 한편 이 시가들은 기억하기 쉽게 ‘에메트(진리)의 책들’이라고 불리어지는데 <에메트>란 말은 각 시가서의 이름, 즉 <욥>(욥기), <메살림>(잠언), <테힐렘>(시편)의 히브리어 첫 글자로써 구성된 명칭이다.

2. **㉡** 본서의 책명(冊名)인 ‘잠언’은 어디에서 유래된 것인가?

- ㉠** (1) 본서의 책 이름 ‘잠언’은 히브리 원전의 첫 낱말인 ‘솔로몬의 잠언’(히, 미של레 쉘로 모)이란 말에서 유래되었다.
 (2) 그런데 이 ‘잠언’(히, 미של레)이라는 단축된 형태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늘 사용되었고, 70인역(LXX)에는 ‘솔로몬의 잠언’(헬, 파로이미아이 살로몬토스)이라고 되어 있거나 솔로몬의 이름이 생략되었다.
 (3) 한편 제롬은 벌게이트(Vulgate) 역에서 ‘히브리인들이 미של레라 부르는 잠언들의 책’이라는 긴 책명을 붙였다.
 (4) 여기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이름(잠언)의 적합성을 알기 위해서는 ‘미של레’의 의미를 고찰해야 한다.

3. **㉢** 잠언(히, 미של레)이란 무슨 뜻인가?

- ㉠** (1) <미של레>는 <마찰>의 복수형으로서 ‘속담들’, ‘격언들’이라고 번역된다.
 (2) 그런데 <마찰>이란 단어는 ‘...같은’, ‘묘사하는’이란 의미의 어근에서 유래된 것으로 속담이나 격언(proverb)이란 말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3) 즉 <마찰>은 나이 많은 노인들의 경험을 압축하여 간결하게 표현한 속담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비유’, 일반적인 의미로는 ‘알기 어려운 격언들’, ‘수수께끼’, ‘뒤얽힌 질문들’이 포함된다.
 (4) 따라서 <미של레>(잠언)는 일반적인 속담이나 격언보다 넓은 의미의 말로 진리나 의미 깊은 개념을 간단한 말로 표시한 것들을 말한다.

4. **㉣** 본서는 어떠한 관점에서 취급되어야 하는가?

- ㉠** (1)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이 히브리인들의 민족적 문학으로서 고대의 다른 문학적 산물 가운데 속하는 단순한 인간의 문학적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2) 그러나 구약은 사람이 그 역사적인 정황 속에서 기록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한 것’(참조, 벧후 1:21)으로서 근본적으로 신적 산물(神的產物)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 주신 계시(啓示)의 말씀이다.
 (3)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인간을 복사기처럼 기계적 도구로 사용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다.
 (4) 성경은 인간이 처한 상황에서 인간 저자의 모든 재능과 문학적 소양과 기법, 언어의 배경 등을 성령께서 유기적으로 사용해서 기록하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12 잠언 서론

(5)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잘 살피면서 또한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서를 읽어야 한다(참조, 요 16:13-15; 고전 13:12, 13).

5. ㉠ 본서의 저자는 누구인가?

- ㉠ (1) 본서는 일반적으로 솔로몬이 저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1:1; 10:1; 25:1) 두 개의 다른 부분이 분명하게 아굴(30:1)과 르무엘(31:1)이 저작한 것으로 되어 있다.
- (2) 또한 지혜 있는 자들의 말씀을 포함하는 두 개의 부록(22:17-29; 24:23-34)이 있는데 이것도 솔로몬의 것이라고는 확정할 수 없다.
- (3) 물론 솔로몬이 3천 잠언을 말했다고 하나(참조, 왕상 4:32) 본서를 세밀하게 관찰해 볼 때 솔로몬 한 사람의 저작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저작임이 분명하다.

6. ㉠ 본서의 기록 및 수집 연대는 언제인가?

- ㉠ (1) 본서가 솔로몬(재위; B. C. 970-930, 왕상 11:42)의 잠언에다 뒷날 다른 부분을 덧붙여 히스기야(재위; B. C. 715-686)의 신하들에 의해 편집된 것으로 보아 그 기록 및 수집 연대를 B. C. 950-700년경으로 잡을 수 있다.
- (2) 그러나 본서는 B. C. 2세기에 정경(正經)으로 인정되었고 최종 편집이 전통적으로 구약 시대의 마지막 시기에 된 것으로 보므로 B. C. 400년 이전에 최종 편집이 이루어져 잠언집을 이룬 것이 분명하다.
- (3) 여기서 오늘날 우리는 거의 2500년 이상이 경과된 글을 우리 눈으로 대하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 시대의 배경과 단어들이 내포하는 의미 또, 표현 양식(樣式)들에 대해 주의를 하면서 교훈을 얻도록 해야 한다.

7. ㉠ 본서의 주저자인 솔로몬은 어떤 인물이었는가?

- ㉠ (1)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지혜가 심히 풍부했던 자로(참조, 왕상 3:5-12; 4:29) 이스라엘이나 다른 외국의 어떤 지혜자나 지혜의 스승보다 더 높이 평가를 받았다(참조, 왕상 4:30, 31).
- (2) 그리고 이러한 지혜를 소유한 솔로몬은 문학 방면에서도 특출하여 '잠언 삼천을 말하였고 노래는 일천 다섯'을 저작하였다(참조, 왕상 4:32).
- (3) 물론 솔로몬의 지혜가 아주 특출했지만 이제까지 아무것도 없었던 데서 그런 것을 창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솔로몬의 잠언들은 그때까지 전해 내려온, 단순하고 미발달의 단계에 있었던 잠언들을 완전한 상태로 발전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 (4) 혹자는 솔로몬의 말년의 실정(失政) 때문에(참조, 왕상 11:4-8; 12:10) 솔로몬의 공적과 인간성을 과소 평가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의 저작에 대해서 의심해서는 안 될 것이다.
- (5) 우리는 오히려 이러한 지혜자가 그의 생애를 아름답게 끝맺지 못한 사실에서 인간의 한계성과 죄성을 깊이 느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8. ㉠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있어 지혜란 어떤 것이었는가?

- ㉠ (1)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있어 지혜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스리시는 큰 원칙인 율법을 생활 속에서 보다 친숙하게 실천하도록 이끄는 하나의 방편이었다.
- (2)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나온 것이며(참조, 1:7; 9:10; 욥 28:28; 시 111:10; 전 1:16; 12:13) 그 지혜는 하나님과의 성결한 교제로 이끈다(참조, 3:16; 8:35).
- (3)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지혜는 사색적이기 보다는 아주 실제적이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뿌리를 박고 있는 것으로 그 결정적 방향이 구약 전체 체계와 상통한다(참조, 마 22:34-40).

9. ㉠ 본서의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 ㉠ (1) 본서의 기록 목적은 독자들에게 하여금 가장 고상한 지식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이를 실천하도록 하자는 데 있다.

- (2) 그리고 본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인간이 삶의 제반사에 있어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준다.
- (3) 그러므로 왕과 농부, 노인과 유년, 식자와 무식자 등과 같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본서를 읽을 때는 각자의 지적 발달 단계와 처한 환경에 따라 알맞은 교훈을 받게 된다.

10. ㉠ 본서가 속하는 문학 양식인 히브리 시(詩)의 특징은 무엇인가?

- ㉠ (1) 본서는 히브리 시(詩)에 속하는데 그것은 구성상 운(韻)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병행법에 그 특징이 있다.
- (2) 병행법은 오랫동안 주목되어 오다가 로버트 로우스(Robert Lowth) 감독에 의해 1753년 세심하게 음미되고 탐구되었다.
- (3) 그에 의하면 시의 ‘절’ 들은 둘 혹은 그 이상의 부분들로 되었으며 그것들은 상호 ‘병행 관계’를 나타낸다.
- (4) 이러한 병행법에는 세 가지 기본 형태가 있는데 같은 사상이 거의 같은 말로 반복되는(참조, 시 49:1) ‘동의적 병행법’과 한 사상이 그 반대의 것과 대조되는(참조, 잠 15:1) ‘반의적 병행법’ 그리고 둘째 부분이 첫째 부분의 사상을 완성하며 충족시키는(참조, 잠 4:23) ‘종합적 병행법’이 있다.
- (5) 그러나 병행법의 다른 형태들도 유의되어 왔는데 그 대부분은 본질적으로 (4)의 기본 형태의 변형이나 그중 주의할 만한 것은 ‘교차 병행법’으로 이것은 a-b, b-a의 배열을 가진다(참조, 시 51:3).
- (6) 또 ‘점진적 병행법’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도 있으며(참조, 시 29:1) 특별히 다른 형태로는 이합체(離合體)가 있는데 시편 119편은 히브리 알파벳 22자를 전부 사용해서 시를 쓴 것이다(참조, 시 9, 34, 37편; 잠 31:10-31; 애 1-4장).
- (7) 따라서 우리가 본서를 읽을 때는 시의 기본적인 병행 현상 구조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11. ㉠ 본서의 내용 속에서 발견되는 윤리적 요소와 교리적 요소 사이의 상관 관계는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가?

- ㉠ (1) 본서는 구약 전체의 구조에서 볼 때 윤리적 지혜 지식의 주된 보고(寶庫)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속에는 사람의 실생활을 위한 윤리적 교훈과 명령, 법칙, 금언 등이 담겨 있다.
- (2) 그러나 이러한 가치 있는 윤리적 요소 뿐 아니라 교리학의 개별 주제들의 발전에 공헌한 깊은 내용을 여러 귀절에서 찾아낼 수 있다.
- (3) 즉 창조에 관하여(3:19; 8:22-31)와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와 삼위 일체에 관하여(8:22-9:12), 성경적 인간학(15:11; 16:9; 19:21; 20:27) 그리고 구약과 관련된 불멸과 부활의 소망에 관해서(11:7; 14:32; 15:24) 언급하고 있다.
- (4) 여기서 윤리적 요소와 교리적 요소들의 상관 관계는 주의 깊게 이해되어야 한다.
- (5) 즉 교리적 명제들은 윤리적, 교훈적 특성을 지닌 명제들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잡인의 밀바탕으로서 모든 윤리적 교훈과 지식과 행위의 전제(前提)가 된다.

12. ㉠ 본서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어떻게 교훈하고 있는가?

- ㉠ (1) 인간의 모든 의무 가운데 첫째는 모든 도덕과 종교의 근본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1:7).
- (2) 이것을 위해서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자신을 의뢰하지 말아야 한다(3:5).
- (3) 또한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어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여야 한다(신 6:5). 여호와와는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17:3) 마음이 패려한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11:20; 15:8).
- (4) 그리고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회개해야 되며(28:13) 겸손히 여호와의 징계에 순복해야 한다(3:11).

- (2) 먼저 예수님께서서는 많은 말씀을 잠언의 형식을 빌어서 하셨습니다(참조, 마 9:12;23:24;24:28;눅 4:23;18:25).
- (3) 더우기 바울(25:21= 롬 12:20), 히브리서 저자(3:11,12 =히 12:5, 6), 야고보(3:34 = 약 4:6), 베드로(잠 24:21 = 벧전 2:17; 잠 10:12 = 벧전 4:8; 잠 11:31 = 벧전 4:18; 잠 26:11 = 벧후 2:22) 등도 각각 본서를 인용하거나 참조하였다.

18. ㉠ 본서의 대지를 구분하라.

㉠ (1) 머리말 / 1:1-7

(2) 지혜의 교훈 / 1:8-9:18

- ① 악한 친구를 멀리하라 / 1:8-19
- ② 지혜의 충고를 따르라 / 1:20-33
- ③ 지혜를 구하고 찾으라 / 2:1-22
- ④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 3:1-18
- ⑤ 여호와께서 지혜로 너를 지키신다 / 3:19-26
- ⑥ 친절과 관용 / 3:27-35
- ⑦ 지혜가 제일이다 / 4:1-27
- ⑧ 지혜를 즐거워하라 / 5:1-23
- ⑨ 경솔한 보증을 삼가라 / 6:1-5
- ⑩ 게으르지 말라 / 6:6-11
- ⑪ 여호와의 미워하는 데서 들어키라 / 6:12-19
- ⑫ 색을 탐하지 말라 / 6:20-35
- ⑬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말라 / 7:1-27
- ⑭ 지혜를 얻는 자는 복되다 / 8:1-36
- ⑮ 네 길을 선택하라 / 9:1-18

(3) 솔로몬의 잠언 / 10:1-24:34

- ① 선악의 대조 / 10:1-15:33
- ② 경건한 생활 / 16:1-22:16
- ③ 여러 가지 행실에 관한 잠언들 / 22:17-23:35
- ④ 여러 부류 사람들에 관한 잠언들 / 24:1-34

(4) 후대에 편집된 솔로몬의 잠언들 / 25:1-29:27

- ① 인간 관계 / 25:1-26:28
 - ㄱ. 왕과의 관계 / 25:1-7
 - ㄴ. 이웃과의 관계 / 25:8-20
 - ㄷ. 원수들과의 관계 / 25:21-24
 - ㄹ. 자신과의 관계 / 25:25-26:2
 - ㅁ. 어리석은 자와의 관계 / 26:3-12
 - ㅂ. 게으름뱅이와의 관계 / 26:13-16
 - ㅅ. 험담 / 26:17-28
- ② 처신에 관한 잠언들 / 27:1-29:27
 - ㄱ. 생활에 대해서 / 27:1-27
 - ㄴ. 법에 대해서 / 28:1-10
 - ㄷ. 재물에 대해서 / 28:11-28
 - ㄹ. 고집에 대해서 / 29:1-27

(5) 아굴의 잠언 / 30:1-33

16. 잠언 서론

- ① 개인적인 말 / 30:1-14
- ② 여러 가지 말들 / 30:15-33
- (6) 르무엘의 잠언 / 31:1-9
- (7) 선한 아내 / 31:10-31

19. ㉠ 본서의 중심 귀절을 말하라.

- ㉠ (1)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1:7).

연구자료

히브리인들의 지혜 문학(智慧文學)

‘지혜 문학’(Wisdom literature)이란 저자(著者)가 잠언, 우화, 수수께끼, 강화(講話) 등의 형식을 빌어 자신의 종교관이나 인생관 또는 세계관과 같은 사상을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는 문학 양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학은 B. C. 3000년경부터 근동 지역에서 발생하였는데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B. C. 1000년경에 이르러서야 두드러진 지혜 문학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그 후 신약 시대에까지 그 생명력을 잃지 아니하였다. 오늘날까지도 보존되어 읽혀지는 히브리인들의 지혜 문학서로서 대표적인 것들로는 서너 가지가 있는데 구약 성경 중의 잠언, 전도서, 욥기 그리고 시편(19, 37, 104, 107, 147, 148편)과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 외경 중의 솔로몬의 지혜서(Wisdom of Solomon), 일명 집회서라고 하는 벤시락의 지혜서(Wisdom of Ben Sirach) 등이 여기에 속한다.

1. 잠언(proverbs)

본서에는 고대의 많은 격언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 22:17-23:14의 내용은 고대 이집트의 지혜 문학서인 ‘아메네오펫’(Amenepet)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본서는 주로 젊은이들에 대한 훈계와 권면, 교훈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일명 ‘젊은이의 책’(the young man’s book)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본서 1-9장에는 지혜와 어리석음이 대조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여기서는 인간이 자신의 모든 생활에서 지혜롭게 행하도록 교훈해 주고 있다. 10-24장은 솔로몬의 격언을 모아 놓은 부분이다. 솔로몬은 3,000의 잠언과 1,005의 노래를 지은 자이다(왕상 4:32). 25-29장도 역시 솔로몬의 잠언인데 이 부분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하였다. 30장은 야게(Jakeh)의 아들 아굴(Agur)의 잠언이며 31장은 르무엘(Lemuel) 왕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훈제한 잠언을 모아 편집한 기록이다.

2. 전도서(Ecclesiastes)

본서의 저자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고 다만 '전도자' (히, 코헬렛)라는 필명을 내세우고 있다(전1:1). 이 전도자는 세가지의 것을 지극히 사랑하였는데 첫째는 생명이었다. 비록 그가 '나는 살아 있는 산 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를 복되다 하였다' (전 4:2)라고 말을 하긴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어서 산다는 것은 실제로 좋은 것이었다(참조, 전 3:13). 둘째, 그는 정의를 사랑하였다. 그는 인간이 당하는 고통에 대하여 무관심하지 않았으며(전 4:1) 인류의 잔인한 행위와 어리석음을 심히 염려하였다. 셋째, 그는 진리를 사랑하였다. 그는 우주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었지만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결론만을 얻게 되었다(전1:13-17). 이러한 논리를 좇는 그는 독자들에게 궁극적인 귀결점을 제시해 줌으로써 전도서를 끝맺고 있는데 그것은 곧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 12:13)는 말이다.

3. 욥기(Job)

본서는 모든 지혜 문학서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다. 본서의 등장 인물인 욥은 이 책에서 인간이 겪는 고난을 죄의 결과로만 볼 수는 없다고 역설하고 있다(참조, 욥 1장). 즉 그는 인간의 신앙을 연단시키려는 목적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4. 시편(Psalms)

몇 편의 시편도 지혜 문학에 속하는데 시 19, 104, 147편은 자연을 주제로 한 시로 평가받고 있다. 시편 기자가 자연 세계에 대하여 경이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곧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참조, 시 19편). 37편에는 악인과 선인이 궁극적으로 받게 될 형벌과 보상이 증거되고 있으며 107편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찬양되고 있다.

5. 야고보서(James)

구약의 지혜 문학서처럼 본서도 여러 작은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은 야고보서가 외경인 벤 시락의 지혜서와 유사하다고 말한다. 사실 야고보서에는 악에 굴복하지 말고 이에 대항하여 이기라는 벤 시락의 지혜서와 같은 내용의 교훈이 주어져 있다(약 3:13-5:6).

6. 지혜서(Wisdom)

솔로몬의 지혜서의 저자인 익명의 인물은 독자들에게 지혜를 추구할 것을 훈계하고 있다. 집회서(벤 시락의 지혜서)는 형태에 있어서 잠언과 비슷할 뿐 아니라 그 내용상에 있어서도 잠언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이 책은 외경 중 가장 분량이 많고 중요한 지혜 문학서이다. 두 책은 모두 지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제 1 장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혜자(智慧者)가 되라

단락구분 1-6 잠언의 목적 / 7-9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의 길로 행하라 / 10-19 악한 자의 유혹을 쫓지 말라 / 20-33 지혜의 소리에 주목(注目)하여 지혜자가 되라

- 1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 2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 3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 4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 5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 6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탁한 말을 깨달으리라
- 7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 8 내 아들이야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 9 이는 네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의 금사슬이니라
- 10 내 아들이야 악한 자가 너를 필지라도 쫓지 말라
- 11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었드렀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 12 음부같이 그들을 산 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 13 우리가 은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 14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 15 내 아들이야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 16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 17 무릇 새가 그물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겠거늘
- 18 그들의 가만히 었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

- 이니
- 19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 20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 21 원화하는 길 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가로되
- 22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 23 나의 책망을 듣고 들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 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 24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 25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 26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 27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 28 그 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 29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 30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 31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피에 배부르리라
- 32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 33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전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1. ㉠ 본장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잠언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가?
 ㉡ (1) 본장은 본서 전체의 표제(表題) 부분(1-6절)과 본서의 첫 중요 부분인 7절-9:18의

일부로 구성되어 있다.

- (2) 본서의 표제 부분(1-6절)에서는 본서의 일반적인 범위와 목적을 간결한 말로써 설명하여 본서의 유익함을 말해 주고 있다.
- (3) 그리고 7-33절 부분은 9:18까지로 구성되는 15개의 충고적 교훈들의 서론 부분으로 지혜의 우월성을 보여 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지혜)의 근본이라'는 잠언의 목적을 보여 주고 있다.
- (4) 또한 덕(德)을 강하게 강조하고 악을 강하게 말리며, 참된 의미에서 지혜를 얻음이 모든 도덕적 노력의 목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2. ㉠ 본서의 표제(表題)는 무엇인가? (1절)

- ㉠ (1) 본서에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箴言)'이라는 표제(表題)가 붙어 있다.
- (2) 이러한 표제는 솔로몬이 직접 붙인 것이 아니라 후대의 편집자들이 본서를 편집하면서 본서의 전체 제목으로 붙인 것이 분명하다.
- (3)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로몬을 모든 현자(賢者)들 중에 가장 으뜸가는 사람으로 보았으므로 여러 현자들의 격언을 모은 본서를 대표하는 저자로 솔로몬을 내세우는 것이 당연하다(참조, 왕상 4:29-33).

3. ㉡ '솔로몬'이란 이름은 어떤 뜻을 지니고 있는가? (1절)

- ㉡ (1) '솔로몬'이란 이름은 '화평하다'란 뜻을 지니고 있다.
- (2) 이 이름은 솔로몬의 특성이나 통치 성격 모두에 부합되었다(참조, 대상 22:9).
- (3) 즉 그의 성격과 정치는 평화스러웠다. 따라서 그는 생애가 환난으로 가득하였던 다윗이 기도서를 저술한 것과는 달리, 교훈의 말들을 낼 수 있었다.
- (4) 이와 같이 성도들은 평화로운 시기에는 스스로 주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며 남들을 가르쳐야 한다(참조, 딤펴전 2:1-4).

4. ㉢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이었는가? (1절)

- ㉢ (1)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었다. 여기서 편집자가 솔로몬을 다윗의 아들이라고 묘사하여 그의 혈통을 밝히는 것에서 얻어야 할 영적인 교훈이 있다.
- (2)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다윗의 자손으로서(참조, 마 1:1; 계 22:16) 평화의 왕이시며(참조, 눅 2:14; 19:38) 그의 입을 열어 비유와 잠언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참조, 마 5:2; 13:35).
- (3) 이러한 면에서 솔로몬은 예수님의 구약적 예표라고 할 수 있으며 잠언의 말씀도 이러한 관점에서 주의하여 읽어 교훈을 얻어야 한다.

5. ㉣ 솔로몬은 어떠한 신분으로 잠언을 말하였는가? (1절)

- ㉣ (1)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무지한 자의 훈계자가 되고 어린아이의 선생이 되었다.
- (2) 특히 솔로몬은 이미 계시(啓示)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큰 이름으로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었다.
- (3) 그리하여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지혜를 배웠으며, 그 백성들에게 다시 그 지혜를 전달할 수 있었다.
- (4) 물론 이방 나라에서도 지혜자가 많았고 로마 황제들도 지혜를 사랑하여 각기 지혜로운 격언들을 자기의 좌우명으로 가지는 경우가 있었다.
- (5)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세상의 현자들에게 얻은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 아래서 천금 같은 금언(金言)들을 말하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지혜의 유산(遺産)을 남겨 주었다.
- (6) 오늘날의 성도들은 이러한 훌륭한 금언들을 유산으로 받은 자들로서 여기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지혜를 배워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참조, 마 10:16).

6. **㉠ 본서를 수집한 동기와 목적은 무엇인가? (2, 3절)**

- ㉠** (1) 그것은 지혜와 훈계(訓戒)를 알게 하여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公平)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이러한 말들은 '지혜를 얻기 위한 것'이라는 말로 압축될 수 있다.

7. **㉠ 본질의 '지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2절)**

- ㉠** (1) 지혜는 히브리어 <호크마>인데 근본적인 뜻은 '판단력'(지혜롭게 되다라는 말에서 파생됨), '인식을 위해 사물을 고정시킴' 또는 '꼭 짜임', '굳셈', '밀접함' 등이다.
 (2) 이 낱말이 헬라어로 기록된 70인역(LXX)에서는 <소피아>로 번역되었다. 그러나 <호크마>는 <소피아> 보다 훨씬 더 종교적이라는 차이점을 지닌다.
 (3) 즉 <호크마>는 단순한 과학적 지식 혹은 도덕적 철학적 지식이 아니라 종교적 지식 혹은 하나님께 대한 경건에서 발생하는 거룩한 통찰력을 나타낸다.

8. **㉠ 본질의 '훈계'(訓戒)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2절)**

- ㉠** (1) 앞에 나온 지혜가 지적인 의미, 즉 이론적인 성격을 지녔다면 '훈계'는 히브리어 <무사르>로서 실제적인 면, 즉 '교육' 혹은 '도덕적 훈련'을 의미한다.
 (2) 그런데 지혜와의 관계에 있어서 훈계는 지혜에 선행(先行)한다. 즉 지혜를 참으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훈계를 잘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3) 따라서 여기서는 비록 목적적으로 사용해서 지혜와 훈계를 동일하게 배열하였지만 훈계는 지혜에 이르는 준비적 단계인 것이다(참조, 4:13; 23:23).

9. **㉠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2절)**

- ㉠** (1) '명철'(明哲)은 히브리어 <비나>로서 '참과 거짓,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리킨다.
 (2) 여기서 명철의 말씀은 어떤 세상 현자의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참과 거짓,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모세의 율법을 말한다.
 (3) 따라서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것은 모세 율법에서 추구하는 본의(本意)를 깨닫게 한다는 말이다(참조, 마 22:34-40).
 (4) 그러므로 오늘날의 성도들도 성경에서 인간적인 교훈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되고 다만 성령께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본의(本意)를 깨닫도록 해야 한다(참조, 마 24:15; 눅 24:24; 요 8:43; 고전 2:12, 13; 골 2:1, 2).

10. **㉠ 3절은 그 뜻으로 보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 ㉠** (1) 본질은 그 뜻으로 보아 처음에 나오는 '지혜롭게'가 그 뒤에 나오는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를 다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2) 즉 '지혜' 안에는 의와 공평과 정직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세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11. **㉠ 지혜롭게, 즉 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행할 일은 무엇인가? (3절)**

- ㉠** (1) 사람이 행할 일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즉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이웃에 대한 의무이다.
 (2) 그런데 본절에서 '지혜롭게 행할 일'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
 (3)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현실 생활 가운데서 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행해야 한다.

12. **㉠ 본서가 주는 특별한 유익은 무엇인가? (4-6절)**

- ㉠** (1) 본서는 두 가지 점에서 특별히 유익함을 가지는데 한편으로는 어리석고 젊은 자에게

그들의 명철을 열어 확대시킴으로 그들의 걸어갈 인생 행로의 규칙들을 마련해 준다.

(2) 다른 편으로는 이미 지혜 있고 명철한 자에게 그들의 지식과 학식을 더함으로 현재 그들이 당면해 있는 이해하기 힘든 성질의 잠언, 수수께끼, 속담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그들보다 못한 자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게 하는 점에서 유익하다.

(3) 그러므로 성도들은 유무식(有無識) 혹은 남녀 노소(男女老少)를 불문하고 잠언을 많이 읽어서 인생 행로에 대한 바른 지혜의 빛을 가지고 또 더 넓혀서 어두움에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야 한다.

13. ㉠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學識)을 더할 것이요'와 유사한 표현 방법이 사용된 말씀은 신약 성경 중 어디에서 찾아 볼 수 있는가? (5절;9:9)

- ㉠ (1) 본절과 비슷한 용법의 표현을 신약 성경 중 예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2) 예를 든다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마 13:12)라는 말씀인데 이와 유사한 귀절이 마 25:29;막 4:25;눅 8:18 등에서도 발견된다.

14. ㉠ 어떠한 자가 모략(謀略)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가? (5절)

- ㉠ (1) 본절에 의하면 명철한 자가 모략을 얻을 것이라 했다.
 (2) 그런데 명철한 자란 언제나 지혜의 교훈을 받을 준비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이같이 명철한 자가 얻을 모략은 일생을 통하여 사람의 생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사려 깊은 격언들을 말한다.
 (4) 그리고 모략은 욥 37:12을 제외하고 본서에만 나타나는 말로 11:14;12:5;20:18;24:6엔 좋은 의미로, 12:5엔 나쁜 의미로 쓰였다.
 (5) 이와 같이 성도들은 항상 지혜의 교훈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그로 말미암아 얻은 모략은 일생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등불로 사용해야 한다.

15. ㉠ 지혜롭고 지성적인 사람의 학식과 명철의 증가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5, 6절)

- ㉠ (1) 그러한 증가는 마침내 다른 잠언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2) 즉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잠언, 비유적이고 함축성 있는 이야기, 지혜 있는 자(히, 리하감)의 말(참조, 22:17;전 9:17;12:11), 오묘한 말(수수께끼) 등을 이해하게 한다.
 (3) 그리고 이렇게 이해된 잠언들은 그들을 통해서 그들보다 못한 자들에게 설명이 되어서므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게 된다.
 (4) 이와 같이 성도들은 지혜에 장성한 자들이 되어서(참조, 고전 14:20) 다른 사람들을 지혜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충성된 자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딤후 2:2).

16. ㉠ 본서의 표어를 나타내는 명제(命題)는 무엇인가? (7절)

- ㉠ (1) 본서의 표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根本)'이라는 명제(命題)다.
 (2) 이 명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철학의 정수(精髓)로서 여기서부터 서론 부분의 마지막인 9:18까지 특수하고 독특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3) 이 명제는 9:10에 다시 나오며 여러 성문서(聖文書)에도 나타난다(참조, 욥 28:28;시 111:10;전 12:13 등).
 (4) 이러한 명제는 성도들의 인생 철학이 되어야 하며 삶의 지표가 되어야 한다.

17. ㉠ '여호와를 경외함'이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인가? (7절)

- ㉠ (1) 이 말은 사람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께 대해 가지는 존경하는 태도 혹은 거룩한 두려움을 뜻한다.
 (2) 그리고 본절의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하다', '존경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아레>의 부정사 <이르야>로서 '경외' 혹은 '거룩한 두려움'을 나타내지만 이것은 노예적인 비겁한 두려움이 아니라 자식으로서의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이다.

22 잠언 1장

- (3) 즉 하나님을 대적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며 악을 미워하는 것으로 묘사되는(참조, 8:13) 그런 두려움을 뜻한다.
- (4) 그리고 이 두려움의 지배적인 요소는 사랑인데 우리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되며 이러한 경외심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참조, 요 14:15).

18. ㉠ ‘근본’(根本)이란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7절)

- ㉠ (1) 이 말은 히브리어 <레쉬트>로서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 (2) 그 중 첫째는 ‘시작’, 즉 참된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시작해야 할 출발점, 둘째는 가장 고상하고 훌륭한 지혜(참조, 4:7), 세째는 ‘기원’ 또는 ‘기초’라는 의미이다.
- (3)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출발점이고, 가장 고상하고 훌륭한 지혜요, 지혜의 기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4) 따라서 지식으로 진보하고자 하는 자들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여 두려워하는 경외심에 사로잡혀야 한다.

19. ㉠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는 누구인가? (7절)

- ㉠ (1)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다.
- (2) 여기서 미련한 자란 완고한 자(27:22)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아니하는 자(렘 4:22) 그래서 지혜와 유익한 교훈을 멸시하고 충고와 책망을 무효로 돌리는 자를 가리킨다.
- (3)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것은 슬기로운 자(12:6), 지혜로운 자(10:14)의 반대 개념이다.
- (4) 우리는 여기서 본서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며 또한 미련한 자의 완고한 무지와 무식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이 미련한 자를 가르칠 때에는 특히 정신을 차려서 그들의 생태(生態)를 잘 파악하고, 성경은 그와 반대되는 개념인 지혜로운 자가 되는 길을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을 조심스레 교훈하여야 할 것이다.

20. ㉠ 본절에서 ‘내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8절)

- ㉠ (1) 본서의 대부분이 솔로몬의 저작이므로 혹자는 ‘내 아들’을 솔로몬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을 지칭한다고 한다.
- (2) 그러나 ‘아들’이란 말은 히브리어로는 <브니>로서 선생님이 그의 제자에게 흔히 사용했던 보호와 관심을 나타내는 호칭이다.
- (3) 이 말은 서론 부분에 많이 나오며(2:1; 3:1, 21; 4:10, 20; 5:1; 6:1; 7:1)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나타난다(23:15, 19, 26; 24:13, 21; 27:11). 한편 르무엘의 어머니는 부모 위치에서 이 말을 사용했다(31:2).
- (4) 따라서 솔로몬이 ‘내 아들’이라는 칭호를 사용한 것은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지혜의 말을 듣도록 보호와 관심을 가지고 부르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 (5) 오늘날에도 지혜자의 부름은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들은 세상의 복잡한 소리 때문에 이 부름을 듣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깨어 그 부름을 듣도록 노력해야 한다.

21. ㉠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자는 실생활에서 부모에게 어떻게 행하게 되는가? (8절)

- ㉠ (1) 보이지 않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랑하는 자는 실생활에서 그의 부모의 훈계와 양육을 잘 받고 부모에게 순종하게 된다(참조, 요일 4:20, 21).
- (2) 이러한 부모에 대한 순종은 십계명 중 둘째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상의 현실적인 삶에서 드러나야 할 성도들의 지혜로운 삶의 방식을 대표하는 내용이다.
- (3) 왜냐하면 아버지의 훈계와 어미의 법은 그 자녀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준수해야 할 것들을 교훈하며, 세상의 삶이 의와 공평과 정직으로 행해지려면(3절)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

는 교훈이기 때문이다.

- (4) 따라서 솔로몬은 여호와 경외를 먼저 말한 후 바로 이어서 부모의 훈계에 순종할 것을 아들, 즉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부모의 훈계를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엡 6:2, 3).

22. ㉠ 8절의 교훈을 이스라엘 가정의 자녀 교육 풍습과 관련지어 설명하라.

- ㉠** (1) 본절에는 자식이 그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그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다.
- (2)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훈계는 훈계적인 실제 생활의 교육을 말하는 것으로(참조, ㉠ 8) 아버지에게 속하고 율법(토라) 교육은 어머니에게 속하였다.
- (3) 여기서 우리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양친(兩親)의 상호 협조가 매우 긴밀하게 요청됨을 알 수 있다.
- (4) 그리고 그 교육의 이론적 근거는 인간이 만들어 낸 어떤 학설이 아니라 인간의 창조주 이신 하나님께서 계시(啓示) 하여 주신 법이어야 함도 알 수 있다.
- (5) 따라서 성도들은 자녀를 교육시킬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한편으로는 사랑과 부드러움으로 또 한편으로는 엄격함을 겸비해서 양육해야 한다(참조, 엡 6:4).

23. ㉠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은 순종하는 자식에게 어떤 것이 되는가? (9절)

- ㉠** (1) 그것은 머리를 장식하는 아름다운 관이 되고 목의 금사슬이 된다.
- (2) 이것은 장식물과 보석이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것처럼 부모의 지혜로운 양육을 잘 받아 순종하는 자녀의 도덕적 성품이 아름답게 되어 이웃의 칭찬을 받게 될 것을 말한다.
- (3) 이것은 베드로가 '외모를 꾸미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은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참조, 벰전 3:3, 4)는 말씀과 견주어 생각되어야 한다.

24. ㉠ 지혜자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피하라고 권면하는 것은 무엇인가? (10-19절)

- ㉠** (1)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한 자의 꼬임을 피하라는 것이다.
- (2) 세상에서 지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쫓아가야 할 것이 있고 피해야 할 것이 있는데 여기서 악한 자의 꼬임을 피해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권면을 강조한다.
- (3) 성도들은 세상에서 살면서 선과 악이 혼합해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악한 자의 세력과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참지혜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한다(참조, 고전 1:24).

25. ㉠ '악한 자'는 어떤 자를 가리키는가? (10절)

- ㉠** (1) 여기서 '악한 자'는 습관적으로 범죄하는 자를 가리킨다. 이들은 상습적으로,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죄를 짓는 버림 받은 죄인이다.
- (2) 이들은 자신들을 죄에 내어 줄 뿐만 아니라 타인까지 거기 가담하도록 유혹한다.
- (3) 성도들은 이러한 악한 자의 전형(典型)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케 한 뱀, 즉 사단인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참조, 창 3:1-5; 계 12:9).

26. ㉠ 악한 자는 어떤 일을 하는가? (10절)

- ㉠** (1) 악한 자는 꾀는 일을 한다. 여기서 꾀는 말은 달콤한 말로 그 권유를 따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2) 이와 같이 악한 자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꾀는 일을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참조, 고후 11:14, 15).
- (3) 그러므로 소극적으로 악한 자의 꾀임에 대처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지혜의 훈계를 좇아 대처함으로써 그 유혹을 대적해야 한다(참조, 약 4:7).

27. ㉠ 악한 자가 유혹하는 말의 내용은 무엇인가? (11-14절)

- ㉠** (1) 그 유혹의 내용은 남의 눈을 피해서 함께 공모(共謀)하여 무죄한 피를 흘리고 보화를 약탈하여 그것을 공동으로 나누어 갖자는 것이다.

24 잠언 1장

- (2) 이렇게 악한 자는 범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가해질 피해나 아픔을 생각지 않고, 자기편의주의로 상대방이야 어떻게 되든지 자기만 잘살면 된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
- (3) 이러한 사상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인 악한 사단을 그 시조(참조, 요 8:44, 45)로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 흔하게 찾아 볼 수 있는 것들이다.
- (4) 성도들은 이러한 사실에 주의하여 악한 자의 꾀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28. ㉠ 이러한 악한 자의 유혹에 대하여 지혜자는 어떤 권고를 되풀이하는가? (15절)

- ㉠ (1) 지혜자는 다시금 관심과 사랑을 표시하면서 어리석은 자의 길, 즉 악한 자의 생활과 행동 방법을 본받지 말 것을 권고한다.
- (2) 이러한 권고는 적극적이어서 발을 금하며 그 길을 밟지 말라는, 즉 유혹의 시초에서부터 악을 철저히 거절할 것을 권고한다(참조, 시 119:101).
- (3) 그리고 ‘발을 금한다’는 말로써 인간의 자연적 경향이 악을 향해 있음을 암시한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인간이 범죄한 후에 선보다는 악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음에 주의하고 적극적으로 유혹의 시초에서부터 악을 멀리함으로 악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참조, 살전 5:22).

29. ㉠ 지혜자의 두번째 교훈은 어떤 문장 기교를 사용하고 있는가? (20-33절)

- ㉠ (1) 이 부분에서는 (20-33절) 수사학적(修辭學的) 문체와 의인법(擬人法)을 사용해서 교훈을 하고 있다.
- (2) 지혜가 어리석은 자, 멸시하는 자, 미련한 자들에게 말을 하며 교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3) 이 교훈은 가장 고상한 설교류 중에 하나이며, 풍부한 약속과 더불어 애절한 근심, 거절한 자에 대해 분개하는 경멸, 범죄자에 대한 심판의 엄격함,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는 만족함 같은 강한 감정적인 면을 나타내 주고 있다.

30. ㉠ 지혜가 설교하는 곳은 몇 군데나 되는가? (20, 21절)

- ㉠ (1) 저자는 여기에서 지혜가 설교하는 장소를 다섯 군데나 열거하고 있다.
- (2) 즉 ①길거리에서 ②광장에서 ③흰화(喧譁)하는 길 머리에서 ④성문 어귀에서 ⑤성 중에서 등이다.
- (3) 이러한 곳들은 모두 공중이 모이는 장소로서 그의 지혜가 대중성(公衆性)을 지녔음을 말해 준다(참조, 8:1; 9:3).
- (4) 이러한 교훈의 대중성은 장소의 대중성과 더불어 주님과 제자들의 공적(公的)인 전도를 연상케 한다(참조, 마 10:27).
- (5) 이와 같이 지혜는 모든 사람이 듣도록 전파되어지고 있는 것을 명심하여 그 소리에 주의해야 한다(참조, 행 17:11).

31. ㉠ ‘흰화(喧譁)하는 길 머리’는 어떤 곳인가? (21절)

- ㉠ (1) 본절에서 ‘흰화하는’이란 말은 히브리어(호미요트)로서 ‘소요(騷擾)를 일으키는’, ‘소란한’이란 뜻이며 또한 ‘길 머리’의 ‘머리’는 길이 사방으로 갈라지는 중심부를 뜻한다(참조, 8:2; 창 2:10; 겔 16:25).
- (2) 따라서 ‘흰화하는 길 머리’란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길 머리로서 대단히 시끄러운 곳을 말한다.

32. ㉠ ‘성문 어귀’는 어떠한 용도(用途)로 사용되었는가? (21절)

- ㉠ (1) 성문 어귀는 성문의 입구로서 여러 용도(用途)로 사용되었다.
- (2) 즉 재판 장소(참조, 신 16:18; 삼하 15:2)로 사용되었고, 사무도 보았고, 토지의 매매와 측량도 행해졌으며(참조, 창 23:10-16; 룻 4:1), 시장과 회의 장소로도 사용되었다(참조, 창 34:20, 21; 왕하 7:1-18; 대하 18:9; 렘 17:19, 20).

(3) 이처럼 사람이 봄비는 곳인 성문 어귀에서 지혜는 선지자와 교사들을 통해 그 뜻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였다.

33. Q 지혜는 누구에게 초대와 약속의 말을 하고 있는가? (22, 23절)

- A** (1) 본절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는 지혜 자신의 말을 그대로 옮기고 있는데 이제 지혜가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에게 그 잘못된 데서 돌이키라는 초대와 그러면 지혜의 신(神)을 부어 주리라는 약속의 말을 하고 있다.
- (2) 그런데 이 표현 방법에 있어서는 시4:2과 같은 방법으로 시작하면서, 그 순서에 있어서는 시1:1과 같이 가장 적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가장 큰 비난으로 나아간다.
- (3) 즉 ‘어리석은 자’는 생각이나 사려가 부족한 자로서 악에 유혹받기 쉬운 자를 말한다.
- (4) 또한 ‘거만한 자’는 세속적인 것이나 거룩한 것이나 모두 조롱하는 태도를 취하며 하나님의 충고를 멸시하고 경고와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다(참조, 29:8).
- (5) 또한 미련한 자는 고집세고 완고한 자,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자, 지식에 대해 무지하며 그것이 자기를 구속하므로 이를 미워하는 자이다(참조, 17:10; 26:3, 4).
- (6) 오늘날 성도들은 위에 열거된 자들의 부류에 ‘자기가 들어 있지 않다고’ 장담할 수 없으므로 이 지혜의 말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임을 명심하자.

34. Q 지혜가 말하는 초대와 약속의 말은 무엇인가? (23절)

- A** (1) 지혜가 말하는 초대는 회개하라는 것이고 약속은 회개할 때에 성령을 주셔서 지혜의 말을 깨닫게 되리라는 것이다.
- (2) 그런데 ‘나의 신을 부어 주며’에서 ‘부어 주며’는 히브리어로 <히비아>로서 ‘붓다’, ‘용솟음쳐 나오게 하다’는 뜻인데 성령의 유출이 샘물이나 온천에서 뿜어 나오는 물처럼 풍부하고 힘차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이다(참조, 욕 2:28).
- (3) 본절에서 우리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면에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행 2:38, 39)고 말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생각할 수 있다.
- (4) 이와 같은 초대와 약속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이다.

35. Q 초대와 약속의 말에 이어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24-27절)

- A** (1) 초대와 약속의 말 (22, 23절)에 이어서 준엄한 책망과 심판의 말이 나온다.
- (2) 즉 지혜는 악인들에게 가장 부드럽고 간절한 말로 불려도 듣기를 거절하였으며, 손을 펴서 주의를 끌려해도 돌아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말라는 권고를 거절했다고 책망한다.
- (3) 그리고 지혜는 악한 자들의 재앙의 날에 조롱하고 비웃을 것인데 악인은 그날에 엄한 중벌(재앙, 두려움, 광풍, 폭풍, 슬픔, 근심 등)을 만날 것이라고 말한다.
- (4) 성도들은 이러한 준엄한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대할 때 위협받는 자리에서 서지 않고 오히려 지혜와 함께 악한 자들을 비웃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참조, 시 2:4).

36. Q 28-31절 사이에서는 표현상 어떤 변화가 있는가?

- A** (1) 27절에서는 지혜가 상대방을 2인칭으로 부르다가 28-31절까지 3인칭으로 바꾸어 변화적 강세를 취하고 있다(개역 성경에서는 계속 2인칭으로 표현함).
- (2) 이러한 것은 저자가 어리석은 자는 인격적으로 사람 대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것을 나타내 준다.
- (3) 그리고 이 부분은 26절의 웃음과 비웃음을 더 상세히 밝힌 것인데 28절의 세 동사 ‘부르리라’, ‘찾으리라’, ‘만나리라’는 드물게 나오는 표현으로서 뜻을 강조하는 수법이다.

37. Q 재앙의 때에 악한 자들이 부르짖으면 지혜는 어떻게 하리라고 말씀하는가? (28절)

- Ⓐ (1) 악한 자들이 재앙으로 인한 슬픔과 근심으로 먼동이 틀 때부터 나아가 열성적으로 부르짖고 기도하여도 지혜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해 대담도 안 하고 관심도 보이지 않으리라고 말씀한다(참조, 요 7:34).
- (2) 이러한 것은 죄인들의 부르짖음에 대해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죄인들이 은혜의 때에 들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다(참조, 눅 13:24-28).
- (3) 여기서 성도들은 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며 사랑이 풍성한 분이시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인간들의 마음대로 좌지 우지(左之右之)할 수 없는 분이시며 절대 주권자로서 은혜를 베푸실 때가 따로 있기 때문에(호 10:12; 고후 6:2) 아무때나 기도를 한다고 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참조, 고후 6:1, 2).

38. ⓐ 인간이 형벌을 받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31절)

- Ⓐ (1) 본질은 악한 자들의 이러한 재앙이(24-28절) 자신들의 잘못의 결과임을 보여 준다.
- (2) 여기에 나타나는 진리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도(참조, 14:14; 22:8; 욥 4:8; 사 3:10, 11; 갈 6:7, 8) 나타나고 우리들의 일상 경험과도 부합(符合)한다.
- (3) 이와 같이 악한 자들도 피를 내어서 지혜롭게 산다고 하지만 그들은 그 피로 인해 속고 자기 행위의 열매, 즉 재앙을 만나 멸망을 당할 것이다.
- (4) 따라서 일반적으로 인간이 형벌받을 때 그 책임은 인간 자신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39. ⓐ 지혜는 어떤 말로 교훈을 마치고 있는가? (32, 33절)

- Ⓐ (1) 지혜는 어리석은 자의 멸망과 순종하는 자의 안전함을 비교하며 그의 교훈을 끝맺는다.
- (2) 악한 자의 거짓 안전과 의로운 자의 참된 안전과 평화를 대조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악한 자의 길을 버리고 의로운 자의 길을 가도록 교훈하는 것이다.

40. ⓐ 미련한 자를 멸망케 하는 것은 무엇인가? (32절)

- Ⓐ (1) 미련한 자를 멸망케 하는 것은 미련한 자의 안일(安逸)이다.
- (2) 그런데 ‘안일’은 히브리어 <살와>로서 여기서는 나쁜 의미로 쓰였는데 ‘부주의함’, ‘나태’, ‘부와 세상적 성공이 가져다 주는 일시적인 안전함’(참조, 렘 22:21)을 의미한다(참조, 17:1; 시 122:7에서는 ‘고요함’, ‘안전함’ 등의 좋은 의미로 쓰였다).
- (3) 이와 같이 사실 인간은 역경보다는 순경(順境)을 견디기가 어려운데 그 이유는 인간을 부패케 하는 것이 그 가운데 있으므로 지혜자가 아니면 순경(順境)이 오히려 인간을 망하게 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 (4) 이와 같은 사실을 예수님께서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참조, 눅 12:16-21)에서 설명하고 있다.
- (5) 따라서 성도들은 평안할 때 그 기회를 잘 사용해야지 미련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은 잊어버리고 안일에 빠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참조, 살전 5:2-6).

41. ⓐ 지혜를 듣고 청종(聽從) 하는 자는 어떻게 살 수 있는가? (33절)

- Ⓐ (1) 지혜를 듣고 청종하는 자는安然(晏然)히 살고 재앙에 대한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다.
- (2) 즉 지혜의 충고와 초청을 거절하는 자들이 심판과 멸망을 자취하는 반면 지혜의 말을 듣고 즐겨 순종하는 자들은 최고의 복을 받게 된다.
- (3) 그런데 본절에서 ‘안연히 산다’는 말은 신 33:12-18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임을 표시하는 말씀이다.
- (4) 또한 이 말은 현세의 안전함을 넘어서 의인이 누리는 영적인 평안함을 가리킨다.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부활을 기다리는 안연함을 묘사하는 데 사용했다(참조, 시 16:9).
- (5) 그리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다’는 말은 재앙에 대한 두려움에서도 해방을 받는 것으로 여기서 오는 평안은 최고의 평안이다.

- (6) 성도들은 이런 지혜를 청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된다(참조, 미 6:9; 롬 11:33; 고전 1:24; 골 2:3; 약 3:17).

화보자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 아래의 사진은 현인(賢人)으로 이름을 떨쳤던 솔로몬 왕의 모습으로서 샤프트르 대성당의 유리창에 새겨져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이다.



솔로몬의 지혜는 그 누구도 따를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것이어서 사베안 왕국(the Sabeans)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시험해 보려고 아라비아에서까지 왔었을 정도였다(왕상 10: 1). 이러한 솔로몬은 수많은 잠언과 시편을 지었는데 그 수효는 잠언이 3,000이며 노래가 1,005이었다(왕상 4: 32).

연구자료

바람직한 기독교인의 가정

본서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간에서 형성되는 여러 관계에 대하여 종종 언급하고 있다(5:18;15:20;22:6). 이 같은 언급들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의 사랑과 교육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제시해 주는 규범인데 이러한 말씀들은 오늘날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오늘날에는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이 해체되고 이로 말미암아 인격적, 정신적 결함을 지닌 자녀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환경에서 성장하며 심하게는 사회에의 부적응 상태에 빠지게 되는 사례가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은 대다수가 다시 결혼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은 결국 성경적인 가정관이 정립되지 못한 데서 오는 필연적인 결과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고는 이러한 사회 병리 현상의 원인이 되는 가정의 분열과 해체를 막고 나아가서는 바람직한 기독교인의 가정상을 제시하여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갖는 고귀함과 아름다움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한다.

1. 가정에 대한 성경적 근거

가정의 기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연유한다. 창2:18-24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돕는 배필, 즉 여자를 지으시고 두 사람을 하나 되게 하셨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창2:24)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서 가정은 신적 기원을 갖는 귀한 집합체가 되었다. 가정은 남녀간의 결혼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결혼은 성경에서 귀하고(히 13:4) 축복받은 것(18:22)으로 인정된다. 결혼은 남녀가 한 몸을 이루는 것(마 19:5)이며 자녀를 얻는 합법적인 수단(창 1:28;시 127:3)이자 정당한 성생활을 갖는 길(5:15-19;고전 7:2-9)이다. 한편 성경에는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부부 관계로 묘사되어 있으며(사 54:5) 그리스도와 교회가 남편과 아내로 표현되어 있다(엡 5:23-25). 이는 결혼으로 인해 맺어지는 가정이 얼마나 성스러운 결합인가를 단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는 예이다.

2. 남편과 아내

가정의 최소 단위는 부부이다. 부부는 가정을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고 기쁨을 주며 평안을 주는 장소로 가꾸어 나가야 할 책임을 진다. 또한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과 의무를 지는데 그 바탕은 신앙과 사랑이다. 즉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과 관용을 베풀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주며(참조, 엡 5:28;골 3:19)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기꺼이 수고할 수 있어야 한다(참조, 전 3:13). 그리고 아내는 집안 일을 잘 보살피고(31:27) 남편에게 순종하여(엡 5:22;벧전 3:1) 가정의 평화와 화목을 유지할 수 있게

꿈 해야 한다. 이렇게 서로간에 사랑과 봉사의 책무를 지는 것은 결혼에 수반되는 의무라기 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채방을 받지 않게 하려는' (딤후 2:5) 배려라고 할 수 있다.

3. 부모와 자녀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가정은 보다 복잡적이고도 깊이 있는 규범을 필요로 하게 된다. 왜냐하면 자녀를 기르는 일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엄한 개체를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도록 (엡 4:13-15) 교육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먼저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교육해야 한다 (엡 6:4). 어린 자녀들은 아직 미성숙하여 그 영혼과 인격이 상처 받기 쉽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높은 기대를 걸고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상요하는 행위, 부모들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자세, 혹은 자녀의 입장과 개성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 편애 (창 25:28; 27:3), 무관심 등은 자녀로 하여금 분노와 비통, 낙심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참조, 골 3:21).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가 자신들의 소유물이 아니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귀한 개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 올바른 신앙 인격을 지닌 성숙한 인간으로 자라도록 교육하고 (22:6) 권면하고 (살전 2:11, 12) 징계하며 (13:24; 19:18) 기도해야 한다 (마 17:15; 막 7:26). 한편 이와 마찬가지로 자녀들에게도 부모에 대한 공경과 순종의 의무가 있다 (엡 6:1-3; 골 3:20). 또한 자녀들은 바른 품행과 정직함으로써 (20:11)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 (10:1; 15:20; 23:24).

4. 사랑, 대화, 관심, 책임

현대의 복잡한 생활은 가족간의 유대를 늦추어 놓았다. 그래서 가정의 소속원들은 저마다의 일에 쫓기어 가정에 쏟아야 할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빼앗기고 있다. 당연한 결과로 가족은 서로 무관심해지며 청소년 범죄는 증가하고 성적인 문란이 보편화된 시대가 되고 말았다. 이런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부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 즉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서로가 사랑 가운데 관심을 갖고 작은 일에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대화를 나누며 의논하고 다른 가족에 대한 자신의 인격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지녀야 한다. 이러한 가정이야말로 신뢰가 있으며 기쁨과 안식이 있게 마련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상과 같은 바람직한 가정을 갖는 것은 작게는 한 가정의 기쁨이며 크게는 타락한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기쁨을 전하는 귀한 일이다.

제 2 장 구하고 찾으라

단락구분 1-9 지혜를 구하고 찾으라 / 10-19 지혜가 악한 자에게서 너를 건진다 / 20-22 지혜가 선한 자의 길로 행케 한다

1 내 아들이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제명을 네게 간직하며

2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3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4 은을 구하는 것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같이 그것을 찾으면

5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6 대저 여호와와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7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8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9 그런즉 네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10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11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12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 내리라

13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14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기워하나니

15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16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제집에게서 구원하리니

17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18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19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20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21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22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쾌활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1. ㉠ 본장에 나타나 있는 교훈들은 주로 어떠한 것들인가?

- ㉠ (1) 본장은 전반부(1:7-9:18)에 기록되어 있는 15개의 교훈 중 세번째 교훈에 해당된다.
 (2) 이러한 본장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첫 부분에서는(1-9절) 지혜를 추구하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이 의인에게 지혜의 근원과 보호와 안전의 보장이 되심을 알게 되리라고 말한다.
 (3) 그리고 둘째 부분에서는(10-17절) 지혜의 소극적 유익성, 즉 지혜가 악의 길에서, 파괴적인 욕욕과 정욕에서, 악한 남자와 여자들의 유혹에서부터 구하여 줌을 말한다.
 (4) 마지막 부분에서는(20-22절) 결론적으로 격려와 경고의 말을 하고 있다.
 (5) 이와 같이 본장은 지혜를 진실되고 간절하고 끈기 있게 추구하는 데서 오는 유익으로 말함으로 지혜를 구하여 찾으라고 권한다.

2. ㉠ 1절의 '만일'은 문장 중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 ㉠ (1) 본절의 '만일'은 조건을 나타내는 말로서 4절까지의 조건절을 인도하며 5-9절에 나오는 약속들의 전제가 되고 있다.
 (2) 그런데 '만일'로 인도되는 조건절은 단계적으로 그 내용이 강조되다가 4절에 이르러서 그 절정을 이룬다.

3. ㉠ 지혜자는 그의 제명(誠命)을 어떻게 하라고 권고했는가? (1절)

- Ⓐ (1) 지혜자는 먼저 그의 말을 정중히 받고 그의 계명(誠命)을 듣는 자로 하여금 간직하라고 권했다.
- (2) 그런데 본절에서 '간직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싸판)인데 보화를 은밀한 장소에 숨겨 두거나 저장해 두는 것으로서 본절에서는 '저장한다'는 뜻으로 쓰였다(참조, 7:1;10:14;13:22).
- (3) 이러한 것은 지혜가 그만큼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함부로 취급하면 아무런 유익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혜자의 소리를 잘 듣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보물을 보관하듯 마음에 잘 간직해야 한다.
4. Ⓢ 간직한 지혜자의 말과 명령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2절)
- Ⓐ (1) 지혜를 얻으려면 귀중하게 간직한 말씀들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계속 마음을 두고 묵상해야 한다.
- (2) 본절에서 '귀를 기울인다'는 말은 귀를 세워 지혜를 열심히 경청하는 것을 말하며 '마음을 명철(明哲)에 둔다'는 말은 마음을 다해서 겸손하고 열성적으로 명철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말한다.
- (3) 즉 1절은 단순히 지혜의 말을 받고 간직하는 소극적인 일면을 묘사한 반면 2절은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쏟는 적극적인 자리로 일보 전진해야 함을 말한다.
- (4)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는 들려오는 말씀을 피동적으로 대하는 자리에서 한걸음 앞으로 나아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들으려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참조, 행 17:11).
5. Ⓢ 적극적으로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그 다음은 어느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가? (3절)
- Ⓐ (1) 그 다음은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는 데로 나아가야 한다.
- (2) 그런데 본절에서 '불러 구한다', '소리를 높인다'는 것은 지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간절함이 있어야 할 것을 나타낸다.
- (3) 이러한 간절함은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로서 표현된다(참조, 약 1:5).
6. Ⓢ 지혜자는 이제 결정적으로 지혜를 추구하는 데 있어 어떠한 자세를 취하라고 권고하는가? (4절)
- Ⓐ (1) 본절은 1절부터 계속되던 조건절의 절정 부분인데 지혜자는 여기서 지혜를 추구하되 광부가 금을 캐듯 끈기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마음을 풀지 말고, 부지런히 찾으라고 권하고 있다.
- (2) 그런데 지혜의 추구를 감추인 보배를 찾아내는 일에 비유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 늘 있는 일이었다(참조, 욥 28:1-28).
- (3) 왜냐하면 지혜는 인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인간 밖에서 얻어야 할 것인데 이 지혜는 금이나 은 같은 귀중한 보배와 같아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지혜의 가치를 바로 평가하고 지혜를 추구하되 금을 캐듯 온갖 노력과 힘을 다 기울여 오래 참으면서 긴장을 풀지 말고 부지런히 찾아야 한다.
7. Ⓢ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는 마침내 무엇을 얻게 되는가? (5절)
- Ⓐ (1)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는 마침내 지혜를 얻게 된다(참조, 마 7:7).
- (2) 본절의 '깨달으며'는 분별력을 의미하나 이 말은 한걸음 더 나아가 마치 발견한다는 것이 곧 소유한다는 뜻을 지닌 것처럼 영적인 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는 것을 가리킨다.
- (3) 그리하여 참지혜인 '여호와 경외하기'를 소유하게 된다. 즉 여호와의 진정으로 경외하게 되니 이것이 지식의 근본이며 생명의 원천이다(참조, 1:7;15:27).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그의 모든 인격(人格)을 기울여 지혜를 찾을 때 지

혜, 즉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하신다(참조, 마 7:7-12).

8. **㉠** ‘여호와 경외’와 ‘하나님 지식’ 사이에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5절)

- ㉠** (1) 본절에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는 문자적으로는 ‘하나님 지식을 알게 되리니’로서 ‘하나님 지식’은 단순히 하나님을 안다는 정도가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리킨다.
 (2) 그러므로 ‘여호와 경외’와 ‘하나님 지식’은 서로 대용(代用)될 수 있는 말이다.
 (3) 그러나 전자(前者)가 없이 후자(後者)가 있을 수 없고, 후자(後者)가 있을 때 전자(前者)는 더욱 깊어질 것이다.
 (4) 여기서 참지혜는 신앙과 지식을 분리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요소 모두를 포함하고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9. **㉠** 지혜는 누가 주시는 것인가? (6절)

- ㉠** (1) 지혜자는 지혜를 주시는 유일한 참된 근원이 여호와임을 밝히고 있다. 즉 지혜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이다.
 (2) 따라서 세상의 모든 지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런 까닭에 바울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후 1:25)라고 역설하였다(참조, 시 104:24; 롬 11:33).
 (3) 그러므로 지혜를 구하는 자는 다른 자에게 갈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와야 한다(참조, 약 1:5-7).

10. **㉠** 여호와께서는 무엇을 통해 지식과 명철을 내시는가? (6절)

- ㉠** (1) 본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의인화(擬人化)되어 사람같이 입을 가지고 그 입을 통해 지식과 명철을 내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2) 그러나 영(靈)이신 하나님이(참조, 요 4:24) 입을 가지고 계실 리 없다.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매개로 하여 지혜를 전달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3) 이와 같이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사람에게 지혜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 지혜를 사람이 알 수 있게 하시는 살아 계신 분이심을 기억하자.

11. **㉠** 여호와께서는 어떤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는가? (7절)

- ㉠** (1) 여호와께서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2) 여기서 정직한 자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자기의 유한성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이다.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예비하셔서 성도들로 참지혜를 얻게 하시니 성도들은 정직하게 자신이 피조물 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정직한 자가 되어 지혜의 삶을 살아야 한다(참조, 마 6:32-34).

12. **㉠** ‘행실(行實)이 온전한 자’는 어떤 자를 가리키는 말인가? (7절)

- ㉠** (1) 본절에서 ‘행실이 온전한 자’라는 말은 옳은 원칙을 따라 통제를 받으며 옳은 목표하에서 지도받는 생활을 하는 자를 가리킨다.
 (2) 즉 여호와 경외를 생활 원리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生)의 규칙으로 삼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그의 삶의 목표로 삼고 사는 자이다.

13. **㉠** 하나님께서는 행실(行實)이 온전한 자에게 무엇이 되시는가? (7절)

- ㉠** (1)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사는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防牌)가 되신다.
 (2) 이런 진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그 한 예로 창 15:1에도 ‘나는 너의 방패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격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3) 또 다른 곳에서도 ‘여호와’를 성도의 방패라고 부르는데(참조, 시 33:20; 84:11; 89:18; 144:2) 이는 여호와께서 악한 자의 사나운 창살과 같은 공격을 막으시며 성도들을 안

전하게 지키시기 때문이다.

(4) 따라서 문제는 오늘날 성도들이 어떠한 자가 되느냐에 있으니 세상을 좇지 말고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행실이 온전한 자가 되자(참조, 마 5:48).

14. **㉠ 여호와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지혜를 찾은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가? (8절)**

㉠ (1) 여호와께서는 공평(公平)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保全)하심으로 지혜를 찾은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2)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길은 사특한 것과 악한 것을 떠나서 정직하고 선한 것을 추구하는 길인데 이 세상은 악한 자들의 세력이 여전히 잔존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혜를 찾은 자는 세상의 악한 것과 부딪칠 수밖에 없다.

(3)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공평(公平)의 길로 인도하시고 의로운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시면서 악에게 지지 않도록 방패와 같이 악한 자들의 계계를 막으시고 그것들을 꺾으신다.

(4) 그러므로 성도들은 방패되신 여호와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지혜를 좇아 정직하고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15. **㉠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공평의 길과 거룩한 성도의 길을 갈 때에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9절)**

㉠ (1) 지혜를 따라 공평과 거룩한 성도의 길을 갈 때 그 길이 선한 길임을 깨닫게 된다.

(2) 즉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게 있어 바른 것이요, 의로운 것이요, 정직한 것임을 더욱 확신하며 살게 된다.

(3) 여기서 지혜가 사람에게 주는 은혜의 완전성이 나타난다.

(4) 이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인생에게 마땅하며 약속이 있는 옳은 길인데 미련한 자는 이러한 길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

16. **㉠ 지혜를 구하여 찾은 자에게 지혜가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10-19절)**

㉠ (1) 지혜는 그 찾은 자에게 참즐거움이 있게 하고 악한 자들(12-15절)과 음녀(16-19절)의 간계(奸計)로부터 구원해 주는 유익을 준다.

(2) 즉 더욱 선을 행하게 하여 그 영혼으로 즐거워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고 악한 자들의 유혹을 피하게 하여 바른길로 행케 한다.

17. **㉠ 지혜가 그 마음에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능력이 생기는가? (11절)**

㉠ (1) 지혜가 사람의 마음에 거하게 되면 근신(謹慎)과 명철의 능력이 생긴다.

(2) 그런데 본절에서 말하는 ‘근신’(謹慎)이란 지혜로 말미암아 외적으로 나타나는 능력을 뜻하는데 불확실한 것을 검사하며 위험을 피하게 하는 힘이 있다(참조, 1:4).

(3) 또한 명철은 어느 것이 최선인가를 결정기 어려운 고민 가운데서 분별케 하며 결정케 하는 능력을 말한다.

18. **㉠ 근신과 명철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가? (11, 12절)**

㉠ (1) 근신과 명철은 지혜를 찾은 자를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지키며 보호한다.

(2) 여기서 악한 자의 길은 근본적으로 여호와를 떠난 악한 행위의 생활 방식을 말하고 패역을 말하는 자는 고의적으로 선하고 참된 것을 곡해시키는 자를 말한다.

(3) 이러한 악한 생활 방식과 완고하고 자행 자지(自行自止)하는 거만한 자들의 정신이 오늘날 극도로 팽배해 있으므로 성도들은 그런 것들이 악한 것이고 패역한 것이라고 인식하기조차 어렵다.

(4) 그러나 본절에서와 같이 지혜가 주는 근신과 명철은 아무리 혼잡하고 혼란한 시대에서도라도 분별력 있게 바른길을 가게 함으로 성도들은 정신을 차려서 지혜를 얻는 데에 힘

을 써야 한다(참조, 빌 2:13-15).

19. **㉠** ‘패역’ (悖逆) 은 어떤 뜻인가? (12절)

- ㉠** (1) 본절에서 ‘패역’ (悖逆) 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타푸코트>는 ‘돌아서다’, ‘벗어나게 하다’ 라는 뜻을 지닌 <할라크>에서 파생된 말로 ‘심술궂음’ 이라는 뜻을 지녔다.
- (2) 그런데 ‘심술궂음’ 은 선하고 참된 것을 고의적으로 고해하는 것이다.
- (3) 이 말은 언제나 복수형으로 나오는데 신 32:20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을 적용시켰으며 본서에서는 자주 인용되어 8:13엔 ‘패역한 입’, 10:31엔 ‘패역한 혀’, 16:28엔 ‘패려한 자’ 란 말로 나온다.

20. **㉠** 악한 자와 패역을 말하는 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13, 14절)

- ㉠** (1) 그들은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는데, 행악하기를 기뻐하고 악인의 비뚤어진 것을 즐거워하는 특징을 가진다.
- (2) 즉 여기서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할 수 없어서 억지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행악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 (3)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의하여 이런 악한 자들의 일을 벗어버려야 한다(참조, 롬 13:12-14; 엡 5:11).

21. **㉠** 13절에서는 어떠한 수사법을 사용하고 있는가?

- ㉠** (1) 본절에서는 ‘정직한 길’ 과 ‘어두운 길’ 을 대조하는 대조법을 쓰고 있다.
- (2) 그렇게 하여서 지혜를 소유하고 그 인도를 받아서 사는 자의 삶과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의 떠나서 사는 자의 삶의 차이를 현저하게 드러내고 있다.

22. **㉠** 지혜는 또 어떠한 악에서 지혜를 얻은 자를 구원하는가? (16절)

- ㉠** (1) 지혜는 또 청년 시기에 오는 가장 큰 위험인 음녀(淫女)와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지혜 얻은 자를 건져 준다.
- (2) 이들 음녀와 이방 계집은 모두 다 정당한 결혼 관계를 떠나서 불의의 교제를 즐기도록 유혹함으로써 공의의 길로 가게 하는 지혜는 이러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혜를 얻은 자를 구한다.
- (3) 그러므로 성도들은 지혜를 따라 불의의 욕심에서 벗어나야 한다.

23. **㉠** 구약의 인물 중 이방 계집의 호리는 말에서 지혜로 말미암아 건짐 받은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인가? (16절)

- ㉠** (1) 그는 야곱의 열 한번째 아들인 요셉이다.
- (2) 요셉은 물론 솔로몬이 태어나기 훨씬 전의 인물이지만(B. C. 1915-1805) 이방 땅인 애굽에 종으로 팔려 가서도 여호와만 경외한 참지혜자였다(참조, 창 39:1-6, 9).
- (3) 그리하여 요셉은 호리는 말로 유혹하는 보디발의 처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였다(참조, 창 39:7-12).
- (4) 물론 요셉이 그 유혹을 거절함으로써 당한 그 후의 시련과 영광을 오늘날의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지혜의 길이 결코 세상적으로 평탄하지만은 않은 것을 명심해야 한다(참조, 약 5:10, 11).

24. **㉠** 본절에 ‘하나님의 언약’ 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 (17절)

- ㉠** (1) 본절은 16절의 음녀(淫女)와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
- (2) 즉 그들은 ‘소시(小時)의 짝’ 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이다.
- (3) ‘하나님의 언약’ 이란 ‘소시(小時)의 짝’ 과 맺은 결혼의 약속을 가리킨다.
- (4) 이와 같이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세우신 거룩한 제도로서(참조, 창 2:24) ‘하나님의 언약’ 이 그 제도에 있는 것이다.

(5) 그러므로 성도들은 결혼의 약속과 의무에 대하여 지극히 조심하여 그것을 기록하게 지켜야 한다(참조, 마 19:6).

25. **Q** 음녀와 벗하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되고 마는가? (18, 19절)

- A** (1) 음녀는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17절) 불의의 길로 간 자로서 결국 영원한 형벌을 받고 만다.
- (2) 그러므로 이러한 음녀에게로 가서 벗하는 자는 그 음녀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다.
- (3) 크리소스톰(Chrysostom, A. D. 354-407)은 '음탕한 자를 순결로 돌이키는 일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만큼 어렵다'고 말하였다.
- (4) 여기서 지혜가 음녀를 피하게 하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임을 명심하고 성도들은 잠시의 일락을 위해 귀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참조, 딤후전 5:6).

26. **Q** 지혜자는 이제 결론으로 어떤 격려와 경고의 말을 하는가? (20-22절)

- A** (1) 지혜자는 결론으로 선인과 악인, 의인과 죄인의 결국을 대조하면서 지혜를 찾으려 노력하고 경고한다.
- (2) 그리고 지혜자는 지혜의 소극적 유익(11-19절)에 이어서 지혜가 적극적으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 (3) 그러므로 성도들은 악을 회피하는 소극적 태도에서 머물지 말고 지혜가 그 삶을 지배하여 선을 행하도록 적극적으로 지혜 안에 머물러 살자(참조, 요 8:31, 32).

27. **Q** 지혜자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으로 사는 악인과 궤홀(詭譎)한 자는 어떻게 되리라고 하였는가? (22절)

- A** (1) 지혜자는 악인이 땅에서 끊어지고, 궤홀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고 하였다.
- (2) 이러한 단호한 선언은 역사를 통해서 거듭 증명되어 왔다.
- (3) 이와 같이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물론이고 땅에서 끊어지고 뽑혀져 비참한 결국을 보고 만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악한 자의 일시적 흥왕을 부러워 말고 겸손하고도 당당하게 의의의 길로 나아가야 하겠다.

본장의 요절

‘내 아들이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1-5절).



연구자료

잠언의 교훈적 특성

히브리 지혜 문학의 형식을 구분해 보면 격언(Proverb), 경구(警句, Epigram), 수필(참조, 전도서, 야고보서), 그리고 14행으로 구성되는 정형시(定型詩)인 소네트(Sonnet)가 있다. 본서는 수필 형식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형식 모두를 채택한 지혜 문학서이다. 그리고 내용면에서 본서는 크게 윤리적인 교훈, 교육적인 교훈, 그리고 신앙적인 교훈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본고는 주로 격언과 경구로 이루어진 본서의 교훈이 품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윤리적 교훈

본서의 중심 되는 목적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 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근신(謹慎)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지혜'를 그 기초어(基調語)로 삼는 본서의 윤리적 교훈은 인간 이성에서 나오는 지혜를 근본으로 삼는 이방 철학과는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1:7)에서부터 시작된다. 본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윤리적 교훈을 말함에 있어서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9장), 그리고 '의인과 악인'(10, 11, 12, 13, 14, 15장 등)을 대조시켜 교훈하려고 하는 바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제 그 교훈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개인 윤리: 겸손(3:34; 11:2; 15:33; 16:5; 18:12; 22:4; 25:14; 27:2; 29:33), 성적 순결(6:25-35:7), 근면(6:6-11; 10:26; 20:4; 22:13; 23:21; 26:14), 정직(7, 21절; 3:32; 10:29; 11:3, 6, 11; 12:6; 14:2, 9; 15:8, 19; 16:13, 17; 21:29), 성실(10:10; 12:22; 13:5; 16:9; 19:22; 20:17), 말조심(12:19, 22; 13:3; 15:4, 13; 16:24, 28; 18:6, 21), 화목(12:16; 13:10; 14:17, 29; 15:18; 16:32; 17:19; 19:11) 등.

② 사회 윤리: 이웃에 대한 사랑(11:25; 17:9; 22:9)과 친구간의 우의(友誼)에 대한 것(16:28; 17:9; 22:24; 25:17; 27:10)이 사회 윤리의 중심 사상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상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윤리적 명령(눅 6:27)과도 일치한다(17:13; 20:22; 24:17, 18, 29; 25:21, 22).

③ 가정 윤리: 이 윤리는 집단 윤리, 즉 사회 윤리와 국가 윤리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으로 '화목'과 '사랑'에 의해 유지된다(15:16, 17; 17:1). 특히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있어서 소극적으로는 자식이 부모의 훈계와 법을 떠나지 말고(1:7, 8) 존경하라고 가르치며(19:26, 27; 30:17) 적극적으로는 자식이 부모를 즐겁게 하며(23:35) 부모는 자식을 바르게 양육하여야 한다고 역설했다(참조, 13:1, 24; 19:18; 22:6, 15; 29:15, 17).

④ 경제 윤리: 본서의 지혜자는 돈과 재물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지 않지만 사람이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참조, 11:4;13:8). 그리고 부정한 행위로 재물을 모으는 자에 대해서는 엄하게 경계하고 있다(11:1;16:11;20:10,23;28:22). 그러나 사람이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여 게을러지는 것은 피해야 한다(참조, 10:4,26;12:11,24,27;13:4,11;14:4,23;16:16;18:9).

⑤ 국가 윤리: 본서의 저자는 국가를 지배하는 윤리가 공의(公義)임을 통찰하고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21:3)고 선포한다. 왜냐하면 의가 나라를 영화롭게 하기 때문이다(14:34).

2. 교육적 교훈

일반적인 의미에서 교육의 목적이 한 사람으로 하여금 올바른 인격을 갖추게 하여 건실한 인격을 갖춘 사회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면 본서에 있어서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바탕으로(1:7) 교훈을 받아 온전한 인격을 갖춘 신앙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본서는 자녀들에 대한 가정 교육(1:8;10:5;15:20;29:3;30:11,17)과 친구 관계에 관한 교훈(1:10)이 중심을 이룬다. 부모는 가정 교육에 있어서 자식에게 매를 대어서라도 교육시켜야 하며 친구를 사귄데 있어서는 좋은 친구를 사귀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13:24;23:13,14;29:15).

3. 신앙적 교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이시다(16:9). 그리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난다(16:1). 이러한 능력을 소유하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며(1:7;9:10), 악을 미워하는 것이며(8:13), 사망의 음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14:26,27). 뿐만 아니라 그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으며(16:20)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30:5).

4. 결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본서의 교훈 전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으며 신앙인이 갖추어야 할 실천적인 윤리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본서는 이방인들이 말하는 철학적인 교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신앙에 근거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다.

제3장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단락구분 1-12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 13-18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 19-26 여호와께서 지혜로 너를 지키신다 / 27-35 선을 베풀고 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

- 1 내 아들이 나의 범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 2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 3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 4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 5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 6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 7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 8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 9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 10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줍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 11 내 아들이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 12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 13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 14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 15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 16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 17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 18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 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 19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 20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 21 내 아들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네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 22 그리하면 그것이 네 영혼의 생명이 되며 네 목에 장식이 되리니
- 23 내가 네 길을 안전하게 행하겠다고 네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 24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네 잠이 달리리라
- 25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 26 대저 여호와와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 27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 28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짚노라 하지 말며
- 29 네 이웃이 네 곁에서 안전하게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 30 사람이 네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붙어 다루지 말며
- 31 포박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좇지 말라
- 32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 33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 34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 35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1) 본장은 앞장에 이어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교훈들로 구성되어 있다.

(2) 첫째 부분에서는(1-18절) 지혜를 얻은 자가 하나님과 인간 앞에서 얻은 총애(寵愛)

와 지혜를 발견한 자의 행복과 지혜로부터 오는 유익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3) 그리고 둘째 부분에서는(19-26절)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能力)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보호가 됨을 설명하고 있다.

(4) 또한 세째 부분에서는(27-35절) 이웃을 사랑하는 인자(仁慈)를 행할 것과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그 행위를 좇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다.

2. ㉠ 본장의 첫째 부분은 주로 무엇에 관하여 교훈하고 있는가? (1-18절)

㉠ (1) 본장의 첫째 부분은 순종(1-4절), 하나님께 대한 신뢰(5,6절), 자만과 자기 신뢰에 대한 경고(7,8절), 하나님 공경(9,10절),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11,12절)에 대한 권고와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됨을(13-18절) 교훈하고 있다.

(2) 그리고 이러한 교훈들은 평이하고 자연스럽게 서술되어 있다. 그리하여 순종과 신뢰는 은총과 인도, 건강, 번영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3)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번영의 때 뿐만 아니라 역경의 때에도 경배할 대상임을 교훈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실한 자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허락하신다.

(4) 여기서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 복종이란 사실을 깨닫고 성도들은 순경과 역경 모두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지혜를 알고 지혜를 얻어야 한다.

(5) 이렇게 하여 지혜를 얻은 지혜자는 그 지혜로 인하여 복되게 된다.

3. ㉠ 본장의 1-10절 부분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교훈이 나열되어 있는가?

㉠ (1) 본장의 1-10절 부분에서 주목되는 표현 기법은 한 가지 권고가 나올 때마다 상급의 약속이 뒤따라 나온다는 점이다.

(2) 이러한 약속들이 뒤따라 나오는 것은 주어진 권고들을 잘 지키도록 격려하기 위해서다.

4. ㉠ 1절에서 '나의 법'은 무엇을 말하는가?

㉠ (1) 본절에서 '나의 법' (히, 토라티)은 '내 교훈', '내 가르침' 이라는 뜻이다.

(2) 그런데 '법'은 히브리어 <토라>로서 히브리인들에게 유익한 교훈을 충칭하는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가리킨다.

(3) 따라서 오늘날 성도들은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5. ㉠ 1절에서 지혜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라고 하는가?

㉠ (1) 지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그것을 지키라고 권고한다.

(2) 즉 이 권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편에 새겨서 그것을 생각과 행동에 대한 지표(指標)로 삼으라는 말이다.

(3) 행동은 생각이 구체화된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다림줄'로 삼고 사는 사람은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다.

(4) 결국 말씀대로 사는 자는 다만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라는 사실에 고뇌한다.

6. ㉠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히 준행함에서 오는 축복은 무엇인가? (1, 2절)

㉠ (1) 그 축복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면서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것이다.

(2) 이와 같이 '장수' (長壽)는 구약 성경에서 축복의 한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제 5계명에는 장수가 부모를 공경할 때 받는 복으로 첨부되어 있다(참조, 출 20:12).

(3) 또한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산당에서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내 길로 행하고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왕상 8:14)는 약속을 하셨다.

(4) 그러므로 장수의 복은 특유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준행하여 사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임하는 복임을 알 수 있다.

(5) 더우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요 3:16).

7. ㉠ 2절에서 지혜자는 장수의 복에다 어떤 복이 더하리라고 약속하는가?

㉠ (1) 지혜자는 장수의 복에다 '평강' (平康)을 더하리라고 약속한다.

40 잠언 3장

- (2) 여기서 '평강'은 내적 외적인 만족감 내지는 안전감에서 오는 마음의 평정을 의미한다.
- (3) 그런데 이 평강은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가 얻는 것이며 (참조, 시 119:165), 반대로 악인에게에는 없는 것이다(참조, 사 48:22; 57:21).

8. ㉠ 3절에서 '인자' (仁慈)는 어떤 의미를 가진 낱말인가?

- ㉠ (1) 본절에 나오는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이다. 그런데 이 (헤세드)라는 말은 광범위한 뜻으로 사용되어진다.
- (2) 이 낱말의 본래 의미는 '격렬한 욕망'이며 어근은 <하사드>로서 '열심히, 격렬히 바란다'는 뜻이다.
- (3) 그리하여 이 (헤세드)가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리키며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 즉 경건을 말하고, 또는 '사람에 대한 사랑', 즉 인간애를 뜻한다.
- (4) 그러므로 본절에서 '인자'라 할 때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사람에게 대한 사랑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
- (5) 오늘날의 성도들은 이러한 인자의 뜻을 잘 알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참조, 마 22:34-40).

9. ㉠ 3절에서 '진리'는 어떤 뜻으로 쓰였는가?

- ㉠ (1) '진리' (히, 에메트)는 '견고함', '안정성'을 뜻하는데 본절에서는 특히 '약속을 이행하는 성실성'을 가리킨다.
- (2) 이와 같이 진리는 말과 행실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성실한 성격을 갖기 때문에 주저함이 없이 신뢰를 하게 한다.
- (3) 그리고 진리(히, 에메트)는 인자(히, 헤세드)와 함께 본서(14:22; 16:6; 20:28)와 시편(시 25:10; 40:11; 57:4-11; 108:4; 138:2)에 자주 나오며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도덕적 완전함의 가장 높은 기준으로 제시된다.
- (4) 즉 이러한 표현은 4절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는 말과 같은 뜻을 지닌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의 진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동일한 것이 되어야 한다.

10. ㉠ 지혜자는 인자와 진리를 어떤 방식으로 간직하라고 권고하는가? (3절)

- ㉠ (1) 지혜자는 인자와 진리를 목에 매고 마음판에 새겨 떠나지 않게 간직하라고 권고한다.
- (2) 그런데 본절에서 '목에 매라'는 말은 부적(符籍)이나 호부(護符)를 매라는 것이 아니라 장신구나 인장을 목에 걸듯이 진리를 생활화하라는 말이다(참조, 1:9; 창 41:42; 아 1:10; 4:9; 겔 16:11).
- (3) 또 '네 마음판에 새기라'는 말은 인자와 진리를 마음에 완전히 그리고 지워지지 않게 기억하라는 말로서 행동의 중심 근원이 되게 하라는 말이다.
- (4) 여기서 성도들은 지혜자가 이렇게 거듭해서 강조할 만큼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기억하고 지혜자의 권고의 말에 주의해야 한다.

11. ㉠ 지혜자는 인생이 의지할 것이 무엇이고 또 의지하지 않아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했는가? (5절)

- ㉠ (1) 지혜자는 인생이 의지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의지하지 않아야 할 것은 인간의 명철이라고 했다.
- (2) 먼저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인생의 도리 중 가장 우선되고 근본되는 것이다.
- (3) 그러나 본절에서 우리 인생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한다.
- (4) 즉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은 신중히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달성키 위하여 합법적인 수단을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것을 쓰되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지시와 섭리를 따라 행하라는 것이다.

(5) 그러므로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아감으로 참된 지혜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명철만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12. ㉠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6절)

㉠ (1)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인생의 모든 국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인정하라는 의미이다.

(2) 이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자기들의 의지를 그 뜻에 복종하는 데서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다.

13. ㉠ 지혜자는 범사에 하나님의 지도와 조명을 구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고 있는가? (6절)

㉠ (1) 지혜자는 범사에 하나님의 지도와 조명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행하는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약속하고 있다.

(2) 그런데 본절에서 ‘지도하시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친히 성도의 길을 바르게 하고 평탄케 하며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말한다.

(3) 그러므로 성도들은 범사에 무엇을 하든지 방황치 말고 하나님의 지도와 조명을 구하도록 하자.

14. ㉠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자는 어떻게 행하게 되는가? (7절)

㉠ (1) 그러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게 된다.

(2) 사람이 악에 빠지는 이유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버리기 때문인데, 그러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자는 지혜의 근본인 여호와 경외하기를 힘쓰며 그 결과 그가 악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다.

(3) 이러한 ‘여호와 경외’, ‘악에서 떠남’은 실제적 경건함의 두 가지 요소이며 대표적인 본보기가 욥이었다(참조, 욥 1:1).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

15. ㉠ 지혜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에서 떠남이 우리 몸에 어떤 유익을 주리라고 하는가? (8절)

㉠ (1) 지혜자는 이러한 경건한 삶이 육신을 강건케 하고 신선하게 하는 양약(良藥)이 되어 골수를 윤택케 하는 유익을 주리라고 한다.

(2) 즉 이러한 선한 생활은 삶을 조화 있고 질서 있게 함으로 영적인 면은 물론이고 육신의 건강도 누리게 한다는 것이다.

(3) 그런데 이러한 축복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영육간 모든 것을 지배하고 보호하심을 더욱 분명히 나타나도록 해준다.

(4) 그러므로 성도들은 무엇에든지 기꺼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도록 하자.

16. ㉠ 지혜자는 여호와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사용토록 권고하는가? (9절)

㉠ (1) 지혜자는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드려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권고한다.

(2) 이 권고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단순한 입술의 경배나 겸손과 신뢰함이 아니라 외적인 면과 함께 물질적인 경배가 따라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3) 그리하여 율법이 명하는 십일조 뿐만 아니라 더 넓은 의미로서 재물을 경건하고 자선적인 목적에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다(참조, 14:31).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선한 목적에 잘 사용하여 물질로도 하나님 섬김을 나타내야 한다.

17. ㉠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며 하나님께 드림으로 받는 축복은 무엇인가? (10절)

㉠ (1) 그 축복은 창고가 가득히 차고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는 것이다.

42 잠언 3장

- (2) 즉 성도들이 바른 목적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면 더욱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소유를 더 풍성케 해주시리라는 약속이다.
- (3) 사실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느냐 보다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함을 알아야 한다.

18. ㉠ 지혜자는 11, 12절에서 어떤 경로의 교훈을 하고 있는가?

- ㉠ (1) 지혜자는 11, 12절에서 1-10절과는 다른 지혜의 국면을 취급하며 교훈하고 있다.
- (2) 그것은 여호와와의 징계에 대한 것으로 지혜자는 이 교훈을 통해 순경(順境)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경(逆境) 중에서도 하나님을 공경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 (3) 왜냐하면 여호와와의 징계와 꾸지람은 비록 고통의 양태(樣態)로 오나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성도를 사랑하며 유익케 하기 위해서 오기 때문이다(참조, 욥 5:17; 히 12:5, 6).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역경이 올 때 함부로 불평하지 말고 주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한다.

19. ㉠ 지혜자는 여호와와의 꾸지람과 징계를 인간들 사이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여 주는가? (12절)

- ㉠ (1) 본절에서 지혜자는 여호와와의 꾸지람에 순복할 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런데 그 꾸지람이 사랑의 꾸지람이므로 인간 사회에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가장 친숙한 부자간의 관계를 가지고 이것을 설명한다.
- (2)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부성적 사랑의 관계는 신 8:5에서 취하여 왔음이 분명하다(참조, 렘 31:9; 말 2:10; 마 6:9-15).
- (3) 여기서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리를 알게 될 때 징계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 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며 의지하게 될 것이다.

20. ㉠ 지혜를 얻는 것이 복된 것은 무엇을 얻는 것보다 더 가치 있기 때문인가? (13-15절)

- ㉠ (1) 지혜를 얻는 것은 이 세상의 금은 보화를 얻는 것보다 더 가치 있기 때문에 지혜를 얻은 자는 복된다.
- (2) 물론 금은 보화는 세상살이에서 어느 정도 유익이 있어서 사람들은 그것을 얻으려고 일생을 거기에 투자하는 자가 많다.
- (3) 그러나 금은 보화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멀리한다면 사람에게 있어 그것보다 더 큰 불행은 없다.
- (4) 하지만 지혜를 얻는 자는 금은 보화에 노예가 되기 보다는 오히려 청지기 사명을 가지고 그 재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올바른 물질관이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한 것들로 맡겨 주신다.

21. ㉠ 지혜의 양손에는 어떤 복이 있는가? (16절)

- ㉠ (1) 지혜의 오른쪽 손에는 장수의 복이 있고, 왼쪽 손에는 부귀의 복이 있다.
- (2) 본절에서 지혜자는 장수(長壽)가 축복 중에 축복이며 모든 부와 즐거움의 조건이므로 그 복이 지혜의 오른손에 있는 것으로 묘사하여 장수(長壽)의 복됨을 말하였다(참조, 시 16:11).
- (3) 그리고 지혜자는 두 손에 각각 지혜의 복이 있음을 묘사함으로써 지혜의 선물이 풍성함을 나타내었다.
- (4) 이와 같이 지혜가 복됨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이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즉 지혜로운 생을 담대하게 살아가야 한다.

22. ㉠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은 어떤 특성(特性)을 갖게 되는가? (17절)

- ㉠ (1)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은 즐거움과 평강(平康) 그 자체의 삶이라는 특성을 갖게 된다.

(2) 즉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은 다툼과 놀람과 걱정이 없고 그 끝에는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은 즐거울 수밖에 없다.

(3) 그러므로 인생에서 평화와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자는 지혜를 따라 살 것이다.

23. Q 지혜는 그것을 얻는 자에게 무엇이 되는가? (18절)

A (1) 지혜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 나무가 된다.

(2) 왜냐하면 인생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지혜가 이 목적을 실현케 하며 인간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때문이다.

(3) 그러므로 성도들은 인생의 존재 목적을 실현하고 그 생명을 생명답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경외하는 지혜를 소유해야 한다.

24. Q '지혜를 가지다' 에서 '가지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18절)

A (1) 본절에서 '가지다' 는 히브리어로 <타마크>인데 '얻은 것을 굳게 잡는다' 라는 뜻이다.

(2) 이것은 지혜를 끈질기게 계속적으로 가지는 그런 자에게 복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3) 그러므로 성도들은 지혜는 한 번 얻으면 그만이지 아니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을 명심해야 한다.

25. Q 본장의 둘째 부분 교훈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19-26절)

A (1) 둘째 부분에서는 지혜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보호가 됨을 말하고 있다.

(2) 즉 지혜는 하나님의 신성(神聖)한 능력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불드시며 자연계의 운행을 주장하신다.

(3)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이러한 지혜를 간직하는 자들의 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신뢰와 보호의 근거가 된다.

26. Q 지혜자는 세상을 창조하고 유지시키는 지혜의 능력을 설명한 후 어떤 권고를 하는가? (21-26절)

A (1) 지혜자는 인간의 자그마한 머리로 파악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을 설명한 후 부드러운 사랑의 권고를 하고 있다.

(2) 그 내용은 이제 지혜의 능력을 알았으니 지혜를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것이다.

(3) 그리고 지혜자는 거룩한 보호하심이 따라올 것을 약속하고 있다.

(4) 이와 같이 큰 능력자이신 하나님께서 폭력이나 강제가 아니라 부드러운 사랑의 권고로 사람에게 지혜를 따르라고 권고하시니 성도들은 감격으로 이 사랑을 받아야 한다.

27. Q 지혜를 신뢰하는 데서 오는 결과는 어떤 것인가? (24절)

A (1) 지혜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여호와가 보호자가 되심으로 어떤 두려움도 있을 수 없다 (참조, 시 3:5, 6; 46:1-3; 91:1-5; 121:5-8).

(2) 잠을 잘 때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 평안하고 안락한 단잠을 잘 수 있다.

(3) 불안과 스트레스로 잠 못 이루는 자는 지혜를 얻어서 단잠을 자는 축복을 받으라.

28. Q 지혜를 따라 사는 자는 두려움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25절)

A (1) 본절에서 지혜자는 인생이 당하는 극한적 두려움인 창졸간(倉卒間), 즉 예기치 못한 급작스런 두려움과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의 두려움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다.

(2) 이것은 지혜자의 길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길이고 의로운 길이기 때문이다.

(3) 이렇게 지혜자는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음을 말하여 준다.

29. Q 본장의 세번째 교훈에서 주목되는 표현 방식은 무엇인가? (27-36절)

A (1) 이 부분은 앞의 것과는 달리 부분적인 잠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개의 중요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2) 첫째 부분에서는(27-30절) 이웃을 사랑하는 인자(仁慈)를 행할 것을 분부하고, 둘째

44 **잡언 3장**

부분에서는(31-35절)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그 행위를 좇지 말 것을 경고한다.

(3) 또한 27-31절에서는 모든 교훈들이 부정형을 취하는 특이한 문장 서술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30. **㉠ 27, 28절에서 말하고 있는 구제(救濟)의 일반적 원칙은 무엇인가?**

- ㉠** (1) 본절에서 지혜자는 기회와 능력이 있을 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선을 베풀도록 구제의 일반적인 원칙을 제시해 주었다.
- (2)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추구하라는 권고에 이어서 바로 이웃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그 구체적 행동 요령을 제시하는 본장의 구성에 유의하여야 한다.
- (3) 이러한 것에서 참지혜는 여호와의 공경함과 이웃 사랑을 하나로 연결되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4) 따라서 구제라는 선행(善行)도 이러한 지혜의 맥락(脈絡)에서 나오는 지혜의 실제적 표현임을 알아야 한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의 구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맥락에서 진실되게 행해져야 한다(참조, 마 22:34-40).

31. **㉠ '포학(暴虐)한 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 (31절)**

- ㉠** (1) 본절에서 '포학(暴虐)한 자'는 히브리어 <이쉬 하야마스>로서 문자적으로는 '폭력의 사람'을 가리킨다.
- (2) 이러한 표현은 14:31; 시 18:48에도 나오고 이 말의 복수형으로는 삼하 22:49; 시 140:1, 4에 나온다.
- (3) 이상에서 볼 때 '폭력의 사람'이란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그의 행위가 탐욕스럽고, 난폭하고, 바르지 못한 자를 가리킨다.

32. **㉠ 지혜자는 포학한 자에게 어떤 경고를 주고 있는가? (31절)**

- ㉠** (1) 지혜자는 포학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그의 어떠한 행위도 본받지 말라고 경고한다.
- (2) 여기서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범행자들이 획득하는 성공과 재물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 (3) 그리고 '그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부와 명성과 권력을 얻을 목적에서 악한자가 행하는 생활 방식을 본받지 말라는 말이다.
- (4) 그런데 오늘날 사회는 악할 대로 악해져서 부와 명성과 권력을 얻는 과정과 방법은 어쨌든간에 그것만 얻으면 된다는 풍조(風潮)가 팽배해 있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런 지혜자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서 마땅히 악을 버리고, 또 사회의 악에 대해 지혜자로서 경고의 소리를 발해야 한다.

33. **㉠ 32-35절에서는 어떤 수사법이 사용되고 있는가?**

- ㉠** (1) 32-35절에서는 대조법(對照法)이 사용되고 있다.
- (2) 즉 '패역한 자'와 '정직한 자', '악인의 집'과 '의인의 집', '거만한 자'와 '겸손한 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대조되고 있다.
- (3) 이러한 명백한 대조를 통하여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여 27-31절에 나오는 교훈을 지켜야 할 이유를 제시해 준다.

34. **㉠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는 자는 누구인가? (32절)**

- ㉠** (1) 여호와의 미워하심은 '패역한 자'에게 임해진다.
- (2) 여기서 '패역한 자'란 '의로운 길에서 돌아서는 자', '율법을 범하는 자'를 말한다.
- (3) 이러한 '패역한 자'는 의의 길을 추구하는 정직한 자의 반대가 된다.
- (4) 그리고 본절에서 번영과 세상에서의 성공이 꼭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참된 척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5) 왜냐하면 '패역한 자'는 일시적인 형통을 누리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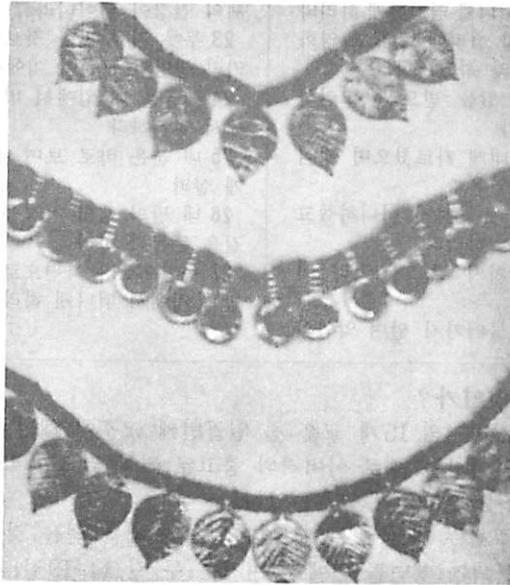
(6) 그러나 성도들은 '패역한 자'의 일시적 형통이 가져오는 결과, 즉 '여호와와의 미워하심'을 알기 때문에 패역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않는다(참조, 시 37:1-28).

35. ㉠ 패역한 자가 여호와께 미움을 입는 반면에 정직한 자는 어떤 복을 누리는가?(32절)

- ㉠ (1) '정직한 자', 즉 '여호와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을 누린다.
 (2) 본절에서 '교통'은 히브리어로 <소드>인데 욥 29:4; 시 25:14에서처럼 '가족끼리의 교제'를 말한다.
 (3) 그런데 본절에서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숨기시는 비밀을 '정직한 자'에게 친밀히 알려심으로 정직한 자를 인정하시는 특별한 은총을 강조하고 있다(참조, 요 15:14, 15).
 (4)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여 정직히 행하는 자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하지 않고 외롭지 않다(고후 4:8-10).

화보자료

정금 장식. 수메르 장인들은 고도의 숙련된 기술을 지니고 있었다. 우르에서 출토된 아래의 장식품들은 당시 수메르 장인들의 놀라운 솜씨를 반영하고 있다.



금귀걸이, 금반지, 그리고 여러 가지 금 장식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지니는 값진 물건들이었다. 그러나 본서의 기사는 지혜가 가져다 주는 이익이 이러한 정금보다도 낫다고 하였다(12절).

제 4 장 지혜가 제일이다

단락구분 1-9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 10-19 지혜로운 길로 행하고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라 / 20-27 지혜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라

1 아들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2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3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4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5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6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7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으라
 8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폄오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9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10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네 생명의 해가 길리라
 11 내가 지혜로운 길로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침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12 다닐 때에 네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3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
 14 사특한 자의 침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15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16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랑을 넘뜨르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17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18 의인의 길은 돌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19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20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21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말며 네 마음 속에 지키라
 22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은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23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24 재물을 네 입에서 버리며 사욕을 네 입술에서 떨리하라
 25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곧게 살피
 26 네 발의 행할 침경을 평탄케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27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1. ㉠ 본장의 주제는 무엇인가?

- ㉠ (1) 본장은 1:7-9:18까지의 15개 교훈 중 일곱번째 교훈에 해당한다.
 (2) 그리고 구성에 있어서는 주로 아버지의 충고로 되어 있으며(4-19절), 그 외 저자 자신의 충고(1-3, 20-27절)가 기록되어 있다.
 (3) 여기서 본장의 주제는 다른 모든 것보다 먼저 지혜를 얻을 것(7-9절)과 빛의 길과 어둠의 길로 구분되는 청년들 앞에 놓여지는 두 길(14-19절)과 양심의 좌소(坐所)이며 생명의 원천이 되는 마음을 지킬 것(23-27절) 등이다.
 (4) 그리고 본장의 교훈 중 전반부는 약속이 딸린 권고이고, 후반부는 주로 경고(警告)하는 교훈이다.
 (5) 이와 같은 본장의 교훈은 앞의 교훈들과 같이 지혜를 높이고 지혜가 모든 열성과 희생을 지불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2. **㉠** 본장에서 지혜자는 어떤 말로 시작하여 교훈을 하고 있는가? (1절)

- ㉠** (1) 지혜자는 '아들들아' 라는 호격(呼格)을 사용하여 교훈을 시작하고 있다.
 (2) 지혜자는 이 말로써 교훈을 받는 자에 대한 애정(愛情)을 표시하고, 또 교훈에 대하여 주의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참조, 1:8; 2:1; 3:1, 21).
 (3)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 말씀을 들을 자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그 들은 자들이 주의(注意)를 집중해서 들도록 힘써야 한다.

3. **㉠** 지혜자는 자신에 대해 어떤 사실을 밝히고 있는가? (3절)

- ㉠** (1) 본절에서 지혜자는 자기도 역시 평범한 인간인 것을 밝힘으로써 겸손을 나타내고 있다.
 (2) 즉 그도 부모의 양육을 받았고, 그의 어머니가 보기에는 역시 걱정스런 한 아들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3) 따라서 지혜자도 역시 아버지의 훈계(1절)를 듣는 것이 필요하였고, 또 명철을 얻기 위해서 주의해야 했다.
 (4) 그리고 이러한 양육과 보살핌을 받았던 그가 이제는 다시 훈계를 하는 위치에 서 있으므로 그 자신에 대해 자랑치 않고 겸손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5) 이와 같이 참지혜자는 교만치 않으며 겸손하게 자기를 인식하는 자이다.

4. **㉠** 지혜자의 아버지가 지혜자에게 가르친 교훈은 어떻게 요약될 수 있는가? (4-19절)

- ㉠** (1) 그 교훈은 지혜의 교훈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지키며 살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2) 물론 그 밖에도 지혜로 말미암아 얻는 영화와 상급을 말하고 지혜로운 길의 반대 측면인 악한 길로 행치 말 것도 말했다.
 (3)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1)의 내용을 보충 설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결국은 '지혜롭게 살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이다.

5. **㉠** 지혜자의 아버지는 어떠한 면에서 칭찬을 받아야 하는가? (4절)

- ㉠** (1) 그는 자기의 자식을 교육하기에 부지런했다는 면에서 칭찬을 받아야 한다.
 (2) 오늘날 부자간에 깊은 인격적인 교제나 가르침이 여러 제약으로 방해 받고 있다.
 (3)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자녀 교육이 사회적인 제도를 통해 겨우 이뤄지고 있다.
 (4)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핑계가 그러한 잘못을 가리우는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5)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을 가르치기에 부지런해야 한다.

6. **㉠** 지혜자의 아버지는 무엇을 가지고 자녀를 교육하였는가? (4절)

- ㉠** (1) 그는 자기의 말과 명령을 가지고 자녀를 교육하였다.
 (2) 이런 것은 공허하고 잡다하게 머리 속에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의 이론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체험을 통해 얻어진 '자기의 말과 자기의 명령'이다.
 (3) 이와 같이 성도들의 자녀 교육도 몸소 앞서 행하면서 가르치는 생명력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7. **㉠** 지혜자의 아버지가 그 자녀를 가르친 것은 무엇을 위해서인가? (4절)

- ㉠** (1) 지혜자의 아버지가 그 자녀를 가르친 것은 '사는 것'을 위해서였다.
 (2) 여기서 지혜는 생명을 위해서 가르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 특히 본절에서 약속하고 있는 생명은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데 지혜자의 아버지는 그 생명을 위해서 이런 교훈을 한 것이다.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잠시 잠깐이면 무너질 사망 아래 있는 지혜를 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참지혜로 자녀를 교육하여 자녀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해야 한다.

8. **㉠** 지혜자가 자기 아버지에게서 받은 교훈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4-19절)

48 잠언 4장

- Ⓐ (1) 이러한 인용에서 지혜자는 교훈이 그의 부친의 교훈과 조화됨을 보여 주고 있다.
- (2)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교훈은 솔로몬 혼자서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과 그의 선조에게서 물려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참조, 왕상 2:2; 대상 22:12, 13; 28:9).
- (3)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명한 교훈은 모세의 율법을 근간으로 한 것이므로 솔로몬의 지혜가 이방 사람들의 일반적인 지혜와는 차원이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어디서 얻은 것인가를 자세하 살펴보고 잘못된 지혜는 버리고 바른 지혜를 취해야 한다.

9. Ⓢ 지혜자의 아버지는 어떤 식으로 지혜를 추구하라고 권하는가? (5절)

- Ⓐ (1) 지혜자의 아버지는 ‘얻으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는데 그 말은 마치 장사꾼이 그의 고객에게 물건을 ‘사라’고 자꾸 권하는 것과 유사한 형식의 말이다.
- (2) 이것은 지혜자의 아버지가 지혜를 얼마나 귀중한 보배로 여겼는가를 보여 주고 있다.
- (3) 성도들은 큰 재산은 물려주지 못할지라도 자손에게 강권하여 물려줄 정도로 귀중한 보배, 즉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가진 자이다(참조, 고후 5:13-21).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보배를 강권해서라도 자손들이 소유토록 해야 한다(참조, 고후 5:13-21).

10. Ⓢ 지혜자의 아버지는 명철을 얻는 방법에 대해 어떻게 교훈하였는가? (7절)

- Ⓐ (1) 지혜자의 아버지는 ‘무릇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고 교훈하였다.
- (2) 이 교훈 중 ‘얻은 것’이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취한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명철을 사는 구입 대금으로 묘사되어 있다.
- (3) 따라서 지혜자의 아버지가 한 말은 명철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값을 매긴다 해도 비싸지 않으며 어떤 희생을 치룬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다는 것이다.
- (4) 즉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명철이라는 것이다.
- (5) 물론 이 명철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한다. 이 지식은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능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11. Ⓢ 지혜자의 아버지는 무엇을 높이라고 하였는가? (8절)

- Ⓐ (1) ‘그를 높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그’는 ‘지혜’를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 (2) 지혜를 높인다는 말은 지혜의 가치를 깨닫고, 그 지혜를 추구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 순위 위에 두며, 그 지혜를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지혜는 이런 삶을 사는 자를 높이 들며 영화롭게 한다.
- (4) 따라서 우리는 지혜를 높이는 것이 우리 자신을 존귀케 하는 것임을 명심하자.

12. Ⓢ 지혜를 품게 될 때 누가 영화(榮華)롭게 되는가? (8절)

- Ⓐ (1) 지혜자의 아버지는 만약 우리가 지혜를 품으면 우리가 지혜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될 것이라고 약속한다.
- (2) 그런데 본절에서 ‘품는다’는 말은 남편이 아내에게 어머니가 자녀에게 대해 가지는 사랑과 애정이 넘치는 태도를 가리키는 말이다(참조, 아 2:6; 8:3).
- (3) 여기서 우리가 지혜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 때 그 지혜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되므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화롭게 될 것을 확신한다.

13. Ⓢ 지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때 오는 영화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9절)

- Ⓐ (1) 지혜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셨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표현했다.
- (2) 그런데 이러한 표현이 신약에서는 언제나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화와 관련되어 사용되었다(참조, 딤후 4:8; 히 2:9; 벰전 5:4; 계 2:10).
- (3) 따라서 본절에서 말하는 영화는 현세적인 세상의 영화를 넘어서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4) 성도들은 이처럼 변치 않는 영원한 영화를 약속받고 있는 자로서 참지혜인 예수님을

높이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14. ㉠ 지혜자의 아버지가 권면하는 말은 어떤 약속으로 이어지는가? (10절)

- ㉠ (1) 지혜자의 아버지는 자기의 말을 아들이 받아 들일 경우 아들의 생명의 해가 길어지리라고 권고하였다.
- (2) 본절에서 '생명의 해가 길어진다'는 말은 곧 장수의 축복을 의미한다.
- (3) 이 장수의 축복을 받는 선결 조건은 아버지의 말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대로 살 때만이 가능하다.
- (4) 이처럼 오늘날 성도들은 장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주의 말씀대로 살며 육신의 부모의 말을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신 30:20; 엡 6:1, 3).

15. ㉠ 지혜자의 아버지는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였는가? (11절)

- ㉠ (1) 그는 그들을 지혜로운 길로 가르치고 정직한 첩경(捷徑)으로 인도하는 교육을 하였다.
- (2) 여기서 '지혜로운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정직한 첩경'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선하고 올바르게 사는 삶을 가리키는데 이 두 길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 (3) 이러한 것은 결국 성경이 말하는 지혜자의 삶의 방식이다. 그러므로 지혜자의 아버지는 그의 삶의 방식을 그 자녀에게 물려줌으로써 자녀 교육을 한 것이다.
- (4) 성도들은 이러한 교훈에서 자녀 교육 문제는 곧 자기 자신의 삶의 방식과 직결되는 것임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16. ㉠ 12절에 나타난 아들에 대한 지혜자의 훈계를 통해서 볼 때 삶에 대한 지혜자의 자세는 어떠했는가?

- ㉠ (1) 지혜자의 자세는 본절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표현되어 있다.
- (2) 즉 '다닐 때'와 '달릴 때'의 두 경우인데, 여기서 '다닐 때'란 매일매일의 생활과 일상적인 용무를 가리키고, '달릴 때'는 신속하고 분명한 행동이 요구되는 비상하고 위급한 경우를 가리킨다.
- (3) 이 두 경우에 모두 지혜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세로 통일된 삶의 원칙을 가지고 정직하게 행함으로 방황하거나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러므로 지혜자는 아들에게 그의 말을 순종할 경우 '다닐 때에 그 걸음이...실족(失足)지 아니하리라'는 훈계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다(참조, 시 18:36).
- (4) 성도들은 이러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당신만을 의뢰하고 당신의 말씀에 따라 굳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17. ㉠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켜라'는 교훈은 어떤 상황을 생각하면서 한 교훈인가? (13절)

- ㉠ (1) 본절의 교훈은 지혜자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청년이 빠지기 쉬운 유혹과 그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말한 교훈이다.
- (2) 그리고 이것을 좀더 넓게 생각하면 이 교훈은 죄악의 세상에서 은혜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죄와 싸워야 할 인간의 책임을 고취(鼓吹)시키는 말씀이다(참조, 딤후 6:3-12).
- (3) 그러나 이러한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구원의 손길을 의지하여야만 한다(엡 6:11-17).

18. ㉠ 악한 자의 계(詭計)를 물리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14-17절)

- ㉠ (1) 악한 자의 흉계와 간사를 이길 수 있는 자는 악한 자의 상태와 그 결과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악한 자의 길에서 나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자이다.
- (2) 이런 자는 결국 지혜자인데 여기서 지혜자는 죄에 대해서 예민하여 악을 분별하고 악의 길로 행치 않고 악과 반대되는 선의 길을 행하고자 하는 자임을 알 수 있다.

(3) 그러므로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

19. ㉠ 14, 15 절에서 교훈의 방식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 ㉠ (1) 본질의 교훈은 앞절의 교훈과 연결되면서 충고가 경고로 변하고 있다.
 (2) 이러한 경고는 ① 들어가지 말라 ② 가지 말라 ③ 피하고 떠나라는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다.
 (3) 그런데 이 경고는 13절에서 말한 지혜를 굳게 잡은 방법을 그 반대편에서 말한 것이다.

20. ㉠ 악한 자의 길로 가지 말고 돌이켜 떠나라고 권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6, 17 절)

- ㉠ (1) 그 이유는 악한 자의 길에 빠지면 헤어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2) 즉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기 못하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악으로 오염되어 있으므로 누구든지 접촉만 하면 악의 길에 빠지고 만다.
 (3) 그러므로 성도들은 악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위험성을 숙지하고 괜히 만용(蠻勇)을 부려서 스스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21. ㉠ '의인의 길'은 무엇에 비유되고 있는가? (18 절)

- ㉠ (1)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에 비유되고 있다.
 (2) 여기에서 지혜자는 돋는 햇볕이 서서히 빛나서 찬란한 광명이 되어 천지를 비추듯이 의인의 길도 점진적으로 그 성결의 정도가 충만해질 것을 가리킨다.
 (3) 즉 성도들은 천국에서 완전한 거룩함에 참여하겠지만 (참조, 마 13:43) 이 세상에서도 이미 그 거룩의 빛을 소유하여 점점 그 빛을 환하게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22. ㉠ 악인의 길이 어둠에 비유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19 절)

- ㉠ (1) 그 이유는 악인이 너무나 무지해서 악을 악으로 알지도 못하며 거기에 따라 오는 멸망을 멸망으로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2) 이것은 또한 악인이 빛 되신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3) 악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진리에 대해서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악인이 아무리 선행을 하며 산다고 해도 그것은 무지 속에서의 자기 과시밖에 되지 못한다.

23. ㉠ 인생의 다양한 생활 양태는 결국 어떻게 요약 될 수 있는가? (18, 19 절)

- ㉠ (1) 인생 행로는 결국 '악한 자의 길'과 '의인의 길'로 요약될 수 있다.
 (2) 이 두 길 외에 제 3의 길은 있을 수 없다.
 (3)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도 어떤 길에서 있는가를 냉철하게 반성해 봐야 한다.
 (4) 그리하여 '악인의 길'을 버리고, '의인의 길'로 가야 한다. 즉 지혜자는 의가 지배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다.

24. ㉠ 20-27절은 누구의 교훈인가?

- ㉠ (1) 지금까지 자기 아버지의 교훈을 인용하여 말하던 지혜자는 이제 다시 자기 자신의 교훈을 말한다.
 (2) 그런데 지혜자 자신의 교훈인 이 부분의 내용도 역시 그의 아버지의 교훈과 같다.
 (3) 즉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잘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혜의 길을 가라는 내용이다.
 (4) 여기서 우리는 지혜의 가르침에 있어서 그 본질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이러한 지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이 된다.

25. ㉠ 인생이 살아가면서 '지킬 만한 것'은 어떤 것인가? (23절)

- ㉠ (1) 그것은 인생살이에 필요하고 유익한 것들, 즉 재산, 건강, 가정의 행복, 명예 등이다.
 (2) 이러한 것들은 그저 저절로 얻어지거나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잘 보존하며 행하려고 애를 써야 지켜진다.
 (3) 그러므로 성도들은 인생에 필요하고 유익한 것들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잘 보존

하도록 해야 한다.

26. **㉠** 무엇보다 먼저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3절)

- ㉠** (1) 그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다.
 (2) 즉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모든 도덕적 행위가 마음의 상태에 따라 결정됨을 말한다(참조, 마 12:34; 눅 6:45).
 (3) 사람이 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하게 살려면 이러한 것들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 행동으로 표출되어야 한다.
 (4) 그러나 이런 마음 중심은 없고 다만 형식주의자가 되어 외모로만 어떤 계율을 지키고 하면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 되고 만다.
 (5)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취하시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는 사실을(참조, 삼상 16:7) 기억하여 마음을 지켜서 생명 있음을 나타내야 한다.

27. **㉠** 24-27 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인가?

- ㉠** (1) 이 부분은 마음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다.
 (2) 즉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외부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3) 그것은 입에서 버릴 것을 버리고 멀리할 것을 멀리하며 똑바로 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악에서 떠나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다.
 (4) 여기서 우리는 도덕적 생활의 근원으로서의 마음과 생활의 행위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8. **㉠** 꾀술(詭譎)과 사곡(邪曲)에 대하여 어떤 충고의 말을 하고 있는가? (24절)

- ㉠** (1) '꾀술'이란 참된 것을 곡해하고 왜곡되게 하며 허위로 전하는 말을 가리킨다(참조, 6:12; 19:1).
 (2) 또한 '사곡'은 참되고 옳은 것을 외면하는 것을 말한다.
 (3) 이러한 악한 것들에 대해 지혜자는 버리고 멀리하라는 충고의 말을 하고 있다.
 (4) 이것은 이런 류의 말에 빠지지 말고 그런 경향을 부러워하지도 말라는 것과 그런 죄를 짓는 자들과 사귀지도 말라는 충고이다(참조, 시 101:5).

29. **㉠** '바로 보라', '눈앞을 곧게 살피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말인가? (25절)

- ㉠** (1) 이 말은 앞에 있는 사물에 눈을 꾸준하고도 확고하게 고정시키며 좌로나 우로나 눈을 돌리지 않는 상태를 가리킨다.
 (2) 이것은 마음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단순한 마음을 지녀야 하고 영혼의 순결을 위태롭게 하는 유혹에 이끌려 좌나 우를 쳐다보아서는 안 될 것을 말하는 것이다.
 (3) 또한 본절은 마 6:22의 천국과 하나님만 바라보는 '한 눈', 즉 단순한 심령을 말한다.
 (4) 그러므로 성도들의 신앙 생활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한다.

30. **㉠** '바로 보고', '눈앞을 곧게 살필 때' 어떤 길로 가게 되는가? (26절)

- ㉠** (1) 성도가 순결한 마음으로 자기의 행할 길을 가면 그 길을 방해하여 넘어뜨리는 온갖 장애물을 피하게 되고 흔들리지 않고 분명한 방향이 있는 튼튼한 길을 가게 된다.
 (2) 이것은 성도의 가는 길에 고난이나 환난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더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는 좁은 길일 수도 있다(참조, 마 7:14).
 (3) 그러나 그런 환난이나 고난도 성도가 순결한 마음으로 그것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그 길이 평탄해지고 오히려 더욱 확신에 이르는 계기가 된다(참조, 단 3:17, 18; 히 11:32-40).

31. **㉠** 지혜자는 어떤 말로 그의 교훈을 끝맺고 있는가? (27절)

- ㉠** (1) 지혜자는 '우편으로나 좌편으로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는 말로 그의 교훈을 끝맺고 있다.

- (2) 이 말은 인간의 본성이 간사한 연고로 주위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길을 벗어날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의해 좌우되지 말고, 꾸준하게 지혜의 길을 행하라는 교훈이다.
- (3) 많은 사람들은 환경이 조금 좋아지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버리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쉽게 원망한다.
- (4) 그러나 참된 성도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잘 알므로 어리석고 경망(輕妄)하게 행하지 않고 꾸준하고도 끈끈하게 지혜를 마음에 간직하면서 그 길을 간다.
- (5)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혜의 길로 행한 자들의 결말과 그 영광을 본다.
- (6) 따라서 우리는 현실의 생활에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지혜를 제일로 여기고 사는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

연구자료

히브리인들의 무게 단위

명 칭	무 계		관 제 성 귀
게라(Gerah)	0.57g (세겔의 1/20)	0.15돈	출 30:13
반세겔(Beka)	5.7g	1.5돈	창 24:22
세겔(Shekel)	11.4g	3돈	삼하 14:26
므나(Minah)	570g	0.95근	눅 19:13-25
달란트(Talent)	약 34kg (3,000세겔)	57근	출 38:25, 27 왕상 16:24 제 16:21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는 세겔이 무게를 측정하는 기본적 단위였다. 세겔에는 '보통 세겔' 이외에 보통 세겔의 두 배인 '왕실 세겔'이 있었다. 또한 돈이 주조되기 이전에는 상품의 값을 지불할 때 보통 금속 덩어리(금, 은, 동)를 저울에 달아서 지불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속이는 저울이 나오게 되어 공평한 상거래를 해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율법에서도(레 20:35), 지혜자의 훈계에서도(11:1) 이런 행위를 금지시켰던 것이다.

제 5 장 지혜를 즐거워하라

단락구분 1-6 지혜를 지키라 / 7-14 후회하지 말고 지혜를 들으라 / 15-23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1 내 아들이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여서
 2 근신을 지키며 네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3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4 나중은 속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 같이 날 카로우며
 5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절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6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7 그런즉 아들들이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8 네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9 두렵건대 네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네 수한이 잔포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10 두렵건대 타인이 네 재물로 충축하게 되며 네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11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네 몸, 네 육체가 쇠퇴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12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버이 여기고
 13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중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14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15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16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17 그 물로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18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19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20 내 아들들이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제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21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와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22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23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1. ㉠ 본장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 ㉠ (1) 본장은 1:7-9:18에 나오는 15개 교훈 중 여덟번째 교훈에 해당한다.
 (2) 그리고 본장은 용어 사용에 있어 주로 남녀 관계에 대한 어휘들을 사용하고 있다.
 (3) 그러나 지혜자가 본장의 내용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바는 단순한 남녀 관계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 이상의 뜻을 담고 있다.
 (4) 그것은 지혜를 의인화하여 잘못된 세상의 지혜를 음녀로, 그리고 젊어서 취한 아내를 복된 아내로 묘사하면서 생활의 실제 국면을 통해 지혜(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피부에 닿게 실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5) 이러한 교훈의 주요 내용은 지혜를 주의하여 잘 지킴으로 세상의 잘못된 지혜에 빠지지 말고 젊을 때 교훈받은 지혜를 사랑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다.
 (6) 그러므로 성도들은 지혜자가 말하는 음녀의 아침에 대한 경고(1-6절), 음녀와의 음행에 대한 경고(7-14절) 그리고 정당한 결혼 생활의 행복(15-20절) 등에 대해 잘 생각하고 거기서 유래되는 영적인 교훈을 얻도록 해야 한다.

2. ㉠ 거듭되는 지혜자의 애정 어린 충고(忠告)는 무엇인가? (1, 2절)

- Ⓐ (1) 그 충고는 지혜자가 가르치는 바에 주의하고 그것을 깊이 생각함으로 현명한 처신을 하라는 것이다.
- (2) 이와 같은 충고를 여러 번 거듭하여 반복하는 이유는 듣는 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지혜의 길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 (3) 이것은 율법의 계명을 확고하게 세워 놓고 그것을 강요하는 율법주의자의 태도가 아니라 듣는 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면서 듣는 자가 그의 지·정·의(知情義)를 다 발동하여 진리의 길로 행케 하는 지혜로운 교육 방법이다.
- (4) 시편 기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를 복있는 자는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시 1:2) 라고 노래하였다.
- (5) 성도들은 아무리 세대가 변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보고 깊이 생각하는 태도를 잊어서는 안 된다.

3. ⓐ 지혜자는 지식을 무엇으로 지키도록 하라고 하는가? (2절)

- Ⓐ (1) 지혜자는 듣는 자가 지혜에 주의하고 깊이 생각하여 그의 입술로 지식을 지키라고 권고한다.
- (2) 여기서 입술로 지식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어떤 것도 일체 입술로 통과시키지 말라는 것이다.
- (3)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의 사상을 정립하고 그 사상이 확고하고 분명하게 자기를 지배하게 하도록 함을 말한다(참조, 약 3:4, 5).
- (4) 이와 같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의 사상(思想)을 정립하며 그것이 자기를 지배하도록 해야 한다(참조, 시 119:105).

4. ⓐ 성도가 입술로 지식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 3절)

- Ⓐ (1) 그 이유는 세상에 음녀(淫女), 즉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참조, 시 55:19-21)의 사상(思想)이 범람하기 때문이다.
- (2) 그런데 음녀의 입술, 즉 음녀의 사상은 꿀같이 달콤하게 사람의 마음에 접근해서 기름처럼 매끄럽게 융합(融合)된다.
- (3) 그것은 인간의 사상이 근본적으로 부패하여 진리보다는 거짓을 더 사랑하는 경향이 있음을 말해 준다.
- (4) 그러므로 지혜자는 거듭하여 애정 어린 말로 듣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에 주의하여 마음을 지키도록 그리고 그 지혜가 자신을 지배토록 권고하고 있다.
- (5) 이와 같이 성도들은 혼란하며 가치 기준을 상실하고 방황하기 쉬운 현실 속에서 음녀의 사상을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지배토록 힘써야 한다.

5. ⓐ 음녀의 입술, 즉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자의 사상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3-6절)

- Ⓐ (1) 이런 악한 자의 사상은 논리적으로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아주 매력적이지만 부패한 인간의 심성(心性)에는 잘 융합한다.
- (2) 그러나 이러한 사상은 사람으로 하여금 인생의 진면목(眞面目)을 보지 못하게 한 채 헛된 망상(妄想)에 빠져 사망의 길로 가게 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
- (3)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떠나게 하기 때문에 음녀의 입술에 빠진 자는 사망에 떨어지고 심판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 (4) 오늘날에 있어서 공산주의 사상은 인류 전체에게 꿀과 같이 달콤한 환상을 가지게 하고, 또 팽배해 있는 진보적 낙관주의 사상(유전 공학, 생명 공학, 복지 사회, 컴퓨터피아 [computerpia])은 인류로 하여금 꿈에 부풀게 한다.
- (5) 그러나 그들은 인류가 죄와 사망 아래 처해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또 죄에 대해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이 우주의 지배자인 듯이 교만에 빠

져 있다.

(6) 하지만 그들의 사상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견디지 못할 것이고, 결국은 영원한 사망에 빠지고 말 것이다.

(7)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지혜를 배워서 악한 자의 사상의 거짓됨과 그 결국을 확실히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한다.

6. **㉠ 지혜자가 음녀를 들어 지혜의 교훈을 말한 것은 사실적인가? (3-6절)**

㉠ (1) 지혜자가 음녀(淫女)의 악한 면을 들어서 지혜의 교훈을 하는 것은 단순히 비유적인 것만이 아니라 실제의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사실적인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2) 즉 이 부분의 교훈은 사람, 특히 젊은이에게 있어서 그 강렬한 성적(性的)인 욕심을 제어하도록 훈계하는 것으로도 이해되어야 한다.

(3) 그러나 성욕(性慾)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위해 인간에게 주신 인간의 본능(本能)이기 때문이다.

(4)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위해 주신 본능이 인간의 범법함으로 오하려 인간을 망치게 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5) 따라서 지혜자는 성도에게 이러한 본능들을 그릇되게 사용하여 자신을 해치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다.

7. **㉠ 지혜자가 제시하는 음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7, 8절)**

㉠ (1) 그 방법은 지혜자의 경고를 듣고서 음녀를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다.

(2) 이것은 매우 소극적인 것 같지만 인간의 잘못된 본능을 제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3) 우리는 이런 것을 무시하고서 자기를 모든 욕정의 차원을 넘어설 수 있는 부처 같은 자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4) 이와 같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고 음녀를 멀리해야 그 사악한 유혹을 피할 수 있다(참조, 고전 6:18).

8. **㉠ 음녀를 가까이 할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가? (9-14절)**

㉠ (1) 음녀를 가까이 할 때 청년의 아름다움과 신선함 그리고 정력을 헛되게 사용함으로 청년이 얻어야 할 영광이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 버린다.

(2) 그리고 아무리 수고하여 재산을 모아도 모두 음녀에게 투자되므로 그 수고의 산물이 엉뚱한 자들의 손에 들어가게 되어 아무런 결실도 없이 후회와 한탄 속에 빠진다.

(3) 물론 음녀를 가까이 하면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쾌락과 즐거움이 따르겠지만 바로 그것이 유혹의 요소일 뿐이다.

(4) 따라서 성도들은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쾌락에 대하여 바른 평가를 내리고 그 결말을 봄으로써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여 악한 것을 버리고 선한 것을 취해야 한다.

9. **㉠ 11절에서 '한탄(恨嘆)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가?**

㉠ (1) 그것은 단순히 푸념하는 듯한 애소(哀訴)나 마음의 은근한 슬픔이 아니다.

(2) 본절에서 '한탄한다'는 것은 과거의 어리석음과 현재의 비참한 상태 그리고 어두운 미래에 대해서 소리 높여 통곡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다.

10. **㉠ 14절의 교훈은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인가?**

㉠ (1) 본절에서 먼저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라는 묘사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 모인 집회를 가리킨다.

(2) 그러나 때때로 이런 묘사는 백성을 재판했던 70인 장로 혹은 원로들을 가리키기도 했다(참조, 민 25:7; 35:12).

(3) 또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는 말은 '완전히 비참과 파멸에 빠졌다'는 뜻으로 극단적 파멸에서 피할 수 없게 되었음을 말한다.

- (4) 이것은 간음죄에 대한 율법의 형벌 조항에 일치한다(참조, 레 20:10; 신 22:22).
- (5) 그러므로 본질은 남편을 버린 음녀와 간음하여 이스라엘 회중에 의해 형벌받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11. Q 본장에서 음녀와의 간음에 대하여 경계하는 지혜자의 교훈은 율법의 어느 말씀을 해설한 것인가? (3-14절)

- A** (1) 이러한 지혜자의 교훈은 십계명 중 제 7계명에 대해 해설한 것이다(참조, 출 20:14).
 (2) 여기서 우리는 잠언의 지혜가 모세의 율법과 상관없는 별개의 인간 사색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빛에 근거한 하나님 백성의 지혜인 것을 알 수 있다.
 (3) 또 하나님의 백성은 주어진 계시(啓示)의 빛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일상 생활의 여러 부면(部面)에서 행할 실제적인 지혜를 소유하고 있어야 함도 알 수 있다.

12. Q 지혜자는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어느 것보다 비유하여 표현했는가? (15절)

- A** (1) 지혜자는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자기 소유의 우물과 샘에서 나는 물을 마시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2)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물과 샘이 중요하고 귀중한 재산이었듯이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귀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함을 나타낸다.
 (3) 또한 이러한 비유는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숙한 부부 관계는 인간의 삶에 있어 유익하고 필수적인 샘물과 같음을 묘사한다.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복임을 명심하고 그 복을 지혜롭게 누려야 한다.

13. Q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파괴될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가? (16, 17절)

- A** (1)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파괴될 때 쌍방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2) 먼저 음행하는 남편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파멸로 띄뜨리고 또 한편으로 그 아내는 그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다른 방법을 쓰게 되므로 어느 한쪽에만 손해가 아니라 쌍방 모두에게 손해가 된다.
 (3) 그러므로 성도들은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 주어야 한다.

14. Q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 어떤 국면을 말하는 것인가?(18절)

- A** (1) 이 말은 '네 아내로 너의 자식을 낳는 복을 받게 하라'는 뜻으로 정상적인 부부 생활에 있어 복된 삶의 결실인 자녀를 갖게 되는 국면을 말한다.
 (2) 즉 모든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있어서 자녀를 낳는 것은 결혼 생활의 축복으로 생각되었고 그 반대는 저주로 생각되었다.
 (3) 물론 부부 관계에 있어서 자녀의 생산(生産)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심으로 얻는 축복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4) 그러나 이러한 축복은 인간편의 성실한 의무 수행을 필요로 함을 본질의 말씀은 말해 주고 있다.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정상적 부부 생활을 통해서 훌륭한 자녀를 낳고 양육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겠다.

15. Q 지혜자는 어떤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했는가? (18절)

- A** (1) 지혜자는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했다.
 (2) 본절에서 '젊어서 취한 아내'는 젊음을 바친 아내, 젊은 때 결혼한 아내 등을 가리킨다.
 (3) 그리고 '그를 즐거워하라'는 말은 그런 아내가 한 남편의 즐거움과 기쁨을 얻을 대상인 것을 뜻한다.
 (4) 그러므로 본질의 이 말씀은 젊어서 취한 아내와 평생을 같이 살면서 그 안에서만 즐거

움과 기쁨을 얻으라는 교훈임을 알 수 있다.

16. ㉠ 어떻게 하면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할 수 있는가? (19절)

- ㉠ (1) 남편이 아내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고, 아내의 사랑을 '항상' 연모(戀慕)함으로 아내를 즐거워할 수 있다.
 (2) 더우기 인간에게 있어서 '사랑'이나 '즐거움'은 그 대상에 의해서 좌우되기 보다는 사랑을 하는 주체자에 의해 그 정도가 좌우된다.
 (3) 그러므로 부부 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을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야 한다.
 (4)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위한 노력은 일생을 통해서 항상 견지되어야 그 즐거움도 지속될 수 있다.

17. ㉠ 사람의 길은 누구의 눈앞에 있는가? (21절)

- ㉠ (1) 사람의 길은 여호와와 눈앞에 있다.
 (2) 이것은 '주의 눈은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면서 모든 곳을 감찰하신다'는 말씀처럼 (15:3) 하나님 앞에 인생의 모든 행위가 드러나므로 숨길 수 있는 죄는 하나도 없다는 뜻이다(참조, 욥 34:21; 24:23; 31:4; 램 16:17; 32:29; 호 7:2).
 (3) 즉 하나님의 전지(全知)하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4) 그러므로 이러한 진리를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의 길을 가야 한다.

18. ㉠ 하나님은 전지(全知)하심으로 인생을 어떻게 대우(待遇)하시는가? (21절)

- ㉠ (1) 하나님은 전지하심으로 인생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신다.
 (2) 그런데 본질의 '평탄케 한다'는 말은 '저울에 달아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3) 즉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심으로 인생의 모든 길을 그 행한 대로 정확하게 아시고 그에 따라 심판하신다(참조, 벰전 2:23; 계 20:13).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그 행한 대로 공정(公正)하게 대우하시므로 성도들은 헛된 욕심이나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직하게 살아가야 한다.

19. ㉠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에게 어떻게 드러나는가? (22절)

- ㉠ (1)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은 악을 심는 자로 하여금 악을 거두게 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2) 그런데 지혜자는 이런 악에 대한 심판을 악인이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얽매인다고 말하였다.
 (3) 여기서 성도들은 세상의 악한 자들이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을 행하지만 결국 그 악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게 됨을 기억해야 한다(참조, 갈 6:7, 8).

20. ㉠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가 망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가? (23절)

- ㉠ (1)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가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거둬서 훈계하신다(참조, 겔 18:23).
 (2) 그러나 악인은 그런 간곡한 훈계를 듣지 않고 무시하기 때문에 자신의 미련함으로 죽게 되는 것이다.

본장의 요절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와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21절).

연구자료

기독교 교육의 성격

히브리인들은 신 6:4-9의 명령을 따라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작했다. 이것이 종교 교육의 기원이 됨과 동시에 기독교 교육의 출발점도 된다. 히브리인의 생활 전체가 교육의 장(場)이었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도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생활 전체를 통해서 자녀들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기독교 교육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 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목적과 그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설정된 목표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1. 기독교 교육의 정의

일반적인 의미에서 교육이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 다시 말해 한 사람을 바람직한 인간으로 육성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는 일반 교육학에서 말하는 교육의 의미와는 달리해야 한다. 왜냐하면 일반 교육학에서는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교육을 말하는 반면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과 성경이라는 인격과 교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독교 교육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에 기초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영적으로 성숙된 자가 영적으로 미숙한 자를 교회 생활 뿐 아니라 사회 생활에도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여기서 영적으로 미숙한 자를 성숙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이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기독교 교육은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케 하여 어떤 일을 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생활(골3:17)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2. 기독교 교육의 목적

앞에서 말했듯이 기독교 교육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교육이다. 비록 인간은 타락하여 자신 속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을 사랑하시어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써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셨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에 의해 성경을 통하여 충분히 계시되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성령의 감동하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며,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의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

3. 기독교 교육의 목적과 목표의 관계

목적은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표 설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목적을 정확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정확한 목표 설정, 즉 기독교 교육의

방향 설정이 정확하고 분명해야 한다. 다시 말해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 목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함에 이르는 것' (참조, 창17:1; 신18:13)을 성취하기 위해 각 사람의 수준에 따른 목표 설정이 요구된다. 여기에서 교육 과정의 필요성이 역설된다. 이 교육 과정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설정된 각 단계의 목표로서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각 단계의 목표는 학생들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속 사역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4. 기독교 교육의 목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 28:19, 20)고 분부하셨다. 이 말씀이 곧 기독교 교육의 근거인데, 여기에는 세 가지 목표가 내포되어 있다.

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말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부르라는 의미이다. 이것은 전도란 말로 대치될 수 있다.

②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불리운 자들에게 세례를 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라는 의미이다.

③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단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분의 형상을 닮아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 회개에 이르도록 가르쳤을 뿐 아니라 (행 2:38, 40)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에 전념하면서, 성숙된 자는 그 성숙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미성숙자는 성숙되도록 이끌어 주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모든 것이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어 있으니 기독교 교육도 세분화시켜 각 단계에 적합한 교육 방법과 교육 내용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5. 결론

정상적인 교육이 시행되지 못하면 교회는 영적인 침체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위대한 명령을 교회가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교회가 정상적이며 올바른 교육을 시행하지 못하면 이단적인 가르침이나 미신적인 사상이 자생(自生)하거나 침투하여 영적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모든 교회들은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영적인 성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엡 4:13) 이르도록 힘써야 하겠다.

제 6 장 스스로 돌이키라

단락구분 1-5 경솔한 보증에서 벗어나라 / 6-11. 게으른 데서 돌이키라 / 12-19 여호와와의 미워하시는 데서 돌이키라 / 20-35 음란(淫亂)하게 색(色)을 탐(貪)하지 말라

1 내 아들이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2 네 입의 말로 내가 엄했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3 내 아들이 네가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 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4 네 눈으로 참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5 노루가 사냥군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6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7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도

8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9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늙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10 좀더 자자, 좀더 즐자, 손을 모으고 좀더 놀자 하면

11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12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쾌활한 입을 벌리며

13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14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름을 일으키는 자라

15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16 여호와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 칠 가지니

17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18 악한 제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19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20 내 아들이 네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21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22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쉴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23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24 이것이 너를 지켜서 악한 계집에게,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25 네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26 음녀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27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28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데지 아니하겠느냐

29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은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30 도적이 만일 주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치는 아니하려니와

31 들키면 칠 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 주게 되리라

32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33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34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35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1) 본장에는 1:7-9:18에 나오는 15개 교훈 중 9-12번째의 교훈들이 기록되어 있다.

- (2) 이것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담보(擔保)와 게으름과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그리고 색(色)을 탐(貪)하는 것에 대한 각각의 교훈이다.
- (3) 그런데 이러한 각각의 교훈이 단순히 아무런 의미도 없이 편집된 것인지 아니면 각각의 교훈 사이에 윤리적인 연결성이 있는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다.
- (4) 그러나 비록 각 교훈의 주제가 뚜렷하고 독립적인 것 같으나 이들 사이에는 서로 윤리적인 연결 관계가 있음이 분명하다.
- (5) 왜냐하면 한 개의 악은 다른 악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것은 우리의 일상 경험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 (6)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악에서 떠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근본적으로 돌이키는 일이 필요하다.

2. **㉠** 아홉번째 교훈은 무엇에 관한 충고(忠告)인가? (1-5절)

- ㉠** (1) 본 교훈은 보증(保證)의 경솔함과 성급함에 대한 충고이다.
- (2) 그런데 지혜자가 권고하는 말은 마치 보증을 완전히 금하는 것같이 들린다. 하지만 본서의 전체 내용으로 볼 때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3) 왜냐하면 본서에는 담보(擔保)를 은근히 장려하는 귀절들도 있기 때문이다(참조, 14:21; 17:17; 18:24; 27:10).
- (4) 그러나 담보가 주는 나쁜 결과 때문에 여러 곳에서 그것은 좋지 못한 것으로 언급되어 있다(참조, 11:15; 17:18; 20:16; 22:26; 27:13).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무조건 보증 서기를 금할 것이 아니라 경우에 합당하게 신중한 마음으로 사랑을 위해서 보증을 서되 경솔한 보증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

3. **㉠** 1-5절에서 권하는 교훈은 어떤 자에게 해당되는 것인가?

- ㉠** (1) 본 교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위하여 보증을 서되 그 보증을 감당할 만한 재력이나 실력이 없는 자에게 해당되는 교훈이다.
- (2) 그것은 지혜자가 보증을 선 자에게 자기의 실력 없는 것을 깨닫고 급히 가서 겸손히 자기가 경솔하게 행하였으니 그 보증에서 제해 달라고 하라는 권고에서 알 수 있다.
- (3) 이와 같이 성도들도 착한 마음으로 가진 것도 없이 다른 사람의 보증이 될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마음이 원하더라도 자기의 분수를 생각해서 그런 보증은 절제해야 한다.

4. **㉠** 경솔한 보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정도의 노력을 해야 하는가?(4, 5절)

- ㉠** (1) 지혜자는 경솔한 보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해야 한다고 교훈하였다.
- (2) 즉 잠을 자지 못하는 한이 있어도 꼭 그 보증에서 벗어나야 하며 노루가 사냥군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며 새가 그물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같이 필사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 (3) 그러므로 이런 수고를 하지 않으려면 경솔한 보증(保證)을 금하라고 암시적으로 지혜자는 교훈하고 있다.

5. **㉠** 열번째 교훈은 무엇에 관하여 가르쳐 주는 말씀인가? (6-11절)

- ㉠** (1) 본 교훈은 게으름의 불의성을 가르쳐 주는 충고(忠告)의 말씀이다.
- (2) 게으른 자는 재산을 모을 수도 없고 또한 있는 재산도 경감(輕減)시킨다.
- (3) 그리고 담보의 경우는 파멸을 피할 가능성이이라도 있으나, 게으름의 경우는 백이면 백 모두 어김없이 멸망에 이르고야 만다.
- (4) 이러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부지런히 수고하여 그 수고의 대가를 얻으며 살도록 정하셨고, 게으른 자는 망하도록 정하셨기 때문이다(참조, 창 1:28; 3:17).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부지런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잘 이용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한

62 잠언 6장

다(참조, 롬 12:11).

6. **Q** 개미에게서 게으른 자가 배워야 할 지혜는 어떤 것인가? (6-8절)

A (1) 개미에게 배워야 할 지혜는 근면과 준비성이다.

(2) 즉 개미는 본능적으로 여름 동안에 열심히 일하여서 겨울에 먹을 것을 예비하는 습성이 있다.

(3) 이러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개미에게 부여해 주신 습성으로 일반 계시(一般啓示)에 해당한다.

(4) 그러므로 이러한 개미에게서 배우게 되는 지혜는 하나님이 내신 지혜로서 게으른 자가 마땅히 주의하여 얻어야 할 지혜다.

7. **Q** 9절은 게으른 자의 어떤 모습을 묘사하며 책망하는 것인가?

A (1) 본절은 의문문을 이증으로 사용하여 게으른 자의 완전한 나태를 인상적으로 보여주며 다른 사람들은 다 밖으로 나가 일하고 있는데도 게으른 자가 계속 침상에 누워 있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그의 게으름을 책망하는 것이다.

(2) 그런데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잠잔다는 것은 이 세상과 죄악에 빠져 있는 것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다(참조, 롬 13:11-14; 고전 16:13; 엡 5:7-14; 살전 5:4-8).

(3) 이와 같이 게으른 자는 세상과 짝하여서 인간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일들을 무시하고 악에 빠지고 만다.

8. **Q** 게으른 자가 '좀더'라는 말을 하는 것은 그의 어떤 태도를 나타내는가? (10절)

A (1) 그런 말은 게으른 자가 자기를 속이고 또 남도 속이는 태도를 나타낸다.

(2) 왜냐하면 게으른 자가 '좀더' 자겠다고 하는 것은 약간의 휴식을 취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한없이 게으름을 피워 보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3) 사실 우리의 조그마한 습관과 게으름은 우리에게 크나큰 피해를 안겨 줄 수도 있다.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러한 악한 습성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해야지 미온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9. **Q** 지혜자는 궁핍이 게으른 자에게 어떻게 닥쳐올 것이라고 했는가? (11절)

A (1) 지혜자는 게으른 자가 게으름의 습성에 빠져 버리면 곤궁하고 가난함이 강도같이, 군사같이 닥쳐올 것이라고 말했다.

(2) 이러한 비유는 게으른 자에게 가난이 오되 필연적으로 확실하게 올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3) 이와 같이 게으름을 그냥 그대로 버려 두면 마침내는 돌이킬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고 만다.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러한 게으름에 쫓지 않도록 좋은 습관을 생활 속에서 가져야 한다(참조, 엡 5:8-21).

10. **Q** 열 한번째 교훈은 무엇에 대한 충고(忠告)인가? (12-19절)

A (1) 본 교훈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행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다.

(2) 이 부분의 교훈과 열번째 교훈(6-11절)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다.

(3) 즉 게으른 자는 불성실하고 거짓을 피하는 인간이 되기 쉽고 결국에는 그러한 악습들을 겸하여 가지게 된다.

(4) 사도 바울도 딤후 5:13에서 '저희가 게으름을 악혀 집집이 돌아다니고 게으름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고 게으름과 못된 악습 사이의 연관성을 말하였다.

(5) 이와 같이 못된 습관은 꼬리틀 이어 악습(惡習)에 젖어들므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참조, 살전 5:22).

11. **㉠** '불량한 자'라는 말이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어떤 경우에 사용되었는가? (12절)
- ㉠** (1) 본질의 '불량한 자'는 히브리어로 <아담 불리야알>인데 이 말은 문자적으로 '벨리알의 사람'이란 뜻이다.
- (2) 그런데 이 '벨리알의 사람'은 단순히 자신에게나 사회에 무익한 사람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남에게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가리킨다.
- (3) 이 말이 신 13:13에서는 우상 숭배에 빠질 뿐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우상을 섬기게 하는 자들을 가리켰다.
- (4) 또한 삼상 1:16에서는 한나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서 술이 취했다고 엘리에게 책망을 받았을 때 '당신의 여종을 벨리알의 딸로 여기지 마옵소서'라 했다.
- (5) 한편 신약에서는 '벨리알'이란 말이 사단, 즉 악한 자의 호칭으로, 모든 악한 것의 대표로, 적그리스도로 나타난다(참조, 고후 6:15).
- (6)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무익함, 신성 모독, 사악 등을 행하는 자들을 벨리알의 아들, 자녀, 딸, 사람이라 불렀고, 마침내는 악한 자의 우두머리격인 사단을 가리킨 말이 되었다.
12. **㉠** 열 한번째 교훈은 구성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12-19절)
- ㉠** (1) 열 한번째 교훈은 구성상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그 기술 형식을 달리하면서 주제를 강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2) 즉 12-15절 부분은 '불량하고 악한 자'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하였고, 16-19절에서는 '불량하고 악한 자'에 대해 조목을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 (3) 지혜자는 이렇게 하여서 모든 사람 특히 젊은이들을 이러한 악에서 떠나게 하고 불량하고 악한 자의 멸망에서부터 구해 내고자 한다.
13. **㉠** '불량(不良)하고 악한 자'의 행동에 있어서 첫째 특성(特性)은 무엇인가? (12절)
- ㉠** (1) 첫째 특성은 쾌활한 입을 벌리는 것이다.
- (2) 이러한 '쾌활한 입'에 대하여 시 10:7은 '그 입에는 저주와 쾌활과 포박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라고 설명해 준다.
- (3) 입은 사람 속의 생각을 밖으로 내보내는 통로인데 '불량하고 악한 자'는 이와 같이 마음속에 있는 악함을 먼저 그 입을 통해 나타내므로 '쾌활한 입'이 그의 외부적인 특성이 되는 것이다(참조, 눅 6:45).
14. **㉠** '불량하고 악한 자'의 마음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14절)
- ㉠** (1) 그의 마음은 패역을 품고 항상 악을 피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특성을 가진다.
- (2) 즉 그 마음이 패역된 생각들-시기, 증오, 악의 등-로 가득 차 있고 또 그는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주도 면밀한 모의를 꾸민다.
- (3) 그리하여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우정을 깨고 형제 사이의 화목을 깨뜨림에서 회열을 느낀다(19절).
15. **㉠** 죄의 세목(細目) 중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 (17절)
- ㉠** (1) 죄의 세목 중 교만이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다.
- (2) 그 이유는 교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모든 죄(罪)의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참조, 딤후 2:25, 26; 유 1:6).
- (3)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엡 4:2에서 겸손을 모든 덕의 근본으로 말한 것과 대조가 된다.
- (4) 이와 같이 교만은 겸손의 반대로 성도들이 경계해야 할 첫째 되는 죄의 조목이다.
16. **㉠**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둘째 악은 무엇인가? (17절)
- ㉠** (1) 그것은 '거짓된 혀'이다. 즉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므로 거짓말을 미워하신다.
- (2) 여기서 '거짓된 혀'는 12절의 '쾌활한 입을 벌림'과 통한다.
- (3) 이러한 거짓말도 교만으로 하나님을 거역한(참조, 유 1:6) 사단에게서 시작되었음을 주

의하자(참조, 8:44).

(4)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멸하시겠다고 하셨다(참조, 시 5:6; 계 21:8, 27).

(5) 그러므로 성도들은 거짓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싫어하시고 멸하시겠다고 하신 사실을 알고서 삼가 모든 언사(言辭)에 주의해야 한다.

17. **㉠**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네번째 악은 무엇인가? (18절)

㉠ (1) 그것은 '악한 계교(計巧)를 꾀하는 마음'이다.

(2) 그런데 심중(心中)의 악은 비록 은밀히 계획했을지라도 '마음을 두루 감찰하시며 모든 소원을 아시며 어떤 비밀도 숨길 수 없는' 하나님에게는 완전히 드러난다(참조, 대상 28:9; 렘 11:20; 살전 2:4).

(3) 그런데도 사람은 부패하여 악을 꾀하고, 모의하여 마음을 마치 악을 제조하는 공장과 같이 만들고 있다.

(4) 그러므로 성도들은 마음의 은밀한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한 계교를 버려야 한다.

18. **㉠**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은 악을 행하는 자의 어떤 상태를 묘사한 말인가?(18절)

㉠ (1) '악으로 빨리 달린다'는 것은 지체하지 않고 심중(心中)에 계획한 악을 민첩하게 수행함을 묘사한 말이다.

(2) 여기서 우리는 악이 일단 마음에서 시작되어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것의 실행은 신속하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3) 그러므로 성도들은 먼저 마음을 잘 단속하여서 악이 실행될 여지를 주지 않아야 하겠다.

19. **㉠** 열 두번째 교훈은 무엇에 대한 충고인가?(20-35절)

㉠ (1) 본 교훈은 여덟번째 교훈(5:1-23)에서 취급했던 음행 문제에 대한 충고이다.

(2) 여기서 다시 거론하는 이유는 '음행(淫行)의 죄'가 사람들 특히 청년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죄이기 때문에 강조하려고 한 것이다.

(3) 성도들은 죄에 대하여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음을 명심하고 이러한 교훈이 성도들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도록 귀를 기울이자.

20. **㉠** 지혜자가 잠언에서 동일한 교훈을 여러 번 반복하는 데서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20-35절)

㉠ (1) 지혜자가 우직스럽게도 동일한 교훈을 거듭하여 말하는 것에서 이 교훈이 얼마나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2) 또한 이러한 것에 상응(相應)해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우매하고 사악한지를 생각해야 한다.

(3) 그리하여 수백 번 반복하는 한이 있더라도 꼭 이 지혜자의 교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해야 한다.

21. **㉠** 20-23절 부분에서 서론적으로 다루는 것은 무엇인가?

㉠ (1) 이 부분에서는 음행(淫行)에 대하여 취급하기 전에 잠언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교훈을 다시 다루고 있다.

(2) 즉 부모(지혜자)의 교훈에 주의하고 마음에 간직하며 항상 순종할 것을 말하고, 그러할 때 안전이 있음과 그들의 명령과 법은 위험한 인생 길의 빛이 되며, 그들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 되리라고 지적한다.

22. **㉠** 지혜자는 지혜의 훈계를 잘 간직할 때 지혜가 어떤 일을 하리라고 하였는가?(22절)

㉠ (1) 지혜자는 지혜를 듣는 자가 그 훈계를 잘 간직하여 순종하면 그 지혜가 다닐 때, 잘 때, 깰 때, 즉 전생(全生)에 필요한 모든 인도와 보호와 대화(처신할 방안) 등을 보장하리라고 하였다.

- (2) 여기서 다닐 때, 잘 때, 쉴 때의 순서는 모세 오경에 있는 순서와 동일하며(참조, 신 6:7; 11:19) 이들은 제각기 독특한 상태를 가리키나 동시에 삶의 모든 양태를 나타낸다.
- (3) 이상의 사실에서도 지혜자는 하나님의 지혜의 법인 모세 율법을 잘 알고서 그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끌어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4) 이러한 지혜이기 때문에 사람의 속에서 생명의 교훈이 되며 인생을 바르게 인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지혜자가 하나님의 법에 깊이 파묻혀서 지혜를 얻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므로써 영원한 생명에 연결되는 지혜가 삶을 주장토록 해야겠다(참조, 골 3:15-17).

23. **㉠ 지혜자가 등불과 빛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은 각각 무엇인가? (23절)**

- ㉠** (1) 지혜자는 명령과 법을 각각 등불과 빛으로 비유한다.
- (2) 여기서 '명령'은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는 모든 특별한 명령들을 가리키며 또한 마땅히 해야 할 적극적인 명령들과 하지 말아야 할 소극적인 금지들을 의미한다.
- (3) 그리고 '법'은 하나님의 전율례(全律例)를 총칭하는 것으로 모세의 율법도 여기에 포함된다.
- (4) 그런데 명령과 법은 마치 등불과 빛의 관계처럼 전자는 특수한 것이요, 후자는 일반적인 것이다.
- (5) 그러나 두 가지 모두 어두움을 밝히는 것으로 다같이 인간의 양심을 비춰 주며, 생명의 길을 걷게 한다(참조, 시 119:105).
- (6) 이러한 빛이 죄 아래 있는 어두운 인생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의 증거이다.
- (7) 그러므로 어두운 데 있는 자는 모두 빛으로 나아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이다(참조, 요 1:1-18).

24. **㉠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무조건 용서하는 말씀인가? (23절)**

- ㉠** (1)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부르시는 사랑의 말씀이요 용서의 말씀이지만 죄를 그대로 용납하는 말씀은 아니다.
- (2) 그리하여 본질에서는 훈계의 책망(責望)에 대하여 말하였고 또한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였다.
- (3)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훈계의 가치를 볼 수 있어야 하겠다.

25. **㉠ 지혜자는 '명령'과 '법'을 어떤 특수한 국면에 적용하고 있는가? (24-35절)**

- ㉠** (1) 지혜자는 서론적으로 생명의 길을 비춰 주는 '명령'과 '법'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언급한 후 이것이 특수하게 청년들이 빠지기 쉬운 음행과 간음으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해 줄 것을 말한다.
- (2)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의 부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이고 전인격적(全人格的)인 지혜로 우리의 인격을 원만하게 형성케 하는 지혜임을 알 수 있다.
- (3) 그리고 이 지혜는 그런 전인격적인 맥락에서 각 국면에 적용되고 각 국면에서 통일성 있게 나타나야 함을 알 수 있다.
- (4) 이것을 이 부분에서는 청년들이 빠지기 쉬운 음행의 문제를 대표적으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일상 생활의 모든 국면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도록 해야지 상충되는 국면이 있어서는 안 된다.

26. **㉠ 지혜는 젊은이를 어떤 유혹으로부터 지켜서 빠지지 않도록 하는가? (24절)**

- ㉠** (1) 지혜는 젊은이를 지켜서 악한 계집과 이방 계집의 혀로 호리는 유혹의 말에 빠지지 않게 한다.

- (2) 여기서 지혜가 제시하는 가치와 이방 계집이 유혹하는 그 유혹 사이에서 젊은이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에 직면하게 됨을 알 수 있다.
- (3) 이런 가치 대립의 순간들은 젊은이 뿐 아니라 성도라면 누구나 당면케 되는 것들이다.
- (4) 이러한 순간에 지혜를 소유한 자는 지혜가 그를 지켜서 바른 가치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그 달콤하게 호리는 거짓된 가치를 이기고 바른 가치를 선택케 한다.
- (5) 그런데 오늘날 어떤 특별한 가치 기준을 무시하고 인간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괴상한 가치 기준을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
- (6) 이러한 것도 역시 성도들을 호리는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데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고 있을 때 그 지혜가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고 그런 그릇된 가치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줄 것이다.

27. **㉠ 지혜자는 색(色)에 대하여 어떤 경고(警告)로 교훈하는가? (25절)**

- ㉠** (1) 지혜자는 색에 대하여 마음을 단속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
- (2) 즉 이방 계집의 아름다운 색을 마음으로 탐하지 말며 그 호리는 눈꺼풀에 신경을 쓰지 말라는 것이다.
- (3) 이렇게 지혜자는 부정한 욕망이 스며들 수 없게 첫걸음에서부터 금하도록 경고한다.
- (4) 예수님도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마 5:28)고 말씀하심으로 지혜자의 경고를 보다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색에 대하여 지혜자의 경고를 기억하고 마음을 단속함으로 죄악에서 떠나는 자가 되어야 한다(참조, 딤후 2:19).

28. **㉠ 지혜자는 사람이 음녀(淫女)와 가까이 할 때 어떻게 되리라고 하는가? (26절)**

- ㉠** (1) 지혜자는 사람이 음녀와 가까이 하면 한 조각 떡만 남고, 귀한 생명을 사냥당하게 되리라고 한다.
- (2) 본질의 이 말씀은 음행자와 간음자의 생활이 재물의 손실 뿐 아니라 현세와 내세의 생명을 모두 잃어버리게 하리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다.
- (3) 그러므로 성도들은 음녀와 가까이 하므로 올 엄청난 손실을 생각하여 지혜자가 권하는 대로 유혹의 손길을 처음부터 끊어 버려야 한다(5:8).

29. **㉠ 지혜자는 음행을 어떤 죄와 비교하면서 교훈하고 있는가? (30-35절)**

- ㉠** (1) 지혜자는 음행을 도적질과 비교하면서 교훈하고 있다.
- (2) 즉 음행보다 못한 도적질, 특히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몰래 도적질하는 경우라도 벌을 면치 못할 뿐 아니라 7배의 배상을 물어야 한다고 하였다.
- (3) 그런데 자기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정당한 방법도 무시하고 음행을 하는 자에게 중벌이 임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참조, 레 20:10; 신 22:22).
- (4) 그리고 도적질은 배상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지라도 간음은 생명 그 자체 또는 인간의 근본적인 사랑에 관계된 것이므로 벌금이나 뇌물로 해결될 수 없고 분노와 복수만 있을 뿐이다.
- (5) 이렇게 하여서 지혜자는 음행에 따른 보복과 심판이 피할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30. **㉠ 지혜자가 간음을 행한 자에게 임할 보복과 심판을 말하는 것은 한 걸음 나아가 어디에까지 적용될 수 있는가? (30-35절)**

- ㉠** (1) 지혜자의 본 교훈은 영적인 간음자가 받을 보복과 심판이 이보다 더욱 엄중하리라는 데까지 적용될 수 있다(참조, 고전 3:17).
- (2) 그런데 성도들에게 있어 이러한 실제 생활의 여러 국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표현이어야 함을 생각할 때 특별히 영적인 면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기 보다는 실제 생활이 바로 영적인 생활임을 알아야 한다.

- (3) 이렇게 될 때 본서의 여러 교훈들이 단순한 문자적 교훈 이상의 교훈이며 살리는 영의 교훈임을 알게 될 것이다(참조, 고후 3:6-11).

화보자료

화보자료

참가의 매춘부. 고대 근동의 장인들이 즐겨 사용하던 도안으로 니므롯의 상아궁에 조각된 것이다. 이 당시 창녀들은 창을 내다 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혹했는데, 여기에는 그러한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다.



성경 특히 잠언에서는 진리에서 벗어나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음녀에게로 나아가는 것으로 비유하면서 그러한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 그 이유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의 길이 음부, 즉 사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이다(28절).

연구자료

기독교인과 보증(保證)

본서에서 지혜자는 사고가 생길 때 실제적인 책임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보증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제적인 무절제와 만용을 경제한 것이다. 이와 연관해서 본고는 성경에 언급된 보증의 의미를 파악함과 동시에 기독교인이 경제 활동을 함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보증 이행의 원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보증의 의미

성경에서 언급된 '보증'에 대한 단어는 '보증물'의 의미도 포함한다. 이것은 채무자가 빚을 질 때 그 보증으로 채권자에게 넘겨 주게 되는 담보물 또는 재산상의 물건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빚을 지불할 만기일이 되었을 때 지불 능력이 없는 그를 대신해서 보증인이 중간에 나서서 해결해 주는 행위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보증인은 채무자의 지불 이행의 책임을 지며 때에 따라서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모든 일을 책임지는 대리 채무인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할 경우가 있다. 한편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물로 하시어 그를 믿고 회개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곧 구원의 약속을 받게 해주셨다(히 7:22).

2. 구약에서의 보증 행위

구약 성경에서는 보증 행위에 대하여 본서 외에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보증과 유사한 저당 또는 담보물 잠시 살펴보기로 한다. 히브리 사회에서 채무자는 채무 이행의 보증으로 여러 종류의 담보물을 채권자에게 저당잡히게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유대인 채무자들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자신의 자녀들까지 채권자에게 노예로 넘겨 주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왕하 4:1-7).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로 전락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되지 못한 것이었다(참조, 느 5:1-13). 또한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보증인이 망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본서는 자기 능력을 증가하는 보증 행위를 부정적으로 보았다(11:15; 17:18; 20:16; 22:26; 27:13).

3. 결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보증을 잘못 서서 망했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결코 아무도 보증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신뢰와 사랑이 무너진 사회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보증 행위를 하되 무절제와 만용을 피하여 자기 능력에 맞는 보증 행위를 해야 한다. 아울러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신 사랑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제 7장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말라

단락구분 1-5 지혜를 네 마음판에 새기라 / 6-23 소년 중에 한 지혜 있는 자를 보라 / 24-27 음녀(淫女)의 길로 치우치지 말라

1 내 아들이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네게 간직하라

2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3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4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5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6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다 보다가

7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8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9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10 그 때에 기생의 웃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11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밤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12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모퉁이,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13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14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날 갚았노라

15 이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16 내 침상에는 화문 요와 애굽의 문채 있는 이불을 썼고

17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18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19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20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21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의 호리는 말로 피므로

22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23 필경은 살이 그 간을 쪼기까지에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일반이니라

24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25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26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27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1. ㉠ 본장이 교훈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 ㉠ (1) 본장의 교훈은 1:7-9:18에 나오는 15개 교훈 중 열 세번째 교훈에 해당한다.
 (2) 그리고 본장에는 앞장(6장)과는 다른 각도에서 다루기는 하지만 역시 음행(淫行)에 대한 경고가 있으며 한 가지 예화가 실려 있다.
 (3) 즉 지혜자는 음녀의 유혹이 주는 위험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 주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보았던 구체적이며 사실적인 실례(實例)를 보여 준다.
 (4)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토대로 하여 음녀의 유혹을 피하라는 교훈을 결론으로 말한다.
 (5) 성도들은 이런 교훈을 따라서 우매한 모험을 피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생활을 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2. ㉠ 지혜자는 그의 명령과 법을 어떻게 하도록 권면하는가? (1, 2절)

- ㉠ (1) 지혜자는 그의 명령과 법을 마음에 보물같이 잘 간직하고 그것을 지키며 살되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권면한다.

- (2) 그런데 2절에서 눈동자처럼 지키라는 권면은 특히 지혜자의 명령과 법에 세밀하게 주의하며 조심스럽게 그 명령과 법을 다치지 않고 지켜 행하라는 것이다.
- (3) 이와 같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에 세밀하게 주의를 하며 그 본의(本義)를 헤치지 않고 그대로 행하여야 한다.

3. **㉠** 지혜자가 손가락에 매도록 권면한 것은 무엇인가? (3절)

- ㉡** (1) 손가락에 매야 할 것은 지혜자의 명령과 법이다. 즉 그것들을 어떤 경우에든지 항상 간직하고 다니라는 말이다.
- (2)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피지 조각들로 성구함을 만들어 그 함을 가죽줄로 손과 이마에 매고 다녔었다(참조, 출 13:9, 16; 신 6:4-9; 11:13-21).
- (3) 그러나 이러한 분부가 목적하는 바는 외부의 장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마음에 그 교훈들이 새겨져서 그 교훈이 삶을 지배하도록 하는 데 있었다.
- (4) 그러므로 지혜자는 그 교훈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바로 이어서 충고하고 있는 것이다.
- (5) 이와 같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다니는 정도에서 머물지 말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사는 자가 되어야겠다(참조, 롬 2:28, 29).

4. **㉠** 지혜자는 4 절에서 지혜를 무엇에다 비유하여 의인화(擬人化)시키고 있는가?

- ㉡** (1) 지혜자는 본절에서 지혜를 '누이'와 '친족'에다 비유하여 의인화(擬人化)시키고 있다.
- (2) 이것은 성도들이 지혜를 누이처럼 순결하게 사랑하고 신뢰할 것과 또 통찰력과 건전한 지각(知覺)을 소유한 친족 만큼 지혜와 절친하게 지내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이다.
- (3) 그러므로 성도들은 지혜를 지극히 사랑하고 신뢰하며 절친하게 지내도록 해야 한다.

5. **㉠** 5 절에서 청년이 음녀의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다고 하는가?

- ㉡** (1) 지혜자는 본절에서 유혹을 피하는 길이 청년 자신의 의지적 결단이나 노력에 있다고 하지 않고 지혜를 마음판에 새기는 데 있다고 하였다.
- (2) 즉 청년이 음녀의 유혹을 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있다고 하였다(참조, 시 119:9).
- (3) 그러므로 성도들은 음녀의 유혹과 같은 죄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피하는 정도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말씀이 성도들을 악에서 지켜 주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하겠다(참조, 요 8:31, 32).

6. **㉠** 지혜자는 그의 교훈을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예를 들고 있는가? (6, 7절)

- ㉡** (1) 지혜자는 자기가 집 창문에서 목격했던 한 어리석은 소년, 즉 지혜 없는 자를 예로 들어 그의 교훈을 실감나게 하고 있다.
- (2) 이러한 실물 교훈은 듣는 이로 하여금 귀를 더욱 좋게 모으고 듣게 함으로 교훈을 생생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7. **㉠**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누구인가? (7절)

- ㉡** (1) 지혜자의 묘사에 의하면 이야기의 주인공은 어리석은 자 증애, 즉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소년이었다.
- (2) 그런데 꼭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라고는 할 수 없다.
- (3) 성도들의 위대한 모범인 예수님은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눅 2:52).
- (4) 그러므로 본절에서 지혜자가 말하는 사람은 지혜의 훈계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는 자이면 누구에게나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8. **㉠** 이야기가 진행되는 장소는 어디인가? (8절)

- ㉡** (1) 이야기가 진행되는 장소는 음녀가 사는 집과 근처의 골목이다.

- (2) 본절에서 모퉁이로 가까이 간다는 말은 어리석은 자가 넓은 길, 즉 대로(大路)로 가지 않고 모퉁이 근처로 가서 타인의 눈에 띄지 않게 음녀의 집에 접근하는 것을 묘사한다.
- (3) 즉 비록 어리석은 자이긴 하지만 노골적으로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들킬까봐 조심한다는 뜻이다.
- (4) 그러나 그는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참조, 행 4:19;5:29).

9. **㉠ 어리석은 자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음녀의 집으로 가는 것은 언제인가? (9절)**

- ㉠** (1) 그것은 저물 때, 황혼(黃昏) 때, 깊은 흑암(黑暗)이 온 대지에 깔린 때이다.
- (2) 지혜자는 반복법을 사용해서 새벽의 여명과 어두움을 구분하고 있다.
- (3) 또한 지혜자는 이 어리석은 자가 초저녁부터 배회하고 엮으며, 어두움이 깊어지기를 기다렸던 사실도 말해 주고 있다.
- (4) 그러나 어두움이 자기의 죄를 가려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이다(참조, 시 139:11, 12).

10. **㉠ 이 어리석은 자를 맞이해 주는 자는 누구인가? (10절)**

- ㉠** (1) 어두울 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奸狡)한 계집이다.
- (2) 그런데 이 여자는 벌써 외양(外樣)에서부터 유혹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참조, 제17:4).
- (3) 그러나 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녀가 간교하다는 것이다.
- (4) 여기서 '간교하다'는 것은 '숨은 마음을 가졌다'는 뜻으로 그 계집이 오직 자기의 육체적 만족을 위해서 남편에 대해서는 남편을 사랑하는 체, 정부(情夫)에 대해서는 정부를 사랑하는 체하면서, 자기의 진짜 감정을 나타내지 않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 (5) 그러므로 지혜 없는 자는 그 간사한 계집의 달콤한 유혹에 스스로 빠져서 헤매고 만다.
- (6) 성도들은 이러한 사실을 명심하고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그 중심을 보아야 한다.

11. **㉠ 지혜자는 이 간교(奸狡)한 계집의 성품과 습성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11, 12절)**

- ㉠** (1) 지혜자는 이 간사한 계집의 성품과 습성을 떠들며 완패하며 집에 머물지 않고 떠돌아 다닌다고 말하였다.
- (2) 즉 이 계집은 그 성품이 몹시 난폭하고 시끄러우며 멍에 매지 않은 짐승처럼 제어할 수 없으며(참조, 호 4:16) 집에 들어앉아서 집안 일을 돌보는 정숙한 주부와는 정반대로 떠도는 습성을 가졌다는 것이다.
- (3) 그런데 이 계집이 떠도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무절제한 호색성 때문에 그 색욕을 만족시키려고 그리하는 것이다.
- (4) 오늘날 이처럼 간사한 계집들은 곳곳에 산재해 있고 매스컴은 이런 계집이 무슨 자랑거리나 되는 듯이 선전하여 그것으로 사람들의 어리석은 욕심을 채워 주고 있다.
- (5) 그러나 성도들은 눈을 떠서 이런 간사한 계집과 이 간사한 세대의 진면모(眞面貌)를 보고 지혜를 배워야 한다(참조, 마 8:38).

12. **㉠ 음녀(淫女)는 어리석은 자를 어떻게 유혹하는가? (13-20절)**

- ㉠** (1) 음녀는 어리석은 자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13절), 아침하고(15절), 관능(官能)을 자극하고(16-18절), 또 그를 안심시키면서(19, 20절) 유혹한다.
- (2) 더우기 그 계집은 식생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 욕정을 만족시키기 위해 종교 의식을 행하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14절).
- (3) 이와 같이 음녀의 유혹은 간교(奸狡)하기 때문에 지혜를 소유하지 못한 자는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심지어 경건한 종교 행위를 이용하면서까지 다가오는 이 악한 유혹에 대해 경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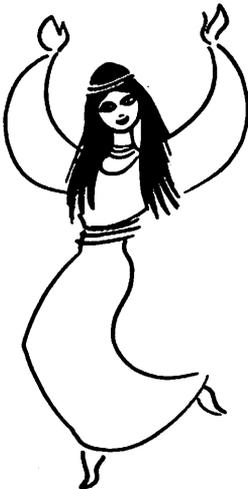
13. **㉠** 지혜자는 소년이 음녀를 따라가는 모습을 무엇에 비유했는가? (22절)

- ㉠** (1) 지혜자는 소년이 음녀를 따라가는 모습을 소가 푸주로 가는 것과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에 비유했다.
 (2) 이것은 소년이 음녀의 달콤한 유혹에 눈이 어두워 그 후에 따라 올 엄청난 형벌을 보지 못함을 나타낸 것이다.
 (3) 이와 같이 당장 눈앞에 있는 쾌락과 즐거움만을 생각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는 인생은 스스로 어리석은 것을 취하게 된다.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인생을 폭넓게 또 멀리 바라보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눈앞에 있는 악을 이기도록 하자(참조, 벰후 1:5-11).

14. **㉠** 지혜자는 음녀의 미혹(迷惑)에 대하여 무엇을 지키라고 하였는가? (25절)

- ㉠** (1) 지혜자는 음녀의 미혹(迷惑)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였다.
 (2)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시작되므로 마음을 지켜야만 음녀의 유혹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참조, 4:23; 마 5:28).
 (3) 그런데 지혜자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입의 말을 주의하라고 한다(24절).
 (4) 이것은 인간의 마음은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좌우되므로 지혜자의 말이 그 마음에 있을 때 그 마음을 바르게 지킬 수 있음을 말해 준다.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온갖 악한 유혹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한다.

본장의 요절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24-27절).

제 8 장 지혜는 가장 선한 것이다

단락구분 1-5 지혜의 소리를 들으라 / 6-21 지혜는 진리를 말하고 악을 미워한다 / 22-31 창조자이신 여호와께서 지니신 지혜 / 32-36 지혜를 얻는 자는 복된다

- 1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 2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 3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되
- 4 사рам들이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 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 5 어리석은 자들이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이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 6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 7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 8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굵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 9 이는 다 총명 있는 자의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의 정직히 여기는 바니라
- 10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 11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 12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 13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 14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 15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 16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 17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 18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 19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

- 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 20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 21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공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 22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 23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 24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 25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 26 하나님께서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 27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 28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 있게 하시며
- 29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 30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 31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 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 32 아들들이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 33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 34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 35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 36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1. ㉠ 본장은 참된 지혜의 근원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가?

㉡ (1) 본장의 교훈은 1:7-9:18에 나오는 15개 교훈 중 14번째에 해당한다.

- (2) 본장에서 지혜의 교훈은 지혜의 가치와 그 기원을 놀라울 정도로 깊이 있게 다루고 있으며 또 그 지혜를 얻는 자가 얻을 복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 (3) 즉 본장에서는 단순한 인간적 상상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초월적 진리인 지혜가 시의 형태를 빌어서, 세상 창조의 원리요 또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온 세상의 보존과 통치의 원리로 인격화되어 묘사된 것이다.
- (4) 이러한 지혜는 가장 심원한 종교적, 윤리적 탐구의 결과이며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가장 순결하고 참된 지식의 대상이다.

2. **㉠ 지혜자는 1절에서 지혜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 ㉠** (1) 지혜자는 지혜를 의인화(擬人化)하여 지혜가 소리친다고 묘사하였다.
- (2) 이렇게 지혜의 소리치는 모습은 음녀가 은밀하게 사람의 눈을 피해 사람을 유혹하는 모습과 큰 대조를 이룬다(7:12).
- (3) 여기서 진정한 지혜이신 예수님이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요 18:20)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자.

3. **㉠ 지혜가 외쳐지는 곳은 어디인가? (2, 3절)**

- ㉠** (1) 그곳은 길가의 높은 곳, 사거리, 성문 곁, 문 어귀, 여러 출입하는 문 등이다.
- (2) 이러한 장소들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또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다.
- (3) 그런데 이런 곳에서 지혜가 외쳐진다는 것은 지혜가 소수의 사람에게만 알려지기를 원치 않고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기 원함을 뜻한다.
- (4) 자세한 것은 1장 **㉠** 32, 33, 34를 참조하라.

4. **㉠ 지혜는 누구를 부르며 누구에게 소리를 높이는가? (4절)**

- ㉠** (1) 지혜는 사람들을 부르며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인다.
- (2) 여기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인자들'은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을 말한다.
- (3) 이와 같이 지혜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지혜를 얻도록 초청한다.
- (4) 그러므로 사람들은 빈부 귀천 유무식(有無識)을 가리지 말고 모두 지혜자에게로 와야 한다(참조, 사 55:1, 2).

5. **㉠ 왜 지혜가 먼저 사람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소리쳤는가? (5절)**

- ㉠** (1) 왜냐하면 그들이 어리석은 자들이고 미련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 (2) 즉 그들은 지혜가 부르지 않고 그들에게 소리치지 않으면 지혜에 대하여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 (3) 그러므로 지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지혜를 얻도록 소리치는 것이다.
- (4) 이러한 지혜의 부름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한다.
- (5)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라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요일 4:10).

6. **㉠ 지혜가 어리석은 자들과 미련한 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5절)**

- ㉠** (1) 지혜는 어리석은 자들이 명철해지고, 미련한 자들의 마음이 밝아지기를 바란다.
- (2) 그리하여 지혜는 자기의 소리를 들으라고 한다.
- (3) 그러므로 성도들은 지혜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 선악을 분별하여 명철해지며 또한 선을 좇아 행하여야 한다.

7. **㉠ 지혜가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6-8절)**

- ㉠** (1) 그것은 '가장 선한 것', '진리'이며, '정직', '악을 미워하는 것', 급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는 '의로운 것'이다.

- (2) 성도들은 이것들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볼 수 있다(참조, 고전 1:24).
- (3) 즉 예수님은 가장 선한 분이시며 진리(참조, 요 14:6)이시고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으신 의로운 분으로 정직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시다.
- (4) 그분의 인격이 그러하므로 그 인격의 표현인 그분의 말은 본질의 묘사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의 초점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

8. **㉠ 어떤 자가 지혜의 말을 밝히 알 수 있는가? (9절)**

- ㉠** (1) 총명한 자, 즉 지혜의 가르침을 경청(敬聽)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지혜가 말하는 것들을 밝히 이해할 수 있다.
- (2) 그런데 이들은 단순히 지적(知的)인 능력이 뛰어난 자를 가리키지 않는다.
- (3) 비록 촌부(村夫)라 하더라도 아이와 같이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다 밝히 알 수 있다(참조, 시 8:2; 마 11:25).
- (4) 이러한 사실은 단순히 인간의 순진성을 칭찬하기 보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깨닫게 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을 나타나게 한다(참조, 마 11:26-30).

9. **㉠ 지식 얻은 자가 지혜의 소리를 정직히 여기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9절)**

- ㉠** (1) 그 이유는 지혜가 의와 불의를 분명하게 분별케 하며 곧은 길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 (2) 비록 사람이 살아 있는 자체와 또 앞으로 살아갈 것과 영원한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것 같으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분에게 결코 불투명하거나 불확실한 것이 있을 수 없다.
- (3) 그러므로 그분의 소리를 듣고 지혜를 얻는 자는 바르고 곧게 인생의 행로를 정하며 그 길을 행하게 된다.
- (4) 여기서 지혜의 소리가 정직함이 입증되어진다.
- (5) 오늘을 사는 성도들은 앞서간 믿음의 선진(先進)들을 통해 그러한 것을 확인하며 또 오늘의 증인들로서 살아가야 한다(참조, 히 12:1).

10. **㉠ 지혜는 그의 교훈을 무엇과 대조하면서 어떠한 교훈을 택하도록 했는가? (10절)**

- ㉠** (1) 지혜는 그의 교훈을 은과 정금(精金)과 대조시키면서 지혜의 교훈을 택하도록 권했다.
- (2) 이러한 본질의 말씀은 마 6:24의 예수의 말씀에 통해서 보다 깊이 이해될 수 있다.
- (3) 즉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다.
- (4) 오늘날과 같은 물질 만능의 세대 속에서 과연 우리 성도들은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의연히 하나님만 섬기는 지혜자가 되어야 한다.

11. **㉠ 지혜는 무엇보다도 가치가 있는 것인가? (11절)**

- ㉠** (1) 지혜는 진주, 즉 세상의 모든 보화나 재물보다도 가치가 있다.
- (2)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지혜보다는 현물(現物)인 진주를 더 사랑하고 좋아한다.
- (3) 그리고 실제로 그 진주는 현실의 생활을 편안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 (4) 그러나 인생은 물질적인 풍요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갖고 있다.
- (5) 즉 생사(生死)의 문제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진주의 일시적인 가치성이 드러난다.
- (6) 하지만 지혜는 인생이 원하는 것 무엇에나 해결책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이 인간다운 평안과 풍요를 누리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이다.
- (7) 그러므로 지혜의 가치를 아는 자는 자기가 가진 것 모두를 내어 놓으면서까지도 지혜를 따라 인생 길을 간다(참조, 눅 14:33).

12. **㉠** 지혜가 '명철로 주소(住所)를 삼는다'는 말이 가리키는 바는 무엇인가? (12절)

- ㉡** (1) 이 말은 지혜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현명함과 삶의 기술을 간직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말이다.
 (2) 즉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직접 섭리하시는 곳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 생활의 구체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작용하는 것임을 말해 준다.
 (3) 그래서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는다'(눅 7:35)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다.
 (4)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가 뛰어난 통일성(統一性)을 가지면서 인생 전반(全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13. **㉠** 13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 ㉡** (1) 본절에서는 악을 미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2)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가 미워하는 악이 교만과 거만(倨慢)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이라고 부기(附記)하고 있다.
 (3) 우리는 이러한 악의 전형적인 모습을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유혹자에게서 찾아 볼 수 있다(참조, 창 3:1-6).
 (4) 이들은 피조물로서의 그들의 정당한 위치를 벗어나서 마음으로부터 교만해지고 거만해 지므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악한 행실을 범하였으며 그 후 패역한 입으로 자기 변명하기에 급급하였다(참조, 창 3:1-14).
 (5)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에 대한 금령(禁令)을 주신 것이 그들로 악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악이 무엇인지 알고 악을 미워함으로 여호와를 경외케 하려고 주신 것임을 알아야 한다.
 (6)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은 이제 더욱 확실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바를 지키고 그와 반대되는 악을 미워하는 것임을 알고 악을 미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롬 12:9; 살전 5:22).

14. **㉠**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은 어떤 자들을 가리키는가? (15, 16절)

- ㉡** (1)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은 위에 나온 왕들과 방백들과 재상과 존귀한 자들을 가리킨다.
 (2) 즉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던 자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을 총칭(總稱)한다.

15. **㉠** 세상의 통치자들은 무엇으로 처리하고 공의를 세우는가? (15, 16절)

- ㉡** (1) 그들은 지혜로 말미암아 나라를 다스리고 공의(公義)를 세우며 재판한다.
 (2) 여기서도 지혜가 단순한 인간의 명철함이나 슬기로움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이 세상이 통치되어가는 근본적인 원칙(原則)임을 알 수 있다.
 (3) 이러한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고 말하였다(롬 13:1).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에 부합되는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롭고 공의로운 통치에는 순종해야 한다.

16. **㉠** 어떤 자가 지혜의 사랑을 입는가? (17절)

- ㉡** (1)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지혜의 사랑을 입는다.
 (2) 그러므로 지혜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면서 지혜를 얻으려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다.
 (3) 여기서 성도들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자(요 14:21).

17. **㉠** 지혜는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가? (17절)

- ㉡** (1) 지혜는 간절히 찾음으로 만날 수 있다.

- (2) 그런데 이러한 노력은 지혜를 자기 안에서 찾을 수 없음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다.
 (3) 그러나 인간의 노력이 필연적으로 지혜를 발견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한 뜻을 보이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이 가치 있게 되는 것이다.
 (4)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모든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임을 먼저 생각하고 그 은혜에 의지하여 인간은 정당한 노력을 해야 한다.
 (5)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그 은혜를 의지하며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되자(참조, 마 7:7; 약 1:5).

18. **㉠ 지혜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18절)**

- ㉠** (1) 지혜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부귀(富貴)와 장구(長久)한 재물(財物)과 의(義)이다.
 (2) 그런데 본절에서 지혜가 부귀와 장구한 재물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가 부여하는 최후의 상급은 의(義)임을 알 수 있다.
 (3) 실로 지혜가 부여하는 의(義)가 없다면 모든 물질적 축복은 아무런 가치도 없게 된다.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지혜로 말미암아 부유하고 장구한 재물을 누린다고 하여 만족하지 말고 항상 의(義)의 상급을 사모하도록 하자.

19. **㉠ 지혜의 열매는 어떤 것들보다 더 가치가 있는가? (19절)**

- ㉠** (1) 지혜의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더 가치가 있다.
 (2) 왜냐하면 금이나 정금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큰 보장이 되고 힘이 되어 인생을 풍부하게 할지 모르나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는 전혀 무가치하기 때문이다.
 (3) 그러나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명의 길을 가게 함으로 현세는 물론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통용될 영구한 보화들을 얻게 하기 때문이다.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러한 가치관(價値觀)을 견고히 가지고 지혜의 열매를 맛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20. **㉠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어떤 길로 행하게 되는가? (20, 21절)**

- ㉠** (1)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지혜가 행하는 대로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公平)한 길 가운데로 다니게 된다.
 (2) 즉 지혜를 사랑하는 것은 관념 속에서나 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고 있는 시공간(時空間)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구체적인 현실의 삶에서 의와 공평이 그의 삶의 특징으로 드러나게 된다.
 (4) 그러나 그는 율법주의자나 형식주의자들과 같이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자는 아니다.
 (5) 오직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 길에서 의와 공평이 드러난다.
 (6) 성도들은 참지혜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므로 그들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의와 공평이 특징으로 드러나야 한다.

21. **㉠ 지혜가 그 길을 주장하는 자는 무엇을 얻게 되는가? (21절)**

- ㉠** (1) 그는 의와 공평의 길을 가기 때문에 재물을 얻게 된다.
 (2)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 길에 복이 있음을 말해 준다.
 (3) 그런데 그는 재물을 얻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이 공간에 채워지는 복까지 얻는다.
 (4) 그리고 그 복은 땅위에서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공간에 쌓여지는 복을 의미하므로 인생에게 진정한 복이 된다(참조, 마 6:19, 20; 눅 12:33; 벰전 1:4).

22. **㉠ 22-31절 부분은 무엇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가?**

- ㉠** (1) 여기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지는 창조와 통치 영역을 밝히고 있다.
 (2) 즉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지으신 만물을 당신의 의지에 따라 통치해 가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3)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자와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신앙의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다(창 1:1).
- 23. ㉠** 22-31절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 있는가?
㉠ (1) 본문은 한 인격자의 본성(本性)과 직분(職分)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는 인격자를 그리스도로 볼 수 있다.
 (2)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눅 11:49) 혹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였기 때문이다(고전 1:24).
 (3) 그러므로 본문은 지혜자의 기술을 통해서 참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다.
- 24. ㉠** 지혜는 어떤 분인가? (22-26절)
㉠ (1) 지혜는 영원한 분이다.
 (2) 즉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시간이 존재해서 시작되기 이전에, 여호와께서 그를 품에 품으신 분으로 하나님이 영원하심같이 그도 영원한 분이다.
 (3) 그런데 본문에 '세움을 입었다' (23절), '이미 났으며' (24절)란 말은 영원한 지혜에게 합당치 않는 듯하나 이런 표현들은 지혜의 영원성을 부인하기 보다는 영원부터 활동하였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 25. ㉠** 지혜는 무엇에 앞서서 존재했다고 말하는가? (22-26절)
㉠ (1) 본문에서 지혜는 피조계가 창조되기 이전에 있었고 만세 전부터, 상고(上古)부터, 땅이 생기기 전에 있었다.
 (2) 그리고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있었다.
 (3) 또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있었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塵土)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 있었다.
 (4) 이와 같이 지혜는 전피조계가 생기기 전에 앞서서 있었던 존재이다.
 (5) 이러한 것은 피조된 인생의 제한된 지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하지도 못하고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6)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토록 탁월한 지혜를 소유하신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먼저 꿇어질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26. ㉠** 지혜는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그 곁에 있었는가? (27-30절)
㉠ (1) 지혜는 여호와께서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窮倉)으로 해면(海面)을 두르실 때에 그 곁에 있었다.
 (2) 또 여호와께서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堅固)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지혜가 그 곁에 있었다.
 (3) 즉 이 부분은 창조의 모든 사역이 지혜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음을 인간의 아름다운 언어로 묘사한 것이다(참조, 요 1:3).
 (4) 이러한 놀라운 지혜의 계시(啓示)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기의 제한된 지식으로 우주의 근원에 대하여 왈가 왈부(曰可曰否)하면서 교만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
 (5)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계시(啓示)의 빛을 받아서 우주에 대하여 생각하고 우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지혜가 크고, 깊고, 넓고 그 능력이 무한하심을 깨닫게 된다(참조, 롬 11:33).
- 27. ㉠** 지혜가 여호와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는 것은 지혜의 어떤 면을 말해 주는

가? (30절)

- Ⓐ (1) 이것은 지혜가 창조의 사역에 있어 능동적인 존재로 창조 사역에 참여한 면을 보여 준다(참조, 요 1:1-5).
- (2) 즉 27-29절 부분에서 지혜는 여호와께서 창조하실 때 보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함께 그 창조 사역을 이룬 사실을 말하고 있다.
28. Ⓢ 지혜는 창조 사역을 어떻게 행하였는가? (30절)
- Ⓐ (1) 지혜는 창조 사역시 날마다 기쁨을 가지고 항상 즐거워하며 행하였다(참조, 창 1:4, 10, 12, 18, 21, 25, 31; 2:3).
- (2) 즉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라는 본질을 일을 할 때에 기쁨으로 했으며, 일을 마침으로 희열이 왔음을 나타낸다.
- (3)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역지로나 그저 우연히 행하신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셨음을 알고 창조의 뜻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29. Ⓢ 지혜가 창조의 사역 중에서 특별히 즐거워하고 기뻐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31절)
- Ⓐ (1) 지혜는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고 사람들을 기뻐하였다.
- (2)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기쁨을 두셨는지를 알게 된다.
- (3) 그러나 지혜가 그렇게 정하였기 때문에 기쁜 것이지 인간 자체가 어떤 미덕(美德)을 가지고 있기 때문은 아니다.
- (4) 그러므로 인간의 가치와 본분을 알기 위해서는 지혜에게 와야만 한다.
- (5) 그럴 때 지혜는 인간을 향한 그의 즐거움과 기쁨을 인간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30. Ⓢ 32-36절 부분에서 지혜는 어떤 교훈을 하는가?
- Ⓐ (1) 지혜는 본문에서 앞의 권고들(5:7; 7:24)을 다시 반복하나 단순히 도덕적, 사회적 권위에서가 아니라 근본이 되는 창조주의 높은 권위에서 반복하고 있다.
- (2) 그리하여 지혜는 지금까지 보여진 자기의 신적(神的)인 권위와 인간에 대한 사랑의 관심을 근거로 자기를 찾고 순종하는 자가 얻을 고상한 복을 말한다.
31. Ⓢ 지혜는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가? (32, 34절)
- Ⓐ (1) 지혜는 자기의 도(道), 즉 교훈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으며 또 지혜를 듣되 날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다.
- (2) 결국 지혜가 소리쳐 부르던 그 목적이 이런 자에게서 비로소 이루어짐을 말한다.
- (3) 즉 지혜는 외쳐지되 강요하여 그에게 굴복하게 하지 않고 자원하여 그 앞에 나오고 그를 지키고 그를 사모하게 한다.
- (4)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런 자세,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청종(聽從)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에게 복이 있다.
32. Ⓢ 지혜를 지키는 자가 얻을 복은 무엇인가? (35절)
- Ⓐ (1) 그것은 생명(生命)과 여호와와의 은총(恩寵)이다.
- (2) 이러한 복은 인생이 얻어야 할 가장 고상(高尚)한 것이다.
- (3) 그런데 요 1:4에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곧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였고, 요 3:36에서는 '아들을 믿는 자의 영생을 가졌고', 요 17:3에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고 하였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생명이며 그것이 여호와와의 은총(恩寵)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참조, 엠 2:8).
33. Ⓢ 생명과 사망의 문제는 무엇에 달려 있는가? (35, 36절)
- Ⓐ (1) 그것은 인생이 지혜를 얻느냐 잃느냐에 달려 있다.

- (2) 왜냐하면 지혜가 창조의 근원이고 생명의 주이기 때문이다.
 (3) 그러므로 이 지혜가 인생을 명하여 지혜를 얻고 생명을 얻으라고 할 때 속히 그리로 돌아서야 한다.

연구자료

의(righteousness)에 대하여

본서에는 의인과 악인에 대한 비교가 많이 나온다(참조, 10-15장). 그래서 본고(本稿)는 성경에 나타난 의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실 '악'의 상대적 개념은 '선'이지만 신앙적인 차원까지 확대된 개념이라면 이는 '의'라는 개념으로 대치(代置)되어야 한다(비교, 눅 18:19).

1. 언어의 분석

본서에 쓰인 의인이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차디크>로서 '올바른', '정당한' 등의 의미이다. 같은 뜻의 헬라어는 <디카이오쉬네>이며 '의'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경건함'(마 6:1), '공의'(행 24:25) 등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형용사 <디카이오스>는 문맥에 따라 '무죄한'(마 27:4), '성실한'(눅 20:20), '정직한'(딤후 1:8) 등으로 번역된다. 이와 같은 실제적인 현상(現象)은 하나님과 바른 신앙적인 관계를 가진 의인의 모습을 가리킨 것이다.

2. 의와 믿음

성경은 의에 대한 실제적인 여러 모습을 보여 주지만(10:7; 욥 31:13-23) 그것이 곧 구원 받은 자의 모습은 아니다(롬 3:24). 신자들은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以信得義]을 받았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롬 1:16, 17). 구약의 이스라엘은 도덕적으로 의롭지는 못했지만(시 32:11)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의롭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었다(참조, 시 37:39, 40). 또한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도 하나님의 의를(롬 1:17) 인간들에게 드러내어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려는 것이었다(롬 3:26). 결국 본서에 나타난 의인과 악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을 떠나 그를 거부한 자를 의미함과 동시에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여 주는 모형(model)이 된다.

제 9 장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단락구분 1-6 지혜가 어리석은 자를 초대하다 / 7-12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 13-18 미련한 계집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떠들다

- 1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 2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 3 그 여중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
- 4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 5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 6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 7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 8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 9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와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 10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 11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 12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 13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 14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중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 15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 16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 17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 18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움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1. ㉠ 본장에서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 ㉠ (1) 본장은 1:7-9:18에 나오는 15개 교훈 중 마지막 15번째 교훈에 해당한다.
 (2) 즉 본장에서는 지혜가 연회를 베풀어 어리석은 자를 초청하며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고 권면하는 것과 미련한 계집이 어리석은 자를 불러 죄악으로 이끄는 것이 대조되어 있다.
 (3) 그리고 지혜의 권고를 듣고 돌이킨 자가 얻을 복과 미련한 계집을 따라가는 자의 무지함이 각각 언급되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는 이 둘 중 하나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4) 그러므로 성도들은 비록 똑똑하지 못하더라도 지혜의 초대를 순히 받아 생명길로 나아가도록 하자.

2. ㉠ 지혜는 무엇을 지었는가? (1절)

- ㉠ (1) 지혜는 집을 지었다. 그런데 이 집은 7장과 본장의 음녀가 가진 집과 대조된다.
 (2) 전자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고 후자는 사람을 유혹하여 멸망시키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지혜가 지은 집이란 지혜이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리킨다(참조, 딤후전 3:

15; 벧전 2:5).

3. **Q** 지혜의 집에는 기둥이 몇 개 있는가? (1절)

- A** (1) 지혜의 집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는 일곱 기둥이 있다.
 (2) 그런데 본절에서 '7'이라는 수자는 실제로 일곱 개의 기둥이 있다는 뜻이라기 보다는 교회의 완전함과 견고함을 나타낸다.
 (3) 즉 그 일곱 집을 기둥으로 바치고 있다는 것은 그 집의 완전함과 견고함을 묘사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중 음부의 권세가 그의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는 말씀과 연결되어진다.
 (4)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서 이 교회가 얼마나 견고하고 완전한가를 알고 그 견고함에 항상 서 있어야 한다.

4. **Q** 지혜는 그의 집에다 무엇을 베풀었는가? (2절)

- A** (1) 지혜는 그의 집에다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어 잔치를 베풀었다.
 (2) 이러한 잔치는 사람들의 배고픔을 잠시 동안 해결해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흡족하게 먹을 만큼의 준비를 한 것이다.
 (3) 또한 본절의 잔치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영적인 만족과 그 풍성한 복을 상징한다고 할 수도 있다(참조, 사 55:1, 2; 마 5:6).
 (4) 성도들은 이렇게 풍성히 베풀어진 연회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그 풍성한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참조, 계 22:17).

5. **Q** 지혜는 누구를 보내어 사람들에게 연회에 참석토록 초청하는가? (3절)

- A** (1) 지혜는 그 여종을 보내어 사람들을 초청토록 했다(참조, 마 22:3).
 (2) 본절의 여종이란 신약의 사도들과 전도자들과 목사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3) 주님의 교회에 이러한 일꾼들이 있으므로 복된 소식이 널리 전파될 수 있으니 그런 일꾼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그 일꾼들의 말에 순종하자.

6. **Q** 그 여종이 사람들을 불러 초청의 말을 이르는 곳은 어디인가? (3절)

- A** (1) 그곳은 성중 높은 곳이다. 왜냐하면 높은 곳이라야 사람들에게 제일 잘 보여지고 들려지기 때문이다.
 (2) 마찬가지로 천국 복음도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진리이므로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3)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위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도록 말씀하셨다(참조, 마 28:19; 행 1:8) 따라서 성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하며(참조, 딤후 4:2),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파하도록(참조, 겔 2:7) 힘써야 한다.

7. **Q** 이러한 초청의 대상은 누구인가? (4절)

- A** (1) 초청의 대상은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이다.
 (2) 만약 보통 사람들이 대접을 해야 할 경우라면 이런 부류의 사람을 좋아하지도 않을 것이고 더우기 그런 자들에게 와 주심사고 초대하지도 않는다.
 (3) 그러나 지혜는 그런 자들을 초대하고 있다. 즉 지혜로부터 그들은 결코 멸시받거나 희망 없는 자로 포기되지 않는다.
 (4) 왜냐하면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자기들이 본다고 말하며(참조, 요 9:41)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를 부르러 오셨기 때문이다.
 (5) 그러므로 궁핍한 자, 자기의 부족을 느끼는 자는 누구든지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주님께로 나와야 한다.

8. **Q** 지혜는 무엇을 제공하여 먹고 마시라 하는가? (5절)

- A** (1) 지혜는 자신이 초대하는 자에게 와서 자기의 식물을 먹고 자기가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라고 한다.
- (2)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요 6:51)라고 말씀하셨다(참조, 눅 22:19; 고전 11:23, 24).
- (3) 또한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눅 22:20)고 말씀하셨다(참조, 고전 11:25, 26).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님이 베푸신 성찬을 통해 지혜가 제공하리라는 식물과 포도주가 무엇임을 알 수 있다.

9. C 지혜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으라 하는가? (6절)

- A** (1) 지혜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고 한다.
- (2) 본절에서 어리석음과 생명이 함께 언급되고 있는데 여기서 생명은 단순히 현세의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참생명을 가리킨다. 또한 어리석음을 버린다는 말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과 연결된다(참조, 눅 9:23, 24).
- (3)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도 지혜가 제시하는 바는 영원의 관점에서의 교훈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보다 주의하여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도록 해야 한다.

10. C '거만한 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가? (7절)

- A** (1) 거만한 자는 상대방을 업신여기며 조롱하는 자를 가리킨다.
- (2) 이들은 세속적인 것이나 거룩한 것이나 모두 조롱하는 태도를 취하며 하나님의 충고와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자이다.

11. C 지혜는 거만한 자에 대하여 어떻게 행하라고 하는가? (8절)

- A** (1) 지혜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고 한다.
- (2)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말로 그를 훈계할지라도 거만한 자의 마음은 완악하고 교만해서 훈계의 말을 업신여기며 더욱 그릇되게 행하기 때문이다.
- (3) 그러므로 성도들은 거만한 자를 책망하기 보다 악인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그들의 잘못을 깨닫도록 조용히 선을 행해야 한다.

12. C 지혜는 누구를 책망하라고 하는가? (8절)

- A** (1) 지혜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고 한다.
- (2)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단순하고 겸손하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자들을 가리킨다(참조, 마 18:3).
- (3) 즉 그들은 지적으로 뛰어난 자들이라기 보다 바른삶이 어떤 것인지 아는 자들이다.
- (4) 이러한 자들은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바르게 살기를 힘쓰는 자들이므로 자기를 책망할 때이를 오히려 감사히 여기고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기 보다 더 존경하고 사랑하게 된다.
- (5)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책망을 받아 점점 지혜로워지게 된다.

13. C 9절에서는 어떤 문학적 기교를 사용하고 있는가?

- A** (1) 본절에서는 병행법을 사용해서 그 교훈을 분명하게 한다.
- (2) 즉 지혜로운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거듭 언급하는데 양자는 각기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람의 특징을 따로따로 부각시키면서 결국은 하나의 교훈을 하고 있다.
- (3) 결국 본절은 훈계를 정중하게 받는 자가 그 인격의 성숙을 이루게 될 것을 말한다.

14. C 지혜가 가르치는 지혜의 근본은 무엇인가? (10절)

- (A)** (1)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 (2) 여기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는 하나님이 창조적 능력을 통해 일하시는 물질적, 도덕적 법칙과 우주의 기본 원칙에 순응하는 것을 포함한다.
- (3) 그러나 이러한 보편적인 법칙들을 지배하시고 특별히 인간을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높이는 자세야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본 자세로 삼아야 할 지혜이다.
- (4)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분을 주(主)로 인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

15. C 무엇이 명철인가? (10절)

- (A)** (1)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 (2) 물론 본질에서 거룩하신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킨다(참조, 사6:3).
- (3) 그런데 그 거룩하신 자를 안다는 것은 사변(思辨)적인 삶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경외(敬畏)와 예배를 동반한다.
- (4) 그러므로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은 본질의 앞부분에서 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동일한 말이다.
- (5) 여기서 인간의 명철은 인간 자신에게서 선천적(先天的)으로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지식을 앎으로써 획득되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6) 그리하여 칼빈(Calvin)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하였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다’고 하였다(기독교 강요 1권 1장).

16. C 지혜가 약속하는 축복은 무엇인가? (11절)

- (A)** (1) 그것은 지혜자의 날이 많아지고 그의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는 것이다.
- (2) 이러한 축복은 지혜를 좇는 자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풍성한 생을 살아갈 것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해 영생의 복을 누릴 것을 말한다(참조, 요 5:24; 10:10).
- (3) 그러므로 성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 말미암아 생을 풍성하게 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지혜를 좇아가자.

17. C 지혜의 초청에 맞대어 어떤 자의 초청이 서술되어 있는가? (13-18절)

- (A)** (1) 본문에는 지혜의 초청에 반대되는 미련한 계집의 초청이 서술되어 있다.
- (2) 이러한 두 초청은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발견될 수 있다.
- (3) 그런데 두 가지 초청은 모두 어떤 만족을 허락한다. 그러나 이 두 초청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받는 자에게 나타나는 결과에 있다.
- (4) 즉 지혜는 그를 더욱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반면 미련은 죽음으로 인도한다.
- (5) 이러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초청은 어느 세대에게나 관계되어지는 것으로 인간은 누구나 그 둘 중 하나를 따를 수밖에 없다.

18. C ‘미련한 계집’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13절)

- (A)** (1) ‘미련한 계집’은 ‘미련함’을 의인화(擬人化)한 것으로 지혜와 반대되는 ‘미련함’을 가리킨다.
- (2) 이 ‘미련함’은 여러 곳에서 음녀로 묘사되었다(참조, 2:16; 5:3 이하; 6:24 이하; 7장).

19. C 미련한 계집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13절)

- (A)** (1) 미련한 계집은 떠돌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 (2) 즉 그녀는 욕망에 의하여 몹시 사나우며 무엇인가를 열심히 한다.
- (3) 그러나 악에 대해서 대항할 힘도 없고, 그가 당할 결과를 조금도 생각함 없이 계속적으로 무지 가운데서 행한다.

(4) 이러한 난폭과 무지는 미련한 자에게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행위이기도 하다.

20. **㉠ 미련한 계집이 앉아 있는 곳은 어디인가 (14절)**

- ㉠** (1) 미련한 계집은 자기 집 문, 즉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 있다.
 (2) 그러나 그녀의 집은 일곱 기둥으로 떠받쳐지지도 않았으며, 단지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성읍 높은 곳에 있을 뿐이다.
 (3) 그리하여 미련한 계집은 그 집 문 앞에서 수치스런 장사를 하려고 단정치 못한 유혹하는 자세로 문 앞에 앉아 있다(참조, 창 38:14; 렘 3:2).
 (4) 이와 같이 악은 진리와 비슷한 모습을 하며 언제나 쉬운 길을 취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러한 미련함의 습성을 예리하게 파헤쳐서 그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21. **㉠ 미련한 계집은 어떤 사람을 유혹하는가? (15절)**

- ㉠** (1) 그 계집은 자기 길을 바로 가는 사람을 부르며 유혹한다.
 (2) 이와 같이 미련함은 뻔뻔스런 얼굴로 의와 의무의 바른길을 가는 사람을 그 바른길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애를 쓴다.
 (3)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교훈과 함께 택하신 자라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려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 사실을 생각하며 근신하고 믿음을 굳게 하여 그들을 대적해야 한다(참조, 마 24:24; 뱀전 5:8).

22. **㉠ 미련한 계집이 사람을 초청하는 그 외양은 어떠한가? (15절)**

- ㉠** (1) 그 외양은 지혜가 초대하는 모양과 비슷하다.
 (2) 즉 미련한 계집 역시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에게 말하여 자기에게로 돌이키라고 한다.
 (3) 여기서 모든 거짓된 교훈이 진리와 유사한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일시적이지만 신봉자를 얻게 되고 번창하기도 한다.
 (4) 따라서 성도들은 외양에 따라 교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그 교훈이 본질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하여 바른 진리의 교훈을 받아들여야 한다.

23. **㉠ 미련한 계집이 유혹하는 말의 내용은 무엇인가? (17절)**

- ㉠** (1) 그 유혹의 말은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는 것이다.
 (2) 이런 유혹은 지혜가 제공하는 것만큼 풍부하고, 만족스러우며, 즐거운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3) 왜냐하면 도적질한 물이나 몰래 먹는 떡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평안과 의를 주지 못하고 단지 비합법적이고 은밀한 쾌락을 주는 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4)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유혹에 호기심을 가지며 또 그것을 합리화시켜서 즐기기도 한다.
 (5) 이러한 것은 바로 타락한 인간성의 한 증거가 된다.

24. **㉠ 미련한 계집의 감언 이설(甘言利說)에 속아 넘어가는 자가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18절)**

- ㉠** (1) 그것은 미련한 계집의 집에서 쉬는 자가 모두 죽게 되고 결국 지옥의 댕에 걸리게 된다는 사실이다.
 (2) 이런 무서운 경고는 2:18;7:27에서도 언급된 것으로 예수님이 막 9:44, 46, 48에서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 하느니라'고 거듭 경고하신 무서운 말씀을 생각케 한다.
 (3) 이것은 단순히 가공적인 위협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정

하신 바임을 명심하고 이런 정중한 경고에 귀를 기울여 경청(敬聽) 함으로 지혜를 얻어야 한다.

- (4) 이러한 경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유혹에 빠지고 난 뒤 '나는 알지 못하여 그렇게 됐읍니다' 라고 아무리 핑계하여도 소용 없다.

연구자료

구약 성경에 나타난 죽음과 관계된 음부(陰府)의 제 개념(諸概念)

구약 성경에는 '음부'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대개 죽음이 라는 개념과 연관되어 있다(삼하 22:6; 시 18:5).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음부란 무엇을 뜻하며 그것과 죽음과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가? 이에 대하여 본고(本稿)는 음부와 죽음을 구분하여 살펴본 후 결론을 맺으려 한다.

1. 음부

구약 시대의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으로 여겨진 장소는 '스울'(sheol)이다. 이것을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한다. 개역 성경에는 스울이 '음부'(창 37:35), '유명'(幽冥, 15:11), '무덤'(시 28:1), '멸망의 웅덩이'(욥 26:6) 등으로 번역되어 있다. 그러면 음부는 정확히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이에 관해서는 성경상의 언급이 없으므로 알 수 없다. 하지만 많은 은유적, 시적 성경 귀절들이 음부를 땅 밑의 어떤 장소로 묘사하고 있다(욥 7:9; 시 55:15). 구약 시대 사람들은 이곳을 죽은 인간의 혼이 머무는 곳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곳에도 하나님의 통치력과 권능이 여전히 미치는 것으로 여기었다(욥 26:6; 시 139:7, 8). 그런데 구약의 '음부'와 신약의 '지옥' 간의 의미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음부는 죽은 사람들 모두가 필연적으로 가서 머무르게 되는 장소라는 점에 반해 지옥은 사후(死後), 악인의 영혼이 고통받는 형벌의 장소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구약 성경에는 음부가 마치 땅 밑(민 16:30)이나 땅 밑의 물 속(욥 26:5)에 위치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다. 이곳은 어둡고 침울한 세계(시 143:3)이며 살아 있을 때의 삶에 대하여 거의 의식할 수 없는 장소이다(전 9:5, 6). 이처럼 음부는 적막한 장소이며 존재 의미가 없는 세계이다(시 94:17; 115:17).

2. 죽음

구약 성경에 사용된 '죽음'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벨〉이다. 그런데 〈마벨〉은 '죽음'이란 뜻과 더불어 종종 '음부'라는 뜻으로도 사용되었다(욥 30:23; 사 38:18). 구약 성경은 인간의 사후(死後) 세계에 관해 거의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히브리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의 혼이 음부에 내려가 무의식적 상태에서 긴 잠을 자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렘 51:39). 그러나 이방 민

죽음들은 '혼' 과는 개념이 약간 다른 '망령' (히, 레파임)이 음부에 가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 여기서 망령이란 살아 있을 때의 인간 형체가 희미하게 남아 있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存在)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진다. 아몽든 이러한 사실들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는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이 나타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① 죽음은 인간의 죄와 불순종에 대한 벌이다(참조, 창 2:9-3:19). ② 기독교에서는 죽음을 육체적 죽음과 영적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으로 구분지어 이해하는데 반해 구약 성경에서는 대개 죽음을 육체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참조, 왕상 17:21, 22; 시 78:50). ③ 히브리인들은 죽음에 대하여 몹시 두려워하였으며(시 6:1-5) 할 수만 있으면 죽음을 면하려고 하였다(출 10:17). ④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인간이 죽음을 겪지 않을 수도, 죽은 상태에서 다시금 살아날 수도 있다고 믿은 것 같다. 구약 성경에는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기사가 나와 있다(창 5:24; 왕하 2:11). ⑤ 신약 성경에서처럼 확실치는 않지만 구약 성경에서도 부활 사상이 나타난다. 죽음은 종종 열조(列祖)에게로 돌아가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으며(창 49:33) 개인의 부활에 관한 소망이 언급되어 있다(시 17:15; 호 6:2).

3. 결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갈 점은 아브라함과 모세, 사무엘과 같은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사후에 어디로 갔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분명한 답은 제시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음부에는 가지 않았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옥도 아니고 낙원도 아닌 별개의 장소로서 의인과 악인이 함께 공존하는 음부가 존재한다는 생각은 신·구약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어긋나기 때문이다(창 18:23; 마 25:46). 성경에는 음부라는 말이 종종 사후 세계가 아닌 실제적인 인간의 무덤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었다(창 35:20).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의 음부라는 말은 인간의 죽음과 그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로 이해되어야만 할 것이다. 죽은 사람은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다. 죽음은 침묵의 세계요 어둠과 무의식의 세계이다. 히브리인들은 이러한 상태를 음부라는 말이 지니고 있는 개념으로 표현하였던 것이다(창 37:35; 욥 10:21, 22; 시 115:17).

제 10 장 의인과 악인이 대조되다

단락구분 1-7 의인의 영혼은 주리지 않는다 / 8-14 입을 지키 지식을 소중히 간직하라 / 15-24 의인의 수고는 헛되지 않고 생명을 이룬다 / 25-32 의인은 영영히 이동되지 않는다

- 1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 2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 3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주리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 4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 5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 6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 7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 8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리라
- 9 바른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 10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느니라
- 11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 12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 13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 14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 15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니라
- 16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

- 은 죄에 이르느니라
- 17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 18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요 참소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 19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 20 의인의 혀는 천운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 21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 22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경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 23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 24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 25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 26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초갈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 27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년세는 짧아지느니라
 - 28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풀어지느니라
 - 29 여호와와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 30 의인은 영영히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 31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 32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장은 앞의 부분(1-9장)과 달리 주로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대조시키면서 교훈하고 있다.
- (2) 그리하여 먼저 1절에서 서론적으로 언급한 후 지상의 부귀를 소유함과 소유하지 못함(2-7절), 입술의 사용 방법과 그들의 생애에 찾아오는 행동(亨通)함의 차이(8-14절)에 대해 말하였다.

- (3) 그리고 축복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측과 파멸의 행위를 하는 측(15-24절)에 대하여, 또 두 부류의 사람들의 결과적 차이에 대하여(25-32절) 말하였다.
- (4) 그러나 이렇게 선명하게 대조되는 의인과 악인의 모습이 오늘날 복잡한 사회 속에서 현저하고 뚜렷하게 구별되어 나타나지는 않는 것처럼 보인다.
- (5) 하지만 성도들은 실제의 생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인과 함께 하시며 그의 길을 분명하게 보장해 주심을 믿고 요동치 않는 의인의 길로 가야 한다.

2. **㉠ 본장에서 눈에 띄게 나타나는 표현상의 특징은 무엇인가? (1-32절)**

- ㉠** (1) 본장에서 눈에 띄게 나타나는 표현상의 특징은 히브리 시에 있어서 특징적인 병행법이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 (2) 병행법에는 동의적, 반의적, 종합적 병행법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거의 반의적 병행법이 사용되어졌다(참조, 서론 ㉠ 10).
- (3) 이 반의적 병행법은 한 사상(思想)을 반대의 것과 대조시킴으로 그 뜻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나게 하여 전달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참조, 15:19; 시 1:6).

3. **㉠ 지혜로운 아들은 어떤 자와 대조(對照)되는가? (1절)**

- ㉠** (1) 지혜로운 아들은 미련한 아들과 대조된다.
- (2) 그런데 본절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자이고, 미련한 아들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무시하고 자의(自意)로 제 길을 가는 자이다.
- (3) 이러한 두 부류의 인생은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모든 인생이 각각 속해 있는 그러한 삶의 양식을 대표하고 있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참으로 자기가 어떤 자인가를 살펴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

4. **㉠ 왜 자녀들은 지혜롭고, 선하게 살도록 하는 부모의 선한 교육에 맞추어 살아가야 하는가? (1절)**

- ㉠** (1) 그것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슬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 (2)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道理)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도리에 근거하여 나타나야 할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덕목(德目)이다.
- (3)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일지라도 그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를 잘 봉양(奉養)한다.
- (4)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아는 자들이 부모의 선한 교육에 순종하는 일은 신앙 생활의 제 1보이다.
- (5) 더구나 부모를 순종하는 길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축복이 있으니(참조, 출 20:12; 엡 6:2, 3) 믿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그 길을 기쁘게 가야 한다.

5. **㉠ 불의(不義)의 재물은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가? (2절)**

- ㉠** (1) 불의의 재물은 그 소유자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
- (2)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세대에서는 어떻게든지 돈만 많이 모으면 되는 양 많은 사람을 속이고, 수탈(收奪)하여 재물 모으기에 혈안(血眼)이 되어 있는 자들이 많다.
- (3) 결국 이런 자들은 그 불의한 재물이 물거품처럼 없어지는 것과 같이 그 온 인격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참조, 왕상 21:17-24; 마 27:5).

6. **㉠ 사람을 죽음에서 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2절)**

- ㉠** (1) 그것은 의리(義理)이다. 그런데 이 의리는 남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것을 딱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참조, 신 24:3)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을 변치 않고 행하는 신앙인의 태도와 자세를 말한다.
- (2) 이러한 의리로 목숨을 건진 자들의 예는 너무도 많다. 즉 요셉, 다니엘, 그의 세 친구

등 성경에 나타나는 신앙의 인물들은 모두 이런 의리의 사나이였다(참조, 히11:1-40).

- (3) 더우기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신 의리의 사람이었다(참조, 빌 2:8).
- (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셔서 죽음이 그를 이기지 못하도록 죽음에서 완전하게 건지셨다.
- (5) 본질의 말씀은 이런 능력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으로 그 결과가 확실하고 성도들이 믿기에 충분하다(참조, 요 5:25; 딤후전 6:12).

7. **㉠ 의인의 영혼이 주리지 않고, 악인의 소욕(所欲)이 물리쳐지는 이유는 무엇인가?(3절)**

- ㉠** (1) 물론 의인도 배고픈 경험을 할 때가 있으나 그는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끊이지 않아 영혼이 주리지 않는다(참조, 시 23:1-3).
- (2) 그러나 악인은 잠깐의 영화를 누릴 수는 있지만 그것은 풀의 꽃과 같이 곧 시들어 버리고 만다.
- (3)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불의를 심판하시고 의인을 돌보아 주시기 때문이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그분의 뜻을 받들어 악을 버리고 의(義)의 편에 서야 한다.

8. **㉠ 가난한 것과 부한 것은 무엇의 결과인가? (4절)**

- ㉠** (1) 빈부(貧富)는 대체로 본인이 부지런하느냐 아니면 게으르고 나태하느냐의 결과로 말미암게 된다.
- (2)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의 세계에 세운 큰 원칙이다.
- (3) 그러므로 성도들이라고 해서 특별나게 다른 기적이 임하리라고 기대하여 잘못된 욕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
- (4) 오히려 성도는 더욱 수고하고 또 자기가 정당하게 노력한 만큼 소유하고 그것을 선을 위해서 지혜롭게 활용해야 한다.

9. **㉠ 그러면 구조적(構造的)인 빈부의 격차(隔差)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4절)**

- ㉠** (1)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반 법칙에 의하면 마땅히 노력하는 자에게 그만큼 대가가 지불되는 것이 옳다.
- (2) 그러나 오늘날 한 국가 안에서 계층간의 경제적인 불균형과 편재(偏在) 현상은 도저히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고 더구나 세계적으로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격차는 너무나 심각한 것이 되었다.
- (3) 이런 것은 최악의 결과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도라면 이러한 불균형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0. **㉠ 어떻게 하면 정당한 부(富)를 얻을 수 있는가? (5절)**

- ㉠** (1) 정당한 부는 하나님이 내신 일반적인 법칙에 주의하여 노력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 (2) 즉 본질에서 '여름에 거둔다'는 것은 추수 절기에 적합한 때에 추수를 한다는 뜻이다(참조, 출 34:22).
- (3)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일반 법칙에 주의하여 시간을 아끼고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정당한 부를 얻게 된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당신께서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세상에서 그 내신 법칙을 잘 순종함으로 정당한 부를 소유하는 것을 기뻐하신다(참조, 고후 9:6-9; 갈 6:7).

11. **㉠ 의인과 악인은 그 사후에 어떤 결과를 남기게 되는가? (7절)**

- ㉠** (1) 의인이 걸어간 자취는 칭찬을 받고 후세의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지만(참조, 히 13:7) 악인의 행적은 평상시엔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사후엔 그 악명이 공개되므로 썩어져 냄새를 피우게 된다.

- (2) 이와 같이 의인의 길은 이생과 내세에서 견고하게 되지만 악인은 망하게 되고 만다.
12. **㉠** 그 걸음이 평안하여 그 길에서 거칠 것이 없는 자는 누구인가? (9절)
- ㉠** (1) 그는 바른길로 행하는 자이다. 즉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을 따라 정당하고 의로운 생활을 하는 자이다.
- (2) 이런 자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내적으로 평안하고 또 고생 중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요동치 않고 의의 길을 감으로 의가 주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
- (3) 그러나 의를 피하여 일시적인 평안을 따라 굽은 길로 가는 자는 마침내 그 불의가 밝혀지고 만다(참조, 함 2:9-11; 담전 5:24, 25).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의 길을 가야 한다(참조, 마 10:16; 막 10:15).
13. **㉠** 눈짓하는 자는 어떤 자들을 가리키고 그들은 어떤 일들을 야기시키는가? (10절)
- ㉠** (1) 본문에서 '눈짓하는 자'란 간계(奸計)와 공모(共謀)로 악을 꾸미되 은밀히 작당하는 자를 가리킨다(참조, 6:13).
- (2) 이렇게 작당하여 범죄하는 자들은 불가피하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는 자들이다(참조, 롬 2:8; 갈 5:20, 21).
- (3) 그러므로 이들은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들을 야기시킴으로 사람들을 근심하게 만든다.
- (4) 그러나 성도들은 바른 것을 보며 앞을 곧게 살펴서 거짓과 음모를 멀리하고 모든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참조, 4:25; 마 5:9).
14. **㉠** 미움과 사랑은 각각 어떤 일을 만드는가? (12절)
- ㉠** (1)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고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 (2) 즉 미워하는 마음은 상대방에 대해 좁은 마음과 비뚤어진 마음을 가지게 하므로 매사에 트집을 잡게 한다.
- (3)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은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함으로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떠벌리지 않고 조용히 해결토록 한다.
- (4) 더우기 사랑하는 자는 그 영혼의 가치를 알므로 허물을 용서하여 주며 그가 바르게 서도록 기도한다(참조, 고전 13:4; 벧전 4:7, 8).
- (5) 성도들은 형제의 허물을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예수의 말씀을(눅 17:4)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한다.
15. **㉠** 부자의 재물은 소유한 자에게 무슨 역할을 하는가? (15절)
- ㉠** (1) 본문에서 말하는 부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를 소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여 정당하게 부를 획득한 자이다(참조, 4, 5절).
- (2)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부가 현세적으로 의로운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되었다(참조, 신 28:6).
- (3) 그리하여 이런 부는 하나님이 그의 의를 인정해 주시는 견고한 성과 같은 역할을 했다.
16. **㉠** 인간의 수고는 모두 동일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가? (16절)
- ㉠** (1) 그렇지 않다. 인간의 수고는 의인과 악인의 수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결과는 각기 다르다.
- (2) 즉 인생으로서 그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을 섬기며 바르게 산 자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
- (3) 그러나 악인은 인생의 본분인 하나님 섬기는 것을 도외시하고 자기만을 위하여 일하기에 아무리 수고하더라도 그 결과는 죄를 쌓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참조, 고전 16:22).
17. **㉠** 의인의 혀는 무엇과 같은가? (20절)
- ㉠** (1) 의인의 혀는 천은, 즉 불로 정열케 된 순은(純銀)과 같다.

92 잠언 10장

- (2) 그런데 야고보서에 의하면 혀는 지극히 길들이기 어려운 몸의 지체로 묘사되어 있다 (참조, 약3:1-12).
- (3) 이러한 중에도 의인의 혀가 그렇게 순결할 수 있는 것은 흙 도가니에 일곱 번, 즉 완전히 단련한 은과 같이 순결하기 그지없는 하나님의 말씀(시 12:6)이 그의 심중에 있어 그의 혀를 주장하기 때문이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 혀가 순결한 자들이라고 불려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마음을 지배하여 필요 적절한 말씀만을 하도록 훈련에 훈련을 거듭해야 한다.

18. **㉠** 미련한 자는 무엇 때문에 죽게 되는가?(21절)

- ㉠** (1) 미련한 자는 지식(知識)이 없기 때문에 죽게 된다.
- (2) 여기서 미련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할 인생의 본분(本分)을 거부하고 완고하게 자기 좋을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이므로 비록 그가 세상적으로는 많은 학식을 가진 자라도 그는 지식 없는 자이다(참조, 1:7).
- (3) 따라서 그는 생명에 이르는 지식이 없어서 죽는 것이고 그것은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참조, 호 4:6; 요일 1:1).

19. **㉠** 회리바람이 닥칠 때 의인과 악인은 각기 어떻게 되는가? (25절)

- ㉠** (1) 본절에서 회리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폭풍을 말하며 이 심판이 임할 때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견고하여 남게 된다.
- (2) 이것은 예수께서 하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광풍이 몰아칠 때 무너지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참조, 마 7:24-27)는 말씀과 연결된다.
- (3)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공정하시고 엄격한 심판을 생각하고 견고한 의인의 길로 행하여 평안을 누리자.

20. **㉠** 게으른 자는 부리는 사람에게 무엇과 같은가? (26절)

- ㉠** (1)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이를 시게 하는 초와 눈을 맵게 하는 연기 같다.
- (2) 왜냐하면 게으른 자는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미루고 부실하게 행하므로 그를 부리는 사람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 (3) 예수님도 비유 가운데서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게으름으로 그가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으므로 그 주인에게 책망받은 사실을 말하고 있다(참조, 마 25:24-30).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부지런히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참조, 롬 12:11).

21. **㉠** 27-30절 부분에서 다시 언급하고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 ㉠** (1) 이 부분에서 지혜자는 다시 ‘의인’과 ‘악인’의 결국을 대조함으로써 의인의 길을 가도록 교훈하고 있다.
- (2) 즉 의인-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도(道)를 행하는 자-은 장수하며(27절), 그가 가지는 소망은 즐거움을 이룬다(28절).
- (3) 또한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므로 영원한 안전을 누리게 된다(29, 30절).
- (4) 반면에 악인-하나님 경외하기를 버리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은 수명이 짧고(27절) 아무리 소망을 품어도 죽음으로 끝나며(28절)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된다(30절).

제11장 의인은 그 이웃을 기쁘게 한다

단락구분 1-8 정직한 자는 의롭게 살아 구원을 받는다 / 9-15 의인은 그 이웃을 멸시하지 않는다 / 16-31 의인의 보상은 확실하다

- 1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어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 2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 3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케 하느니라
- 4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면케 하느니라
- 5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 6 정직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사특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 7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 소망이 없었느니라
- 8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 9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 10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 11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 12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 13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 14 도량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 15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 16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 17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 18 악인의 샅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 19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 20 마음이 패려한 자는 여호와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 21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 22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 23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 24 흠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 25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 26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 27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 28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 29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 30 의인의 열매는 생명 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 31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오

1. Q 본장의 사상(思想)은 대체로 어느 성경의 사상과 유사한가?

A (1) 본장은 주로 이웃과의 교제에서 의를 나타내라는 교훈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그리하여 대부분이 자비한 행위와 잔인하고 완악한 행위를 대조하고 있고, 그 외에 모략에 대하여(14절), 보증을 경계함에 대하여(15절), 여인의 인자하고 정숙함에 대하여(16, 22절) 취급하고 있다.

(3) 그리고 사상적인 면에서는 의인의 상이 확실하고 악인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남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상은 시편의 사상과 유사하다(참조, 시 49:14, 15).

2. **㉠ 여호와께서는 어떤 추를 기뻐하시는가? (1절)**

㉠ (1) 여호와께서는 공평(公平)한 추를 기뻐하신다.

(2)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公義)의 주(主)로서 인간 사회를 공의로 다스리시기 때문이다.

(3) 또한 그 공의에 의하여 인생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4)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실생활에서 공의(公義)를 좋아하고 공의 실행하기를 즐겨해야 한다.

3. **㉠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저울은 어떤 것인가? (1절)**

㉠ (1) 여호와께서는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신다.

(2)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이미 레 19:35, 36; 신 25:13, 14 등에서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었다.

(3) 그리하여 표준이 되는 추와 계량기가 성전에 비치되어 있기까지 했다(참조, 출 30:13; 레 27:25; 대상 23:29).

(4)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런 명령이 완전하게 지켜지지 않았다.

(5) 그리하여 선지자들은 이러한 죄를 통렬히 비난하였는데(참조, 겔 45:10; 암 8:5; 미 6:11)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런 뜻을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성찰(省察)해야 한다.

4. **㉠ 교만한 자에게 결국 찾아오는 것은 무엇인가? (2절)**

㉠ (1) 교만한 자, 즉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자기 과신에 빠져 있는 자에게는 결국 치욕이 찾아오게 된다.

(2) 왜냐하면 그들은 진실보다는 허위와 가식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고 스스로를 높이기 때문이다.

(3) 그러므로 예수님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눅 14:11)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전 10:12)고 말하였다.

5. **㉠ '겸손한 자'란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말인가? (2절)**

㉠ (1) '겸손한 자'란 단순히 남에게 비굴할 정도로 자신을 낮추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위치를 올바르게 깨닫고 자신이 맡은 바를 성실히 수행해 가는 자를 가리킨다(참조, 롬 12:3).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자들의 대표이시다(빌 2:6-8).

(2) 이러한 자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자기를 지으신 분임을 알고 피조된 인생의 위치를 바로 알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자이다.

(3) 그러면서도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돌린다.

(4) 이렇게 볼 때 겸손한 자는 결국 지혜로운 자임을 알 수 있다.

6. **㉠ 악인의 소망은 언제 끊어지게 되는가? (7절)**

㉠ (1) 악인의 소망은 그가 죽을 때 끊어지게 된다.

(2) 악인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만사(萬事)를 자기 중심으로 경영해 가는 자이다.

(3) 그러므로 그의 소망 역시 인간의 생사 화복(生死禍福)을 좌우하시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이기적인 것이 되어 그가 세상에서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은 그 소망이 유지되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취하시면 그 소망도 끝나게 된다.

(4) 그러나 성도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소망이 아니고, 죽음이 능히 끊을 수 없는 참된 소망을 가지고 있다(참조, 롬 8:24, 25, 38, 39).

7. **㉠** 의인이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그 의인을 대신하여 형벌 받은 대표적인 예를 들어라 (8절).

- ㉠** (1) 첫째는 바벨론에서 총리가 된 다니엘을 모함하던 자들이 다니엘 대신 사자굴에 던져져 사자 밥이 된 경우다(참조, 단6:24).
 (2) 둘째는 수산 성(城)에서 하만이 모르드개를 모함하다가 자기가 그 장대에 달려 죽임을 당한 경우다(참조, 에7:10).
 (3)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의로운 그의 백성들을 친히 보살피 주심을 강력하게 증거한다.
 (4) 그러므로 성도들은 환난 중에도 마땅히 그 성도를 돌보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

8. **㉠** 사특(邪惡)한 자는 이웃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가? (9절)

- ㉠** (1) 사특한 자는 진실을 왜곡하고 고의로 거짓을 말하므로 이웃을 망하게 한다.
 (2) 이런 사특한 자의 조상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인 마귀이다(참조, 요8:44).
 (3) 사실 모든 인간은 이 사특한 자의 해를 입어서 어두움 속에 있다.
 (4)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지혜(시 119:105)를 부여받은 의인은 그런 거짓된 일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
 (5) 여기서 성도들은 사특한 자의 미혹을 능히 이기게 하는 진리의 지식이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한다.

9. **㉠** 사람들은 의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패망하는 것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10절)

- ㉠** (1) 사람들은 의인이 형통하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친다.
 (2) 물론 소수이긴 하지만 의인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경건한 자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방해하는 자들도 있다.
 (3) 그러나 신앙에 무관심한 일반 대중들조차도 의로운 사람이 형통하길 바라지 악한 자가 잘되기를 원치는 않는다.
 (4) 이러한 일반인들의 심정에서 역시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결국은 의가 악을 물리치고 승리할 것임도 확인할 수 있다.

10. **㉠** 세상 나라에서 언론(言論)이 바른말을 못 하게 되면 그 나라는 결국 어떻게 되고 마는가? (11절)

- ㉠** (1) 언론이 바른말을 못 하고 정치와 결탁하여 정치의 시녀가 되면 그 나라는 결국 그 악한 언론에 의하여 무너지고 만다.
 (2) 왜냐하면 언론은 진실을 알리고 그 진실에 의하여 백성들을 바르고 의로운 길로 나아가게 할 책임이 있는데 오히려 악한 언론은 그 반대의 길로 감으로 불의와 부패를 조장하여 나라를 썩게 만들기 때문이다.
 (3) 그러므로 언론은 악한 자의 입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직한 자의 입이 되어야 한다.

11. **㉠** 지혜 없는 자는 어떻게 그 이웃을 멸시하는가? (12, 13절)

- ㉠** (1) 지혜 없는 자는 두루 다니며 재잘거리고 수군거리고 증상함으로(참조, 레19:16) 남의 비밀을 누설(漏洩)하여 그 이웃을 멸시한다.
 (2) 이러한 멸시는 고의적인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말이 많기 때문에 생기게 된다.
 (3) 성도들의 교제 속에 혹시 이러한 지혜 없는 일이 없지나 않은지 주의하며 살펴보고 서로 말조심해야 한다.

12. **㉠** 명철한 자는 어떻게 이웃을 멸시하는 일을 피하는가? (12, 13절)

- ㉠** (1) 명철한 자, 즉 마음이 신실(信實)한 자는 남을 정죄하는 일이나 해치는 일에 대해 잠잠하고 오히려 일이나 남의 허물을 진정한 사랑으로 덮어 주며 숨겨 주므로 이웃을 멸시

하는 일에서 피한다.

- (2) 이것은 불의를 보고서도 용기가 없어서 피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름을 잘 이해해야 한다.
- (3) 만약 이웃이 사망에 빠지는 불의와 죄악을 행하는 데도 잠잠하기만 한다면 그는 그 이웃을 진정으로 멸시하는 자이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마음이 신실한 자로서 이웃을 멸시하는 일은 피하되 진정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충고를 피해서는 안 된다(참조, 딤후 2:4, 16, 23-26).

13. ㉠ 나라가 평안하려면 어떤 사람이 많아야 하는가? (14절)

- ㉠ (1) 나라가 평안하려면 모사(謀士)가 많아야 한다.
- (2) 이러한 모사(謀士)는 당면한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자들이므로 사태가 위급해지기 전에 먼저 손을 써서 사태를 막고 또 예방하는 일을 하게 된다.
- (3) 따라서 이러한 모사가 많으면 나라는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평안을 유지하게 된다.
- (4) 성도들은 한 국가의 성원으로서 이런 진리를 체험하겠지만 더우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만 백성의 모사들을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난 예수님이 우리의 모사가 되시므로 우리가 평안을 누림을 깨달아야 한다(참조, 사 9:6).

14. ㉠ 유덕(有德)한 여자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16절)

- ㉠ (1) 유덕(有德)한 여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31:30) 속사람을 단장하는 여자인데(참조, 벰전 3:3,4) 이런 여자는 존귀히 여김과 칭찬을 얻게 된다.
- (2) 성경은 이러한 덕이 있는 여자들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여 그들이 존귀히 여김과 칭찬 얻은 것을 증거하고 있다.
- (3) 예를 들면 드보라(삿 4:4-11), 룻(룻 1:4), 한나(삼상 1:5), 에스더(에 3:5), 다비다(행 9:36), 뵤뵤(롬 16:1), 로이스와 유니게(딤후 1:5) 등 그 예가 많다.
- (4) 그러므로 칭찬을 얻고자 하는 여인마다 외모를 꾸미기에 앞서 여호와를 경외하여 속사람을 단장해야 한다.

15. ㉠ 18-21절에서 악인과 의인의 종말은 어떻게 대조되고 있는가?

- ㉠ (1) 먼저 악인의 그 삶이 허무하고(18절) 사망에 이르며(19절) 여호와와 미움을 받으며(20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한다(21절).
- (2) 반면에 의인은 그 뿌린 피의 상이 확실하며(18절) 생명에 이르며(19절) 온전한 행위에 대한 여호와와 기뻐하심을 받으며(20절) 그의 자손이 구원을 얻게 된다(21절).
- (3) 이런 현격한 사실을 만민이 알도록 가르쳐 주고 있는데도 여전히 악한 자는 여호와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듯이 행한다.
- (4)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이런 말씀을 듣고 인생의 결국을 생각하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의인의 삶을 산다.

16. ㉠ 돼지 코에 걸린 금고리에 비유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22절)

- ㉠ (1) 그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서도 품행이 단정치 못한 여인이다.
- (2) 본래 육체적인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매우 가치 있는 것이다.
- (3) 그러나 이러한 아름다움이 놓여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서 욕정을 가속화하는 매개물이 될 때 그것은 추잡한 것이 되고 만다.
- (4) 그러므로 아름다움을 부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름다움을 바르게 잘 간직하고 관리하는 일이 더 중요함을 명심해야 한다.

17. ㉠ 무조건 아끼기만 하면 부는 축적(蓄積)되는가? (24절)

- ㉠ (1) 부는 수입을 아껴서 모으려고 할 때 생기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부를 모은다고 하여서 써야 할 긴급하고 필수적인 곳에 쓰지 않고 아끼기만 한다고 부가 축적되